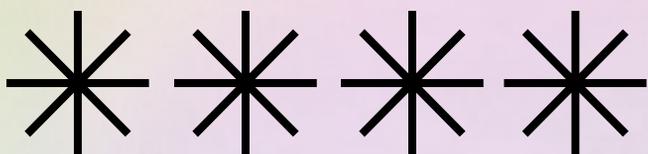


예술활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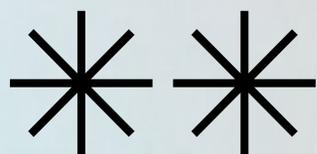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예술의 사회적 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 예술의 사회적 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 예술의 사회적 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연구 기획·총괄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책임연구자 라도삼

모더레이터 안영노

공동연구자 장대철

공동연구자 이병민

공동연구자 백선희

공동연구자 김종길

I.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란?	009
I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015
2. 용어의 정의	018
3. 연구의 제한점	019
4. 연구 범위	020
5. 연구 흐름 및 방법	022
6. 연구 사례 수집 및 선정	024
7. 라운드테이블 기획과 구성	029
III.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1. 사회혁신 분야	035
(1) 라운드테이블 개요	037
(2)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	039
아트브릿지	039
극단 날으는 자동차	042
‘ ’ (작은따옴표)	046
베네프트	050
OOO간	053
결애	057
문화프로덕션 도모	060
위누	063
캔파운데이션	066
마리몬드	069
(3) 결과 정리 및 시사점	072
2. 지역활동 분야	075
(1) 라운드테이블 개요	077
(2)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	079
공간 사일삼	079

어반플레이	084
동대문 옥상낙원 DRP	087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장	090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094
동네형들	098
무소속연구소	102
더 페이퍼(골목잡지 사이다)	105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108
결애/구로문화재단(가리봉봉 아트)	111
(3) 결과 정리 및 시사점	114
3. 일상창작 분야	117
(1) 라운드테이블 개요	119
(2)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	121
OOO간	121
공도창공 수동	126
릴리콤	131
리마크프레스(이문238)	134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137
수리수리협동조합	140
오늘공작소	143
일상예술창작센터	146
적정기술공방	150
큰언니네부엌	153
(3) 결과 정리 및 시사점	157
4. 교육/치유 분야	163
(1) 라운드테이블 개요	165
(2)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	167
창작그룹 비기자	167
자바르떼	171
응용연극단체 문	175
우리들의 눈	178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182

그림마음연구소	186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190
예술에 기대다, 린 협동조합	193
달꽃창작소	196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멘	119
(3) 결과 정리 및 시사점	203
5. 사회행동 분야	209
(1) 라운드테이블 개요	211
(2)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	213
콜트콜텍+문화행동	213
용산참사 파견미술	221
보리출판사(평화발자국)	229
세월호 사진 아카이브/아이들의 빈 방	233
6.9작가선언	237
리슨투더시티(내성천 친구들, 옥바라지 골목 보존운동)	240
청년예술가네트워크(한일협상무효 수요 예술행동)	244
두리반 51+	247
(3) 결과 정리 및 시사점	250

IV.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결과 분석

1. 흐름과 특징	255
2. 개념 및 유형화	272
3. 정책적 시사점	279

V. 결론

1. 연구의 요약과 결론	287
2.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의미와 정책방향	289

부록

〈부록1〉 예술의 사회적 개입 심층 연구 기초 목록 60선	295
〈부록2〉 예술의 사회적 활동 추세와 동향	315
〈부록3〉 예술의 사회적 활동 특색은 무엇인가	365
〈부록4〉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규정 및 유형화	371
〈부록5〉 예술의 사회적 활동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383

예술의

○○○

사회적

활동이란?

○○○○?

- 본 연구에서는 예술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의도하는, 혹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다변화된 예술활동의 양태들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예술활동들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 지칭한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연구 시작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새로운 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그 정의는 아래와 같다.

작가 개인의 산출물로 관객이 관람하는 예술이 아니라,
 집단과 지역, 사회, 개인 속에 작용하여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변화 유발자로서 예술.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작가와 대상이 참여하는 공동의 협력 과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관람이 아닌 체험과 실천을 통해 공진화하는 예술.

- 본 연구 보고는 연구 진행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하여 그 흐름에 맞게 ‘예술의 사회적 활동’과 ‘새로운 예술’을 동시에 사용하였으며, 용어 사용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연구 개요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최근 들어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최고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치한 일상에서 각자가 지닌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다. 즉 지금 시대에는 삶의 모습들이 다양각색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본인이 속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려 한다. 특히 촛불혁명은 그 분기점이 되었다.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가되는 다양한 가치는 더욱더 시민들이 이 사회의 주체임을 인지시키고 있다.
- 한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 노령화, 청년실업, 빈부격차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문제들이 여러 층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눈여겨보는 다양한 시선들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사실의 공유, 비판적 접근, 나아가 완화와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들을 시도하기도 한다. 예술현장을 살펴보자면,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역재생 등 여러 정책 분야와 어우러져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 또한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대비하기 위한 하이테크놀로지 기반의 제작문화/메이커문화(스마트폰 앱, 로봇, 드론코딩, 3D프린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와 예술의 융합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보다 밀접하게 결부되어 예술활동도 다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회 이슈 및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예술활동들을 일컬어 ‘사회적 예술’, ‘소셜아트(social ar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 대한 의견과 해석이 분분하고 정의나 개념이 합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혹은 사회적 가치 확장에 대한 연구 및 논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문화예술계 내 사회 이슈 및 현상에 대한 대응, 담론 형성, 사회적 의제 발굴의 필요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지원제도 내에서도 기존 작품 중심 창작이나 콘텐츠 문화산업의 관점으로는 온전하게 가치를 인정받기 힘든 타 영역(지역, 복지, 산업 등)과의 융합을 통한 실험적인 예술활동 시도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기존 지원제도의 대상과 영역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 본 연구에 앞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예술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의도하는, 혹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다양한 예술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해 왔다.
- 우선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재단 내부 조직재편을 통한 노력을 해왔으며, 본 연구 대상에 대한 영역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시민문화팀(2012~2015년) → 공공예술센터(2015~2016년) → 지역문화팀(2017년~)으로 조직 형태를 변화해 왔다.
- 지난 2년간(2015~2016년) 문화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소위원회(2015년은 '예술과 사회', 2016년은 '사회(적)예술') 차원에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 및 가치에 대한 정책적 의견 수렴 및 공유 차원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본 연구의 기초적인 논의점이 도출될 수 있었다.
- 지난 2년간 소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중 주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장과 정책(이론) 혹은 일반 시민, 예술가, 전문가 사이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간격이 존재한다.
 - 전문가 사이에서 '사회적 예술'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는 채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합의가 필요하다.
 - 정확히 명명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층위에서 사회적 예술활동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화해야 할 시점이다.
 - 문화예술계 내에서도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적 의제들을 발굴해야 하며, 시대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예술의 가치 확장 가능성을 그려 낼 수 있어야 한다.

○ 연구 목적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서울문화재단은 본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예술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의도하는, 혹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다변화된 예술활동에 대해 주목하려 하였다.
 - 이러한 예술활동들은 어떠한 계기, 태동, 발전, 확산, 어려움 등의 요인이 있었는가,
 - 이러한 예술활동들의 양상을 묶어 내는 언어화(개념화)가 가능한가,
 - 보다 세밀한 접근을 위한 활동의 분류(범주화)가 가능한가,
 - 이러한 활동들이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가,등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시작되는 연구를 추진하려 하였다.
- 지금까지 사회적 실천과 연계되는 다변화된 예술활동에 대해 국내에서 폭넓게 연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현장 이야기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기초적인 분석을 담을 예정이며, 향후 심층 연구를 준비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이는 기존 예술활동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예술이 사회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어떠한 지점에 주목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 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 이번 연구는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경과적 과정으로 접근하려는 시작점이다. 연구 보고에 이어 향후 예술 현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문가 토론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술이 서울 곳곳의 다양한 지역과 사회에 보다 밀접하게 관계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다양한 양상과 연결될 수 있음을 공유하려 한다.
- 나아가 사회적 예술활동 생태계를 조성하여 활동 주체들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층위의 담론을 형성하여 향후 재단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려 한다.

2. 용어의 정의

○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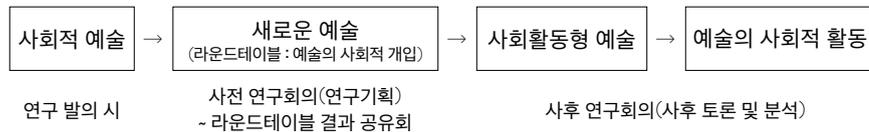
- ‘사회적 예술’ 혹은 ‘예술의 사회적 개입’에서 ‘사회적’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계에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기존 민중미술 혹은 사회주의 예술로 오해되거나, 혹은 용어에 대한 선입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회적’ 용어에 대한 뉘앙스 예시〉

-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즐기거나,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는
-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을 갖는
- 사회주의의, 사회운동의, (민중)문화운동의

- 이에 사전 연구회의를 통해 연구 진행 과정에서는 ‘사회적 예술’이라는 용어 대신 ‘새로운 예술’을 잠정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후반부 연구회의(라운드테이블 분석 및 토론)를 통해 다시 ‘예술의 사회적 활동’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용어 사용의 흐름〉



- 잠정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새로운 예술’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작가 개인의 산출물로 관객이 관람하는 예술이 아니라,
 집단과 지역, 사회, 개인 속에 작용하여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변화 유발자로서 예술.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작가와 대상이 참여하는 공동의 협력 과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관람이 아닌 체험과 실천을 통해 공진화하는 예술.

3. 연구의 제한점

○ 연구의 제한점

- 이러한 ‘새로운 예술’에 대한 잠정적 정의에 따라, 본 연구 대상에서는 ‘작품으로서의 예술’, ‘개인적 예술’, ‘전시장 예술’, ‘공공미술’은 제외시켰다.
- 이번 연구에서는 새로운 예술활동의 경향성이 어떠한지, 예술이 사회와 결합하는 여러 양상들을 어느 지점에서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분석을 담아내려 했으나, 이런 활동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거나 범주화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재단의 역할 및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상 설문, 토론 등을 통해 논의를 심화시킬 예정이다.

4. 연구 범위

○ 연구 범위

— 잠정적으로 규정한 연구 대상의 분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구 대상 분류>

사회혁신으로서 예술	지역외의 사회(조직, 기관 포함)에 개입하여 그것의 혁신을 목적으로 행하는 예술활동 ¹
지역활동으로서 예술	지역에 개입하여 지역을 재생하거나 혁신할 목적으로 행하는 예술활동
일상창작으로서 예술	메이커문화 등 일상생활에 개입하여 생활혁신이나 창작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
교육과 치유로서 예술	개인의 삶 및 개인의 집합으로서 공동체 차원에서 예술기반 교육이나 심리치유를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 ²
사회행동으로서 예술	사회참여나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

1. 기업 활동, 경제적 활동을 통해 혁신을 목적으로 행하는 예술활동을 위주로 파악함.(이때 '경제적' 활동이란 단순히 '돈을 번다.'가 아닌, 교환적인 가치를 만족하기 위한 행동으로 간주함)
 2. 기존 생활예술로 분류한 것으로, 생활예술로 분류할 경우 일반 동호회 활동을 다수 포괄할 수 있어 일상창작 활동으로 분류함.

— 연구 대상의 분류는 연구 발의 시부터 연구 기획회의를 통한 합의 과정까지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걸쳐 변경되었으며, 그 변경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분류(안) 변경과정>

연구 초기계획	연구발의	연구 기획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자본/서비스)	사회혁신으로서 예술 (사회: social impact)	사회혁신 (사회를 바꾸는 예술활동)	사회혁신으로서 예술 : 지역 외의 사회(조직, 기관 포함)에 개입하여 그것의 혁신을 목적으로 행하는 예술활동
도시변화 (도시문화변화)	지역, 도시재생	지역재생으로서 예술 (지역: urban regeneration)	지역 (지역에 영향력 있는 예술활동)	지역활동으로서 예술 : 지역에 개입하여 지역을 재생하거나 혁신할 목적으로 행하는 예술활동
생활예술, 커뮤니티아트, 참여예술 (마을, 지역사회)	메이커문화, 생활예술	일상창작으로서 예술 (일상: makers culture)	일상창작 (제작문화를 통해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끄는 예술활동)	일상창작으로서 예술 : 메이커 문화 등 일상생활에 개입하여 생활혁신이나 창작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
메이커(제작)문화, 기술혁명				
예술교육 (개인 삶의 변화)	예술교육, 예술치유	교육과 치유로서 예술 (개인정서: healing art)	교육/치유 (정신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예술활동)	교육과 치유로서 예술 : 개인의 삶 및 개인의 집합으로서 공동체 차원에서 예술 기반 교육이나 심리치유를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
행동예술, 파견예술	행동예술	사회행동으로서의 예술 (사회운동으로 발전-연계되는 예술활동: movement)	사회행동 (문제를 제기하는 액션)	사회행동으로서 예술 : 사회참여나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
공공예술	-	-	-	-

— 분류는 각 유형별 겹치는 대상에 대한 혼돈을 없애기 위해 배타성을 갖도록 하되, 특정 영역이 배제되고 제외되지 않도록 접근하였다.

— 단 위의 분류는 연구 운영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가설적 제안으로서, 그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직관적일 수 있으므로, 라운드테이블 결과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진 간 합의하였다.

5. 연구 흐름 및 방법

○ 연구 흐름

- 연구 관련 자문회의 및 간담회는 4월부터 8월에 걸쳐 총 13회 진행, 총 14명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초기 연구 기획안을 설계했다.
- 본 연구는 크게 연구 회의(사전 기획, 중간 점검, 사후 토론)와 주제별 라운드테이블(심층 인터뷰)의 두 트랙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흐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구 흐름>

	자문회의 및 기초 조사			
연구회의	사전 연구 기획	중간 점검	사후 토론 및 분석	
라운드 테이블		유형별 라운드테이블 10회(다섯 분야×2회)	라운드테이블 결과 공유회 1회	
		유형별 분석 보고	종합 연구 보고	

[연구 설계 과정]

[라운드테이블 진행 및 결과]

[종합 분석]

- 먼저 사전 연구 기획회의를 통해 연구진 간 토론 및 협의를 거쳐 연구의 목표, 범위, 방법, 사례 선정 기준 등을 정하였다.
- 다음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유형별 주요 현장 사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활동 주체들에게 어떤 동기로 활동을 시작했는지, 현장에서 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실행 과정에서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으며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각각 활동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으며, 어떻게 그 영향력을 확산시켰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었다.
- 이후 라운드테이블에 관찰자로 참여했던 연구자들에 의해 각자 담당한 유형별 개념 및 주요 동향, 현황과 특징, 발전 방향과 주요 의제 등으로 분석한 유형별 라운드테이블 분석 보고가 도출되었다.
- 결론적으로 유형별 분석 보고를 토대로 연구진 간 토론 및 종합 분석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흐름과 특징, 개념 및 유형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몇몇 정책 전문가 혹은 이론가로부터 나온 가설을 연역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귀납적으로 끌어가는 연구 형태였다. 말하자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었다.
- 해외에서도 예술의 사회적 영향 혹은 개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셜아트(social art), 소셜임팩트(social impact)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맞게 국내에서 전개되고 나타나는, 우리만의 고유한 사회적 예술활동의 모습도 지니고 있을 것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책 토론회에서 간과했는지 모를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장 목소리에 주목하려 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예술활동 양태에서 주요 현상들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심화시키려 하였다.
- 이러한 관점에서 귀납적 연구를 기본 원칙으로 하였고, 진행 과정상 세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 우선 초기에 닫힌 구조로 연구 틀을 확정 짓기보다 유연하게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 간 토론 및 협의 장치로서 연구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라운드테이블 운영 방식, 결과 분석 방법 등에 대해 보완 및 수정을 하면서 연구 과정 전반을 운영하였다.
 - 다음으로 라운드테이블 진행 시 집단 인터뷰 형식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탐색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즉 현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하는 취지로 인터뷰 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의도적으로 끌지 않고, 활동 주체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데에 집중하였다.
 - 마지막으로 주요 흐름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6. 연구 사례 수집 및 선정

○ 사례 수집

— 사례는 2000년대 이후 활동에 주로 주목하였고,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에서 펼쳐진 내용을 대상으로 삼았다. 기초 자료는 서울문화재단 리서치 자료, 성북예술창작센터 사업, 서울 청년허브 자료집, 경기상상캠퍼스 청년창작&창업 자료, 경기문화재단 커뮤니티아트 자료집, 문화재생전략 연구자료, 기획사업 등을 활용했으나, 각 유형에 따른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하여 전국 사례를 조사하였다.

— 초기의 기초 목록화 작업은 “①사회적 경제, ②공동체 개입, ③제작문화, ④교육/치유, ⑤행동주의”로 구분해서 작성하였다. 이것은 이후 연구 대상의 분류 체계에 따른 용어 개념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고, 그에 따라 사례도 조금씩 추가 보완되었다.

— 목록화 작업은 다시 두 가지 버전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각 유형별 의제의 사례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항목은 “①단체명(예술가/활동가명), ②활동 특성, ③주요 프로젝트, ④주요 사회/문화적 순간, ⑤비고”에 따른 내용 채우기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단순하여 연구진이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의를 거쳐 분류표를 다시 작성하였다. 항목은 “①구분, ②세부 구분, ③단체명(예술가/활동가명), ④단체 정보(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페이스북 주소), ⑤단체(예술가/활동가) 소개, ⑥키워드, ⑦재단/유관기관 관련 지원사업 선정 및 활동 경력, ⑧참고 링크” 순이다.

— 둘째는 유형별 사례를 다시, “①개요(지역, 웹사이트, 이메일, 인적 구성, 규모, 분야), ②소개(주요 사회/문화적 순간), ③참고자료”의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연구진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실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온라인 기사 주소를 링크하도록 했다.

— 이러한 리서치 과정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와 아키비스트가 필수적이어서, 재단은 기초 조사 파트를 별도로 운영하였다. 기초 조사 내용이 채워지면서 연구진 논의도 심화 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고,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파악도 용이했다. 아래는 리서치 목록화 작업 과정의 파일 부분이다.

〈그림 1. 1차 리서치 목록화 파일〉

연번	단체명 (예술가/활동가명)	활동 특성	주요 프로젝트	주요 사회/문화적 순간 (2017)	기타
1	취미가	예술작품 판매 및 기획(굿즈)	취미가(서울, 2017~)	굿즈(서울, 2015), 토틀집(2016), 서울 바벨(서울, 2016), 신성공간과 예술작품 작가제 장터	
2	베리어프리영화위원회	시청각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의 영화 문화 향유,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3	한빛예술단	시각장애 음악인 연주단			
4	뿌디미플랫폼	웹진디자인너			
5	BI CPG	공연기획			
6	오븐갤러리				

〈그림 2. 2차 리서치 목록화 파일〉

연번	구분	세부 구분	단체명 (예술가/활동가명)	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페이스북 주소	단체(예술가/활동가) 소개	주요 사회/문화적 순간	기타	참고자료
1	단체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취미가	김민수	02-333-0000	naet@tastehouse.co.kr	http://www.tastehouse.co.kr	본 취미가는 예술작품 판매 및 기획(굿즈) 사업을 하는 단체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굿즈, 토틀집, 서울 바벨, 서울 바벨 장터 등이 있다. 주요 사회/문화적 순간으로는 굿즈(서울, 2015), 토틀집(2016), 서울 바벨(서울, 2016), 신성공간과 예술작품 작가제 장터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7년 하반기 1차 연구	http://www.tastehouse.co.kr/naet/naet.html
2	단체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베리어프리영화위원회	김영진	02-333-0000	naet@tastehouse.co.kr	http://www.tastehouse.co.kr	본 취미가는 예술작품 판매 및 기획(굿즈) 사업을 하는 단체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굿즈, 토틀집, 서울 바벨, 서울 바벨 장터 등이 있다. 주요 사회/문화적 순간으로는 굿즈(서울, 2015), 토틀집(2016), 서울 바벨(서울, 2016), 신성공간과 예술작품 작가제 장터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7년 하반기 1차 연구	http://www.tastehouse.co.kr/naet/naet.html
3	단체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한빛예술단	김영진			www.tastehouse.co.kr	본 취미가는 예술작품 판매 및 기획(굿즈) 사업을 하는 단체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굿즈, 토틀집, 서울 바벨, 서울 바벨 장터 등이 있다. 주요 사회/문화적 순간으로는 굿즈(서울, 2015), 토틀집(2016), 서울 바벨(서울, 2016), 신성공간과 예술작품 작가제 장터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7년 하반기 1차 연구	http://www.tastehouse.co.kr/naet/naet.html
4	단체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뿌디미플랫폼	김영진				본 취미가는 예술작품 판매 및 기획(굿즈) 사업을 하는 단체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굿즈, 토틀집, 서울 바벨, 서울 바벨 장터 등이 있다. 주요 사회/문화적 순간으로는 굿즈(서울, 2015), 토틀집(2016), 서울 바벨(서울, 2016), 신성공간과 예술작품 작가제 장터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7년 하반기 1차 연구	http://www.tastehouse.co.kr/naet/naet.html
5	단체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BI CPG	김영진	02-333-0000	naet@tastehouse.co.kr	http://www.tastehouse.co.kr	본 취미가는 예술작품 판매 및 기획(굿즈) 사업을 하는 단체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굿즈, 토틀집, 서울 바벨, 서울 바벨 장터 등이 있다. 주요 사회/문화적 순간으로는 굿즈(서울, 2015), 토틀집(2016), 서울 바벨(서울, 2016), 신성공간과 예술작품 작가제 장터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7년 하반기 1차 연구	http://www.tastehouse.co.kr/naet/naet.html
6	단체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오븐갤러리	김영진				본 취미가는 예술작품 판매 및 기획(굿즈) 사업을 하는 단체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굿즈, 토틀집, 서울 바벨, 서울 바벨 장터 등이 있다. 주요 사회/문화적 순간으로는 굿즈(서울, 2015), 토틀집(2016), 서울 바벨(서울, 2016), 신성공간과 예술작품 작가제 장터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7년 하반기 1차 연구	http://www.tastehouse.co.kr/naet/naet.html
7	단체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오븐갤러리	김영진				본 취미가는 예술작품 판매 및 기획(굿즈) 사업을 하는 단체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굿즈, 토틀집, 서울 바벨, 서울 바벨 장터 등이 있다. 주요 사회/문화적 순간으로는 굿즈(서울, 2015), 토틀집(2016), 서울 바벨(서울, 2016), 신성공간과 예술작품 작가제 장터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7년 하반기 1차 연구	http://www.tastehouse.co.kr/naet/naet.html
8	단체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오븐갤러리	김영진				본 취미가는 예술작품 판매 및 기획(굿즈) 사업을 하는 단체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굿즈, 토틀집, 서울 바벨, 서울 바벨 장터 등이 있다. 주요 사회/문화적 순간으로는 굿즈(서울, 2015), 토틀집(2016), 서울 바벨(서울, 2016), 신성공간과 예술작품 작가제 장터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7년 하반기 1차 연구	http://www.tastehouse.co.kr/naet/naet.html

1. 취미가

1) 개요

- 지역: 서울¹⁾
- 웹사이트: <http://www.taste-house.com>
- 이메일: tastehouse.info@gmail.com
- 인적 구성: 대표_권순우 | 운영_김동희, 둔선필, 박원정, 황아람 | 디자인_신신(신혜옥, 신동혁)
- 규모: 1층(쇼룸), 2층(갤러리 및 이벤트 공간, 면적 약 80㎡)
- 분야: 미술품, 디자인 상품, 굿즈, 장작을 위탁 판매 | 전시, 공연, 세미나, 토크, 교육 프로그램 기획 | 미술가 매니지먼트 | 창작자와 플랫폼 중개 | 공간 아이덴티티 기획

2) 소개:

"취미가 趣味家 Tastehouse는 '미술'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취미가는 '미술'에 대해 고민하고 수집하고 즐기고 유통하며 (중략) 작은 시작점이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틀리에, '미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작은 세계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동의 공간이 되는 것이지요. (중략) 미술에 시간과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창작자와 관객의 대화일 수도, 전시나 공연의 형태일 때도, 판매와 구매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미술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가 이어지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³⁾

3) 주요 사회·문화적 순간:

- 1)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7길 96, 101호
- 2) "굿-즈는 동시대 미술의 환경/조건에 대해 고민하는 시각예술작가들이 자신의 작업/굿-즈, 소망에 직접 에디션, 작업의 파생물 등을 직접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전시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작품들, 장 소품정체 실체나 퍼포먼스체형 형태가 없는 작업들, 기존의 아티페어가 다루지 않았던 젊은 작가들의 활동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굿-즈는 굿즈goods라는 본래의 단어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통해 현대미술이 부각한 여러 문제들을 다른 측면에서 풀어볼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기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점에서 이 행사는 작품이 제작/유통되는 방식을 참여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형식으로 해석하고 제안하는 자리이며, 자신의 작업/굿-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를 능동적으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한편, 제도 기관(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문화회관, 작가미술장터의 후원사업이기도 했다.
- 3) 굿-즈 웹사이트, 2015. http://goods2015.com/goods_01.html (접속일: 2017. 8. 31)
- 4) <http://www.taste-house.com/about> (접속일: 2017.8.30.)
- 5) 예술디자인 밀착형 편집술 - 취미가, 월간디자인, 2017.5.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iew/101/76950 (접속일: 2017.8.30.)

○ 사례 선정

- 1차 리서치 목록화 단계에서는 각 유형별로 30~40개씩 조사하였다. 그러나 사례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유형별 특성을 간과할 수 있었고, 또 연구 기간 내에 인터뷰와 라운드테이블을 전부 소화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어서 각 유형별로 12개 사례만을 집중 조사, 인터뷰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에 따라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는 인터뷰 대상자(사례)는 기초 목록 60선(2017.09.13.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각 유형별 담당 연구자들의 추천으로 최종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연구진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례 선정 원칙은 아래와 같다.
 - 개인 작업이 아닌 특정한 영역에 개입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예술적 행위로 제한하되,
 - 대상은 예술창작뿐만 아니라 문화기획 영역까지 포함한다.
 -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정리하되,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해 오는 단체 및 기관도 포함한다.
- * 단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도, 본인들(단체)의 가치와 목표를 대변하는 한두 개의 프로젝트로 접근하여 소개한다.
- 이 외에 유형별 사례 선정 시 고려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례 선정 시 고려사항>

사회혁신으로서 예술	사회적 활동의 '지속성'과 '조직화'에 중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구성하여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를 위주로 선정함.
지역활동으로서 예술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도시재생 문제와 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해당 단체의 활동 내용 및 유형, 지속성, 지역별 분배 등을 반영함.
일상창작으로서 예술	일상생활에 개입하여 생활혁신이나 창작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을 중점적으로 고려함. 동아리 활동을 제외한 특정한 활동 주체들(예술가 등)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창작 활동을 하거나 예술가 스스로 메이커 형태의 창작활동을 추구하는 사례를 선정함.
교육과 치유로서 예술	예술을 매개로 지역민, 아동, 청소년, 청년, 시니어, 독거노인, 미혼모, 새터민,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들을 만나 예술교육이나 예술치유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을 선정함.
사회행동으로서 예술	예술행동 현장에 참여해서 활동한 예술가 및 활동가로 선정하였으며, 라운드테이블에 인터뷰 대상으로 섭외 예술가들은 각 예술행동의 대표 작가로서가 아니라, 그 예술활동의 참여자이자 증언자, 목격자로서 섭외함.

— 유형별 사례 선정 흐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유형별 사례 선정 흐름>

구분	기초목록 60선	연구진 추가 발굴	최종선정사례
사회혁신1	취미가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지식순환 협동조합 빅워크	아트브릿지 극단 날으는자동차 ' ' '(작은따옴표) 베네핏	아트브릿지 극단 날으는자동차 ' ' '(작은따옴표) 베네핏
사회혁신2	빠띠/ 빠흐띠 마리몬드 세븐픽처스 달려라 피아노 닷페이스 메디아티 40000km(사만키로미터) 예술과 마을네트워크	000간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 문화프로덕션 도모 위누 캔파운데이션	000간 (중복) 결애 (중복) 문화프로덕션 도모 위누 캔파운데이션 마리몬드
지역활동1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민달팽이유니온 동네형들 성북신나 성미산마을극장	공간 사일삼 어반플레이 동대문 옥상낙원 DRP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장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	공간 사일삼 어반플레이 동대문 옥상낙원 DRP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장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지역활동2	비발기지 무소속연주소 마포FM 민들레 연극마을 재미 곧바로 책, 방(골목잡지 사이다) 논아트 발아트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 구로문화재단(가리봉봉 아트즈)	동네형들 무소속연주소 더 페이퍼(골목잡지 사이다)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 결애 (중복)/ 구로문화재단
일상창작1	옥상낙원 DRP 일상창작 → 지역 000간 릴리쿰 수리수리협동조합 엔메이크랩	리마크프레스(이문238)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일상예술창작센터 오늘공작소 큰언니네 부엌	공도창공 수동 리마크프레스(이문238)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일상예술창작센터 적정기술공방
일상창작2	00은대학연구소 천문공작실 이모저모도모소 공도창공 수공 적정기술공방 시적연산학교 서울자유지도		000간 (중복) 릴리쿰 수리수리협동조합 오늘공작소 큰언니네 부엌
교육/치유1	그림마을연구소 지구를 위한 디자인 자바르메 로사이드 김인규 교사의 미술수업	예술에 기대다, 린 협동조합 아티스트 커뮤니티 콜리나멘 달꽃창작소	창작그림 비기자 응용연극단체 문 우리들의 눈 자바르메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교육/치유2	역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응용연극단체 문 순천 기적의 놀이터(편해문)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창작그림 비기자 비닐하우스 AA(전수천) 장님코끼리 만지기=우리들의 눈		예술에 기대다, 린 협동조합 아티스트 커뮤니티 콜리나멘 달꽃창작소 그림마을연구소 역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사회행동1	세월호 사진 아카이브/아이들의 빈 방 한일협상 무효 수요 예술행동 두리반 51+(자립음악생산조합)		콜트콜텍+문화행동 용산참사 파견미술 보리출판사(평화발자국)
사회행동2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 육바라지 골목 보존대책위원회 내성천의 친구들 콜트콜텍+문화행동 여성인권영화제(한국여성성전화) 재(美)난학교(테이크아웃드로잉) 광장극장 블랙텐트 용산참사(작가선언 6.9 포함) 평화발자국(보리출판사)		세월호 사진 아카이브/아이들의 빈 방 6.9작가선언 리슨투더시티(내성천의 친구들/ 육바라지 골목 보존운동 청년예술가네트워크 (한일협상무효 수요 예술행동) 두리반 51+

<표6. 라운드테이블 참여 단체>

연번	유형	참여단체	참석자
1	사회혁신	아트브릿지	신현길 대표
2		극단 날으는자동차	우승주 단장
3		' ' (작은따옴표)	장서영 대표
4		베네핏	조재호 대표
5		OOO간 (중복)	홍성재 공동대표
6		결애 (중복)	조하연 대표
7		문화프로덕션 도모	황윤기 예술감독
8		위누	허미호 대표
9		캠페인데이션	심규환 기획실장
10		마리몬드	윤홍조 대표
11	지역활동	공간 사일삼	김꽃 작가
12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
13		동대문 옥상낙원 DRP	김현승, 이지연 작가
14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장	신윤선 대표
15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김지영 공동대표
16		동네형들	박도빈 공동대표
17		무소속연구소	임성연 공동대표
18		더 페이퍼(골목잡지 사이다)	최서영 대표
19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정문식 이사장
20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	조하연 대표
21		구로문화재단(가리봉봉 아트즈)	나기석 주임
22	일상창작	공도창공 수동	정길수 대표
23		리마크프레스(이문238)	이재준 대표
24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김성수 대표
25		일상예술창작센터	최현정 대표
26		적정기술공방	함승호 대표
27		OOO간	신윤예 공동대표
28		릴리쿰	선윤아 대표
29		수리수리협동조합	남윤호 이사
30		오늘공작소	신지예 대표, 한광현 연구원
31		큰언니네 부엌	김혜경 대표
32		교육/치유	창작그룹 비기자
33	응용연구단체 문		김효진 대표
34	우리들의 눈		엄정순 대표
35	자바르떼		이동근 대표
36	사다리연구놀이연구소		강미혜 담당자
37	예술에 기대다, 린 협동조합		오지민 총괄프로듀서
38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멘		김현주 대표
39	달꽃창작소		최규성 대표
40	그림마을연구소		김희연 대표
41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김현정 공동대표
42	사회행동		콜드콜택+문화행동
43		용산참사 파견미술	전미영 작가
44		용산참사 파견미술	신유아 활동가
45		보리출판사(평화발자국)	이경희 편집부 과장
46		세월호 사진 아카이브/아이들의 빈 방	노순택 작가
47		6.9작가선언	김근 시인
48		리스투더시티(내성천의 친구들, 옥바라지 골목 보존운동)	박은선 디렉터
49		청년예술가네트워크(한일협상무료 수요 예술행동)	송상훈 대표
50		두리반 51+	유재립 작가

※ 사회행동 분야의 경우, 활동주체와 예술행동 병행 표기 혹은 예술행동으로 표기함.

7. 라운드테이블 기획과 구성

○ 라운드테이블 기획

— 라운드테이블은 핵심 집단의 토의를 통해 의제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라운드테이블의 기획은 예술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핵심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짚어 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질적 조사를 위한 집단 인터뷰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 사회혁신, 지역, 일상창작, 교육/치유, 사회행동 5개의 유형별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기로 하고, 각 유형별 10개 사례를 초청하여 총 50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다. 집중적인 인터뷰 진행을 위해 1회에 5개의 사례를 초청, 5개의 유형별로 각 2회씩 개최하였다.

— 진행 방식은 앞서 연구 방법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탐색적 연구를 통해 현장의 활동을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하는 접근법을 취하였다.

— 다시 말해, 모더레이터가 라운드테이블의 진행을 맡아 가이드 질문을 토대로 질의를 하고, 이때 진행자는 특정한 방향성을 의도적으로 이끌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최대한 관찰자 입장에서 경청하고, 인터뷰 대상자들이 연구진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라운드테이블에서 사용한 가이드 질문은 아래와 같다.

- (동기/계기) 시작하게 된 동기는? 왜 활동을 시작했나?
- (네트워크 형성) 현장에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개입했나?
- (문제/실패/한계) 활동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경험했나? 난관은 무엇이었나?
- (영향/효과)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나? 어떻게 영향력을 확산시켰나?
- (철학)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의 활동 철학은? 미래에 대한 전망 및 비전은?
- 활동하며 얻은 성과 및 영감은?

— 연구자는 단순히 사례를 조사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 담당 유형에서 핵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 라운드테이블 운영

— 연구자별 담당 유형은 아래 <표7>과 같다

A	사회혁신으로서 예술	장대철 (공동연구자)
B	지역활동으로서 예술	이병민 (공동연구자)
C	일상창작으로서 예술	라도삼 (책임연구자)
D	교육/치유로서 예술	백선혜 (공동연구자)
E	사회행동으로서 예술	김종길 (공동연구자)

— 유형별 라운드테이블 운영 개요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유형별 라운드테이블 운영 개요>

구분	일시	장소	참여단체(참석자)
사회혁신	1차	2017.10.18.(수) 15:00-18:30	동심원갤러리 바이올렛룸 아트브릿지 : 신현길 대표 극단날으는자동차 : 우승주 대표 ' ' (작은따옴표) : 장서영 대표 베네핏 : 조재호 대표
	2차	2017.10.23.(월) 15:00-18:45	스페이스노아 위키룸 000간 : 홍성재 공동대표 결애 : 조하연 대표 문화프로덕션 도모 : 황윤기 예술감독 위누 : 허미호 대표 캔파운데이션 : 심규환 기획실장 마리몬드 : 윤홍조 대표
지역활동	1차	2017.10.25(수) 14:00-17:00	서울시 NPO지원센터 교육장2 <받다> 공간 사일삼 : 김꽃 작가 어반플레이 : 홍주석 대표 동대문 옥상낙원 DRP : 김현승 작가, 이지연 작가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장 : 신윤선 대표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 김지영 공동대표
	2차	2017.11.01.(수) 14:00-17:00	서울시 NPO지원센터 교육장2 <받다> 동네형들 : 박도빈 공동대표 무소속연구소 : 임성연 공동대표 더 페이퍼(골목잡지 사이드) : 최서영 대표 홍우주 : 정문식 이사장 결애/구로문화재단 : 조하연 대표/나기석 주임
일상창작	1차	2017.10.24.(화) 13:00-16:10	서울역 프리미엄 라운지 토파즈룸 공도창공 수동 : 정길수 대표 리마크프레스(이문238) : 이재준 대표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 김성수 대표 일상예술창작센터 : 최현정 대표 적정기술공방 : 함승호 대표
	2차	2017.11.01.(수) 9:30-12:40	서울시 NPO지원센터 교육장2 <받다> 000간 : 신윤예 공동대표 릴리쿰 : 선윤아 대표 수리수리협동조합 : 남윤호 이사 오늘공작소 : 신지예 대표, 한광현 연구원 큰언니네부엌 : 김혜경 대표
교육/치유	1차	2017.10.18.(수) 09:30-12:30	서울시 NPO지원센터 교육장2 <받다> 창작그룹 비기자 : 최선영 대표 응용연극단체 문 : 김효진 대표 우리들의 눈 : 엄정순 대표 자바르때 : 이동근 대표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 강미해 담당자
	2차	2017.10.24.(화) 18:00-21:00	강남역 K스터디카페 회의실 예술에 기대다, 린 협동조합 : 오지민 총괄 프로듀서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멘 : 김현주 대표 달꽃창작소 : 최규성 대표 그림마음연구소 : 김화연 대표 역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 김현정 공동대표
사회행동	1차	2017.10.20.(금) 15:00-18:30	스페이스노아 위키룸 콜트콜텍+문화행동 : 성효숙 작가 용산참사 파견미술 : 전미영 작가/신유아 활동가 보리출판사(평화발자국) : 이경희 편집과장
	2차	2017.10.26.(수) 15:00-18:45	스페이스노아 위키룸 세월호사진 아카이브/아이들의 빈방 : 노순택 작가 6.9작가선언 : 김근 작가 리슨투더시티 : 박은선 디렉터 청년예술가네트워크 : 송상훈 대표 두리반 51+ : 유재림 작가

예술의 사회적

○○○ ○○○

활동에 대한

* * * * *

라운드테이블

○○○○○○○

개최

* *

1. 사회혁신 분야

(1) 라운드테이블 개요

1) 라운드테이블 구성과 운영

○ 라운드테이블 인터뷰 대상 단체 선정과 그 기준

- 사회혁신 분야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구성하여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 즉 일상생활에 개입하여 생활혁신이나 창작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으로, 기본적으로 생활예술로도 분류할 수 있다.
- 사회혁신 분야 라운드테이블 참석 단체는 부록에 수록된 「예술의 사회적 개입 심층 연구, 기초 목록 60선」(2017년 9월 13일 기준)을 바탕으로 선별하였다.

○ 라운드테이블 진행 방식

- 라운드테이블은 총 2회에 걸쳐 각각 3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1회 차 4개 단체, 2회 차 6개 단체가 참석하였다. 라운드테이블은 모더레이터의 진행으로 연구자들의 추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각 라운드테이블의 초반 30분은 모더레이터가 연구 취지와 참여자들을 충분히 설명한 후 라운드테이블 규칙을 설명하였다. 이후 라운드테이블은 총 3차로 진행되었다. 1차는 단체 및 활동 소개 및 영향/효과 정도, 2차는 동기 및 철학과 한계점, 3차는 자유 의견으로 추가적인 고민이나 전망 및 정책 제안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토의 도중 다른 발언자의 의견에 동의나 공감을 표하거나 이견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도 허용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2시간 정도 진행한 후,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1시간 이상 참석한 연구진들의 개별적인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2)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

아트브릿지

〈표9. 지역활동#1 라운드테이블〉

일시	2017.10.18.(수) 15:00-18:30
장소	동심원갤러리 2F 바이올렛룸
참여단체/참석자	아트브릿지: 신현길 대표 극단 날으는 자동차: 우승주 대표 ' ' (작은따옴표): 장서영 대표 베네핏: 조재호 대표

〈표10. 지역활동#2 라운드테이블〉

일시	2017.10.23.(월) 15:00-18:45
장소	스페이스노아 위키룸
참여단체/참석자	000간: 홍성재 공동대표 결애: 조하연 대표 문화프로덕션 도모: 황운기 예술감독 위누: 허미호 대표 캠페인데이션: 심규환 기획실장 마리몬드: 윤홍조 대표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우리 역사와 문화와 예술교육을 서로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시작
 - 신현길 대표가 2007년 6월에 법인으로 등록하여 활동을 시작하여 2010년에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었다. 연극과 뮤지컬 분야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해 왔다.
- 전통문화를 연극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2013년에는 창신동에 '뭉치예술학교' 설립
 - 2014년에 창신동 아트브릿지 사무실을 오픈하여 공연예술에 전통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이 접목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연 중이다.

② 주요 활동

- 주요 활동은 연극과 체험, 놀이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연 중심 콘텐츠 제작
 - 대표적으로 〈우리 역사·인물 탐험연극 시리즈〉, 〈국악 뮤지컬〉, 〈아시아문화탐험연극 시리즈〉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문화예술교육으로 확대하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뮤지컬교실〉, 〈삼국 역사 놀이터 프로그램〉, 〈레츠고 아시아〉 등을 추진하였다. 이후 창신동 지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사업으로 확장하여 〈신나는 봉제로 예술여행-창신동 문화밥상〉, 〈꼭대기 장터〉 등을 진행하고 있다.

③ 발전 과정

-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사업을 시작하였고 지역에 동지를 틈
 - 기존 시장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자가 직접 조직을 설립하였다. 대표자가 10년 전 국립중앙박물관에 재직 시, “공연장에서 아이들이 그냥 나가는 것을 지켜보다 뭔가 바꿔 보려 제안했는데 거절당하고 이후에 설립”하였다.
 - 설립 초기에 성장하다가 3년 후 대규모 제작을 통해 2억 원의 빛이 발생했다. 이때 지역(창신동)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묘한 위로감을 받았”으며, 이를 발판으로 직원들도 거의 그만둔 상황에서 혼자 지역에서 계속 도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무실도 이전하고 지역에 안전하게 동지를 틈게 되었다.
 - 대표자 개인의 과거 경험도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원래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다. 대학 다닐 때 천막 공부방 활동을 했고, 성미산마을에서 삼십 대를 보냈다. 그런 경험들이 중첩되어 창신동 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 5년마다 전환의 계기가 나타났는데, “사업적으로 망하는” 실패 경험이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올해 주변 상황이 좋아지면서 “사업적으로 자신감이 붙었으며”, “우리 콘텐츠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 특히 지역특화사업인 ‘문화박상’을 시작하면서 “지난 5년간 해 온 성과들이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길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자아 영역의 확장,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행복 창조, 점진적 변화

- 비전은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행복 창조’다. 사회는 늘 변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때 긍정적인 변화는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나에 대한 깊은 연구와 더불어 자아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이다.
- 활동의 보람은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는 느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이해하려는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거나 관련한 모임이 늘고” 있고, 이는 “그분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돕겠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기획들을 다른 지역에서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붙었다.
- 재미있고 쉬운 방식으로 역사에 다가가게 만들었다는 점,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공동체를 활성화하였다는 부분에서 보람을 느낀다.

② 활동의 한계

○ 지속성에 대한 고민, 이해 관계자의 인식 차이

- 사업 추진을 위한 역사 탐험 및 교육용 상설공연 공간 확보와 지역의 변화 만들기 완성 단계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활동의 기대 효과에 대한 지원처와 수혜자의 인식 차이도 문제다. 지원처가 지향하는 것은 “현란하게” 또는 “거창한” 것이지만, 실제 수혜자 입장에서는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는 데 잠시나마 위안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좋은 것”이라며 서로 간의 차이를 지적한다. 올바른 사례로 대학로 문화 게시판의 “연극이 가난을 구제하지 못해도 가난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제시하였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참여와 연대 방법에 대한 고민

- 지역사업은 매출보다 “함께한다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2가지 한계가 있는데, 공간 측면에서 “지역에서 수입을 잡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외부에서 벌어들여 마을에서 쓴다는 모토로 마을 주민을 위해 공연을 통해 공연 수입을 올리고 축제도 하는데”, “지역 축제가 네트워크 중심으로 끼리끼리 하며 소모적인 논쟁들이 많았”고, “마을 내부에서도 지역의 유지나 지역에서 터부시되는 것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대규모 알바”를 제공하여 해결하고 있다.
- 청소년 대상 측면에서 아이들이 커 가는 과정 전반에 대한 활동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내가 다 한다면 너무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문제를 (창신마을넷)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며 “부담 없이” 추진하고 있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성과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협력과 관련된 3가지 개선 방안을 짚어 볼 수 있다. 우선 활동 성과 평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량적 측면에서 매출액이나 관객수 등으로 집계할 수 있으나, 정성적 측면에서 “지금 시대에 맞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도식화 지점들”의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다른 조직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 지역 내 연합 및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이와 같은 협력의 기반을 위해 지역 내 연합 및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연대를 통해 사회 문제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지원사업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나 지역에서 복지, 예술, 교육 등 마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연합 팀들을 지원한다면, 마을 내 연합이나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때 “지원방식 자체가 마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시재생 사례처럼 한 단체에 맡기면 네트워크가 깨지기 때문에 가장 조심할 부분이다…… 단체가 다 바쁘니까, 각자 사업한다고 바빠 신경을 못 쓰고, 한 단체만 하면 힘이 빠져서 포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예술단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비수기(겨울)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극복 방법은 연대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극단 날으는 자동차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으로 2005년 1월에 설립.
 - ‘모든 사람은 예술가로 태어났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고,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예술로 신나는 하루를 선사하는 목표로 '생애 첫 무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예술의 기능 교육뿐만 아니라 예술창작과 예술감상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조화 추구
 - 하나, 예술가뿐 아니라 요리사, 과학자, 선생님 등 단원들 각양각색의 꿈과 개인의 성장과 변화, 창의력과 표현력 증진 등 예술활동의 목표를 지원한다.
 - 둘, 단원, 감독, 학부모, 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예술로 소통하고 성장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다.
 - 예술교육을 통해 단원들 개인의 성장을, 작품 창작과 공연을 통해 표현하고, 관객에게 사회 문제(환경파괴, 가족해체, 폭력, 고독 등)에 대한 위로를 전한다

② 주요 활동

- 뮤지컬 제작 및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
 - 핵심 활동은 시민 아마추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35편의 공연(뮤지컬)을 제작하였다. 대상에 따라 어린이는 환경 뮤지컬, 성인은 자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로 구분된다. 현재 3개 지역에 12개 극단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후 극단 규모를 전국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3년 전부터 문화기획 입찰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 분야를 확대하였다.
 - 작년 8월부터 직원 고용의 부담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햇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위해” 거리부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대기 중이다. 또한 “행사는 많고 직원 고용은 부담되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10개가 모여 문화유통협동조합을 만들어 연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방식은 연간 4개 정도 추진되던 사업을 40개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발전 과정

- 매출 증가로 자연스럽게 조직을 만들게 되어 극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설립
 - 단체 매출이 증가하면서 조직화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대표자 부부가 구성원이었으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서 예술감독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조금씩 조직이 갖추어지며 전문적인 역할이 만들어졌다.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특기적성 뮤지컬 교육을 많이 진행했는데, 이때 강사가 120명 수준이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하여 2005년에 극단을 만들었고, 나라에서 일자리 지원을 해주어 2010년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였다.

- 현재는 단원 200여 명의 회비를 주 수입원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가 안 좋아 5년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던 회비도 조만간 올릴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공연팀으로 일원화된 체제에서, 현재는 공연팀과 기획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연팀은 단체의 핵심 콘텐츠에 집중하고, 기획팀은 “뮤지컬부터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문화행사까지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나와 우리의 연결이 바로 사회 변화
 - 비전은 ‘참여자 모두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가자.’다. “지금까지는 예술을 전공하거나 오래 배운 사람이 생산자였다면, 이제는 아마추어나 시민이어도 장르화될 수 있다고” 보고, “삶이 예술이 되는 생활을 위해 각 계층이 가진 고민 또는 관심사를 다룬 작품을 창작하여 공연”한다.
 - 활동의 보람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이다. 사회 변화 측면에서 “나에서 우리로 연결되는 것이 사회 변화라 생각하고, (……) 나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사회 변화라”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정 종료 후 아이들의 사회성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붙었으며, 한 과정 당 25명인데 한 번에 25명의 남매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이다.
 - 장기적으로 활동의 확대를 위해 입법화하는 방향,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연결해 직업, 정치 참여, 문화예술 향유, 환경 등의 생존 뮤지컬로 가면 어떨까”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국으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② 활동의 한계

- 조직 운영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
 - 문화예술 분야는 행사가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조직 운영의 지속성이 불안정하여 상시 직원 고용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때문에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우선 동종 업종 조직들과 “연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걸 잘할 수 없으니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활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또 하나는 규모를 확대하여 인력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이직률을 낮추고 더 많은 채용을 위해 전국에 우리 극단을 확산”시키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여 “향후 문화예술뿐 아니라 사회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통합 솔루션에 대한 고민

- 활동 대상별로 프로그램 과정 이후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은 “다양한 단체와 통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활동의 주요 대상인 “취약계층 청소년일수록 대부분 조부모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자신감과 사회의 밝은 부분을 인식하는” 변화가 나타났으나, “원래 환경으로 복귀하면서 더 깊은 낙락으로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대안을 찾는 중이다.
- 시니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시니어가 공연할 곳을 찾아야 하고, 질이 높지 않아 소액의 개런티를 배분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시니어는 일자리가 제공되는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한계”를 느끼고, “지속적인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이다.

○ 성과 평가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

- 성과 평가 측면에서 “우리 극단에 들어간 후 5~10년 뒤 어떻게 행복한지 추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연구할 연계 기관이나 회원들 데이터가 관리되지 않아 장기적인 가치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프로젝트 기간의 유연성 필요

- 대부분 공공기관인 지원처에서 입찰 시기를 12월까지로 조정하고 2월까지 결산하게 된다면, 문화예술단체들의 사업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연간 상시적으로 다양하게 문화기획에 참여할 것이다.

○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지배 구조 또는 창구 확보 필요

- 공공기관에서 예술강사 파견 등 지역사업 추진 시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과 사전에 논의하기를 제안한다. “소위 상권이 무너지는 것보다 재단에서 직접 하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일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여 “모두 살아남고 양질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차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확대

-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사교육비를 낮추고 국영수 과목보다 문화예술을 보다 많이 경험하도록 입법화하여 추진했으면 한다. 문화예술로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빨리 경험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2014년 2월에 설립, 비영리 민간단체로 시작하여 현재 협동조합으로 장서영 대표가 이끌고 있음
 - 소수의 청년 예술가로 시작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 활동을 진행하며 단체를 확대하여, 현재는 100여 명의 아티스트와 6개 프로젝트 팀으로 확대되었다.
 - 주요 사업 유형은 문화예술 프로젝트 및 콘텐츠(공연, 축제) 개발 및 제작과 문화예술 공간 운영이다.

② 주요 활동

- 최근 주된 프로젝트는 길거리 쓰레기 문제를 다룬 ‘ARTRASH’
 - “자칭 문화예술혁명단체”로서 “사회 문제를 문화예술로 녹여내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신림동 지역에 2개의 문화공간을 운영 중이며, 주요 사업으로 길거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ARTRASH’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쓰레기를 문화예술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나다운 삶”이란 키워드와 핵심 가치로 연결된다.
 - 지속적으로 “많은 일반인들이 혁신가가 될 수 있는 플랫폼 또는 환경 시스템과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③ 발전 과정

- 우연히 작은 기회로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
 - “외국인 친구와 함께 여행할 때 그 친구가 본 한국의 길거리 쓰레기에 대해 고민하면서 시작”되었다. 해결 방법으로 “버스킹에 착안하여 기타 가방 대신 쓰레기통을 놓고 길거리 쓰레기를 팁으로 받는, 이를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술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이런 시스템으로 국내 쓰레기 문제를 짧은 시간에 이슈화하기 위해 축제를 활용”하였다. 참가자는 “축제 곳곳에서 다양하게 행해지는 퍼포먼스와 부스에 쓰레기를 팁으로” 제공하고, 예술가는 “재능기부가 아닌 예산 집행을 통한 적절한 수익 구조를” 집행하고 있다.
- 나에 대해, 그리고 타인과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
 - 이 과정에서 “내가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세상에 다른 사람도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가 겪는 사회문제”로 나아가야 하며, “사회문제를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 경제적 삶과 예술활동의 균형 추구

- 대부분의 수익은 ARTRASH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 “예술활동도 하고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일도” 한다. “더 우리다운 일은 돈을 버는 영역보다 임팩트 주는 일 쪽으로 가는 것”인데, “조직 운영을 위해 균형을 맞추면서 전진하는 형태로 일과 꿈을 맞추려는 과정을 계속 겪고” 있다.
- 현재 비영리단체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 중이며, 조직원 9명 중 4명은 같이 살고 있다. 이 공간은 “주거지와 사무공간과 문화공간의 역할”을 한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자기(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문화 만들기”를 목표로 함

- 비전은 “꿈을 이루는 진심을 담은 공간이자 문화혁명단체”³로서,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문화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데 어떤 방식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 이러한 활동으로 “우리를 거쳐 가거나 바라보는 사람들이 (……) 나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음표 던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가치를 가슴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나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늘어난다면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 될 것”이다. “그 시작점은 내 주위의 선한 영역이다. 그런 것을 꿈꾸게, 인식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성과로 볼 수 있다.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예술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사회문제 해결에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문화가 가장 위대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문화란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나는 어떠한 것으로 (……) 법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문화로 바꿔 낼 수 있는 영역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문화와 예술은 나 자신을 성찰하고 좋은 물음표를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이 개입될 때 사회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며, “그것이 예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이라고 본다.
- 성과평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답게 살고 있는가?”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가, 미션과 비전과 핵심가치를 나열하면서” 매월 서로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표에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기별, 반기별 워크숍을 진행한다.

“나무에 빗대면 뿌리, 몸통, 가지, 열매로 비유”할 수 있다.

³ 서울잡스, seouljobs.net/recruit/youth1706

② 활동의 한계

○ 조직 운영을 위한 경제적 문제,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 조직 운영의 장애 요인은 “자본의 문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구조적인 개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자본의 문제가 조직의 비전을 고수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 또한 “우리의 작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기본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가능한 선택지가 너무 없는” 상황이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

○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 부족

- 아직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점이 현장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사람들이 아트레시 프로젝트를 “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처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항목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가져다 쓰거나, 이 일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일을 하기 이전부터 관계자들을 지치게 한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서 (우리에게) 욕 하는 경우도” 있다. 해결방안을 고민하다 “결국 연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 유사 작업을 진행하다 현재는 중단된 상황”이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연대와 협업의 지배 구조 구축 필요

-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야” 하며, 이들이 “전국의 예술가들”이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의 목소리를 집중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져야 하며, 제도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예술인 연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 “전국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현재는 중단”되어 “예술인에 대한 정보의 유통 채널도 없고, 건너 듣게”되는 상황이다. “이 조합 홈페이지에 전국 몇 명의 예술인이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정도만 파악되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관의 역할은 “제도적 개선과 인건비 부분의 인식 개선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지금은 둘 다 없어서 문제”다. “인식이 안 되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이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 “이 지점들을 바꾸지 않으면 예술인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최우선으로 공간이

제공되어 “문화예술 혁신가들이 기본적인 것 때문에 이 활동을 포기할 정도까지 안 갔으면” 한다. “주거하고 창작활동하고 선보이는 자리와 공간이 (……) 동네별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해결된 후 연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베네핏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사회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문화 콘텐츠 생산을 표방하며 2011년 11월에 설립한 주식회사로 조재호 대표가 이끌고 있음
 - 핵심 활동은 미디어와 출판을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과 교육 서비스 및 컨설팅이다.
 - 사업 영역이 넓어, 비즈니스, 기업 사회공헌, 임팩트 투자, 사회적 기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 문화예술, 교육, 적정기술 등 사회혁신 미디어 전반을 다루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핵심 활동은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교육 및 컨설팅
 - 핵심 활동은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교육 컨설팅”으로,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는 상상력과 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민 주체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최근 ‘베네핏툴킷’을 제작하여 판매 중인데, 66개 단체에서 2,400여 명이 수강하고 있고, ‘베러월드스쿨’에서는 1억 원 규모로 양산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외부 요청으로 고민 중인 고교생 시장의 진출은 “수익성이 낮아 프로그램 모듈화에 집중해 툴킷과 매뉴얼을 표준화하여 유통 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초기에 시작한 《베네핏 매거진》은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미디어, 콘텐츠,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베네핏 미디어사이트에서는 사회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1000여 개 사례를 소개하며, 콘텐츠는 외부와 함께 책이나 영상 등으로 제작한다. 컨설팅은 교육 사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임팩트 측정의 언어화 작업이다.

③ 발전 과정

- 공정무역 이슈에서 영감을 받아 잡지 발간으로 시작
 - 조직을 설립하기 전 “국제무역 실무를 맡았는데 하다 보니 (……) 사회의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기술도 있는데, 사회 문제 이쪽에서 해결되었던 것들이 저쪽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되었다. 봉사활동 말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 공정무역에 대한 것을 처음 보고 (……) 사회혁신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사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고 전달 가능한지를 알려 주는 것”이라 여겨져, 첫 시작을 잡지 발간으로 하게 되었다. “자본금 4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회계나 이런 부분을 몰라 6년째 적자가 퇴직금만큼” 되기도

했다.

- 잡지 발간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나, “잡지라는 사업은 망해도 잡지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추진했다. “이 정도로 사업이 다양해질 줄은 몰랐고 (……) 다른 사업들이 잘 되어서 2년 만에 중단”했다. “그 사업만 하다가는 지속가능성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 “미디어를 운영하면서 방문객 1,200만 명이 누적되었는데 (……) 사람들이 평소 지니고 있었던 생각들이 우리 사업으로 정리되고 확인되었다.” 우리가 하는 건 “상상력과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진 우리의 파트너들이 콘셉트를 잡는 걸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들이 “망하고 다시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회사의 정체성과 철학을 확립하였음
 - “올초 (……) 즉물적인 비즈니스 사고가 (……) 수직적 사고로 통합되면서 추상성 개념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철학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하는 일의 파급력이 확 커진 느낌”을 가졌다.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인데, “그 요인은 그러한 사고 때문일 것”이다.
 - 세계관 워크숍과 베네핏 툴킷을 개발하였음
 - “예전에는 솔루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철학을 같이 만들어 갈 것인지를 언어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세계관 워크숍’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관을 점·선·면 개념에서 창조”하는 것인데, 베네핏 툴킷(10주 과정) 중 가장 인상적이고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 영역의 지인들이 사회혁신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융합이 강하게 이루어”졌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개인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음
 - 비전은 “좋은 의도를 넘어 위대한 혁신으로”⁴로, “경영학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일”을 한다. “문화예술을 수단으로 패치화해 (……) 사람들을 낮설게 하고, 신체적 변화를 사용하게 하면서 머릿속에 여백을 만들어 새로운 개념을 구상화하게” 된다. “예술가들은 이런 걸 하고 싶다 하지, 이런 걸 해서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 생각하기를 꺼려” 하는데, 최근 젊은 기획자들 사이에서 융합형 기획이 많아졌고, 사회적 이슈와 연결하는 기획도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

② 활동의 한계

- 경제적 삶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4 서울잡스, seouljobs.net/recruit/benefit

해결될 것이라 믿고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음

- 조직 운영의 문제는 없으나 회사 운영이 계속 적자인 상황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는 않는데, 좋은 것을 하면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사회적 미션과 경제적 수익의 상충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 회사 운영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파트가 영상 분야. 그중에서도 대기업 일이었으나 “대기업 일을 더 이상 안 받기로” 했다. 왜냐하면 대기업 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어렵더라도 “커머셜한 측면을 우리가 굳이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 보다 임팩트 중심으로 하는 곳”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사례 확산이 필요
 - 초기에 미디어를 운영할 때 해외 업체들과 교류하면서 “국내 사례도 해외에 읽힐 수 있는 게 많고 그걸 언어화하고 모델로 만들어 퍼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우선 국내 사례부터 사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전에 몇 개 사례를 묶어 ‘삼투압(BM)’이라 했는데, 이를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퍼가시면서” 파장이 있었다. 이처럼 “언어화하는 게 중요하고, 사회혁신 개념을 시민들에게 명확한 개념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중이 보기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고, 다른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다양한 범위로 확대될 것이다.

000간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000간은 저성장 시대에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며 자연의 낭비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실천하는 그룹으로 2011년 6월 신윤예, 홍성재 대표가 설립함
 - 주요 활동은 디자인과 봉제를 응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제작,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신동에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 000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중하는 목표는 다음 3가지임
 - 하나,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및 사회문제 솔루션을 중심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로컬 디자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 둘,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과 함께한다. 브랜드 전략 컨설팅, 로고, 제품, 온오프라인 공간 디자인 등 브랜드 경험 전반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 셋, 건강한 삶과 환경으로, 사람과 환경을 고려한 제품 브랜드 ZERO DESIGN을 통해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실천한다.

② 주요 활동

- 주요 활동은 지역재생, 커뮤니티 디자인, 공공 디자인, 브랜드 개발, 교육 사업 등
 - 핵심 활동은 ‘공감, 공유, 공생 디자인’을 주제로 한 소셜 디자인 회사로서 지역재생, 커뮤니티 디자인, 공공 디자인, 로컬 브랜드 개발, 디자인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동 대표자들이 순수회화를 전공한 후 “스스로를 취업시키고자 창업”하였다. 설립 후 많은 조직 이슈와 BM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제2의 고민으로 사회적 기업을 전공하며 (……)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 중이다.

③ 발전 과정

-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에 대해 고민하였고, 지속성 있는 삶을 위해 확장된 예술가의 삶을 추구
 - “행복이 나의 성장과 배움이고 두 번째가 마음의 평화”라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 모두 현실에서 달성하기 어렵다고 느껴서 설립하였다. “기존의 작가 모델이 지속해서 (……) 어마어마하게 창작을 갉아먹는, 너무 빨리 주기를 돌아야 했고 (……) 예술가들끼리만 있을 때는 배움이 없다고 느꼈”고, “마음의 평화는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잘할 수 있을 때 오는 것이고, 너무나도 크게 창작에 고갈되지 않는다고 느껴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그래서 “사회적으로 개입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새로 발명”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예술가들이 (……) 다양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스스로 확장된 예술가의 모델로 살고자 설립했다. 미대 재학 때 “공동으로 했을 때 확실히 변화의 폭과 속도와 대처가 빠른 점”을 느껴 조직화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집단화된 예술가로서 예술 영역의 확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 비전은 ‘낭비 없는 삶’으로, 자원과 소비의 낭비를 줄이는 만큼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⁵ 이러한 활동으로 2가지 효과가 나타났는데, “예술가로서 새로운 롤모델이라는 것과 특정 산업과의 결합”이다. “집단화된 예술가로서 지난 6년간 생존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갔으며 교류가 상당히 많았다. (……)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지역산업에서 필요한 일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집단화된 예술가로서 예술의 영역은 광범위하지만 이 활동에서 예술은 “디자인이고, 그 디자인은 문제 해결”에 가깝다. “내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 잘 작동하는 디자인”이라는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활동의 성과는 재무적인 것과 사회적 것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과 팀별로 두 가지 성과를 합쳐 전체 조직을 평가하고 있다. 대표자 개인적 성과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쳐 냈는가.”로 보고, 큰 방향 설정에 있어 “전년도 대비 성장하는 방향으로 설정 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활동의 한계

- 조직원들 간 시각과 성장 속도 차이
 - 조직을 설립한 창업자와 직원들의 온도차가 다르다.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제일 심각한 건 대표의 성장 속도와 직원의 성장 속도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가지는 공포감이 있는데, “내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지만 나를 언제까지 써 줄까,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 온도차를 줄이는 방법과 보상에 대한 고민이 깊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
 - 대신 “어떻게 좋게 이별할 수 있을까, 이별하고도 어떻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을까, 같이 있을 때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⁵ 000간 페이지, 000gan.com/mall/about/about.asp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조직 운영에서 느끼는 어려움
 - 청년 사회적 기업이 얼마 안 되다 보니 주변에서 “사회적 기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우리가 어느 순간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그래서 “PT(프레젠테이션) 때는 사회적 기업이 아닌 영리기업과 경쟁”이 붙기도 한다. 또 “우리는 크리에이터 모임이라고 생각했는데, 팀원들 입장에서는 복지기업과 급여 등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길어야 1-2년 같이 일했는데, 이제는 다른 기업을 다니다 오신 분들이 생기니 어떻게 하면 오래 같이 일할까, 오래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성장할까 고민하게” 된다.
 - 한편 대표자 역량과 관련해서 “나는 능력 있는 대표인가? 내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다 괜찮은데 내가 문제인가? 평소 니치한 마켓(틈새시장)만 하다 사람들이 좀 생기니 이제는 매스한 마켓으로 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 필요
 - 정책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예술가의 유형”을 원하는데, 현재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정책이 과거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머물러 있고 대상도 순수 예술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결정적으로 목적하는 대상 자체의 수가 적다.
 - 유명한 예술가들은 이미 각 도시의 관광자원화가 되어 있다. 그렇게 목적지향적인 예술가가 탄생할 수 있을까? 여전히 예술가는 자신의 세계관을 구현하기 위해 “물질적으로 작품을 만들고 자기 집이 아닌 권위 있는 공간 (……) 예술계의 주요 시설에서 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 지원 사업이 있지만, “미약하고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느낀다. “조금 도와주는 역할 정도로는 변화값이 작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순수예술 전공자보다 시각이나 제품디자인 전공자들이 함께 했을 때에 변화 값이 더 클 것이다. “이들은 공부 과정 자체가 클라이언트 중심이고, 클라이언트는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 새로운 예술가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법 필요
 - 이러한 소수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자본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현재는 예술가가 생존할 수 있는 틀이 너무 없고, 활동 자체도 동시대적이지 않아 다양하게 확장된 롤모델이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다. “4P(제품, 가격, 장소 및 유통, 촉진 및 판촉) 같은 제일 간단한 틀도 없고 (……) 예술가들에게 비즈니스라는 것을 일깨우는 고급교육이 필요”하다. “예전에 사회를 바꾼 예술가들은 발명가이기도 했고 철학자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지식이 너무 얇은” 게 문제고, 그래서 교육 문제가 제일 크다고 느낀다. “예술가들이 시대를 넘어가는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한 결과물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다양하게 확장된 예술가의 롤모델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교육도 “예술가끼리 하기보다 경영하는 친구도 꺼서” 진행해야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추가적으로 맞춤형 지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미 사회적 개입을 한 팀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 그 팀이 뭘 원했는지 지도를 짜야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에게 맞춤형 지원이 될 것”이다. 제일 위험한 건 중간 어디쯤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네 것 하다가 시민들과도 좀 해”처럼 되어 버린다.

결애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2008년 ‘배꼽빠지는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2015년에 문화예술 마을협동조합 결성
 - 조하연 대표가 조합을 이끌며 문학과 출판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와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 중이다.
 - 교육에 ‘아트테라피’ 요소를 결합시켜 정서적 공감대를 나누는 커뮤니티를 구상 중이다.

② 주요 활동

- 주요 사업은 인문학에 기반을 둔 아트테라피 교육 사업
 - 핵심 활동은 인문학에 기반을 둔 치료 관점의 아트테라피 교육 사업이다. 또한 예술적 소통이 필요한 지역에서 열리는 인문학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현재 “구로 지역의 가리봉동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에게 예술 치유와 위로를 전달”하고 있다. 청소년치유도서로서 마을 그림책과 ‘그토록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으며, 북카페와 전시, 공연 등 프로그램 활동의 거점이 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③ 발전 과정

- 구로구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활동을 시작하였고, 문화예술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었음
 - 대표자는 동시와 동화 작가로서 2008년 구로구에 ‘패코파진 도서관’을 설립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역 아이들의 자존감 상승과 예술적 진로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 청년이 되어 그릇을 넓혀야 하는 시기가 와서, 2015년 문화예술 마을협동조합 만들었고, 현재 10명(도서관에 5인+성장한 청년 5인)이 운영 중이다.
 - 도서관에서 마을로 진입하기까지 5년간 “지역 아파트 8000세대 아이들과 토요일마다 만났고, 작가들과도 만나”면서 마을신문도 만들고 마을 그림책도 제작하였다. “이렇게 구석진 지역에 있는 공간을 알리고, 이곳의 삶을 알리는 데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그래서 (……) 아이들 데리고 현장에 다니면서 귀바로우를 같이 사먹기도 하고, 현장 모습들을 전달하려 오지랖을 부리다 보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 2013년 이후 이 활동에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반영되면서 현재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도의적 책임 때문에 조직을 만들었다.”는 대표자는 아트테라피 대상이었던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후 “삶에 대한 고민이 커져서” 다시 찾아오자 아트테라피가 더 필요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선 “마을 기업으로 진입해서 아이들과 뭔가 해보자 해서 조합을” 만들어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강조하고, 성과를 소화할 수 있는 단체들만 섭외하려 하니 지역과 정책 사이의 온도차가” 상당하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내면을 치유하고 건강한 자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회 문제를 예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함
 - ‘마데카술 공장’이라 불리는 우리 조직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내면을 치유하고, 건강한 자아를 찾아갈 수 있는 아트테라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마을의 오래된 것을 예술적으로 기록하고 엮어내는 작업을 통해 사회의 고민을 유연한 예술의 힘으로 해소하려 한다.
-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변화의 지속성 추구
 - 거창한 변화보다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낸 그림책을 통해 작가가 꿈이었던 79세 할아버지가 아마추어 작가이자 화가로 참여하여 평생의 자존감과 퇴직 후 상실감이 채워지셨다. 그림책 이야기를 연극 및 공정여행팀과 협력하여 게릴라 연극으로 만드는 실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기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② 활동의 한계

- 외부 이해 관계자와 협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조직의 역량이나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외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우리가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전문 인력과 결합해서 해야 하는 경우” 고민이 크다. 해결책에 대해 “올해 지역 안에서 사업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이해 관계자들 간 인식 차이가 커서 갈등이 발생함
 - 지원처와 인식 차이가 크고, 이러한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지원처는 “사회적 경제와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채워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온도와 우리가 느끼는 문화의 온도가 극과 극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가리봉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감천벽화마을로 만들겠다고 느닷없이 얘기하고 (……) 다분히 성과를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사회 변화에 집중하는 예술에 대한 지원 방식 개발이 필요
 - 개인의 변화에 집중하는 예술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집중하는 예술에 대한 지원 방식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면의 상처를 예술로 치유하는 지역의 아트테라피 센터”를 만들어, 그 안에서 문화기획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각 장르 예술가들을 역으로 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예술가가 사회적인 기여에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우리와 같이 꿈꾸었을 때 함께 뭔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된다. “단순히 프로필을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온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장기적 지원과 연대 필요
 - “한 축으로는 교육 지원방식이 있고, 다른 축으로는 예술가에 대한 (사회 기여 정도) 검증의 맵을 그려 나가는 장기적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2000년에 설립하여 2008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어 현재 황운기 대표가 이끌고 있음
 - 연극과 뮤지컬과 축제 관련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지역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1호에서 6년 만에 지역 사회적 경제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2015년) 사회적 기업 최초로 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2013)을 받았다.

② 주요 활동

- 공연, 기획, 교육, 여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행사 연출 및 기획, 축제 기획 및 운영, 공연 제작,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무대기술 지원, 의상 및 소품 대여, 문화기획, 공정여행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은 예술활동을 통한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취약 계층이나 관련 시설에 대한 ‘공연 초대’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예술교육’, 시민이나 노년층 대상의 ‘동아리 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③ 발전 과정

- 춘천에 기반을 둔 극단으로 설립되었음
 - 지역(춘천)에 기반을 둔 극단으로 설립되어 기업형 극단으로 변화 중이다. 기존 기업형이 아닌 “사회적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회적 기업(2009)으로 전환”하였다.
- 생존을 위한 방식
 - 주요 발전 과정에는 지역 네트워크 확대, 경영 시스템의 고도화로 볼 수 있으며, 1단계 생존을 위한 방식에서, 생존의 범위에는 조직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동종업계 종사자들도 포함된다.
- 지역 네트워크 확대
 - 2단계 지역 수요를 활용한 네트워크 확대에서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지역 내 문화예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역 수요가 높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지랖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100Ps’⁶라는 모임을 만들어

6 춘천의 ‘좋은 문화 만들기 100Ps’는 2009년 10명의 운영위원 중심으로 시민들이 의기투합해, 문화의 도시 춘천을 공연예술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발기된 모임. 회원 100명이 100만 원씩 모아 1억 원의 시드머니로 우수 공연을 유치해 고급문화를 회원과 지역민에게 알리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됨. 100명의 개인(100 PerSon), 100만 원 프로젝트(100만 원 ProjectSystem), 100% 공공의 서비스(100% PublicService)라는 의미. (녹취자 주)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 100명에게 100만 원씩” 모은 시드머니 1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 경영 시스템의 고도화

- 3단계 경영 시스템의 고도화 단계에서는, 경영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현실 개선에 적용하였다. “이것저것 주워듣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 3단계로 들어가 경영학 석사 과정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지원조직에서) 우리에게 6시에 퇴근하라 해서 무척 당황했는데. (……)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안 맞는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였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 비전은 ‘동시대의 가치를 담은 창작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사람과 예술, 삶과 꿈을 이어 세상을 따뜻하고 윤택하게 합니다.’⁷이다. 현재는 조직의 핵심 역량을 통해 “지역에서 문화단체로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주요 사업인 공연을 만들어 판매하고 기부 공연하는 형태보다, 오히려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아마추어 단체를 우리가 출연해서 육성하고” 있다. 3년을 지속하고 나니 “올해부터는 그들이 우리의 서포터즈로 작용”하여 우리 조직의 “3배 인원들이 SNS, 직접 홍보, 티켓 판매까지 협업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그들 역시 이곳에서 배운 것을 나누어 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② 활동의 한계

○ 조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경제적 고민

- 대표자로서 느끼는 한계는 다양한 피로감의 누적이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복지를 만들 때에도 지원처의 요구와 조직 상황을 맞추도록 설계하기가 어려웠다. 휴가를 일부러 써야 하는 등 여러 사례로 인해 피로감이 누적되었다.
- 조직 측면에서 여겨지는 한계는 재원이 일순위다. 초기에는 10%가 90%를 보조하는 구조였으나 지금은 그 차이가 감소했다. 그러나 “기획과 스태프로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다 보니, 현금 순환은 스태프 쪽이 높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은 기획 쪽이라 이런 부분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또 조직원이 많아질수록 장르가 다양해져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7 문화프로덕션 도모 홈페이지, <http://artdomo.co.kr>.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정체성에 대한 이슈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음

- 조직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면서, 또는 지원이 종료되면서 겪는 정체성 문제가 있다.
“문화예술 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1~2년 차에 정체성에 대한 몸살을 한 번 겪고, 5년이 지나면서 경제적 위기에서 오는 단계적 몸살을 겪게” 되지만, 지원이 종료되면 다시 한번 정체성 문제를 겪게 된다.
- “작년 7~8년 차가 되면서 힘들었던 것은 결국 정체성 문제였다. (……) 우리 구성원은 창작자와 기획 및 스태프가 절반이었는데, 현재 창작자가 거의 축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경제적인 위기를 떠나서, 결국 기업이 선택하는 게 어느 쪽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점에 왔기 때문. (……) 또 하나는 우리 조직의 네임밸류가 높아지면서 대학로에서도 인력 수급이 가능해진 것도 요인 (……) 어쩔 수 없이 기업이 경제적 위기와 동시에 배우들을 프리랜서 구조로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온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결국 조직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필요

- 조직의 정체성이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변화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문제의 배경은 시장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우선구매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전체로 확대되어 시행되지 않고, (사회적 기업도) 결국은 일반 경제 기업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더욱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조직이 기부하는 활동들을 지원처의 요구와 서식대로 누적하기 힘들다. 이는 조직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사회공헌 정도가 낮다고 평가되어 사회적 기업 재지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기로 원칙을” 세웠다. “소외계층 분들에게 기부 공연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주민등록번호나 리스트가 있지 않으면 인정받지 않는 것도 불편했고. (……)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 연락처를 받아 이렇게 누적이 되었다고 꼭 증명을 해야 하나?”라는 자문이 정체성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마지막으로 이제는 수익 구조가 기존 사회공헌 기금보다 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 만족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는 결국 입찰로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와 무관한 일반 경제로 가야 한다. 어떤 공연을 제공하는 등의 사회 서비스가 아니라, 결국 수익을 많이 남기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누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예술 공유 서비스 기업으로 2007년 허미호 대표가 설립

- 전시와 축제 관련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 “99%의 예술과 99%의 대중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신진 예술작가를 홍보하고, 사회이슈를 예술로 풀어내며 더 나아가 수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것을 기본 모토로 삼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사회 이슈로 예술가와 대중이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더 많은 사람들과 사회 혁신을 일으키는 예술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사회 이슈로 아티스트와 대중이 소통하는 페스티벌, 캠페인,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헬로우문래’ 아트페스타, ‘헬로! 아티스트’, ‘아트업페스티벌’, ‘BRILLIANT 30’, ‘온스테이지’, ‘노는지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 초기에 의도했던 “온라인으로 좋은 매개들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반대로 예술을 사회적 이슈와 같이 풀면서 대중적인 반응을 얻는” 구조로 발전되어 왔다. 2015년에는 폐자원을 이용해 100인의 아티스트가 업사이클 아트 제품을 만드는 ‘아트업 페스티벌’로 서울시 환경상을 수상하였다.

③ 발전 과정

○ IT 기업 경험이 예술 분야와 연결

- 대표자가 IT 기업(아후)에서 플랫폼 제작을 하던 중, 메신저나 툴바를 이용해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술도 IT와 비슷한 사이클로 좋은 매개가 들어간다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창업”한 것이다. 개인 단위가 아닌 조직으로 설립한 이유는 “나보다 더 잘하고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서”이고, 더 중요한 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회사를 지속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뉴얼화되고 분업화되어야” 한다는 필요 때문이다.

○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 중간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무렵부터 “우리의 DNA- 축제를 하더라도 주체가

되자, 자부담을 들어서라도 지속성을 확보하자, 어느 정도의 주관성을 갖자.”는 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다 보니 예술이 시장의 개입 자체가 어려운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공공이라 함은 결국 사회적인 이슈들과 결합된 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향후 미래에 대한 고민

— 현재는 “앞으로의 10년”에 대해 고민 중이다. 그간 회사가 성장한 만큼이나 개인들의 삶도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 지점에서 “팀원과 우리와 함께하던 작가들의 삶”이 보였기 때문이다. “시선의 높이가 예전에는 사업 단위였다면, 이제는 거버넌스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은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집중하는 단계로서, “회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예술 작가들이 무엇을 서비스 받았을 때 행복해지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 성과 관리 방법의 변화

—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하던 성과 관리를 프로젝트별로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마다 재무 담당, 사업 총괄, 프로젝트의 리더가 모여 목표 설정을 하는데, 그 목표에는 사회적 지표 내용과 재무적인 순이익 등이 설정”된다. “예산 담당자가 계속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어 (……) 과정에 집중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 결과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긍정적인 방법”이자, 상하가 아닌 “중간이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중요한 것은 “당시 별것 아닌 효과일 수 있으나, 지속해 나가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
 - “대중이 미처 접하지 못한 99%의 예술과 99%의 대중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더욱 다양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리그를 만들고, 그 리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작가를 찾는 것이 과제”다.
 - ‘아트업 페스티벌’의 경우 “우리가 주제를 먼저 정하고, 이에 관심 있는 작가들 (……) 우리가 소재를 제공해 주고 교육시켰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계량화까지 할 수 있는 작가”를 찾았다. 실험적으로 2012년에는 100명의 작가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공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폐장난감, 다음에는 폐섬유, 이후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계속해 왔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이하고 다양했는데, “이것이 예술이나, 예술이 수단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중요한 건 “당시 별것 아닌 효과일 수 있으나, 지속해 나가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1박 2일의 이벤트가 아니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이

되도록 고민”했고, 현재는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서울시와 연계하면서 더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 영국문화원을 통해서도 작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면 대중의 작품에 더 와닿게 할 수 있는지 같이 교육할 수 있었으며, 작가들이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게” 되었다.

② 활동의 한계

- 사회적 관점을 적용하여 예술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작가 발굴이 어려움
 - 이런 흐름에서 가장 큰 과제는, “자기 주제가 사회 주제가 될 수 있는 작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마케팅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작가의 원가를 바꾸려 하면 부작용이 생기니 이미 작가 스스로 고민하는 주제 자체가 사회의 주제인 작가들을 찾아 잘 매칭하는 것이” 지속적인 어려움이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

○ 조직 경영의 어려움

— 내부 조직을 잘 만들고 팀원들을 이해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우선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크고 작은 “팀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유는 헤이그라운드에 들어가면서”인데, 출입증 제공부터 해외/지방 출장 등 다양한 경험을 조직에 제공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와 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규모 있고 안정된, 중력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예술의 산업화와 분업을 통해 예술가들이 예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접근에 있어서 “예술가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기보다 예술이 가진 고유의 특이성이나 매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산업 자체가 클라이언트 중심의 산업과 차별화가 적어지고 차별성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 이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함
 - 스타트업으로서 안정되고 큰 규모의 커뮤니티를 계속 찾아다녔는데, 그 이유는 “우리 회사 자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서 서비스를 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창작자들은 더 큰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차별화 있게 산업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술 기업가는 기업가와 달라야 하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캔파운데이션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의 창작물이 전시와 교육을 통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아트센터로, 2008년에 설립 이래 장문경 대표(이사장)가 이끌고 있음
 - 핵심 활동은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으로 이와 관련한 전시와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의 힘'으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하고 예술가와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려 한다.
 - 문화예술과 관련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아트컨설팅도 운영 중이다.

② 주요 활동

- 주요 활동은 전시와 레지던시 운영
 - 핵심 활동은 '예술가를 위한 창작지원'과 예술가에 의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 기업의 아트 컨설팅, 국제 교류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창작공간과 예술교육이 사업의 쌍두마차다.
 - 한편 서울시 빈집 가구 2만 여 채의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예술을 통한 빈집 활용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 주었다. 일반 주거 지역 내 '빈집 문제'의 대안으로 주거 기능을 다한 성북구 선잠단지에 위치한 오래된 가옥 두 채를 문화향유 공간 '오래된 집(Old House 2010-2016)'으로 활용하여 장소특정적인 전시를 개최하였고, 보다 확장된 활용을 위해 리모델링, 신축, 관리 비용에 대해 고민 중이다.

③ 발전 과정

- 예술가들의 작업 기회 제공
 - 공동 설립자가 이화여대 동문으로 두 분은 미술을 전공하고 한 분은 디자인을 전공했다. 이들은 주변에서 예술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 당시는 공공미술관이나 공공창작공간들이 서울에 하나둘씩 생기고 있을 때였으나,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이었다. 한편 상대적으로 중국 베이징이 저렴했기 때문에 중국 따산스 문화특구에 공장을 하나 렌트해 5년 동안 작가 50여 명에게 현지 체재비 등을 제공하면서 작업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 후원받은 예술가들이 외지 학교에 자원하여 교육 지원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냄
 - 지원받은 작가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했으니, 미술 선생님도 없고 전 학교 학생이 50명도 되지 않는 문화소외지역 학교에 가서 미술 수업을 함께하자 제안"하였고, 이런 순환 구조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 미래를 위한 준비와 성과 관리

- 현재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 취지와 운영 목적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 "최근 시의성을 동반한 프로그램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 성과 관리는 후원자, 작가, 소외계층, 지역민 향유자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분기별과 격월별 이사회 보고와 감사 보고를 진행한다. 기관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협력기관 사업과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도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장기적으로 지역 기반의 아트센터 설립을 목표로 예술 후원 의식을 확대하고 있음
 - 비전은 '신뢰와 예술을 통한 동반 성장'으로, 예술가는 안정적인 작업환경과 공간을 지원받고, 이를 기반으로 전시와 조직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 기반 아트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술 후원 의식을 확대하려 한다.
- 공간 후원자들이 많아지고 있음
 - 지난번 레지던시 공간에서 진행한 전시에 오신 분이 "빈 공간이 있으니 이렇게 운영하고 싶다고 공간 후원 의사를 표하였다.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기더니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창작공간이 건물 소유자에게 또 다른 형태로 활용가치가 있겠구나"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에는 기초적인 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회비용을 총당케 어렵다는 판단하에 정중히 거절하게 되었으나 정말 '고마운 뜻'임에 틀림이 없다. 이를 '보람'이라 생각하고 '조직 활동의 효과'로 볼 수 있다.
-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 확립
 - 지원받은 "작가들 입장에서 교육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동기"가 생긴다. 지방에서 1박2일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작가들과 교육받은 아이들의 성취도를 종합하여 CSR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함께하자 제안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계속적인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특성이기도 하다.

② 활동의 한계

- 재정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작년(16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을 100분율로 환산했을 때 크게 수익 67%, 후원 22%, 보조금 11%인 상황인데, "보조금은 기금을 따는 형태이고, 후원금은 순수하게 우리

활동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시는(……) 수익은 아트컨설팅(조형물)인데, 점차 조형물 경쟁자가 증가하다 보니 또 다른 수익성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난관이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함

-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빈집과 한옥인데, “개인적인 공간을 또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한다. “공간을 무상으로 내어주시는 분들도 공간 활용적인 면에서 개인 공간이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계속적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 창작지원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 등 찾아가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 예정지가 자치단체에 위치 있어야만 해 어려움이 있다.

○ 조직 관리의 어려움

- 한편 창작지원 공간이 증가할수록 필연적으로 공간을 관리할 직원이 늘어나야 한다. “추가적으로 사업장이 계속 늘어날 현상을 보이고 있어 (……) 현재 예산과 인원으로 다 하는 건 물리적으로 여건이 안 된다.”
- 또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급이 높지 않다 보니 이직률이 높다. 그러면서 구성원들 개개인이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가 점차 연계되기보다 사장되는 부분들”이 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부분을 총괄적으로 공유하려 하고 있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예술가의 성장이 사회참여로 연결

- 작업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성북동 작은 동네에 예술가 250여 명이 거주하면서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고 있다. 작가들도 동지를 틀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실정이다.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를 ‘빈집문제’와 연결하여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다소 피상적이거나 빈집을 창작공간으로 구성한다면 소유주는 빈집을 대신관리 해주는 효과를 얻고, 행정기관은 자원재활용과 철거비용 절약을, 입주하는 작가들은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한다면 이를 통해 작가 스스로의 프로모션도 병행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술가 사회참여’가 될 것이고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 빈집소유자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대안, 지역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꺼라 생각한다.

마리몬드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2012년에 설립된 회사로 윤홍조 대표가 이끌고 있음
 - 나비를 뜻하는 라틴어인 마리포사와 새 생명과 부활의 메시지를 담은 고흐의 「꽃 피는 아몬드 나무」를 결합하여 만든 ‘마리몬드’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한다.

② 주요 활동

- 디자인 상품 제작 및 판매가 주요 활동임
 - ‘우리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귀함을 이야기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디자인 콘텐츠, 제품, 커뮤니티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로 플라워 패턴을 만들어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 판매를 통해 ‘사람들이 피해야 할머니들을 한 사람의 인권운동가이자 예술가로서 인생을 살아온 것을 알게 하고 긍정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며, 영업이익의 50%를 위안부 역사관 박물관 건립 기금,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복지 기금 등으로 사용하며, 캠페인 제품에 한해서는 순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③ 발전 과정

-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충격을 받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창업을 하였음
 - 사회생활 경험 없이 바로 창업을 하였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처음 뵈고 난 후 막연히 몰입하게” 되었고, “졸업 즈음에도 갈증해소가 안 되어 창업”하였다. 1년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까지 왔다. “막연하게 회사를 시작하면서 할머니들께 함께할 수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혼자 못 할 일이었기에 조직을 만들어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었다. “사회의 좋은 변화는 위대한 한 사람보다 멋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힘이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회사의 성장은 ‘위안부’ 할머니와 맺은 관계에서 더 깊은 무엇인가가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었음
 - “회사 미션에 ‘존귀함’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스스로 알게 해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 성과는 매월 관련 팀에서 매출, 기부, 트래픽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다 보니 HR 측면에서 개개인의 성과와 태도 관리의 문제를 느껴 “우리 회사만의

평가와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컨설팅”을 받는 중이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남
 - ‘공감’, ‘재조명’, ‘기억’이라는 키워드로 기업 활동과 캠페인을 이어 나가고 있다. 꽃의 이야기를 널리 전하는 나비처럼 존귀함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브랜드를 통해 “당신은 오늘도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 “위안부 할머니들, 가족 분들, 정대협 선배 분들, 지인들까지 우리 존재를 든든하게 생각해 주시는 데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다.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이 논의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우리 해시태그를 분석해 보니 고객들이 할머니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우리보다 성숙해진 상황”이다.
 - 활동을 지속하다 보니 처음에는 전문 역량이 낮았던 인력들도 현재는 성장하고 있고, 대기업 경력자도 협력하는 상황이다. “그들이 합류한다는 것은 일에 대한 의미 자체가 단순히 급여 받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므로, “우리 브랜드가 영속 가능해진다면,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영원히 잊히지 않고 존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 작지만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
 - 하지만 “서로를 소중하다 인식하고 아껴 줄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합은 굉장히 작지만 행복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② 활동의 한계

- 이러한 회사가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하는 것에서 오는 책임감
 - “이런 회사가 존재한다는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면서도 이런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책임감이 크다. 조금씩 체감하는 변화를 보면서 “존귀한 한 개인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자체”를 어떻게 조명할지가 과제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조직 문화 및 평가 보상 체계에서 오는 갈등
 - 다양한 삶을 살아 온 개개인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 조직 운영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게 어렵다. 예를 들어 “큰 기업에서 수직적인 체계를 경험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 온 분들의 경우, 우리 회사만 오면 자율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야 할지를 어려워한다.” 결과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 조율이 어렵다.

- 규모가 커지다 보니 우리 회사만의 평가와 보상 체계 설계도 필요하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사회적 금융 분야의 활성화가 필요

- 재원 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펀드가 조성된다 해도 돈을 잘 굴려 적재적소에 투자할 사람이 많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한계”를 느낀다.
- 재원을 조성하는 정부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익률 자체가 깎일 수 있는 일이라도 10~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률 자체가 높아지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다른 펀드와 달리 펀드 기간을 늘려주고, 어떤 사회적 성과를 달성했을 때 수익률 자체를 모태펀드처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런 동기 때문에 돈돈돈 하던 사람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3) 결과 정리 및 시사점

1) 사회혁신 분야의 현황과 특징

사회혁신 분야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관심 분야들이 매우 다르고, 이에 따라 특징적인 공통점 또는 유사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지속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제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예술 또는 예술가의 경향과는 다르게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 조직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일시적인 변화 또는 감동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예술과 다르다고 생각된다. 조직을 만든 이유가 혼자 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점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장에 대한 욕구도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성은 예술적 삶에 대한 지속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지속성은 확장성으로도 이어져 삶의 범위를 경제적 이슈와 개인적 이슈에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로 넓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대와 협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는 생존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방향성이 바로 연대와 협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예술에 대해 기존보다 더 넓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자신들 활동에 적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예술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기존 예술과 다르거나 순수예술 성격이 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예술에 새로움을 가져온다는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들고 있으며, 예술인지 아닌지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션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매우 강하게 표출된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높은 만족감을 가지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가 만든 행위를 남에게 제공했을 때 예술이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타인 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성이 좋아지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이 때문에 문제 중심적 사고나 관점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 변화에 집중하는 예술”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넷째, 미션에 대한 인식과 의지와 함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예술 단체와 경제 조직이라는 복합적 성격이 반영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섭적, 융합적인 새로운 예술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체성 고민은 성장의 한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회 변화를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역할과 행동의 변화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남들에게 자신의 미션과 생각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처음부터 거대한 사회 변화나 영향을 만들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생각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확신을 얻으려 한 부분은 기존 예술과 다른 측면으로 생각된다. 타인의 인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작은 변화를 큰 변화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조직이 되는 것이다.

2) 발전 방향 및 주요 의제

지속성이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핵심 전제라고 생각된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가 지속됨으로써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있는 삶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 예술의 적절한 활용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예술 분야를 경험하게 하는 것과 사회적 예술 분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 및 이를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경영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경영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예술의 산업화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지역활동 분야

(1) 라운드테이블 개요

1) 지역활동 분야 새로운 예술의 동향

-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가와 지역의 문화 정체성이 주요한 경쟁력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호하고, 문화를 지역과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네스코에서는 1970년대부터 문화와 지역 발전이 갖는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 국내에서도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문화지구, 문화도시, 문화마을 등을 지정하는 등 많은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세계적인 프로젝트들조차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재생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21세기 초반 기획인 예술과 지역 관련 프로젝트들은 소위 창조도시의 도시재생과 리모델링, 그리고 문화적 활용에 관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아시아와 한국에 도입되어 대형 프로젝트가 유행하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트렌드는 하드웨어 중심 도시재생과도 무관하지 않다.
 - 이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적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며, 한편으로는 생활권 문화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 지역에서 “문화적 탄력성(Cultural Resilience)”과 같은 내재된 문화적 힘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재생을 일으키려는 노력이 요구됨
 - “문화적 탄력성(Cultural Resilience)”에서, 탄력성은 역경에 대한 창조적인 반응과 개인이 자기 삶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타고난 인간의 특성으로 정의된다. 어떤 사례에서는 탄력성을 위한 새로운 구조가 문화적 탄력성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 이때 유연한 접근은 이벤트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간에 유연하게 접근하면서 공동된 지역문화를 통해 지역을 재생시키는 지혜와 관련 있다.
-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과 예술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 관련 전문가들이 지역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으며, 예술과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심도 있게 관찰하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다.

- 지역 및 도시에서 예술이 하는 역할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구성은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이다.

2) 라운드테이블 구성과 운영

○ 라운드테이블 대상 단체 선정과 기준

- 위와 같은 관점으로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중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교육, 워크숍, 공공예술 프로젝트, 마을축제 기획 및 전시,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 공공공간 환경개선, 지역 자원활용 및 네트워킹, 마을잡지 발간, 협동조합 운영 등 지역 도시재생 문제와 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선정하였다.
- 지역활동 분야 라운드테이블 참석 단체는 부록에 수록된 「예술의 사회적 개입 심층 연구 기초 목록 60선」(2017년 9월 13일 기준)과 담당 분야 연구자의 자체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선별했다.

○ 라운드테이블 진행 방식

- 이러한 과정에서 선별된 단체들은 총 2회(10월 25일과 11월 1일)로 나누어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 각 라운드테이블 초반 30분은 안영노 모더레이터가 연구 취지와 목적을 참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라운드테이블 규칙을 설명했다. 이후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파트1은 단체 및 자기 소개와 활동 소개, 파트2는 단체별 활동 배경 및 동기와 활동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으며, 파트3에서는 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한계, 제안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표11. 지역활동#1 라운드테이블〉

일시	2017. 10. 25.(수) 14:00-17:00
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2 <받다>
참여단체/참석자	공간 사일삼: 김꽃 작가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 동대문 옥상낙원 DRP: 김현승 작가, 이지연 작가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장: 신윤선 대표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김지영 공동대표

〈표12. 지역활동#2 라운드테이블〉

일시	2017. 11. 1.(수) 14:00-17:00
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2 <받다>
참여단체/참석자	동네형들: 박도빈 공동대표 무소속연구소: 임성연 공동대표 더 페이퍼(골목잡지 사이드): 최서영 대표 홍우주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정문식 이사장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구로문화재단: 조하연 대표/나기석 주임

(2)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

공간 사일삼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문래동 기반의 젊은 작가들을 위한 독립적인 미술 공간

- 공간 사일삼은 문래동을 기반으로 김윤익(김꽃, 미술가, 기획자, 디자이너), 심혜린(미술가)이 운영하는 독립적인 미술 공간이다.
- 2009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안공간 붕괴와 젊은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겨났다.

“2009년쯤 외환위기가 있었죠. (……) 그렇게 많았던 대안공간들이 사라지고, 시장은 축소되고 (……) 그 이후 또래들 전시가 계속 열리게 됐어요. 그러다 공동작업 공간에서 전시공간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 10년 가까이 문래동을 지키며 자생적 전시공간 지향

- 현재는 1년에 6~10회의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독자적인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작가들 간 최소한 수익과 전시를 위한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운영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안이자밖프로젝트〉

- 공간 사일삼 공간은 과거 영단주택단지로 조성된 한옥 건물을 철공공장으로 개조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다시 예술가들이 용도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 〈안이자밖프로젝트〉는 공간 사일삼에서 제공하는 〈공간사용메뉴얼〉을 통해 희망하는 창작자는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전시공간에 대한 낮은 문턱을 제공한다.

○ 〈공간사용메뉴얼〉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창작자를 ‘사용자’로 지칭하고, 사용자들이 프로젝트 공간을 사용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놓았다.

③ 발전 과정

○ 프로젝트 413, 아티스트 런스페이스 413을 거쳐 공간 사일삼으로

- 작가 네 명의 임시적인 콜렉티브 성격인 ‘프로젝트 413(project 413)’으로 시작하여 외부 전시와 프로그램들을 수용해 운영하다, 2013년에는 ‘아티스트 런스페이스

413(artist run space 413)’로 변경되었다. 이때 이들은 창작자들이 공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식의 전시 공간을 시도하려 했다. 당시 이들의 전시는 완성형이라기보다 실험적이고 시도적인 ‘베타 버전’ 성격을 갖고 있었다.

- 2015년에는 ‘공간 사일삼’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현재 공간 사일삼은 일정한 형태의 공간을 구축하기보다 상황과 환경에 맞게 몸집을 바꾸는 유연한 운영 방식을 중심에 두고 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즐겁게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지속

- 공간 사일삼이 추구하는 비전은 그들이 자유롭게 즐겁게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하는 것이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만큼이나 자신들이 즐기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 있으며, 지속해 나아가야 할 비전이다.

“현대미술에서 우리가 멋있게 봤던 것은 사회적 미술이었는데 사람들의 교류와 활동을 상상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았어요. (……) 각개전투의 상황에 놓여있는 미술작가들이 만나고 보다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생각했죠.”

○ 예술가들이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 공간 사일삼은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 없이 작업에 집중하고, 좋은 전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술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자발적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바라는 바다. 즉 예술을 통한 소비와 그로 인한 예술가들의 작업환경이 자생적으로 구축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 특히 치밀한 시스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간 사일삼이 추구하는 비전이다.

“넓고 허름한 건물이지만 이곳까지 찾아와주는 관객들이 좋은 전시를 보고 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의 컨디션을 올리려고 노력해왔어요. (……) 작게나마 공간을 통해 교류하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좋겠죠.”

② 활동의 한계

○ 자생적 문화공간을 지향, 독립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 공간 사일삼은 기본적으로 자생적 공간을 지향하기 때문에 공공이나 기업 지원금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 더 나은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고 계획을 실행할 만큼 공간과 운영 시스템적 측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다.

- 지역적 특수성과 예술의 본래 목적이 잠식하는 상황에 대한 경계와 고민
 - 공간 사일삼의 경우, 지역에서도 특히 지역산업과 예술의 분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철공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문래동 특성상 예술가들이 자발적 예술의지가 아닌 동원된 예술가로서 지역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전혀 예술적이지 않은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는 지역 커뮤니티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두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

- 지역과 맺는 관계에 대한 고민과 공존
 - 공간 사일삼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문래동에 자리 잡고 있다. 특별히 지역적 특수성이 강조되는 문래동에서 공간을 운영해 오며, 직간접적 참여와 방관자 시각으로 지역과 맺는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즉 자신들이 문래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래’라는 타이틀이 그들의 작업과 활동에 반영되어야만 지역과 연계되는 것인지를 고민한다.
 - 일부 예술가들의 경우, 오히려 문래동이 갖는 이러한 특수성이 부담스러워 이곳에서 작업을 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래동이라는 울타리가 예술가로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이 예술 앞에 너무 강하게 있으니까. 철공 예술, 지역 작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미술 작가로서 활동하고 싶지. 그런데 공공과 예술의 본질이 어긋나면서 동네에 흉물스러운 벽화나 조형물들도 생기고. 저희는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선부른 예술과 지역의 만남을 위한 활동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어요. 지역과 예술이 관계를 맺는 건 좋지만 좀 더 섬세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예술가를 위한 지원제도 방식의 변화 필요
 - 현재 지원제도는 예술가 자립을 위한 제도가 아닌, 사업을 위한 예술가 지원에 관점을 둔다는 지적이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예술가로서 예술관을 정립하기 이전부터 지역 여러 지원사업에 동원되는 형식으로 소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예술 지원제도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간 사일삼이 그동안 진행해 온 활동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그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 등 지역 및 사회와 공생 입장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지원제도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우회적 지원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오히려 저희가 오랫동안 예술가를 배출하고 활동한 것들에 대한 인정을 통해, 예를 들어 건물주들에게 세제혜택 등의 실효로 연결되는 지원제도가 만들어져 서로 실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지원이 아닐까요.”

어반플레이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2013년 시작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 도시를 하나의 콘텐츠로 바라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점에서 도시를 해석하고 접근하고 있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도시 콘텐츠들을 아카이빙하고, 이를 DB화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에도 OS(Operating System)가 필요하다!'는 모토로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융복합 기술과 도시문화 콘텐츠 아카이브를 통해 도시 속 다양한 해프닝을 창작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 도시의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다양한 파트로 접근하여 운영 중
 - 2017년 11월 현재, 3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시문화 콘텐츠 창작, 지역/문화 마케팅, 도시 콘텐츠 전문 미디어채널, 문화기획자 에이전시 등 4가지 사업 영역을 통해 도시가 '콘텐츠로 가득한 놀이터'가 되기를 희망하며 사업을 진행 중이다.

② 주요 활동

- 어반플레이의 주요 활동은 지역 아카이빙과 지역거점 공간사업으로 구분됨
 - 올해(2017년) 시작된 사업으로 동네별 거점공간을 만드는 <아는동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이 사업을 통해 로컬큐레이터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연계사업으로 《아는동네 아는연남》 매거진을 창간했다.

③ 발전 과정

- 공간과 콘텐츠에 대한 고민, 도시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
 - 대학원에서 지역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IT와 관련된 융합 학문들을 공부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시대가 되면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사람들은 결국 골목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 연남동에서 연희동으로 거점을 옮기며 본격적으로 활동 확장
 - 처음 시작한 연남동 반지하식 집을 빌려 지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좋은 콘텐츠들을 선별하여 알리는 전시 중심 활동을 진행했으나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사업 유지와 확장을 위해 다양한 기획과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다.
 - 2년 후 젠트리피케이션 여파로 연남동에서 연희동으로 거점을 옮겨 <연희건다>를 기획 추진하였다. 이때 지역 내 예술가와 기획자, 소상공인들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의 부재를 깨닫고, 예술가들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소통을 담당하는 지역 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도시 속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여 감성적 도시를 만들려는 비전
 - 어반플레이는 도시와 문화, 콘텐츠, 기술을 통해 도시 속 사회 이슈를 해결하여 감성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 누구나 쉽게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려 한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도시를 삭막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로 가득한 놀이터'로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역 거점 활동들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실행하고 있다.
- 매력적인 지역 콘텐츠 생산과 소비 환경 구축
 - 매력적인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안에서 지역의 것들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비전을 갖고 있다.
 -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남이나 고양 스타필드로 차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 도시재생에서도 사람 중심으로 가게 하는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② 활동의 한계

- 수익 창출로 연결하려 할 때 직면한 어려움
 - 어반플레이는 현재 굉장히 주목받는 지역거점 스타트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자 한계라 할 수 있다.
- 공공사업 참여 조건과 과정상 제약
 - 또한 스타트업으로서 공공사업에 참여할 때 수익계약에 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기획 측면에 대한 간섭 등이 공공사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스타트업 살리는 것으로 스타트업 지원비를 지원하지 말고, 그냥 스타트업들과 계약하며 수익계약 범위를 없애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

- 공공 지원사업 상에서 행해지는 간섭이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
 - 공공지원이 활동에 대한 단순한 예산 지원 선에서 그치지 않고, 기획과 방향성 부분까지 닿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공공지원이 반감지 않게 된 이유라 밝혔다.
- 공공사업에서 행위 주체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해 단체 입장 고려 필요

- 공공과 진행하는 작업 과정에서 실제 주관과 실행자 역할을 어반플레이에서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료와 홍보물에는 대부분 시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공공사업 참여 과정에서 조건 및 과정의 간략화 필요
 - 홍주석 대표는 스타트업 및 문화예술단체가 공공으로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 및 과정의 간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행정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술가 참여 영역 확대
 - 그 밖에 지역 단위 사업에서 고층으로 지적했던, 즉 창작자로서 역할하는 예술가들의 참여를 더욱 부각시키고 행정 역할은 간소화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강조하였다.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동대문 옥상낙원 DRP는 2013년 8인의 예술가를 주축으로 결성된 예술단체
 - 동대문 옥상낙원 DRP(Dongdaemun Rooftop Paradise)는 2013년 겨울에 박찬국 작가를 비롯한 8명의 예술인들을 주축으로 시작되었다.
 - 현재는 박찬국, 김현승, 이지연 3인을 주축으로, 주변의 공통 관심사를 가진 지인들과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 동대문에 대한 새로운 시선 발견, 동대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낯선 만남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접근
 - 이들은 DDP 개관과 함께 서울시에서 주관한 리서치 사업의 일환으로 동대문 일대에 대한 ‘Action Research’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다.
 - “DDP의 원래 노점상 문제가 있어서, (……) 갑자기 동대문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라는 리서치 프로젝트로 내용이 변경되면서, 딱히 성과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도 없이 동대문을 어슬렁거리면서 발견한 것들을 담아내는, 동대문에 대한 기록과 조사를 진행하는 팀으로 변경되었어요.”

② 주요 활동

- 동대문 패션 및 봉제 상인들과 함께하는 협력사업과 자유로운 예술활동으로 진행 중
 - 현재 이들의 활동은 옥상을 중심으로 동대문 패션 및 봉제 상인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과,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2개의 영역으로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 지역 상인과의 협력 사업 <홀리데이 팩토리>
 - <홀리데이 팩토리>는 동대문 지역 일대의 획일적인 오더메이드 형식을 지양하고 메이커와 봉제 기술 자체를 중심으로 디자인 유통 체계를 재정립하는 실험적 지역 기반의 프로젝트다.
- 느슨한 관계망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로운 예술활동
 - 그 밖에 매년 자신들의 관심사에 따라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그 과정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느슨한 관계망을 구축해 가는 것을 주요한 활동으로 하고 있다.

③ 발전 과정

- 청년허브사업인 <동대문 청년>으로 시작, 동대문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

- 처음에 동대문 옥상낙원 DRP는 2013년 서울시 청년허브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동대문 청년>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나 특별한 공감대 없이 만나게 되며 시작되었다.
- 동대문 신발상가 B동 옥상에서 ‘동대문 옥상낙원’이 시작되다
 -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동대문 신발상가 B동 옥상을 손수 정리하고 그들만의 공간으로 조성하며, ‘동대문 옥상낙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이후 자신들의 예술활동과 함께 동대문 지역 상인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사회 흐름 속도에 맞추어 자신들의 방향과 역할을 찾아 나가며 활동
 - DRP는 동대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표상 속에서 각자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향한다.

“동대문의 봉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협력하여 <홀리데이 팩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봉제사 분들로부터 제안이 오기까지 3년 정도 걸렸고요. 사실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라 생각하죠. 서로의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재미있었죠.”
- 관계 속에서 예술인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아가며 활동 중
 - 한편으로 이러한 접근은 기존 제도권 울타리를 벗어나 자유로운 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 의지를 보여 주기도 한다.

“내년에는 어떻게 재미있게 놀까라는 질문을 올해 활동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② 활동의 한계

- 지역 속으로 흡수되기까지 외부자적 시간과 시간적 기다림 문제
 - 지역이라는 특정 공간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시간적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외부 시선에서 오는 활동 제약
 -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김현승 작가와 이지연 작가 모두 외부로부터 오는 규정에 의한 자율성 부분을 지적했다.

“공간의 자기 정체성이라든가, 외부로부터 타격이 올 때가 가끔 있어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공공지원은 최소한의 범주에서 조건을 제시해야
 - 동대문 옥상낙원의 2인은 공공지원이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조건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 아티스트 속성상 그들은 자유롭게 두었을 때 자유로운 성과를 낼 수 있다. 때문에 지나치게 방법론적인 접근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면, 오히려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자꾸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제약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들, 사회보장의 어떤 부분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면, 그냥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장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2015년 성수동에 문을 연 디지털 콘텐츠와 예술 기반 문화예술단체
 -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장은 2015년 6월 19일, 성수동 연무장길에 문을 연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감각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문화예술 공간이자 단체다.
 - 영상, 뉴미디어, SNS 미디어, 미디어아트, 미디어 교육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 콘텐츠를 통하여 사람과 기술, 사람과 사람, 기술과 기술이 만나는 신개념 오픈 플랫폼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저변 확대와 능동적 기술을 꿈꾸며 이를 통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한다.
-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일상생활의 변화 모색
 -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장은 디지털 콘텐츠를 삶 속에서 일상화하는 것을 추구하며, 다양한 채널들을 발굴하여 디지털 콘텐츠 확산에 힘쓴다.
 - 대표적으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고민하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예술가들이나 예술 프로젝트와 협업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교육 활동
 - 청소년예술학교 달꽃창작소와 함께 디지털 융복합 체험 교육 프로그램인 <상상공장>을 만들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술, 인문학, 과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디지털 융복합 교육 콘텐츠를 연구한다. <상상공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디지털 디바이스 기기들을 원리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고루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상상력을 더한 새로운 형태의 전인적 교육이다.

② 주요 활동

- 예술과 산업을 접목하여 특색 있는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며, 사회적 공익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체험 스쿨링 <상상공장>의 운영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기본으로 운영되며, 이들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감성적 콘텐츠 기획이라는 모토에서 공통의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 성수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연계활동 꾸준히 진행 중
 - 지역과 직접 연계된 활동 역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성수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2015년 7월 <성수포럼>을 만들어 진행했다. 이 포럼은 <문화를 넘어선 반사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발전시켰는데, 문화예술이 중심이 되는 기존

모임이 아닌 직종에 관계없이 사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하였다는 점, 성수동에 살거나 일을 다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③ 발전 과정

- 대표는 2000년대 초반, 홍대 앞을 무대로 활동했던 문화기획자
 - 신윤선 대표는 2004년 프레파라트연구소를 비롯하여, 홍대를 거점으로 활동한 문화기획자다. 홍대 안에서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 등을 기획했다.
- 2015년 4월, 성수동에서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공간 공유 형식으로 시작
 - 성수동공장의 경우, 처음부터 뚜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나, 성수동을 오가던 중 현재 공간이 비어 있었던 것을 보고 몇몇 지인들과 작업실 겸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볍게 시작하였다.
- 2017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성수동공장 이전, 축소 운영 중
 -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장의 공간인 '성수동공장'은 2017년 11월 현재, 성수동의 부상과 함께 진행된 젠트리피케이션 영향으로 임대료 상승이 진행되었고, 불가피하게 운영상 문제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축소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제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비어 있는 공장을 치우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2달여에 걸쳐 구축을 했는데, 계속 버티기에는 지대가 너무 올라갔고요.”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의 결합을 통해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는 경험 제공
 -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장 홈페이지에는 그들의 비전이 소개되어 있는데, “꿈을 이루어 주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디지털 기술을 아날로그 감성과 결합하여 대중에게 훌륭한 경험을 선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 예술의 사회에 대한 사명감 인식, 지역과 사회와 연계된 활동 추진 중
 - 이들은 예술과 사회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역과 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현재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하는 부분은 성수동 내에서 문화예술 관련 회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도 역시 성과라 볼 수 있고요. (……) 지역 주민들과 지역 참여나 의견을 통해 공공예술 작품으로 거듭나는 역할은 저희가 하고요.”

② 활동의 한계

○ 활동 거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공간 안정성 문제

— 성수동이라는 지역이 상업적으로 주목받으며 결과적으로 초래된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임대료가 상승했고, 결국 공장을 비우고 성동상생도시센터로 입주해 운영 중이다.

— 그러나 공간 지원제도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에 계속해서 공간에 대한 고민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의 활동이 지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 거점으로서 공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수제화골목도 잘 진행됐으면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는 곳은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잘되었는데요. 지금 사무실 1년 반 남았는데, 다음은 어디로 갈까 고민이 돼요. 그때 대처하기에는 너무 조급하고, 제로 그라운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하기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죠.”

○ 자생적 수익 구조 구축

— 신윤선 대표는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활동을 통해 자생적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 중이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공공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획자로서 정체성과 신념을 지키기 어려워

— 신윤선 대표는 기획자로서 정체성과 신념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특히 공공과 사업하는 과정에서 용어 사용, 타이틀 선정 등에서 공공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는 경우들을 지적했다.

“그래서 구청하고 계약서 쓸 때도 이걸 그냥 행정 문서니까,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서울시에서는 구청과 하는 행정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하자, 기획자의 특권 같은 것들을 내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예술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

— 공공미술이 세금을 통한 공공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니, 이에 응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일반적으로 고착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행정의 요구에 의해 예술적 행위가 아닌 성과로서 예술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 등이 현재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라 지적했다.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 보면, 예술가는 나라 세금으로 책정된 사업비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 고착되어 있고요. 제가 최근 느꼈던 가장 큰 문제였어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정책 담당자들과 대화 필요, 그들의 인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함

— 모임에 참여하며 느낀 점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예술가들끼리 모여 나눈다 해서 해소될 부분이 아니며, 결국 매번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누게 될 뿐임을 지적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기획자나 예술가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 우리는 거기에 끼워 맞추는 기획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야 하고.”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는 2011년 목2동을 거점으로 조직된 비영리단체, 일상 속에서 삶의 회복을 목표로 활동 중
 - 이들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잇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커뮤니티 구성원 간 사회적, 문화적 재생을 향한 삶과 일의 구조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일상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들을 통해 각자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 문화커뮤니티 카페 숙영원, 일상 속 주거 문제 해결 등에 주목
 - 2010년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하며 카페 숙영원을 중심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 공간은 지역 안에서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소규모 공론 장이자 지역문화 생산, 관계와 개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장, 지역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를 지향하고 있다.
 - 특히 이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주거에 대한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닥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현재 공동주택을 짓고 입주해 살고 있는 등 적극적인 삶의 일부분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모기동마을축제〉
 -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를 대표하는 가장 잘 알려진 사업 중 하나로 마을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 2011년 시작된 마을축제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축제의 운영 주체가 분리되었다.
- 지역 내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노력
 - 마을축제뿐 아니라 일상의 지속적인 활동들을 통해 지역 내 네트워크 확장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단체,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영역 확장과 역할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인근 지역 학교들과 연계하여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③ 발전 과정

-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던 중, 목2동에 자리 잡고 활동 시작
 -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의 김지영 대표는 모기동 이전에 공공예술 작업들을 해오면서 지역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미술을 생각했고,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몇 년 동안 진행해 왔다.
 - 이 과정에서 참여예술의 실행자로서 개인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던 중 목2동에 공간을 오픈하고 자리 잡게 되었다.
 - “예술가들이 사회적 문제에 개입한다고 뭐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 삶의 변화에 대한 면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요. (……) 내 삶을 좀 더 만들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카페 숙영원을 중심으로 활동 확장
 - 공간적 측면에는 카페 숙영원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공간은 2010년 일체 지원금 없이 자체 비용으로 오픈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2012-2016년에 걸쳐 지원받은 서울시 마을예술 창작소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서 공간 개념을 공식화하고 체계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 실행 방안의 모색
 -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는 삶의 터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안을 연구, 실행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집으로 돌아온 중장년, 결혼과 육아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 일거리가 없는 청년, 정당한 수입 구조 없이 소모되는 예술가들이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행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프로젝트와 공동체 개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 마을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은 〈모기동 마을축제〉를 보며 보람 느껴
 - 그동안 활동하는 과정에서 얻은 보람을 묻는 질문에 김지영 대표는 〈모기동 마을축제〉가 지역 문화로 자리 잡게 된 현상을 꼽았다.
 - 특정한 주체가 아닌 지역 내 새로운 주체들이 이 행사를 지역문화로 인식하고, 그것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노고를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모습들이 지역에 문화적 감수성이 쌓여 가는 과정으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제를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저희한테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죠. 이미 이것이 지역 안에서 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이 되어, 저희에게는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성과이자 변화 지점이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 지역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며 연대의 힘 느껴
 - 개인적인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며, 또 그것이 지역 안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과정들이 연대의 힘에 대한 가능성으로 느껴졌다는 점 등을 이야기했다.
 - “그런 연대하는 힘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 주었죠.”

② 활동의 한계

- 예산의 자체 총당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과 한계 있어
 -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의 경우, 가급적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자체 총당을 통한 사업 진행 원칙으로 한다.
 - 이러한 원칙은 단체의 비전과 목적성, 자율성을 위한 선택이지만, 반대로 예산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거나, 이로 인해 인력을 불러 모으는 일들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저희도 공공기금을 뿔 수 있으면 많이 안 받고, 올해 우리의 이슈와 선택을 통해 운영하다 보니, 큰 사업비는 많이 받지 않는다던가, 주목하는 사업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 공간 안정성 문제
 - 또한 공간 안정성에 대한 면에서도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범주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 김지영 대표는 지원사업과 그 안에서 느끼는 정체성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활동을 포함하여 그동안 과정들에서 주체적으로 역할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사회에서 너무 쉽게 한 영역으로 가정하고 묶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그에 의하면, 예술가들이 지향하며 걸어온 방향이 있음에도 행정의 언어로 그들의 활동과 그 가치를 설명하려는 현재와 같은 구조는 오히려 활동에 제약을 가할 뿐이다.
 - “사회적 개입을 하는 예술가들이라기보다 저희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거죠.

아무튼 지원사업도 좀 더 넓게 포용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 공공의 인정을 위한 자신들 활동에 대한 반복되는 검증과 확인 과정
 - 또한 공공적 인정과 지원을 위해 스스로 인증 과정에 너무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 매번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왔고, 그것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증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 점이 너무 소모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가치를 좀 인정해 주고, 공공 차원에서 인정을 통해 이러한 소모적인 과정을 줄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희가 이런 활동을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적 지지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매해 증명을 위해 정량적 수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겠죠. (.....) 공공적 인정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공공의 인증과 시스템적 지원 필요
 - 단체가 하는 일들을 확장하거나 지속하기 위해 스스로 증명하는 구조가 아닌, 그동안 해 온 활동을 통해 그들의 역할과 성과를 공공에서 인증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저희는 계속 활동하는데, 시의원들은 매번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서류를 준비하라 하고, 보고서 제출하라 하고, 저희를 계속 증명하라 하는데, 이걸 도대체 뭘까, 왜 신뢰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의심하고 감시받는 사회적 분위기들이 있죠. 어떻게 정책적 분위기들을 형성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 예술가에 대한 포용적 시선으로 그들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되어야
 - 또한 예술가 및 단체들의 활동과 의의를 좀 더 포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원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언어가 아닌, 그들의 예술적 목적과 방향성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동네형들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강북구 수유동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단체
 - 현재 6명의 상근자와 프로젝트별로 각 지역(동네)에서 활동하는 멤버 20~30명이 활동 중이다. 주축이 되는 멤버들은 5~6년 전, 안산 원곡동 리트머스라는 곳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만났다.
 - 이들이 강북구에 머물게 된 데에는 저렴한 집값이 가장 큰 이유였다. 각자 타 지역에서 살다 수유동으로 이사 와 지역 안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 동네를 기반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 보는 것을 목표로 모여 활동
 -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진 채 시작하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 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동네를 기반으로 먹고살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하여, 개개인이 기획자로서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역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도전했다.

“저희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통해 동네에서 먹고살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실험하고, 한 명 한 명이 기획자가 되어 독립적으로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개인적인 삶의 방향이 중요해진 것이죠.”

② 주요 활동

- 동네형들의 주요 활동은 문화예술 교육활동, 외부 사업 참여, 청년활동의 3가지 축으로 진행
 - 동네형들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이들의 주 수입원이기도 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다. 둘째는 외부에서 일하여 돈을 벌고, 동네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셋째는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작업이다.

“저희 같은 경우 여러 단체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는 프리랜서로 살고 있었어요. (……) 단체로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조직을 만드는 일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가지고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있어요. 그렇게 일과 일상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청년들의 참여와 그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 그들의 활동은 주로 청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청년들이 삶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주목하여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을 지어 함께 사는 것만이 답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접근을 고민하고 있어요.”

③ 발전 과정

- 타 기관에서 활동했던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수유동에서 새로운 일을 모색
 - 박도빈 공동대표 등 동네형들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은 주로 타 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했던 활동가들이었다.
 - 약 6년 전, 안산에서 아동교육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1년여 고민 끝에 수유동에 모여 지역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발견하여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서 찾는 재미
 - 동네형들의 박도빈 대표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이 이 단체의 모토이며, 요즘 들어 이러한 일들이 중요해지면서 어떻게 재미있게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다.
 - 최근 점차 이들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단체 포지션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 역시 고민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 스스로 삶의 변화를 지향하며 즐겁게 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일과 일상의 조화, 청년 삶에 대한 의미 찾기

-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지역 안에서 일과 일상의 조화를 통해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같이 살지 않으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있고, 그렇게 일과 일상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곳에서 활동들은 청년들 삶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고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근무 조건을 정하는 일에서부터 자신과 일,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일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사실 저희가 복지가 좋거나,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일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일하고 있지요.”

② 활동의 한계

- 혁신, 변화라는 범주 안에서 활동이 갖는 부담감

- 박도빈 대표는 지역에서 사회혁신이라는 범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고 전하며, 점점 더 우리 스스로

삶의 변화를 먼저 생각하자. 쪽으로 생각이 옮겨 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지역이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 저희의 요즘 기조는, 우리 스스로나 잘 좀 변화하자. 생각이예요.”

○ 사회적 책임과 부담

- 또한 단체 인지도가 생기면서 점점 역할과 사회적 부담과 책임이 생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지원사업 과정에서 상하 관계 맺음, 파트너십 부재

- 동네형들 역시 공공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이들도 여러 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파트너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 지원사업의 규제가 가져오는 하향평준화

- 박도빈 대표는 현재 공공사업들의 운영 방식은 계속해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책과 규제 안에서 오히려 각각의 예술가와 단체들이 가진 자율성을 하향평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스스로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지원사업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기 위해 노력해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들이 가능하느냐가 문제죠.”

○ 지자체 및 지역 단위 문화적 이해도 부족

- 도시재생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부족한 지자체의 정책적인 문제와 지역과의 관계들 역시 어려운 부분이라 했다.
- 이들 단체들이 많은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로 인해 비난받게 되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막상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려 하면 이 또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면서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저희는 가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고민해요. (……) 저희는 계속하고 싶은데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하죠. 그런 괴리감이 있죠.”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지원사업에서 각 단체가 가진 다양성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음

- 본인들을 비롯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단체들이 지원사업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며, 지원사업에서 각각 단체가 가진 성격과 환경에 맞도록,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젊은 기획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예술 공동체
 - 이 단체는 2009년 대학로 인근에서 근무했던 문화기획자들이 퇴근 후 모여 좋아하는 일들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후 임성연 대표와 박상권 대표를 필두로 이들이 점차 이 일에 집중하게 되면서 현재 모습으로 발전했다.
- 2013년 연희동으로 거점을 옮겨 활발히 활동 중
 - 2013년부터 연희동으로 거점을 옮겨, 카페 보스톡(Cafe Vostok)과 공공연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희'small 동네마켓>, <잠깐만팜 도시농업프로젝트>, <연희동 아트페어> 등 예술과 지역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카페 보스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와 예술적 실천을 동시에 진행
 - 이들의 주요 활동은 카페 보스톡을 거점으로 한 비즈니스 공간(2층 카페)과 프로젝트 스페이스인 공공연희(1층)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공간은 이들이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수익 창출과 문화예술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 연희동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일상예술활동의 진행
 - 그 밖에 이들이 하는 활동은 연희동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공예가들이 모여 시작된 <연희'small 동네마켓>(구 연희동네 플라마켓)과 대안적 삶의 모델로 노동의 힘과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 접근에 대한 예술적 실천 행위로서 <잠깐만팜 도시농업 프로젝트> 등이 있다.

③ 발전 과정

- 2009년 대학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젊은 기획자들 모임으로 출발
 - 무소속연구소는 2009년 대학로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하지만 대학로는 젊은 기획자들이 자리 잡기에는 임대료, 네트워크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었다.
 - 이후 임성연 대표 등이 직장을 그만두고 연구소 활동에 집중하면서 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 2013년 연희동 카페 보스톡 오픈과 함께 연희동을 거점으로 활동
 - 2013년 연희동에 카페 보스톡을 열어 비즈니스 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2014년에는 제주 애월읍 유수암리에서 1년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지역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는 연희동을 거점으로 다양한 예술과 지역의 공존 방법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예술과 도시의 바람직한 공존 방법에 대한 실천적 연구, 공공미술의 마케팅적 접근 등 실험적 시도
 - 무소속연구소는 그들을 소개하는 자료를 통해 예술적 행위와 도시 간 긍정적인 관계 탐구, 도시와 예술의 바람직한 공존 방법을 실천하는 예술 공동체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공공미술이라는 영역을 마케팅적 사안으로 접근하여,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측정해 보는 시도 역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의 비전은 카페 보스톡이라는 비즈니스 공간을 통해 일정 부분 실현 중이다.
 -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성공했다는 정량적 측정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는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케팅을 미술로 했을 때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테스트를 좀 하고 싶었어요.”
- 지역 문화로 자리 잡아 가는 활동들의 결과를 보며 보람 느껴
 - 프리마켓의 경우 더 이상 홍보하지 않아도 오픈 후 몇 시간이면 셀러 모집이 마감된다. 이러한 행사들이 지역의 문화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 등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② 활동의 한계

- 예술가들과 맺는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의 어려움
 - 무소속연구소의 경우,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던 다른 단체와는 반대로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 출신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안서나 공모사업 신청에서 어려움은 특별히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 “저희는 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사실 행정적인 것들이 어렵지는 않지만, 오히려 예술가들을 섭외하고, 아티스트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단체인 것 같아요.”
 - 또한 카페라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접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연구 인력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공간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무소속연구소 역시 활동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 “모든 디자인은 저희 멤버들이 공짜로 해주는 것이고, 카페 아르바이트생 정도만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카페라는 비즈니스 공간을 확보했으나, 운영적 측면에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실제 이들은 카페라는 비즈니스 공간 구축을 통해 활동 영역을 보장받고 보다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비즈니스로서 잘 운영되는지는 여전히 문제로 인식되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저희가 잘된다는 증명을 하려면 카페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즈니스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잘된다고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 공공 지원사업 참여 시 지향점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 특히 지역 관련 사업에서 지역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범주에서 이를 평가하는 경우를 볼 때, 공공 지원사업의 방향성과 단체 활동이 잘 맞지 않는다는 회의감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 인건비 확보 문제

-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나 대표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보다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 시대는 그런 상황이 맞았던 것 같기는 한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대표자는 월급이 없고, 인건비 체계를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인건비 및 공간 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
 - 임성연 대표는 앞서 고충으로 지적된 인건비 문제와 공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원이 제공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골목잡지 사이다》는 수원을 기반으로 2012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지역잡지
 - 《골목잡지 사이다》(이하 《사이다》)는 더페이퍼 최서영 대표를 중심으로 2012년 4월 19일, 수원 지역을 기반으로 창간된 지역잡지다. 현재 계간 무가지(5,000부)로 발행되고 있다.

○ 지역 이야기를 담고 있는 커뮤니티 미디어로서 성격을 지님

-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계층과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 안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안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기억을 기록하는 일을 통해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이런 출판 활동들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야겠다 생각했지요.”

② 주요 활동

○ 《사이다》 발행과 지역 출판, 아카이빙 활동

- 이들의 활동은 지역잡지 《사이다》 발행을 큰 축으로, 지역과 출판에 바탕을 둔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 구체적으로 수원의 골목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골목여행잡지 《Time Traveler》, 지역 아카이브 서점 ‘곰바로 책, 방’ 운영, 출판학교 <복스튜디오 사이다> 운영, 지역 아카이브 작업 및 출판, 골목박물관 조성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③ 발전 과정

○ 출판디자이너 최서영 대표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시작

- 처음에는 지역 문화기획자들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지만, 준비 과정에서 최서영 대표 혼자만 일을 진행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최 대표가 《전라도닷컴》의 편집장을 찾아가 지역잡지를 만들고 싶다 의논했고, 그와 수원에서 연속 강의를 개최했다. 이후 뜻을 함께하는 2인의 동료가 생겨나며, 2012년 4월 19일 《골목잡지 사이다》 창간호를 펴냈고, 5년째 계절마다 내고 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지역 안 이야기들을 발견하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활동으로 연계

- 최서영 대표는 지역잡지 발행이 단순한 출판물로서 갖는 의미가 아닌, 지역 안에서 잊히고 사라져 가는 우리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며, 지역이라는 것,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공유한다고 이야기했다.

“골목 안에서 우리가 잃었던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야기를 찾고 싶었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그들이 살아나고 이것을 본 나의 삶도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시작한 것 같아요.”

○ 노인들과 만나며 삶의 가치와 진심 확인, 이야기의 힘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지역 안에 소외된 계층인 노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그들이 가진 삶의 지혜와 그 속에 담긴 진심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힘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변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② 활동의 한계

○ 공공사업 참여 과정에서 파트너로서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 최서영 대표는 지역 안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사업의 필요성을 발견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과 협조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때 정당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했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사업에서 활동 주체로서 인정과 협력

- 공공과 불가피한 협조 관계 속에서 사업을 시작해도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상실감이 크며, 실제적으로 활동 기록과 업적에 대한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 정량적 평가 기준에 의한 사업 심사, 지원사업 영역의 한계

- 마을만들기와 같은 최근 지역 관련 지원사업들이 실제 지역을 위해 일하는 자신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원받을 수 없는 영역이 되어 버린 점도 지적했다.

“저희 같은 단체가 그런 사업에 신청하면, 저희는 마을에서 지탄을 받아요. 저희가 그런 예산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에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단체의 활동 가치를 인정하고, 각각의 보유 특성에 대한 지원 필요

- 최서영 대표는 그동안 자신들이 사업과 관련된 평가를 받았던 경험에 비추어, 지역 안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사업의 지원이나 평가 시 일률적인 틀 안에서 이를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래 단체들이 목적하는 가치들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현실성 있는 사업 개념, 사업 지원 필요

- 또한 최근 정책적으로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좀 더 현실적이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개념들은 너무 가볍고, 고민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척이나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좋은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세요. (……) 말로는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진짜 출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깊게 고민했는가, 사회에 떠오르는 문제들을 너무 쉽게 가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홍대앞 문화예술생태계를 지속하기 위한 합의체로 결성
 - 홍우주(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는 2014년 8월 27일 창립된 홍대앞 문화예술 생태계 대표적 합의체다.
 - 2013년 서교예술센터 폐관 위기에 이를 막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여,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 보전과 지역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에 서교예술센터가 폐관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홍대앞에서 활동했던 여러 주체 분들이 모여서 그것을 막아 낸 사건이 있었고, 사실상 그것이 계기가 되어 홍우주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 젠트리피케이션선과 같은 홍대앞 현안 이슈의 공론화 및 개입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자체 사업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구축을 통해 홍대앞 문화예술 생태계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그 안에서 자치권 확보를 주요 활동 목적으로 움직인다.

② 주요 활동

- 홍대앞 다양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활동들 진행
 - 홍우주 활동은 그들이 만들어진 계기에서 볼 수 있듯이 홍대앞에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서교예술센터 폐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 막아 냈던 것처럼, 2016년에는 홍대관광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대책회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은 홍대앞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주체이자, 또 다른 홍대앞 문화예술 지지자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문화적 공론장으로서 역할, 홍대앞 생태계 보존을 위한 다각적 노력
 - 그 밖에 <홍우주포럼>을 개최하여 홍대앞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조성하거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 강좌, 문화예술 교육, 협동조합 기초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홍대앞 문화예술 생태계 생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③ 발전 과정

- 서교문화예술센터 폐지를 막기 위해 결성
 - 젠트리피케이션선으로 예술가들의 공간이 사라져 가던 시점에서 유일한

공공공간이자 상징적 공간이었던 서교예술센터가 사라질 상황에 놓이자, 이에 홍대앞 공간의 황폐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유일하게 공공공간이 되었던 서교마저 없어진다면 홍대앞이 더욱 황폐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시작된 것이죠.”

- 이로 인해 홍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러 주체들이 모여, 2013년 10월 이후 서교예술실험센터 폐관 위기 때 서교예술실험센터 유지를 위한 대책회의 및 라운드테이블을 수회 진행하였고, 그 결과 그해 11월 초에 서교예술실험센터 계약 연장을 결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홍대에 대한 애증과 젊은 예술가들을 통해 여전한 희망 발견
 - 정문식 이사장은 오랫동안 홍대를 거점으로 활동했던 예술가로서 홍대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던 2010년 무렵에는 홍대에 대한 실망과 애증으로 홍대를 떠나고 싶었다고 한다.
 - 그러나 서교예술실험센터 사건 등 이후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며, 여전히 홍대를 찾고 이곳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홍대에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여전히 여기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다시 버리지 못하고 이어지게 되었죠.”
- 예술과 사회의 매개자로서 갖는 비전
 - 문화예술가들이 모인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언어와 사회적 경제의 언어를 모두 사용한다. 그러나 이 둘의 언어나 사고는 매우 달라 실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홍우주는 스스로 이 둘 사이의 매개가 되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인식 수준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러한 활동이 사회를 설득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 중 하나고요.”

② 활동의 한계

- 홍대에 대한 이해 없는 정책적 시각
 - 이들은 주요 활동 중 하나가 외부 결정으로 인해 홍대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는 일이다. 이때 많은 경우들이 홍대라는 공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정책적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 민간 역할을 침범하는 공공지원

- 공공기관에서는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공공에서 민간이 해야 할 역할까지 침범하고 있다. 또 해당 민간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그들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필요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고, 실질적인 협력이나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그 점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조합원들 사이 의견 조율과 참여 독려 과정의 어려움

- 정문식 이사장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100여 명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을 운영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 했다. 특히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이 강한 예술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든다고 했다.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말 안 듣고 그럴 때죠. 뭐, 다 비슷하죠. 특히 예술가들이 아무래도 좋게 말씀드리면 독특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까다로우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맞춰드리려 하니 힘들죠. 저희 조합원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공공과 협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진짜 흉대 문제 파악해야

- 흉대앞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책적 결정들을 보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흉대앞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없이 상상으로만 이러한 일들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결정되어 진행되었을 때 흉대앞에 끼칠 영향력은 막대하기 때문에 답 없는 협치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에서 협력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공 보조금 사용에 단체들의 정당성 부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 또한 영국 사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져야 할 당위성 문제와 배분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금 배분과 사용에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어떤 가치를 위해 남들이 하려 하지 않는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자원을 배분해 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매우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에 대해 배분하고 집행하는 자율성을 얼마나 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는 구로구를 기반으로 예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임

-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는 2008년 8월 <배꼽 빠지는 도서관> 사업을 통해 구로 지역을 중심으로 태동했다.
- 구로 지역은 그 특수성 상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내면을 치유하고, 건강한 자아를 찾아갈 수 있는 아트테라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문학을 통해 사회 문제를 유연하게 접근하려 시도하고 있음

- 또한 문학을 통해 마을의 오래된 것들을 예술적으로 기록하고 엮어 내는 작업을 진행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예술을 통해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문학을 통한 예술치유 활동

- 결애는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치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는 ‘시 테라피’로 청소년들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꺼내고, 시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삶이 치유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 2008년부터 운영하여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들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안 사람들 이야기들을 엮어 그림책을 발간하거나, 지역 안에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지역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 카페를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 중이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예술을 통한 치유, 아트테라피 실천

-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는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내면을 치유하고, 건강한 자아를 찾아갈 수 있는 아트테라피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 또한 마을의 오래된 것을 예술적으로 기록하고 엮어 내는 작업을 통해 사회의 고민을 유연한 예술의 힘으로 해소하려 한다.

- 실제 지역 구성원들 삶이 변화하고 지역 일상이 변화
 - 실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 중에는 문화예술 전공자가 배출되기도 했고, 이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활동을 함께하기도 한다.
 - 또한 그들이 발행한 마을 그림책은 마을여행 투어 가이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보면서 스스로 활동에 (마약 같은) 보람을 느끼며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저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에너지를 그간 지역에서 9년 정도 지내면서, 사람들이 실제 변하는 것을 보면서, (……)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공과 민간의 신뢰 파트너십 형성
 - 라운드테이블에 동행한 구로문화재단 나기석 주임은 이들이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러한 비전을 실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았기에, 중간 매개자로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실 재단은 구청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을 자주 지지해 주시고 계세요. 문화정책팀의 지원과 에너지는 지역 안에서 매우 의미하다고 생각해요.”

② 활동의 한계

- 성과 검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조하연 대표는 성과를 보여 주는 방식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문화예술 성과가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를 통해 평가를 받으니 그런 사업들을 자주 단체 스스로 배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 예술가와 지원기관의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사업은 오히려 예술가들을 제도 속에서 스스로 병들게 하는 병폐를 낳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저는 사실 예술 관련된 서울시나 구청, 공공의 예산은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문화예술 쪽에서 주는 예산에 대한 성과지표가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개개인의 결이 다르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성과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하지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성과 검증에서 정량적 평가 기준에 의한 한계
 - 이들 역시 지적하는 부분은 그들의 성과가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부분임에도 규격화된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기준 차이였다. 이 단체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포기하고 최대한 독자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2가지, 떼돈을 벌어 건물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고, 입주자 대표가 저희 건물주라 이제까지 버티고 있고요. 나가라 하면 그때 받아들이자 정리해 놓은 상태예요.”

○ 공공 행정 주체들의 태도에 대한 실망

- 또 이들이 <가리봉봉 아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지만, 도시재생을 논하는 행정 주체들 모습에서 실망을 느꼈으며, 그들과 협력하는 부분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 방식대로 자주적인 고집을 좀 보여 줘야 하는데, 너무한다 싶어서 <가리봉봉 아트> 5개월을 지내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

- 조하연 대표는 예술가 참여예산제같이 예술가들이 직접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고 받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3) 결과 정리 및 시사점

1) 지역활동 분야 현황과 특징

- 지역의 자생적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 라운드테이블 결과와 기존 연구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 지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술가 및 기획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러한 현황은 관 주도 도시재생과 관련한 많은 프로젝트와 사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 가는 움직임이 있다는 증거다. 또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한 축으로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 재정적 어려움과 생존 문제에 직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군처럼 활동하는 많은 기획자들은 재정적인 문제와 생존 문제에 고민하고 있었으며, 활동 터전으로서 공간에 대한 타율적인 배제, 지속적인 사무실 확보의 어려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등 현실적인 고민과 늘 함께하고 있다.
- 지역과 관계적 측면에서 적절한 거리 유지 문제
 - 지역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예술활동이 사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지역과 관계를 맺고 개입해야 하는 것도 고민되는 부분이다.
 - 또한 실제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을 토대로 활동하는 탓에 주민, 지자체와 공공 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관계 맺기가 단기간에 어렵다는 사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2) 발전 방향 및 주요 의제

- 지역활동 분야에서 새로운 예술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은 새로운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상존한다. 공통적으로 드러난 어려움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을 위한 고민의 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려 한다.

- 지역에서 예술이 개입하고 거리를 두는 데 있어 적정선 문제
 - 기획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활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물론 그에 대한 보상이 부재하거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지역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공공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긍정적 성과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들 활동에 대한 지역과 사회적 인식 수준과 평가는 낮은 상태다.
-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관계망을 구축하고 지원책 제공
 - 사회적 책임을 갖는 기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사회적 기업과 연계시키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등 방향성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중간 조직의 연계 노력과 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에서 추진하는 지원이 때로는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역에 대한 맥락과 장소성에 대한 이해와 재해석
 - 예술활동이 장소성을 변화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은 문화예술을 토대로 하여 담론이 생산됨과 동시에 그 대안이 모색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 이에 지역예술에 기반한 장소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술을 통한 문화자치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문화공동체 공간자산화 전략과 문화자치구 조성 등 다양한 논의와 대안들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을 통해 해당 지역들이 — 다양한 ‘대안 문화예술 체험의 거리(Alternative Place)’, ‘지역과 바깥을 잇는 문화의 거리(Bridge Place)’, ‘문화인큐베이터 공간(Incubator Place)’으로서 —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면서 지역의 장소성을 제대로 밝혀 나가는 미래 과제이자 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일상창작 분야

(1) 라운드테이블 개요

1) 일상창작 분야 새로운 예술의 동향

- 일상창작 분야는 생활양식의 변화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활동
 - 즉 일상생활에 개입하여 생활혁신이나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으로, 기본적으로 생활예술로도 분류할 수 있다.
- 생활예술로 분류할 수 있으나 다수의 동아리 활동을 포함할 수 있어 별도의 예술활동으로 규정
 - 생활예술로 분류하는 데 있어 문제는 여러 유형의 동아리 활동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통상적인 생활예술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특정한 예술가들, 즉 주체들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창작활동을 하거나 작가 스스로 메이커스 형태의 창작활동을 추구하는 사례를 일상창작이라 보았다.

2) 라운드테이블 구성과 운영

- 라운드테이블은 총 14개 단체 중 참석 의사를 밝힌 10개 단체로 구성
 - 김진주 아키비스트가 작성한 「예술의 사회적 개입 심층 연구 기초 목록 60선」(2017년 9월 13일 기준)에는 동대문 옥상낙원 DRP, 000간, 릴리쿰, 수리수리협동조합, 언메이크랩, 00은대학연구소, 천문공작실, 이모저모도모소, 공도창공 수동, 적정기술공방, 시적연산학교, 서울자유지도 등 총 12개 단체를 일상창작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외 연구진에서 오늘공작소, 큰언니네부엌, 리마크프레스(이문238)와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일상예술창작센터 5개 단체를 추가로 발굴하였고, 이 중 10개 단체를 섭외하여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였다.
- 참석 단체 현황
 - 참석 단체는 000간, 릴리쿰, 수리수리협동조합, 공도창공 수동, 적정기술공방, 리마크프레스(이문238),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큰언니네부엌, 오늘공작소, 일상예술창작센터다.
- 라운드테이블은 10월 24일(화)과 11월 1일(수) 총 2회에 걸쳐 진행
 - 각 회에 5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모더레이터 안영노와 담당연구원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혁규 연구보조원이 참석하였다. 두 번에 걸친 라운드테이블 개최 개요는 <표13>, <표14>와 같다.

(2)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

000간

〈표13. 일상창작#1 라운드테이블〉

일시	2017. 10. 24.(화) 13:00-16:10
장소	서울역 프리미엄 라운지 토포즈룸
참여단체/참석자	공도창공 수동: 정길수 대표 리마크프레스(이문238): 이재준 대표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김성수 대표 일상예술창작센터: 최현정 대표 적정기술공방: 함승호 대표

〈표14. 일상창작#2 라운드테이블〉

일시	2017. 11. 1.(수) 9:30-12:40
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교육장2〈받다〉
참여단체/참석자	000간: 신윤예 공동대표 릴리쿰: 선윤아 대표 수리수리협동조합: 남윤호 이사 오늘공작소: 신지예 대표, 한광현 연구원 큰언니네부엌: 김혜경 대표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000간은 창신동에 위치한 대안적 생산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신윤예 대표는 “000간이라는 이름은 공공성이라는 것을 맹목적으로 좇기보다 공동체와 커뮤니티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서로의 문제에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빈 공간이라는 의미로 지었다.”고 말한다. 즉 주문 생산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것을 생산한다는 관점에서 만든 기업이 000간이라는 것이다.
 - 이 이념에 기초하여 000간은 〈소울소잉〉이라는 청년 제작자 프로그램과 〈디자인 빌리지 캠프〉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제로웨이스트 디자인’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디자인 빌리지 캠프〉는 디자인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이고,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이란 버려진 자투리로 만들어진 새로운 제품을 말한다.
- 000간은 2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
 - ‘000간’은 처음 예술가 2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홍성재 대표와 신윤예 대표 2인 체제로 운영한다. 홍성재 대표는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신윤예 대표는 제품 생산 분야를 담당한다.
 - 직원은 그래픽디자이너 3명, 마케팅 담당 1명, 경영지원 1명, 제품디자이너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노사 관계이지만 신윤예 대표는 8명의 크리에이터들이 같이 모여 소셜디자인을 하는 단체라 생각한다.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에도 8명의 크리에이터들이 같이 모여 소셜디자인을 하는 단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회의 때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만들지 고민합니다.”
- 다른 한편, 공임협약 방식으로 여러 공장과 일하는 게 특징
 - 000간은 창신동 11개 봉제공장, 영등포·노원·종로 지역 자활센터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다. 각각 공간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000간은 제품에 대한 검수와 봉제기술 지원 및 봉제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을 시행한다. 단순 위임이 아니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봉제 기반을 만들려는 게 목표다.

② 주요 활동

○ 000간의 주요 사업은 교육 프로그램과 제품 생산 및 판매

- 대표적인 사업은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이다.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이란 버려진 원단 잉여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000간은 지역에 난무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일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제로웨이스트. 웨이스트(waste)가 없다는 뜻이죠.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건 정말 단순했어요. 자투리천이 항상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에 가득 담겨 골목 곳곳에 산처럼 쌓이거든요..... 그제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어서 그렇지 이 지역에서만 나는 새로운 자원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 <소울소잉>이라는 청년 제작자 프로그램은, 봉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공돌이, 공순이로 치부되는 상황에 문제를 느껴 시작한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봉제 노동자가 한 명의 장인이라는 점을 재인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고, 청년을 대상으로 바로 그런 제작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저희가 봤을 때는 한 번의 손기술, 봉제 제작이라는 걸 배우면 평생 할 수 있는 일거리로 보였거든요. 내가 입을 옷도 지을 수 있고, 스몰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소울소잉>이라는 청년 제작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 같아요.”

- <디자인 빌리지 캠프>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디자인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③ 발전 과정

○ 신윤예 대표는 순수예술 전공자. 이 일을 꿈꾼 것은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예술을 꿈꿨기 때문

- 신윤예 대표는 대학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했다. 다만 그는 사회적 이슈를 담은 예술가가 되려 했다. 그래서 미술계 내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 한다.

- 그러다 창신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변하게 된다. 지역 문제에 눈뜨게 된 것이다.

“실제 리얼한 사회 커뮤니티와 맞닥뜨려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술이라는 틀을 활용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창신동이라는 지역을 만나게 되었고, 이곳 어린이들에게 삶과 예술을 가르치려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 한 거고.”

○ 예술교육으로 시작했으나 지역 활동으로 전환, 이제는 비즈니스 대표로 성장

- 예술교육으로 눈이 뜨이기는 했으나 일회성 이벤트로 느껴졌고, 곧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구상한 것이 “지역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즉 지역에 지속적으로 뿌리 내리면서 활동 기반을 찾는 것이었고, 그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 형태로 000간을 창업했다.

“예술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문제에 공감하고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일거리로, 혹은 삶의 근간으로 가기에는 일차원적이고 이벤트라는 한계를 느껴서, 이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지 않으면 지원금이나 후원금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룹이 되겠다 느꼈어요.”

○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카이스트에서 MBA과정 수료

-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통해 지역과 예술에 대한 결합을 성숙시킨 신 대표는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미션을 해결하는 안정적인 모델을 꿈꾸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탐구하기 위해 카이스트에서 MBA과정을 밟고 있다. 2016년에는 카이스트 청년창업지주센터에서 2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신윤예 대표의 비전은 “지역 안에서 공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

- 그는 공생이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공장들도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특히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봉제 지역 컨설팅을 다녀온 후, 단지 창신동이란 지역에서만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봉제산업에 대한 인식과 봉제 노동자들에 대한 이미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저희는 사실 투자까지 받은 기업으로서 성장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선 창신동이라는 지역 안에서 공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개발했지만, 그게 단순히 창신동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 사람과 만나며 일하는 과정에서 행복 느껴

- 신윤예 대표는 “000간은 투자를 받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000간이 줄인 자투리 천의 양, 교육 프로그램을 거친 수혜자 등을 정량화해 보여 주기는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람 있는 것은 활동 과정에서 사람들과 만나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② 활동의 한계

- 한계는 역시 제품 판매 문제. 이를 위해 가치 기반 플랫폼 구축 노력

— 가장 큰 고민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을 누구에게,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다. 우리나라에서 핸드메이드 제품은 여전히 싼 가격으로 소비하는 제품이라는 편견이 있다. 따라서 000간을 보는 시각도 싼 제품을 만들어 파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우리의 제품은 여러 장인들이 모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그 제품은 가치 있게 팔릴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는 제품을 만든 장인들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 가치 기반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치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려 한다.

“다른 유통 플랫폼과도 협력하려 하고요. 유통까지 다 인하우스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협력체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 사업 분야 간 영업이익 차이도 고민

—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 영업이익에도 고민이 많다. 000간은 크게 제품 판매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제품 판매의 경우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렵다. 반면 교육 프로그램 분야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아 영업이익이 남는 편이다. 그래서 제조를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이 또한 여러 사람들이 일하는 파트라 그만두기 쉽지 않다. 지금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

“제조업을 그만두어야 할까 고민도 해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업이 돈이 많이 남으니까.(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접지 않는 이유는, 제조업은 생태계 산업이거든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생각이 있다 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시장 구조

— 신윤예 공동대표는 사회 패러다임과 구조가 변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리더가 아니라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끌어낼 수 있는 혁신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경제에 청년이나 마을 주민이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신 대표는 어떻게 하면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한다.

“항상 사회적 경제나 연대 경제를 이야기할 때 생태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생태계에 많은 청년들이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게 돼요.”

○ 중규모 이상 성장한 기업이 의존할 수 없는 사회 구조

— 000간은 5년이 지났다. 총 직원 수도 8명이다. 때문에 어느 스타트업과는 다르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 있는 생활형 센터나 메이커스페이스의 경우 000간 정도 규모를 수용할 공간이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이 활용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없어서 아쉽다.

“우리는 좀 더 판을 키우기 위해 이런 자산들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작게 작게만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가장 필요한 것은 비전을 주는 것이며 현재는 계속 실험 중

— 신윤예 대표는 지속가능한 일거리로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는 실험 비용만 지원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실험 후 연속될 수 있는 후속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속 구조들이 탄탄하지 않으면 계속 나가는 실험 비용으로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중간에서 구조를 잡아 주는 역할을 큰 기관들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도창공 수동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공도창공 수동은 축령산 기슭에 있는 창작공간
 - 정확한 위치는 남양주시 수동면이다. ‘공도창공 수동’이라는 이름은 ‘공생도구 창작공간’의 줄임말로, 여기서 ‘공생도구’는 현대 자본주의 문명의 성장주의를 비판한 학자인 이반 일리치의 개념을 빌려 왔다. 이 공간은 경기문화재단 창생공간 사업에서 지원받아 2년째 운영되고 있다.
 - 공간은 독일에서 미술을 전공한 정길수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적정기술 워크숍과 난로 제작이 주요 활동
 - 주요 활동은 지역을 중심으로 삼아 마을노인회 등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적정기술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길수 대표가 축적해 온 각종 기술을 활용하여 로켓 스토브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활동이다. 현재는 상품화 구상 단계에 있다.
“최근에는 지역 커뮤니티 연계사업이라 해서 마을노인회와 연계해 그쪽에서 커뮤니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워크숍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하게 공생적으로 교육하고 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③ 발전 과정

- 정길수 대표 본래 전공은 서양화
 - 정길수 대표는 독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그러면서 예술의 원천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한다. 특히 자본의 가장 큰 파트너가 된 예술에 대해 회의를 느꼈고, 제도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 내려는 동력을 찾으려 “예술적 일탈”을 기획했다.
“과연 근대 이후에 진행되어 온 예술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직접 제작하는 메이킹스페이스 또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유지하려는 동력으로, 또는 동기로 작용하게 된 것 같아요.”
- 예술적 일탈을 꿈꾸며 자본화되지 않은 예술, 협력의 예술 고민
 - 예술의 일탈을 꿈꾸며 생각한 것이 “자본화되지 않은 예술”, “물질화되지 않는 예술”, “협력의 예술”에 대한 고민이었다.
“물질화되지 않는 예술. 비물질 예술. 물질화되더라도 최소화하는 예술. 아니면

지금은 범주가 되었지만 공동체와 함께하는, 협력하는 예술의 형태를 새롭게 탐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관심이 시작된 것 같아요.”

- 산속에 들어가 집 짓는 일을 시작하며 적정기술 고민
 - 예술적 일탈을 꿈꾸며 2001년 산속에 들어가 집 짓기부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생존 도구를 만들어 내는 경험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생존 기술을 쌓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지역에 대해 고민
 - 지역에 대해 고민한 것은 2001년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지역 폐가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현황을 연구하기도 하고, 공공미술가들과 협업하면서 그동안 축적했던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구현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도봉마을 예술창작소 활동 등 5년 정도를 공공예술활동에 집중적으로 참여했다.
“안양 5동 재개발 상황을 리서치해 보니, 또 한 3~4년 전에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란 곳을 리서치해 보니 거기도 정말 참혹했죠”
- 이후 도봉구 황새동지 팀과 2016년 공도공간 수동 창립
 - 도봉구 활동을 거치며 같이 도봉구 황학동에 있는 ‘황새동지’에서 같이 활동하던 총 5명의 작가들과 2016년 ‘공도공간 수동’이라는 팀을 만들었다. 공도공간 수동은 경기문화재단 창생공간 조성사업에 지원하여 현재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지배 권력에서 탈주해 새로운 예술지형을 여는 것
 - 정길수 대표의 비전은 자본화된 예술에 대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즉 “지배권력으로부터 어떻게 탈주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일상을 자신의 작업과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 추진력, 지배권력으로부터 어떻게 탈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접점들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 적정기술을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
 - 예술적 탈주를 위해 그는 2001년부터 지난 10년간 축적해 왔던 기술을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사회 공동체가 현재 삶을 재해석하고, 물질과 자본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알아가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저희 지역도 들여다보면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도 꽤 되고. 뭐 이런 공동체에 제가 산속에서 겪으면서 축적했던 기술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 최근까지 제 모습입니다.”

○ 최근에는 제품화에 대한 비전도 있어

- 최근 ‘공도창공 수동’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적정기술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적정기술 제품의 상품화를 구상 중이다. 그 이유는 경기문화재단의 공생 공간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다른 문화향유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 적정기술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상품화하는 방안을 지역 커뮤니티 연계사업으로 내놓았다.
- 하지만 이 상품화하려면 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이를 잘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들도 없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적정기술이지만 어쨌든 열에너지 이용 기술, 로켓 스톱브 등을 제작하고 연구해 왔으니까, 그걸 제품화하겠다. 커뮤니티와 연계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제품화하겠다는 제안을 냈어요.”

○ 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에 만족

-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과와 업적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타협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자신의 작업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사회 공동체가 조금이나마 삶의 결을 재해석하고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틀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물질과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잘살 수 있는 방법과 가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② 활동의 한계

○ 개인 역량의 한계 느껴

- 정길수 대표는 개인적 역량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한다. 특히 기획력에 한계를 느낀다. 그는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이 있지만 기획력 측면이 부족하다고 자평하며, ‘공도창공 수동’ 이전에 참여했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나 도봉마을 예술창작소 활동의 경우, 기획능력 부족으로 공공예술 작가들한테 프로그램 기획을 맡겨 진행했다고 한다.

“개인적인 역량이나 여건이 안 되어서 공공예술 작가들한테 토스해서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 4~5년까지 공공예술에 관여하고 개입했던 것 같아요. APAP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2년간 워크숍을 했던 도봉마을 예술창작소라는 곳이 있고요.”

○ 공공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한계 느껴

- 또 다른 한계는 현재 적정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을 상품화하는 과정에 있다. 공공성을 기준으로 만들어 공공성도 담보해야 하고, 시장에서 기업과 경쟁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어떻게 생산해야 할지 의문이라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해 개인적 역량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는 중이다.
- “기업 상대로 뭘 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과제가, 기업과 대등한 수준의 제품을 생산해 보자는 겁니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아무 상의 없이 삭감되는 지원금

-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은 대부분 작업이 공공지원을 받아 진행되는데, 작가와 상의 없이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 세월호 사건과 팽목항 실무진과 가족들을 위해 적정기술을 사용한 컨테이너 시설을 지원한 적 있는데, 자신이 지원했던 금액의 절반이나 삭감되어 곤란했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이 개인 작가나 영세한 작가에게는 한계로 작용한다는 거죠.”

○ 실행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간 지원

- 지원 스케줄 또한 문제라 지적한다. 공모 지원금이 3월 정도에 나오면 지원하고 선정되는 과정을 거쳐 6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더위가 좀 지나 9월 정도에 사업을 시작하려 하면 정산과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공모 지원의 타임라인 때문에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집행할 때 1년 단위로 끊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가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지점에 대해 작가나 단체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계는 무척 많아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공모사업에 대한 대대적 개선 필요

- 작가와 협의를 가지고 지원했으면 한다. 지원 금액의 삭감, 지원 시기, 지원 스케줄 등 전 과정을 작가와 공유하고 작가의 작품 성격에 맞추어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정책 지원금을 집행할 때 해당 기관에서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사업 집행에 대해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고, 삭감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작가들하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툭 공고가 나 버리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3년 차, 갓 새내기죠? 지원기금을 받으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듯 기왕이면 장기 플랜을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적정기술도 범위가 넓잖아요.”

릴리쿰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릴리쿰은 제작과 놀이라는 키워드로 호랑(선윤아)과 물고기(구성민)로 구성된 작가그룹
 - ‘릴리쿰’의 처음 이름은 ‘땡땡이공작’이었다. 현재는 ‘릴리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 지금은 3명에서 6명 정도가 활동
 - 3명이 활동하던 단체에서 현재는 놀이분과, 예술분과, 기술분과로 나누어 총 6명이 같이 활동하고 있다.
- 활동 목적은 사회적 미션보다 개인 삶에 필요한 놀이 집중
 - DIY, 기술 관련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새로운 것들을 실험하는 것이 주요 활동 방향
 - ‘릴리쿰’은 주로 새로운 것들을 실험하고, 브랜드들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 《월간 실패》 발행 및 공공놀이터 활동이 주요 성과
 -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생산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월간 실패》의 경우 이전 활동에 대해 논의해 보는 자리에서 실패 사례를 모은 독립출판물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가 제출되어 발간하였다. 실패 사례를 모으는 표지만 있는 가상 매거진 형태의 토크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다.
 - 이후 아트북 형태로 만들어 전시도 진행하고 있다.
 - 〈공공놀이터〉는 작년까지 하자센터와 함께 진행한 도시 팝업놀이터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 또한 전자공작을 활용한 콘텐츠와 제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전자요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제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③ 발전 과정

- 선윤아 대표의 전공은 디자인
 - 대학에서 그래픽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디자인을 공부할 때는 디자인 예술이 하고 싶어 회사에 취직해 상업적 디자이너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면서 취직을 유예하던 중 하자센터를 통해 한 사회적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사회적 미션을 해결하는 사회적 디자인이라는 개념과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지원금을 받아 사회적 디자인을 실천해 보는 커뮤니티를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 각 개인이 겪는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 현재에 진입

- 여러 사람과 만나 노동환경으로 진입할 때의 갈등이나 고민 등 개인 삶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미션보다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활동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비록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기술을 통한 제작과 놀이 등 새로운 것들을 매번 실험하면서 즐거움을 느꼈고,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계속해서 창작의 갈등을 풀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금은 받아 놓고, 고민 끝에 결국 남아 있던 사람들끼리 사회적 문제는 모르겠고 우리 문제는 무엇일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저희한테 즐거운 방식을 잘 찾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훑 가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쌓였어요.”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릴리쿰’은 “놀면서 만들고 만들면서 논다.”와 “쓸데없는 것의 힘을 안다.”가 캐치프레이즈

- 유사한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을 실험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주요한 활동 목적이다.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면서 경직성을 무너뜨리고 싶었고, 선운아 대표는 이런 실험들을 감행하면서 “성공적인 사례”보다는 “말도 안 되는 사례”가 되기를 원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하나의 사례가 됐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사례를 만드는 것 정도가 앞으로 저희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미치는가 생각해 보면 관계 중심으로 사람을 일대일로 만나 지역을 바라보는 태도라기보다, 실험이나 활동을 통해 말하려는 메시지를 이미지나 텍스트 형태로 발신하는 형태가 맞는 것 같아요.”

○ 공동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아지트가 되기를 희망

- ‘릴리쿰’은 공동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아지트가 되었으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초반에 일을 크게 벌였다가 축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서울에서 해결하는 건 만만치 않아 가까운 미래에 이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공동체에 의존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② 활동의 한계

○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문제의식

-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 계속 활동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실패의 경험이 있어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인건비가 지원 안 되는 문제

- 어디에서나 인건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문화 프로그램들의 경우 지원금을 받고 진행하지만 인건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활동 성과를 정책 성과로 흡수하는 정부 태도

- 지원 사업을 고려했지만, 성과 중심으로 보는 태도가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다.
“민간의 다채로운 활동들의 색깔을 더 살리고 강화해 줘야 되는데, 그냥 성과로 만들어 내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활동을 할 때 굉장히 한숨을 나오게 하죠.”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새로운 기획을 시도할 수 있는 인건비의 실질화 필요

- 새로운 기획을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원금 구조 안에서는 시간당 인건비만 책정할 수 있다.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집과 동네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기획 단체
 - 대표는 이재준을 포함하여 건축, 디자인, 전시 등 여러 분야 총 6명이 모인 단체다. ‘이문238’은 이문동에 있는 작업실 이름이며, 이곳은 아이들 작업공간으로 매니저 2명과 아르바이트 2명을 두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건축의 사회적 역할 고민부터 커뮤니티 활동까지
 - 주요한 활동은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다. 이와 관련하여 커뮤니티와 관련된 건축 활동을 하고 있다. 2년 전에는 국내 주거 현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동네>라는 주택장기임대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집을 두세 채 정도 지어 투자회사와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다.
- <이문238 프로젝트> 운영
 - <이문238 프로젝트>는 ‘씨프로그램’이라는 투자회사와 협업해 진행하고 있으며, 9개월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문238 프로젝트>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물리적인 인프라 개선만이 아니라 커뮤니티로 확대되어 주민의 삶과 연결되는 재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초등학교 근처에 아이와 엄마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다.

“저는 재생이 커뮤니티를 확대해 주민의 삶까지 결부되는, 구체적으로 도시에 물리적인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의 자존감과 주민의 삶이 우선시되어 지속가능한 것들이 뒷받침되고 이후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③ 발전 과정

- 실내건축디자인 전공. 정기용 작품에 영향을 받아 사회적 역할 고민
 - 이재준 대표는 대학원에서 실내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는 건축을 전공하면서, 건축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기는 하지만 이와 다른 의미나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 와중에 정기용 건축가의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보며,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책을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가가 사회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사례를 만들었다 생각해요. 그때

활동들로 인해 지금도 작은 도서관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이문238 프로젝트>는 지극히 개인적 고민에서 출발
 -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이 교육에 대해 고민했다. 자신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험이 어릴 적 학원에 다니지 않고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걸 직접 생각해 보고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보니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만 하는 시스템에 종속받게 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그래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작업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가 끝난 다음에 아주 자유롭게, 놀이터 드나들 듯이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거기서 매일매일 뭔가 만들 수 있게 해 준다면 아이들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이문238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
 -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 도시를 더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한 것이 <이문238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가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부분은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다. <이문238 프로젝트>에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려오면, 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져 혼자 재료와 도구를 만지고 무언가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서로 어색해하지만, 아이들은 이 공간을 차츰 좋아하게 되고, 어머니는 아이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결과적으로 서로 속박에서 벗어나 행복한 기회를 갖게 된다.

“엄마와 아이 간 관계가, 정말 어렵지만 이게 떨어지는 순간 아이도 엄마도 행복해지는 거구나,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② 활동의 한계

- 아직은 못 느낌
 - 다만 민간만이 아니라 공공과도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커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동네> 프로젝트나 <이문238 프로젝트> 모두 기존에 없었던 기획이기 때문에, 지원이나 후원을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을

고민 중이다.

○ 주식회사라 해서 지원을 못 받는 현실

- 특히 작년에 프로젝트의 안정화를 위해 서울문화재단에 지원했다. 그런데 주식회사라 지원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아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게 대표의 생각이다.

“저희의 최대 고민은 지속가능성,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큼니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조금씩 천천히 가는 시스템이나 태도 필요

- 이재준 대표는 “조금만 천천히 가는 시스템이나 태도”가 만들어진다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정된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거나 더 악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문제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뭐든 너무 한정된 시간 안에 빠르게 해야 한다는 시간의 문제? 그게 늘 문제를 만들고 악화시킨다고 생각해요.”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2011년 분야를 가리지 말고 여러 사람이 모이자란 의미로 만든 메이커스페이스
 - 무규칙이종결합이란 말은 소설가 박민규가 자칭 무규칙이종결합 소설가라고 자신을 정의한다는 그의 소설의 서문을 보고 거기서 빌려온 것이라고 한다 이때 ‘무규칙’은 틀에 얽매이지 말자는 뜻이고, ‘이종결합’은 다양한 분야 가리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자는 의미, 개인도 여러 분야를 섭렵하자는 의미다.
 - 공작소라 안 하고 공작터라 한 것은 장터의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커스페이스나 메이커스페이스가 ‘개조’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는 건축 용어도 재미 삼아 뒤에 붙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이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이다. 이 공간은 처음에는 ‘벌집’이라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 때 한 부분으로 설치했는데, 지금은 따로 나와 대전 유성구 산속에 새 동지를 텃다.
- 공간은 오픈형 커뮤니티 형태로 운영
 -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은 단체 채팅방이다. 이 방에는 현재 총 27명이 있다. 동호회 성격이기 때문에 활동의 심도가 모두 다르며, 현재 공간으로 오면서 상주하는 인원은 총 4명이다.

② 주요 활동

- 뭔가를 만드는 게 주요 활동
 -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은 제작을 중심으로 모인 동호회이기도 하지만, 오프라인 작업실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메이커 페어에 3명이 가서 직접 제작한 카트와 자전거를 전시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③ 발전 과정

- 어린 시절 과학자가 꿈
 - 김성수 대표의 어릴 적 꿈은 과학자였다 한다. 이 막연한 꿈을 이루기 위해 기계공학과로 진학했고, 제조업을 하는 기업가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구체적인 창업 아이템이 없어 자동차 회사에 취직해 3년 정도 다니다 대학원에서 제품디자인을 공부했다. 그러다가 인터넷 사업을 했는데 망해서 신용불량자 처지까지 갔다. 이후 남은 시간을 활용해 바퀴 달린 조그만 로봇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제품 개발업을 본업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많이 검색하게 되면서 외국의 메이커스페이스나 해커스페이스를 알게 되었고, 이런 공간을 만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에 취미 활동으로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을 만들게 되었다.

- 혼자 제작하는 것보다 여럿이 제작하는 게 즐거울 것 같아 현재 공간 오픈
 - 외국의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알게 되면서 혼자 제작하는 것보다 함께 제작하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다. 초기 ‘벌집’은 함께 공간을 만들자며 임대료까지 내 준 지인이 있어 가능했다.

“저 혼자 있었으면 아마 못 했을 건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튼 시작은 이렇습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김성수 대표의 삶의 목표는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것
 - 김성수 대표는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쳐 삶의 목표를 바꾸었다. 그래서 만든 모토가 “하루하루 재밌게 살자.”다.

“다 말아먹고 그 이후 경험들이 저한테 어떤 삶의 모토라든가 이런 걸 바꾸게 해 주었죠.”

-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 없어
 - 김성수 대표는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느끼는 개인적 만족을 위해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을 만들었다고 한다. 때문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나 목표는 없다. 그러나 일원들 내에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오간다고 한다.

- 현재는 “만드는 것의 즐거움을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만들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만드는 삶, 만드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나고 보면 그런 영향이나 사회적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드는 것의 즐거움을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굉장히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고, 공학이나 과학 쪽에서도 이런 메이커들의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요. (……) 적어도 그 순간만이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퍼져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는 해봅니다.”

② 활동의 한계

- 장비와 재료 부족이 가장 큰 한계
 -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은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재미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은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만들기 과정에서 과한 완벽함을 요구했을 때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이다. 또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재료가 부족했을 때 한계가 발생한다. 규모가 큰 제작을 할 때 공간의 크기도 문제가 된다.

“지금 작업실은 3월에 이사 왔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라 타고 다니거나 뭐 그런 큰 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저희도 난로 만들려고 했는데, 전에 공간에서는 아예 그런 게 힘들었죠.”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작업실 안정화가 가장 큰 문제
 -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계약이 끝나면 다른 작업실을 구해야 한다.
- 정부 지원을 받는 건 더 큰 문제
 - 작업실 안정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일이 복잡해진다. 재미 삼아 운영하는 공간인데 지원금을 받게 되면 여러 일이 관계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작업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공간이라,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항상 숙제로 그런 게 남아 있죠.”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실제 메이커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받았으면
 - 최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 기존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활동하고 있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지원하기보다 정부 산하기관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다. 그러다 보니 실제 활동가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데에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사업 공고를 띄워 지원한 사람한테 준 거죠. 그래서 개인 메이커한테 간 게 아니라 무슨 우체국에, 국가 하부기간 등 주로 그런 데로 가더라고요”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세운상가에 있는 수리 장인들의 협동조합
 - 2017년 사업자로 등록된 수리수리협동조합은 세운상가에 있는 수리 장인들의 협동조합이다. 현재 직원 조합원으로 있는 남윤호 이사가 2015년 서울시 도시재생 다시세운프로젝트의 거버넌스팀으로 활동하면서 수리 장인들과 함께 만들게 된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다.
- 총 10명이 출자한 협동조합
 - 남윤호 이사 외에 수리 장인으로 있는 이사 6명과 사무국 직원 3명 등 10명이 출자조합원이다. 그 외 13명 정도 세운상가의 장인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은 조합원은 아니지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② 주요 활동

- 주요 활동은 ‘수리’
 - ‘수리수리협동조합’의 주요 활동은 말 그대로 ‘수리’다. 지금까지 추억의 물건을 고쳐 주는 수리 워크숍을 3회 진행했고, <다시세운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공관 엠프를 제작하는 제작실을 운영하고 있다. 남윤호 이사에 따르면, 초기 계획은 장인들이 수리하는 매칭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였다. 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하는 활동들을 토대로 수익사업으로 나아가려 준비 중이다.

③ 발전 과정

- 00은대학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시작
 - 남윤호 이사는 국문학을 전공하고 선배들과 인권단체에서 활동했다. 그 와중에 마을사업에 뛰어들면서 ‘00은대학’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세운상가 거버넌스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주로 한 일은 세운상가 내에 있는 상인이나 기술자들을 인터뷰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세운상가 기술자들이 ‘무엇이든 고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들이 ‘기술쟁이’나 ‘납땀하는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만 인식되고 있음을 알았다. 이에 수리수리협동조합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고, 그 가치를 사회화하려 했다.

“실제로 기계를 만들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천시되는, 기술교육에서 괴리가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었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한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수리문화 확산이 큰 비전
 - ‘수리수리협동조합’의 비전은 수리문화를 알리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특히 장인들이 가진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공유되는 측면에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공유 차원은 두 가지다. 지금까지 수리 장인들이 경험했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경험을 그들과 관계 맺으면서 공유하는 것, 못 쓰게 된 물건들을 수리하면서 이 기술을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집에 방치했던 물건이나 추억했던 물건들을 고쳐 내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그 물건에 대한 추억들이 떠올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그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의 당시 성격이나 성정이나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거 같아요.”

② 활동의 한계

-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데에서 나타나는 갈등
 - ‘수리수리협동조합’의 한계는 활동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특히 협동조합은 조합원들 간 유대가 필수적인데, 세대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 또한 남윤호 이사는 기술자가 아니어서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각 장인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각자 생업이 있어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저희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지금 저를 포함해 급여의 경우 대부분을 뉴딜 일자리에서 받고 있어요. 아직 인큐베이팅 단계인 거죠. 그래서 서울시 지원을 일부 받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 그래도 하는 것은 책임감 때문
 - 각 장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사회화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 그래서 어렵지만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현재까지 왔다.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책임감이었어요. 제가 하자고 했거든요.(웃음) (……) 다만 바라는 건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의 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새롭게 활동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

- 큰 고민은 이런 일을 처음 하는 데에서 오는 갈등이다. 수리 장인분들이 현재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현재 협동조합이 하려는 일이 다르다 보니 서로 갈등이 생긴다.

단순한 행정 처리부터 서로 소통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맞춰 가는 과정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깨게 하는,

실버 계층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 협소한 공간 또한 문제

- 공간 또한 문제라 한다. 현재 세운상가 메이커스큐브 공간이 협소해 활동하기 어렵다.

“저희 사업장 내에서도 메이커스큐브라는 새로운 공간들이 생겼는데 만들 때부터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실버 세대 공모사업 관련 교육 필요

- 지역사회에 여러 연령층과 계층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 청년 문제나 산업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특히 실버 세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공간 문제 해결 필요

- 현재 입주한 메이커스 큐브가 걸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배수 문제, 배기구 문제, 히터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오늘공작소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2013년 인문학에 기초해 만든 청년 소설 플랫폼

- ‘오늘공작소’는 “인문학 없는 기술은 초라하고 기술 없는 인문학은 허무하다.”는 모토로 2013년에 만들어진 청년 소설 플랫폼이다. 현재 인문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도시 속에서 삶에 대한 고민을 풀 수 있도록 협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공작소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당사자로서 청년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먹고사는 것이 하자작업장학교를 나온 친구들의

큰 모토들 중 하나예요.”

○ 총 8명이 함께 활동하며 스스로 잘 사는 방법 실험

- 월급을 받는 직원은 없다. 신지에 대표와 한광현 연구원을 포함하여 총 5명의 활동가와 공간에 입주해 활동하고 있는 청년 3명이 있다. 이렇게 총 8명이 모여 “기술과 예술을 통한 청년자립, 사회에 대한 이익, 우리 스스로 잘 사는 방법들”을 실험하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50만 원 비즈니스>, <부흥주택>, <3D 프린트 프로젝트> 등이 주요 사업

- 초창기에는 <50만 원 비즈니스>를 주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후지모라 야스유키라는 일본의 발명가가 쓴 『3만엔 비즈니스』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어 청년들이 스스로 일감을 찾는 프로젝트다. 유럽에서 많이 쓰는 2미터 정도 되는 자전거인 카고바이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짐을 싣거나 도시락을 나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찾도록 하는 활동이다.

- <부흥주택>은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 1960~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집에 청년들이 직접 들어가 거주하면서 동네 목공방 장인들과 함께 인테리어를 배우면서 삶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 활동이다.

○ 프로젝트를 통해 꿈꾸는 것은 도시적 상황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기술과 예술의 결합으로 풀어나가는 것

“우리가 왜 불행해졌나를 설명하는 그분의 이론은 이래요. 본업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위해 먹고살려면, 먹고살기 위해 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 이렇게 바로바로 직면한 청년의 상황들, 도시적 상황들이 저희에게 동기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③ 발전 과정

○ 하자 출신

- 신지에 대표는 ‘하자작업장학교’ 출신이다. 중학교 시절 두발자유운동을 하면서 공교육의 한계를 느꼈고, 고등학교 때 대안학교를 선택했다. 하자작업장학교에서 예술과 인문학 중심으로 공부하며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고민했다.

○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다 오늘공작소 설립

- 하자 이후 4년 정도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다 한계를 느끼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운동을 하기 위해 5명이 모여 기술과 예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는 오늘공작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 또 다른 참여자인 한광현 연구원은 이삼십 대에게 “좋은 풍경”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삼사십 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도시 안에 살면서 도시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도 실제로 도시 풍경이 제공해주는 것도 지금 이삼십 대들은 즐기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그 접점을 만들고 그걸 통해 생계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사오십 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바탕을 만드는 데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청년이 자기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 ‘오늘공작소’는 “어떻게 하면 도시 안에서 삶의 밀도를 심도 있게 높여 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청년들이나 지역 주민들과 우리의 삶을 함께 바꿀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고민이 <50만 원 비즈니스>, <부흥주택>, <3D프린터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 최근 새로운 변화 모색

- 한 4년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최근에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내부에서 영리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제출된 것이다. 그래서 3명 정도가 함께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
- 또한 ‘유통’에 관심을 갖고 세운상가에 입주해 있다. 최근 생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생산된 것이 순환되려면 유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와이어드 호텔의 ‘1마일, 100마일’을 참고하면서 유통 중심의 문화허브를 기획하고 있다.

“4년간 오늘공작소라는 느슨한 연대체를 통해 예술적, 기술적, 사회운동적, 개인적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거예요. (……) 그런데 청년들이 1년을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요. (……) 그래서 3명 정도 모여 스타트업을 해보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생산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유통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통이 없는 생산이란 버거운 일이지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결과 중심적인 지원사업, 실험적인 것에 대한 지원으로 바꾸어야

- 현재 지원사업은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다. 그러다 보니 실험적인 것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다.

“저는 재단 예산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전체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지금 사회가 1을 넣는다고 1이 나오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 제도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다 중간지원조직에 계신 사람들의 역할들로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지금 이 청년단체, 이 실험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대로 나오지 못한다 해도 의미 있는 활동이야, 라고 결정한다면 제도에서 통과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안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생태계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필요

“중간 지원 조직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판을 만드는 역할인 거죠. 단순히 연계하는 게 아니라, 이 판의 생태계를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 하는 키는 중간 지원 조직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게 제도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상예술창작센터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일상예술창작센터는 2002년 프리마켓 행사를 주최하면서 만들어진 단체
 - 2011년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 처음 일상예술창작센터를 총괄하던 김영등 전 대표가 서울시 여성공예센터 대표로 옮겨 가면서, 현재 최현정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일상예술창작센터는 운영지원팀, 시장기획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공예센터는 공예창업팀, 공예혁신팀, 운영지원팀 등 1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창작자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가게 운영이 주요한 활동
 -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시기 전후로 활동들이 달라진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이전인 2011년까지는 프리마켓이나 마을예술창작소 같은 지역 사업들을 주로 했다. 마을예술창작소의 경우 서울의 난곡, 노원, 공릉만이 아니라 철원, 청주, 인천 대이작도 같은 여러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또한 ‘생활창작공간 새끼’라는 작은 공방을 직접 운영하면서 핸드메이드나 공예와 관련된 원데이 클래스를 열기도 했다.
 - 사회적 기업 인증 이후에는 사회적 경제나 마을 가치 혁신 분야의 대행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플랫폼 운영을 위해 ‘생활창작가게 키’라는 가게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창작자들의 축제와 교류의 장인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③ 발전 과정

- 최현정 대표는 2002년 프리마켓 자원봉사로 활동 시작
 - 정확하게는 2003년부터 일상예술창작센터 상근을 시작했다. 일상예술창작센터가 안정되면 문화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저항적 삶을 살고 싶다 꿈꾸기도 했지만, 현재는 일상예술창작센터 대표까지 역임하며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 프리마켓에서 공공예술활동으로 활동 확장
 - 일상예술창작센터는 프리마켓을 통해 창작자를 지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프리마켓이 안정되자 문화예술교육의 흐름에 따라 공공예술에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활동을 진행했다. 그동안 미술을 잘 접하지 못했던 소외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예술창작소 교육사업들을 진행했다. 이런

지원사업이 개인이나 단체 성과로 환원되지 않고 지원기관의 성과로 만들어지면서, ‘창작공간 새끼’라는 공방을 열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저희들도 이런 작은 예술들, 큰 벽화나 구조물보다 작은 예술로 할 수 있는 공공예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활동을 했고요.. (.....)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되었어요.”

○ 사회적 기업 인증과 본격적인 플랫폼 사업 시작

-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자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결정했고, 자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다.
- 2002년만 해도 프리마켓은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해 절실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서울시 내에서 프리마켓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는 점도 이 변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더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그래서 플랫폼이 되기로 작정한 거죠.”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문화적 흐름을 만드는 활동에 집중

- 예술이라는 표현보다 공예나 핸드메이드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이 둘이 각기 인식도 다르고 현장도 다르기 때문에 <핸드메이드페어>를 통해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아직도 예술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여지도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라는 표현을 써왔고, 또 문화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표현이 낯설어지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공예와 핸드메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예는 제도권이 따로 있고, 핸드메이드는 너무 평가 절하되어 있어요. 핸드메이드가 적정기술과 예술까지 다 포함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페어의 목적이거든요.”

○ 창작자 지원 플랫폼 사업 이후, 새로운 활동을 모색

- 지금까지 일상예술창작센터는 창작자를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상예술창작센터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시도해 보려 한다.

“이제는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는 다른 활동들을 해보고 싶어요. ‘일상이 저런 일일?’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해보고 싶어요.”

② 활동의 한계

○ 일상예술창작센터를 바라보는 시선

- ‘일상예술창작센터’가 주요 활동으로 해오던 프리마켓이나 창작자 플랫폼과 같은 활동들이 시간이 오래되면서 중요한 레퍼런스처럼 되어 버렸는데, 실제로 행사를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

“프리마켓이나 창작자 플랫폼과 관련된 활동들이, 이제는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한때는 저희가 한 1~2년 전까지만 해도 주류 취급을 받았어요. ‘너희는 잘 되니까’, ‘너희는 어디서 지원금을 받으니까’, ‘너희는 그만 노출되어도 되잖아’. 그래서 저희가 페어를 하거나 플랫폼을 론칭하다 보면 업계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잘하나 보러 오거든요.(웃음) 이렇게 레퍼런스처럼 되어버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자립에 대한 고민

- ‘일상예술창작센터’의 가장 큰 고민은 조직의 자립이다. 단체가 오래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규모가 점점 커지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대행사업들을 더 하게 된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또 대행사업으로 막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행정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립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과 일을 안 하고 자체 사업을 해보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 저희는 비영리단체에서 자연스럽게 온 거지, 뭔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스스로 그걸 장착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립이 너무 힘든 거예요.”

○ 창작 생태계에 관한 연구 부재

- 창작 생태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느끼고 있다. 특히 주력한 활동 대상으로 삼는 공예나 핸드메이드에 관한 연구의 부재, 연구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의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연구를 하려면 문화예술위원회나 이런 데서 채택이 되어야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 이걸 단지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생태계의 문제고, 창작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우후죽순으로 여기 뛰어드는 사람들을 봤을 때 굉장히 난감하고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하면 좋을지, 이 돈은 어디서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지원사업에서 행정 절차나 증빙의 간소화

- 최현정 대표는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나 증빙 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지원사업에서는 행정과의 신뢰가 중요한데 오히려 이런 복잡하고 과도한 절차 때문에 들어가는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저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님 오시는 거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계속 바뀌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행정과의 신뢰관계인데, 어쩔 수 없이 갑을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적정기술공방은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의 기술적 문제를 돕기 위해 시작하여 현재는 도시의 적정기술을 연구하고 제작 활동 진행
 - 처음에는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문제나 비용 문제를 도와보자는 취지로 시작해 도시의 적정기술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 3명이 함께 운영하며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
 - 현재 함승호 대표를 포함하여 총 3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고, 적정기술 분야 연구회나 건축 분야 시민건축학교 등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 또한 건축기술과 거리가 있는 놀이 활동은 ‘생태기술놀이터’라는 단체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나는 난로다.’라는 적정기술 활동
 - 함승호 대표가 적정기술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표본으로 삼는 활동은 ‘나는 난로다.’이다.
- 적정기술 활동 외에도 도시 관련 프로젝트 진행
 - 적정기술 활동 외에도 ‘진화하는 생태문화놀이터’라는 테마로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나 시민건축학교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③ 발전 과정

- 건강 문제와 행복한 삶에 대한 바람이 함승호 대표의 개인적 동기
 - 함승호 대표는 ‘적정기술공방’을 하기 이전에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제조업과 무역업을 하기도 했지만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이후 2007년, 행복한 삶을 위해 급작스럽게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과정에서 ‘적정기술공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극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택한 분야입니다.”
- 자본에 귀속된 기술의 도덕성과 사회적 기능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진화
 - 하지만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동기가 전부는 아니었다. 활동하다 보니 또 다른 동기가 작동했다. 주어진 프로젝트나 역할에서 동기들이 부여되며 점점 진화해 갔다. 그래서 작은 깡통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집 짓는 기술까지 고민하고 있다.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어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견디게 하는 건 자궁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철학이나 주위의 격려 같은 것들이 확실히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잃어버린 기술의 복원과 적정기술 문화 확산
 - 적정기술공방의 활동들은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와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잃어버린 수많은 기술들에 대한 복원과 체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적정기술을 널리 공유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자산으로 남게 해보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② 활동의 한계

-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상업시공 사업으로 활동 유지
 - 함 대표에 따르면, 활동의 근간은 스스로의 행복이다.
 - 공적활동 문제 중 하나가 개인들의 경제적 곤궁인데, 적정기술 공방의 경우는 상업시공 분야 콘텐츠도 보유하고 있어, 어느 정도 생존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활동의 근간은 스스로의 행복이거든요. 이런 활동을 해으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겹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공적 역할을 해내면서…… 저는 그래도 나를 콘텐츠들을 상업 시공 쪽으로 약간 옮겨왔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적정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지만 지원체계 부재하고 행정 과정이 복잡
 - 현재 고민하고 있는 점은 적정기술과 같은 활동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지원체계가 부재하거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활동하다 보니, 증빙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거나 제한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물론 그게 부정을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 그런 행정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들이 많이 생긴다는 건 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필요

- 함승호 대표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강조한다. 정책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문화가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려 한다면 이런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를 정말 문화로 승화시킬 요량이라면 진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원의 투입이나 지원이 좀 있어야 돼요. (……) 그런 환경과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언니네부엌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엄마와 아이들이 모여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자고 만들어진 운영 단체
 - ‘큰언니네부엌’은 마을에서 소규모로 엄마들과 아이들이 모여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진 마을예술학교 운영 단체다. 김혜경 대표에 따르면, 어릴 적에는 ‘부엌’이라는 개념이 엄마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엄마들의 고유한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부엌’이라는 명칭을 고안해 냈다 한다. 그리고 공공롭게도 처음 이 활동을 시작했던 주최자들이 다 맘말이나 큰며느리여서 ‘큰언니’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었다.
- 운영진은 총 5명
 - 운영진은 총 5명이고, 강사 활동과 운영을 맡은 팀까지 합치면 총 14명이다.

② 주요 활동

- 학교 활동과 지역 활동 등 여러 활동과 사업 추진
 - 현재 ‘트라이앵글’이라는 마을예술학교를 운영하며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와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마을에서 연중행사로 전통 장단극, 요리 교실, 떡 만들기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발전 과정

- 무용 전공자
 - 김혜경 대표는 대학 때 무용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평범한 주부”였다.
- 시집살이 후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마을활동 시작
 - 김혜경 대표는 이 활동을 “떠밀려서 시작했다.”고 말한다.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어 두문불출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친정어머니가 도시농부를 해보라 접수를 해주면서 ‘도시농부대학’에 1년 동안 다니게 되었다. 그때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함께 바느질이나 요리 수업을 배워 보기도 했는데, 도시농부대학의 대표 분이 이런 생활이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와 비슷하니 공모에 지원해 보라 권유하여 친구들과 함께 지원해 활동하게 되었다.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가 끝나갈 즈음 담당 주무관이 지금 활동이 <마을예술창작소>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제안하여 <마을예술창작소> 활동도 시작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주부였어요.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걸 빼고는 정말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엄마? (……) 시집와서 그런 시간 동안 암암리에 제 가슴속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시집와서 한 번도 꿈을 펼쳐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용을 했으니 남들에게 보여 주는 행위로서 예술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로서는 졸업 발표와 동시에 모든 게 끝난 건데, <마을예술창작소>를 하면서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처럼 의식이 있거나 문제점이 보여서가 아니라 떠밀려서 시작했다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 1년 동안 도시농부대학에 다니면서 또 숙제를 해야 해서 씨를 심어 보고, 뿌려 보고 하다 보니 조금씩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잘 끝내고 나니 <마을예술창작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 사업하고 잘 맞는 것 같다고 주무관님이 제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돈을 준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안정적으로 마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

— 김혜경 대표는 ‘큰언니네부엌’의 비전이라 할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비전이라 한다면, 마을에서 안정감 있게 활동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비전을 갖고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을에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 주는 멘토가 되기를 희망한다.

“저희는 비전을 말할 수 있는 단체라고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계속 얘기를 하게 되지만 모이게 된 계기나 주체들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높은 이상과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어디까지 비전이라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 처음 ‘트라이앵글’의 시발점으로 활약해 보는 게 비전이라면 비전이에요. 그걸 시작으로 ‘트라이앵글’이 마을에서 안정감 있게 활동하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다면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도 누군가에게는 플랫폼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장소,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소망이 제일 큰 거죠. 제일 힘들 때, 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행동이나 말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한마디로 인해 생각과 행동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듯이, 우리 마을에서도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와중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의 차이……. 제가 그걸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건 정말 많은데 잘하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그런 걸 함께 찾아가는 장소? 그래서 감히 누군가에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함께 그런 숙제를 해 나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 미래 비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 추진

—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익금을 조부모 가정에 후원하고, 자신들보다 젊은 친구들에게 공모지원사업을 양보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김혜경 대표는 한 측면에서는 만족감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은 지기가 오래전부터 하던 선행을 알려줘서, 지원금을 조부모 가정에 다 썼죠. 처음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노동의 대가인데. 그런데 다 털고 마무리까지 하고 나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나는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받지도 않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평범한 엄마였는데, 내 돈이 나갔는데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니깐. 그래서 큰언니네부엌 팀에서 제가 그랬어요. 참 사람이 신기하지, 우리 아등바등 벌어서 여행가자 했던 건데 여행 포기하고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게. 그 어르신들이나 아이를 생각할 때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스스로의 만족감이예요. 누가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참 잘하고 있어, 하는 스스로의 만족감 때문에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씁쓸합니다. 저도 젊은 아이들을 두고 있는 세 아이 엄마인데,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과 똑같거든요. 누구는 탄탄대로로 안정된 직업을 찾고 만족하면서 다니고, 누구는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좀 더 현명하고 똑똑했으면 사회에 먼저 나가 레드카펫이라도 깔아 주고 아이들이 사뿐히 걸어들 수 있게 만들걸, 하는 후회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를 저는 마을에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젊은 친구들에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한쪽 어깨는 만족이고 한쪽 어깨는 부담이고 그래요.”

② 활동의 한계

○ 행정 절차에 대한 고민

— ‘큰언니네부엌’의 고민은 독립을 하면서 발생했다. 애초 주민 모임으로 시작해 지원금을 통해 활동할 때와 달리, 사업자등록증과 보건증 발행부터, 사업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 단체 설립할 때 논의해야 하는 행정적인 문제들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 이런 행정적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진행되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결과 정리 및 시사점

“저희는 주민 모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아 운영할 때는 문제점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독립을 해보니 문제가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일단 보건증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자등록도 내야 되고, 우리는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데 사업자를 누구 앞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지금은 그게 제일 불편해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행정 절차의 과도함

- 거대 목표를 가진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끼리 모여 모임을 운영하는 주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행정 절차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처럼 마을에서 주민사업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크게 번창한다는 목표를 갖기보다 마을 안에서 여러 학부모와 아이들이 모여 장을 만들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하자고 만든 건데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게. 사실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누구한테 교육받아 본 적도 없잖아요. <마을예술창작소> 같은 경우에도 이것만 필요해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행정 시스템의 간소화

-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행정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간소화하여, 소규모 단위의 마을사업들은 행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일상창작 분야의 현황과 특징

- 참가자(대표) 특징: 예술 전공자부터 일반인까지 매우 다양. 지역에 대해 고민하다 사업을 시작한 것이 공통점

- 일상창작 분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특징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었다. 각각 서로 다른 출신인 만큼 다양한 속성을 보여주었으나 공통 관심사는 지역이었다. 예컨대 000간 신윤예 대표는 미술 전공이었고, 공도창공 수동 정길수 대표는 독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그러나 큰언니네부엌 김혜경 대표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오늘공작소 신지에 대표는 대안학교인 서울시하자직업청소년학교 출신이었다.

- 출신은 다르지만 모두가 가진 공통점은 지역이었다. 000간 신윤예 대표는 지역예술교육을 하며 이 일에 뛰어들었고, 공도창공 수동 정길수 대표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지역에 관심을 갖고 도봉구에 사는 지역 작가들과 현재의 공도창공 수동을 설립했다. 릴리쿰 선윤아 대표도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다 이 일을 시작했고, 큰언니네부엌 김혜경 대표도 도시농부사업 수업을 듣다 <이웃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 특정한 경험이나 개인사 또한 일상창작에 참여한 계기를 준다. 큰언니네부엌 김혜경 대표는 시집살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 마을활동을 하게 되었고, 적정기술공방 함승호 대표는 건강 문제로,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김성수 대표는 공대 출신으로 회사가 망한 상태에서 그 기술을 이용하고 싶어서 현재 일을 하게 되었다. 공도창공 수동 정길수 대표 또한 예술의 탈주를 꿈꾸며 현재 일하고 있다. 조금 다른 경우지만, 리마크프레스 이재준 대표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문238'을 열게 되었다.

- 단체 형태의 특징: 사회적 기업에서 협동조합, 동호회 단체까지 매우 다양. 다만 사회적 기업 등을 꿈꾸는 게 특징

- 000간, 일상예술창작센터는 사회적 기업이었고, 수리수리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적정기술공방 함승호 대표는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큰언니네부엌은 사회적 기업을 꿈꾸고 있었다. 그 외 독특한 것은 주식회사였는데, 리마크프레스가 그 경우였다.

- 대부분 작가 단체이거나 거의 개인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공도창공 수동, 릴리쿰, 무규칙이종결합 용도변경, 오늘공작소, 큰언니네부엌 등이 그런 경우다. 이 중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은 단독방으로 유지되는 동아리 형태를 띠

정도로 개방적이고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 활동 형태: 많은 경우, 마을공동체 등과 연결하여 활동. 더불어 놀며 삶을 즐기고 위로함
 - 여러 참석자는 마을활동에 연계되어 활동하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큰언니네부엌 김혜경 대표가 그 사례이고, 000간 신윤예 대표 역시 그러했다. 적정기술공방 함승호 대표, 수리수리협동조합 등도 마찬가지였다.
 - 활동 형태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그냥 놀자거나 삶을 즐기자는 모토를 보인다는 것이다. 무규칙 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적정기술공방 등이 그러한 특징을 보였다.
 - 삶을 위안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도 있었는데, 릴리콤이나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오늘공작소, 적정기술 공방 등이 그러한 예다.
 -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술의 탈주를 꿈꾼 공도창공 수동, 아이들의 행복에 도전하는 리마크프레스(이문238), 청년을 돕는 오늘 공작소, 청계천 장인의 가치를 알고자 하는 수리수리협동조합, 귀촌귀농을 돕는 적정기술공방이 그러하다. 더불어 공예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예술창작센터나 만들기의 즐거움을 아는 사회를 꿈꾸는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등은 좀 더 사회적인 경우다.
 - 한편 일상예술창작센터와 같이 별도 사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고민하는 것: 지속가능성이 큰 고민
 - 각 단체가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성이었다. 일상창작의 속성상 대부분 무엇인가를 제작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제작물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은 거의 모든 단체의 고민이었다.
 -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일정 정도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000간은 제작으로 일정 수익을 올리지만, 교육 부문의 현상 유지가 어려워 해당 분야 사업을 접을까도 고려했으나 본래 사업 목적상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국제핸드메이드페어》를 주관하고 있는 일상예술창작센터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었다.
 - 물건을 제작하고 난 다음, 판매에 따른 '상업화'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다. 즉 공공적으로 제작한 작품이나 예술행동을 상업적 판매 행위로 한다는 데에 고민을 드러냈는데, 공도창공 수동 정길수 대표는 상품화를 추진하면서 공공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했다.
-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작가의 생태를 고려한 지원 필요
 - 많은 참가자가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예술현장에서 작가의 생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공도창공 수동 정길수 대표는 난로를 제작하는데, 지원비가 여름에나 나와 여름에 난로를 제작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리마크프레스 이재준 대표는 주식회사라 지원을 못 받는 현실적 고충을 이야기했고, 릴리콤 선윤아 대표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을, 000간 신윤예 대표는 초기 지원 외 후속지원이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일상예술창작공간 최현정 대표는 창작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 자체를 비판하였다. 큰언니네부엌 김혜경 대표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 부족한 공간과 장비 또한 문제였다.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의 속성상 공간이 필요했는데, 난로를 만드는 공도창공 수동이나 적정기술공방은 모두 장소의 문제를 호소했고, 수리수리협동조합 남윤호 대표는 공간의 협소함을,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김성수 대표는 장비와 재료, 공간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점들은 향후 지원이 작가의 작업 형태나 특성을 이해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주었다.

2) 발전 방향 및 주요 의제

- 일상창작 분야를 보면, 강력한 사회적 동기보다 개인이 처한 일상의 한계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음.
 - 예술 전공자들의 경우 기존 창작방식에 대한 회의감이나 예술계 진입에 한계를 느껴 개인적인 문제나 일상에서 맞닥뜨린 문제를 자신의 축적된 능력을 통해 접근해 보려 했다.
 - 또는 일반적인 목표를 삶의 목표로 추구하고 실행하던 중 난관에 봉착하여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해 보며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처음부터 목적했다기보다 특정한 경험과 삶의 계기를 통해 일상 창작활동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도적 변화보다 인식적 변화 추구
 -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바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것은 사회 구조적 혁신보다는 개개인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 주목한다.
 - 그러나 그러한 삶의 태도 변화를 통해 사회구조 속에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 삶을 치유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혁신을 추구한다.
- 강제적인 틀이나 구조화,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은 금물. 그저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 필요
 - 일상창작은 다른 장르와 달리 지역을 매개로 한 개개인의 참여나 공동체적 활동의 특성을 보인다. 즉 움직임을 주도하는 한 개인(예술가 혹은 주도자)이나 단체가 발의하고, 거기에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형태다.
 - 때문에 자발성이 우선하고, 연대감에 기초한 느슨한 관계성이 내재해 있다. 이를

정형화하거나 특정화할 경우, 참여한 사람들은 일어난 변화에 반응하여 관계를 이탈하거나 활동 기반을 깰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 가장 요구되는 것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

- 무엇인가를 만드는 만큼,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공간이다. 공간은 만드는 작업장도 되지만 활동하는 장이자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안정적'인 활동의 장을 만들어 주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그 장 또한 공공공간으로의 이전 등과 같이 행정적 방식이 아닌, 현재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지원' 방식이 우선하는 게 타당하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대다수이기에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느냐는 일상창작활동에서 중요한 연결점이다. 그러므로 현 공간을 매개로 한 지원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한 지원이라 하겠다.

○ 창작에 필요한 각종 공구 및 도구의 공유 또한 필요

- 창작활동이 주이니만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제작 도구다. 도구 또한 전부 구입할 수 없어 많은 활동가들은 장비 문제를 시급한 개선 과제로 요구한다. 따라서 필요한 제작 도구를 서로 빌려주고 공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고가의 장비는 직접 구입해 활동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일상창작공유센터' 등과 같은 것을 만들어 활동가나 주민들이 필요한 제작 도구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 예술가로서 인정하는 태도와 생태에 맞는 지원

- 제작 도구와 더불어 이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예술가로서 인정과 생태에 맞는 지원이었다. 대부분 작업이 기존 예술활동과는 다른 예술적 창의성이 가미된 일상의 제작활동인 만큼, 이들 활동은 예술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1년 단위로 지원하는 현 지원체계에서는 작업 조건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 따라서 가능하다면 별도의 지원 트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상창작이라는 새로운 지원체계에 맞추어 각 작업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원 또한 작업 성격에 따라 공간지원과 작업지원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작업지원에는 기초적인 활동비와 제작 도구 지원 등을 포함한다면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4. 교육/치유 분야

(1) 라운드테이블 개요

1) 라운드테이블 구성과 운영

- 교육 치유 분야 라운드테이블은 총 10개 단체로 구성
 - 김진주 아키비스트가 작성한 「예술의 사회적 개입 심층 연구 기초 목록 60선」(2017년 9월 13일 기준)에는 그림마음연구소, 지구를 위한 디자인, 자바르떼, 로사이드, 김인규 교사의 미술수업,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응용연극단체 문, 순천 기적의 놀이터,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창작그룹 비기자, 비닐하우스 AA, 사단법인 우리들의 눈 등 12개 단체가 교육/치유 분야에 소개되고 있다. 이 외 연구진에서 달꽃창작소, 예술에 기대다, 린 협동조합,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멘 등 3개 단체를 추가로 발굴하였고, 이 중 10개 단체를 섭외하여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였다.
- 참석 단체 현황
 - 자바르떼, 창작그룹 비기자, 우리들의 눈, 응용연극단체 문,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그림마음연구소, 달꽃창작소, 예술에 기대다, 린 협동조합,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멘,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다.
- 김진주 아키비스트 자료에 수록된 단체가 7개, 그 외 단체가 3개
 - 이들 단체는 예술을 매개로 지역, 아동, 청소년, 청년, 시니어, 독거노인, 미혼모, 새터민,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들을 만나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예술단체들이다.
- 라운드테이블은 10월 18일(수)과 10월 24일(화) 2회 진행
 - 각 라운드테이블에는 5개 단체씩 참여하였으며, 진행은 안영노 모더레이터가 진행하였다. 담당 연구원인 백선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새미 연구보조원,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연구진 등이 참석하였다. 각 라운드테이블 개최 개요는 다음 <표15>, <표16>과 같다.

〈표15. 교육 치유 분야#1 라운드테이블〉

일시	2017. 10. 18.(수) 09:30-12:30
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교육장2〈받다〉
참여단체/참석자	창작그룹 비기자: 최선영 대표 응용연극단체 문: 김효진 대표 우리들의 눈: 엄정순 대표 자바르떼: 이동근 대표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강미해 담당자

〈표16. 교육 치유 분야#2 라운드테이블〉

일시	2017. 10. 24.(화) 18:00-21:00
장소	강남역 K스터디카페 회의실
참여단체/참석자	예술에 기대다, 린 협동조합: 오지민 총괄 프로듀서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멘: 김현주 대표 달꽃창작소: 최규성 대표 그림마음연구소: 김희연 대표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김현정 공동대표

(2)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

창작그룹 비기자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무한경쟁 시대에 각기 다른 생각들이 비길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창작그룹
 - 경쟁논리에 익숙해져 있음에도 타인, 다른 가치, 다른 시선과 비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술 프로젝트, 교육, 전시, 영화 등의 방식으로 찾는 창작그룹이다. 문화예술은 승패보다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기는 방법’의 훌륭한 실천 장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은 비길 수 있을까, 이름이 없는 활동이나 존재에 대해 경계심 대신 궁금함을 가질 수 있을까 등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 시각미술을 전공한 최선영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기획자, 디렉터, 협력 아티스트(프로젝트별 협업)로 구성되어 있다.

② 주요 활동

- 타인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활동
 - 〈짓거리투어〉, 〈놀이인문학〉, 〈우주보따리〉 등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여러 가치나 사회적 이슈 등을 관객과 예술가가 함께 경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사회적 이슈는 사전에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장치들을 활용하고 있다.
 - “〈우주보따리〉라는 공연을 하고 있어요. 내용에는 장애, 환경, 사회문제가 다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절대 직접 홍보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 공연을 같이 해보면서 질문도 하고 놀이에 참여하는 거예요.”

③ 발전 과정

- 우연히 예술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해 참여자 지향적 예술교육의 필요성 인식
 - 비영리 단체에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참여하면서, 서류상으로 멋진 기획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 “저는 10년 전에 우연히 한 비영리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 수업보조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재료를 나르는 역할을 한 1, 2년 했어요..... 친구들 개개인의
가능성이나, 뒤를 싫어하는지 혹은 좋아하는지를 볼 수 있어서 그 관찰 시간을
계기로 수업을 기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 현장과 소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포용하는 법 습득

— 서울시 〈도시갤러리 불광천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공공미술 또는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등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소외계층 대상 작업들이 오히려
비소외계층을 소외시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다음부터는 비소외계층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작업들에 집중했고 그런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생각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업이나 교육이 좀 중요하고 우리가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예술의 힘으로 존재에 대한 존중과 공감 일으키기

—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존중받는 경험을
하고, 자신의 작업과 존재에 대해 공감받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다.

“우리가 뭘 만들어 냈을까 생각해 보면, 프로젝트(공연이나 교육) 참여자는 자신이
많이 존중받았고, 혹은 자신의 보잘것없거나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작업이나
존재에 대해 많은 공감을 받았던 것이 큰 몫의 기억같이 남는 것 같아요.”

○ 참여 예술가를 포함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질문 던지기

— 최 대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예술가나 참여자들이
진실로 그 이슈에 관심이 있고 알고 있는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 생각한다.

“우리가 진짜로 다른 사람의 삶,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여기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나? 이런 확인들을 계속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입견이나 가치판단이 미리 개입되지 않도록 질문을
던지고,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대중적 소통방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중적 소통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고민해요. 그때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는 아주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질문을 던질까, 예술가나 기획자가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에요.”

② 활동의 한계

○ 참여자에 대한 공감이 예술가에게 정서적 부담으로 작용

— 소외된 사람들에게 깊이 집중하고 공감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참여자와
적정한 거리를 찾는 것도 힘들다.

“나와 많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너무 타자화하지 않는 그
선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 1년 단위 지원사업에 따른 활동의 연속성과 안정성 문제

— 지원사업이 1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하는 점이 어렵다.

“지원사업들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년 뒤 또 면접 봐서 증명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주변 관계와도 연관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큰 어려움이예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

— 사회적 이슈를 직접 던지기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전통적인 유형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공연을 추구하다 보니 지원심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지원을 받으려 하면 심사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사업으로 해야 실제로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면접심사 과정에서 존중이나 응원을
받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해야 되고요.”

— 지원사업에 따른 행정 절차들이 지나치게 복잡한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크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행정적 요소들이 아주
많아요.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고, 보고서 앞뒤로 써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이 할 때에는 너무 큰 거죠.”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예술가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예술가들이 연구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활동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액지원이었지만 프로그램이나 결과물에 대한 요구 없이 평소 연구하고 싶은 것을 연구할 수 있었죠. 하고 싶은 것을 존중받으면서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지원이 지속성을 가지고 늘어나면 좋겠어요.”

○ 새로운 예술활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 필요

— 새로운 예술활동은 기존 성과지표로 평가하기 힘들지만, 여전히 노동 시간과 같은 기존 평가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예술활동의 질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기준이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활동을 수행할 때 증명 기준이 노동 개념으로 몇 시간 활동을 하느냐로 가잖아요. 예술이나 기획활동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동 시간 말고 다른 것으로 측정할 수는 없는지, 가시적 성과 말고 그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존중하는 지표나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 새로운 예술활동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공공이 맡아 주길

— 예술가들이 현장을 생산해 내는 역할을 한다면, 현장의 가치를 읽어 내고 해석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공공이 담당해 주기 바란다. 활동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예술가들은 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현장을 읽어 낸다든지 가치를 재발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기획자들이 일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역할이 아니라 지속성이 없어요. 현장에 좋은 사례가 많은데, 예술가 개인이 그 가치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는 없어요.”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 지역 주민의 권리,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예술가들이 공공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출발하였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것은 2013년으로, 조합원들이 아직까지 몸에 익지는 않았지만 조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체 사업의 40퍼센트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 의결기구로 총회와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은 생산자, 노동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트랙이 있다.
- 문화소외계층의 창조적인 자기 문화 활동과 문화 공동체를 실현하는 공공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구축한다.

② 주요 활동

○ 문화예술 교육부터 사회적 경제까지 다양한 영역의 활동

- 문화예술 교육에서 출발하여 지역 문화기획과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 활동 유형은 지역 주민 권익증진형(지역사회공헌), 일자리 제공형(취약계층 지원), 기타 공익사업형(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신나는 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 <참여형 공정기획>, <지역문화 기획사업>, <문화동아리 및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컨설팅> 등이 있다.

③ 발전 과정

○ 사회운동으로 맺어진 네트워크 관계에 기반을 두어 자연스럽게 자바르떼를 형성

- 자바르떼는 2004년에 예술가들이 공공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사회운동으로 네트워크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였으며,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근 역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

“원래 사회운동에 관심 있던 사람들 간에 네트워크가 있었고, 기회가 생겨 자바르떼를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참여하게 된 것은 2008년부터이고요. 저는 대학 때 국문학을 전공하고 연극도 좀 했었어요. 처음에 자바르떼에서 하는 일들의 의미를 교육받았다기보다 몸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영역이겠구나,라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게 되었죠.”

○ 협동조합 전환 후 활동 영역 보다 다양화

- 사업을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고, 민주적 운영과 공동책임이라는 구조에 대한 고민으로 2013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과거에는 문화예술 교육 비중이 높았지만, 협동조합 전환 이후에는 사업 범위가 훨씬 다양해졌다.

“자바르떼가 2004년부터 2013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지역사업 중에서도 예술교육의 비중이 컸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뒤에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는 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 조금 더 다양한 다른 사업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개인이 문화를 통해 자기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

- 이동근 대표는 자바르떼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정체성을 생기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냥 보컬, 기타 교육하다 밴드 교육으로 이어졌고, 어느 순간 동아리로 성장했어요. 이 아이들이 계속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한 2~3년 계속 사회적 경제니 협동조합이니 같이 얘기해 왔지요.”

○ 협동조합 전환 후 조합원들의 기획이 상향식으로 실현되는 구조 형성 중

- 기존에는 자바르떼에서 기획하고 제안하는 기획 위주 사업이었다면, 협동조합 전환 후에는 조합원들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다양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상근 기획자들이 기획을 하고 예산을 연결해 사업을 진행하는 형식이었는데,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없앴어요. 일단 상근하는 사람들이 확 줄었고, 예술가(조합원)들이 자기 기획을 가지고 조합을 활용하는 구조가 된 거죠. 이제는 이걸 하고 싶으니 조합이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하는 단계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② 활동의 한계

○ 행정 처리 문제

- 행정적인 것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낀다.

“저희가 법을 잘 모르다 보니, 예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사업화해 보니 부족한 것들을 메우는 식이 되어, 행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아요.”

○ 공공사업으로 무료 제공되는 것이 오히려 가치절하의 이유가 되는 모순

-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제공되다 보니 오히려 저평가받거나 당연하게 취급당하는 점이 아쉽다.

“돈 받는 공연보다 질이 낮은 게 아니라 사회적 필요가 있으니 공공재원으로 제공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활동이 지속되면서 기관이든 지역이든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질 낮은 취급을 해서 힘들어요.”

○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장기적 지원 부재

- 문화예술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1년 단위 사업들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매년 1년 단위 성과가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하나요? 제도적으로 왜 그런 것들이 바뀌지 못하는지.”

○ 조직 내 소통 문제

- 조직 내부 사람들끼리도 예술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 언어가 달라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언어나 살아왔던 것들이 다 다른 데다 작가들이다 보니 예술에 대해 자기 관점과 태도도 다 달라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

○ 지역과의 소통 문제

- 예술가와 지역 간 언어가 다르다 보니 소통의 문제가 생긴다.

“끊임없이 지역을 만나는데,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예술가들 간에도 언어가 다르고, 예술가와 지역이 만나는 언어들도 다 달라요. 상호 온도 차나 눈높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요.”

○ 한정된 공공지원 때문에 예술가들이 경쟁관계가 되는 불편함

- 공공지원 예산은 한정된 반면 예술가들의 기획은 팽창하다 보니, 예술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내몰리고 있다.

“공공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술단체들의 기획이나 제안은 양적으로 계속 팽창하다 보니 다 경쟁자가 되는 것 같아요. 기금무한경쟁시대처럼. 그래서 오히려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공공예술가라는 지위나 사회적 가치 부여 필요

- 기금 중심으로 예술활동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공공예술가에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의 활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들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술가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위들을 보장하는 방식 등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 ‘예술의 사회적 개입’을 실천하고 있는 예술가나 단체가 근근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지속성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스스로 즐거운 구조가 필요

- 협동조합으로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즐거운 구조나 시스템이 필요하다.

“결국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선택해 인적 결사체들이 모이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조금 나중 일이고, 결국에는 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구조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어플라이드 시어터(Applied Theatre)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연극단체

- ‘응용연극단체 문 (Applied Theatre Group Moon)’은 응용한다는 ‘Applied’ 단어의 뜻처럼, 연극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이다.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수집한 대상자들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공연을 제작, 그 공연을 매개로 다시금 사람들과 문제 상황에 대해 다루는 순환구조의 작업 방식을 실천하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연극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작업 진행

- 지역, 연령, 이슈 중심(다문화, 미혼모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커뮤니티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다루는 연극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N포세대 청년 대상 <예술보건소 ‘Our Town’>, 청소년 미혼모 대상 <예술마음치유 ‘매거진 Luna Girl’> 등이 있다.

③ 발전 과정

○ 공연의 다양한 활용 방식을 고민하다 장애아동 대상으로 확대

- 김효진 대표는 공연을 전공하였고 공연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예술강사 사업을 계기로 장애아동을 만날 것이 계기가 되어, 장애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되었다.

“휠체어를 탄 아이가 저한테 와서 자기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술을 활용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계기는 그 휠체어 탄 친구였어요. (……) 저는 너무 감동받았고, 그 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 영국 어플라이드 시어터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법 연구

- 예술을 통해 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영국 어플라이드 시어터를 접하고 유학길에 올랐다.

“학문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 한국에서 자료조사를 했는데, 장애인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없더라고요. 내러티브, 사람들, 소외계층, 아니면 사회적 이슈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하게 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았어요.”

- 학교폭력 가해자부터 70대 노인층까지 대상이 다양화 됨
 - 2016~2017년 서울예술치유허브에 입주하게 되면서 유방암 환우, 배우자 사별 노인 여성, 청소년 미혼모 등, 만나는 대상층이 확대되었고 다루게 되는 이슈가 더 세밀해지고 구체화되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참여자가 자기 존중감을 찾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 기여해 온 것이 보람
 - 참여자가 자기 정체성과 존중감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모든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그것이 어떠한 주제이든 간에 무조건 자기 정체성 찾기를 목표로 해요. 그래야만 바로 선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억압이나 상처를 풀어내도록 하는 것이 연극의 힘
 -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억압이나 상처들을 연극을 통해 풀어내고, 그 속에서 참여자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말하는 것의 힘, 연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만났던 게 학교폭력 가해자 아이들이었어요. (……) 첫날에,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는 것의 힘이 강하다는 것, 그런 점이 연극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죠.”

② 활동의 한계

- 나는 ‘액받이’ — 나의 상처는 누가 보듬어 주나?
 - 상처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들에게 집중할 나머지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작 자신을 돌봐 줄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들 이야기에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액받이라는 얘기를 해요. 한번은 어떤 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됐어요. 학교 측에 요구해 그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줬는데, 아이를 데리고 치료 선생님을 만나러 갔더니, 그 선생님이 저에게 ‘선생님 괜찮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다라고요. 이런 일이 비단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언어를 활용하는 작업에서는 많이 겪게 되는 일인데,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예술가가 아니라 치료사나 교육자로 보는 사회적 시선
 -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실천가이자 연극 연출가로서 사회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를 예술로 봐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느낀다.

“저는 어플라이드 시어터로 사회 이슈를 다루고 공론화하는 방식을 시스템화하려 몇 년간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 고민은 그것을 사람들이 예술로 봐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가끔 너무 치유적이고 치료적인 것 같다 하더라고요.”

“저는 예술의 힘이 치유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교육에 예술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사실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 새로운 예술활동이 양적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비체계적
 -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관심도 늘고,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론적인 정의나 논의 없이 주먹구구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성과 발전가능성에 한계로 작용한다.

“저 사실 많은 예술가들이 세컨잡으로 단순히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거든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작가들과 맺는 네트워크는 단체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제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 레지던시가 신의 한수였는데, 서울예술치유허브에서 다른 작가들을 만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죠.”

○ 예술가를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시스템 구축

- 예술교육·치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와중에 정서적으로 힘들어질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등이 시스템적으로 구축되기를 바란다.

“사실은 제가 영국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제 말을 들어 주는 사람들이 시스템 상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눈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시각장애인과 예술가들이 함께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탐구하는 아트랩
 - 1996년부터 ‘시각장애’를 ‘또 다른 창의적 가능성’으로 바라보며 시각장애인과 함께 경계 없는 융복합적인 미술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 단체다.
 - 시각장애인 미술교육, 작품 전시, 점자 촉각 아트북 제작, 교육용 앱 개발 등 창의적인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미지로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있다.
 -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 엄정순이 대표다.

“이 활동의 시작은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시각장애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한 것 같아요. 미술과 관계없고 미술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들과 한번 관통해 볼까, 다양한 시도들, 실험들,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한 것이 20년을 왔어요”

② 주요 활동

-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미술 프로젝트 진행
 -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삶 본연의 근원적이며 거대한 질문으로 확장되었다. 세상의 중심에 안 보이는 세계를 넣음으로써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활동을 한다.
 -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미술교실>은 예술강사들이 찾아가는 수업으로 진행되는 맹학교 미술 수업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의 감각발달과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둔다.
 -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이미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점자 촉각 아트북을 개발, 제작 및 보급하며, 시각장애 미술교육의 지속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안 정립과 예술강사 양성을 기획하고 있다.

③ 발전 과정

- 시각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맹학교 성당 건립 프로젝트
 - 1996년에 참여하게 된 <맹학교 성당 건립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맹학교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 “맹학교에도 미술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다 말겠다고 하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거기서 3년간 살았어요.”

-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철학적 이슈를 세상에 던짐
 - 시각장애 학생들과 함께한 미술 수업을 통해 엄 대표는 관념적으로 존재하던 ‘안 보이는 세계’를 실제로 느끼게 되었다. 이 경험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서 갤러리를 오픈하게 되었다.
 - “질문이 계속 나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의 중심에 안 보인다는 설정을 한 거지요. 그렇게 제 작업실에서 하다 한국 현대미술 최고의 갤러리와 박물관에 있는 삼청동에 프로젝트 갤러리를 오픈한 것이 2004년이네요.”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자존감과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미술의 힘
 - 미술 수업을 통해 자존감을 느끼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한 시각장애 학생의 고백은, 이러한 경험이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
 - “미술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작가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안마사가 된 친구가, 자기가 안마사로 일하지만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게 자존감을 갖게 해주고 자신을 품위 있게 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 보편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새로운 예술 영역을 이해시키는 방식을 발견
 -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 교육에 대해 사람들의 인정과 후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는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보편적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면서 대중적 이해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 “(대중적 소통을 위해) 고민하다 7년 전에 코끼리 만지기 스토리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코끼리프로젝트로 저희 콘셉트가 쉽고 재밌게 전달되었는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 타인을 이해하고 미술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킨 성장의 계기
 - 시각장애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엄 대표 개인적으로도 타인을 생각하고 작가로서 관점을 변화하게 하는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 “옛날에는 그냥 내 작업만 하면 되었는데 시각장애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제가 바뀌었어요. 종합해 보면, 시각장애라는 결핍의 영역을 가장 창의적으로 드러내는 게 미술이더라고요.”

② 활동의 한계

- 시각장애인의 미술 활동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

— 시각장애인이 미술이라는 시각예술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에 대학과 같은 제도권 진입에 큰 장벽이 존재함을 느끼게 되었다.

“맹학교 미술 수업을 지속하다 보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저희와 함께하는 아이들 중에 미술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미대 진학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이 의외로 너무 문턱이 높았어요.”

○ 경계를 넘어서는 경계선상의 예술은 보다 큰 시각으로 보아야

— 예술의 경계를 벗어나는 시도들을 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영역들을 융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술은 틀을 벗어나 보려는 시도잖아요. 예술과 복지, 장애 비장애, 영리 비영리,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 새로운 교육 방식의 경계에서 있는 거죠.”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대중을 감동시키고 지지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 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예술가를 이해해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와서 감동은 받는데 지갑은 안 열어요. 돈 문제가 다 얽여 있으니 자비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려면 설득력 있는 단어를 찾아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말이 굉장히 늘었어요.”

○ 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부여 필요

— 예술가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지만,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고통의 시간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인적, 물적의 문제로 힘들었어요. 예술활동이 사회적인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고, 서로 다른 분야들을 연계해 준다면 예술가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재단의 역할은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것

— 재단이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것들(질적 평가기준, 경계영역의 활동 등)을 찾아 연계해 주면 예술가들의 창의적 활동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최근 큰 대기업 펀딩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얘기는 절대 수치화가 안 된다고 하니

거기에서 질적 평가를 언급하더라고요.....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기관이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구석구석 있는 것들을 찾아 연결망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예술가에게 기획 능력이나 행정 능력 등을 교육해야

— 런던의 <아트 에듀케이터 양성 프로그램>처럼 예술가에게 관리와 기획력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예술가가 창작 능력은 있으나 기획력이 부족하니, 조직에서 관리와 기획을 본격적으로 가르쳐 줘요. 관리 능력이 없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자괴감에 빠질 때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양성 프로그램들이 있더군요.”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연극놀이 전문 교육단체
 - 연극놀이의 교육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론 연구와 현장 보급을 함께 하는 단체로 1998년부터 활동해 오고 있다. 부속기관으로 사다리연극놀이아카데미, 사다리연극놀이학교, 해화연극놀이학원, 〈도서출판〉 연극 놀이 그리고 교육이 있다.
 - 과거에는 연극놀이를 이해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에 주력했다면, 요즘은 그 프로그램들을 적용하는 교사나 매개자, 전문가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대상별 교육과 공간 특성형 교육으로 구분되는 공연+연극놀이
 -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봄·가을학기 정기수업과 방학 단기 프로그램이 있다. 정기수업은 6세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12주간 매주 1회 진행된다. 방학 특강은 5일간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저연령의 경우 연극놀이를,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은 연극 만들기를 진행한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놀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관심과 고민을 연극의 주제와 연결하여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 내고, 연극적 상황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맡아 살아 보는 것이다. 주어진 주제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며 공연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연극예술 전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③ 발전 과정

- 연극놀이에 대한 연구로 시작
 -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는 ‘연극놀이’라는 장을 20년간 꾸준히 개척해 온 단체로,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고 교수법을 개발하며 성장하였다.

“장이 만들어지면 우르르 몰려가 한 명은 수업하고 한 명은 기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저희의 이름을 걸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획자들도 같이 결합해 저희의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죠.”
- 연구소 확장의 계기는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 설립
 - 11년 전 설립한 ‘사다리 아카데미’라는 전문가 과정은 연극놀이를 배우고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 과정으로 시작한 지 11년쯤 되었어요. 그때부터 연극놀이를 배우고 싶은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연극을 통해 나를 인식함이 다른 사람에 대한 환대로 이어져
 - 연극놀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거치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 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하는 것이 연극놀이의 매력
 -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는 연극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준비와 평가에 공을 들여왔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내공을 쌓아 왔다.

“처음에는 기획자로 들어가 활동하고 연극놀이아카데미에서 1년간 배운 다음에 연구원으로 전환했지요. 저희는 항상 연구하고, 프로그램 하나를 하면 앞에 사전 모의 수업이라든지 준비 과정과 평가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20년 넘게 연극놀이와 연극놀이를 기반으로 한 공연까지,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② 활동의 한계

- 학원법 저촉문제가 단체에게 큰 고비로 작용
 - 2014년에 학원법 문제로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되었고,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며 연극놀이의 본질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

“저희(예술가)들이 법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자생하기 위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연극놀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다 보니 저희만의 차별성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아직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 연극놀이의 본질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 ‘문화예술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 문화예술 교육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그 본질적인 개념과 역할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한계가 존재한다.

“문화예술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지금은 문화예술 교육이 너무 확산되어 있고 흔하게 사용되는데, 그게 과연 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문화예술교육사도 마찬가지고.”

○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

- 연극의 특성상 개인 작업이 아니라 팀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내년, 앞으로의 기약이 없고,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함도 불안감을 주는 요소다.

“가장 힘든 것은 불안감인 것 같아요, 내년에 대한 기약이 없는 것. 저희도 연극이기 때문에 개인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함이 있어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지원사업의 불균등한 분배

- 지원사업이 무상 제공된다거나 일관된 기준 없이 주무부서나 사업에 따라 지원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 문화예술사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지원사업은 예술가에게 도움이 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향유 받는 사람들이 과연 의미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 민간단체로서 공공기관 사용 등의 어려움

- 공익적인 프로그램일지라도 민간단체 차원에서 하면 공공기관 사용이라든가 허가 등에서 높은 장벽을 절감한다.
- “민간단체가 무언가 하려 할 때 힘이 없다는 걸 절감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궁궐에서 연극 수업을 하려면, 옷이랑 소품 등을 숨겨서 가져가야 해요. 허가를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정말 소소하게 눈치 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뭔가 불법적인 것 같고.”

○ 활동과 연구 결과 기록을 위한 출판사업도 과도한 비용이 소요

-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도서출판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결과물을 제대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출판도 하나의 연극놀이 개념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도서출판으로 초기에 책을 많이 냈어요. 책을 한 권 내면 적자가 많이 납니다. 저희도 매년 저널을 출판하였지만 출판 때마다 1000만 원 이상 적자가 발생되었어요. 언제까지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오랫동안 했고, 현재 저널은 출판이 중단되었지만 출판에 대해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열정적인 젊은 기획자들과 네트워크 필요

- 재단 등에서 열정적인 젊은 기획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면 좋겠다.
- “열정적인 예술가를 저렴하게 열정페이로 쓰는 것은 너무 불편해요, 그런 분들과

만남의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 예술가들이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문턱을 낮추었으면
- 학교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공간도 확보된 곳이지만 아직 (교장)선생님들 간 인식 차이로 인해 학교 문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의 문턱을 낮추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게 하려면 만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 지원기관의 문화예술 철학에 대한 공유

- 예술가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나 아르떼 등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가진 중심 철학이 공유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재단이나 아르떼 등 문화예술 지원기관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것, 이런 것이 생기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형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책적 합의와 연계 필요

- 문화예술 교육이 양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질적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형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문화예술 교육기관들과 연계하는 중간 조직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문화예술 교육이 크게 확산되었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을 뒤에 숨기고 있죠. 그렇게 확산시켰지만, 질적 향상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어요. 그 고민을 누가 하느냐 생각해 보면, 아르떼와 같은 중간 조직이 문화예술 기업을 정책과 연결해 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그림마음연구소는 표현예술 치료적 접근의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단체

- 그림마음연구소는 김희연 대표를 비롯한 4명의 미술치료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미술심리치료 외에도 무용, 음악 등 타 분야 심리치료사들과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2014년 3명의 치료사 모임으로 시작하였고, 2016년에 정식 사업자를 등록하고 상담 서비스를 시작, 서울예술치유허브에 입주했다.

② 주요 활동

○ 표현예술치료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제공

-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깊이 탐색하고,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 타 기관과 연계하여 학예지원, 표현예술치료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치료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저희 단체는 다양한 학교, 아니면 다양한 타 기관들과 연계해 학예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표현예술치료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실현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어요. 또 한 축으로는 치료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③ 발전 과정

○ 예술작가에서 표현예술치료사로

- 표현예술치료를 공부하면서 치료사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사회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치료사의 질적 성장도 목표로 하면서 함께할 치료사들과 모여 단체를 만들었다.

“예술작가로 활동하면서 작업을 통해 창조적인 작업 과정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또는 발현되는 심리적 변화들, 이런 것들을 ‘치료적 관점에서 조금 더 사회와 접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후 혼자 개인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함께할 만한 치료사들과 함께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조금 더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조금 더 건강하게 치료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목표로 해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 국립서울병원 정신병원에서 인턴 생활

- 국립서울병원 정신병원에서 인턴을 하던 시기, 다른 치료 분야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필요한 다양한 힘들을 모았던 경험이 있다. 그 결과 현장에 더 탄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인턴을 같이했던 인턴 직원들이나 음악치료, 무용치료 하시는 분들과 함께 세션을 구성하거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보다 꽤 멋지고 단단하고,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이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겠구나.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다시 나갔을 때 현 치료사로 활동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협업에 큰 의미가 있겠구나 싶었어요.”

○ 치료사로서 활동을 통해 확장되는 목적

- 치료사라는 이름으로 대상자를 만나 작업하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심리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대상자 자신들의 삶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이 확장되었다.

“이제는 예술가 타이틀이 아니라 치료사라는 타이틀로 친구들을 만나요. 작업하는 과정 가운데 심리적 변화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터치해 주고, 대상자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기능하고 자신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내담자들을 만났고요.”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단체의 비전

-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 학교, 전문 영역에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를 탐색하고,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 다양한 기관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치료사의 성장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② 활동의 한계

○ 치료사들의 환경

- 치료사 또한 건강하고 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심리치료 전문가로서 보다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 또 전문가로서 내담자를 만나다 보니 내담자를 답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전문가가 건강하고 단단해야겠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위기 개입

-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정서적 개입이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기 개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를 느낄 때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끝나게 될 때... 저희로서도 힘이 빠지는 부분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한 사람을 멘토링해 줄 수 있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이러한 경험이 많아져 건강한 모델이, 표준화될 수 있는 모델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행정 담당자들과 소통, 행정 절차의 문제

- 행정을 집행하는 영역에서 행정 담당자와 예술가들 간의 소통,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예술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 현장 담당자들과 프로젝트 실행자들 간 소통의 어려움, 과도한 양식 요구와 같은 행정 절차에서 어려움이 있다.

“행정을 하는 분에게 끊임없이 예술치료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점, 현장에서도 현장 담당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될 때가 있어요.”

○ 과정 중심과 결과 중심 사이의 충돌

- 치료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과,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야 하는 부분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슈퍼비전의 내용과 행정을 돌아가게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과는 굉장히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물을 생각하다 보면 작업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도 있고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공공 부문의 지원

- 국가산하 위기개입 기관들의 적극적인 실행이나 예산 투입이 공공적으로 더 발전했으면 한다.

“어느 엔지오 단체나 기업, 국가 성격이라든지 국가 산하 위기개입 기관들에서 조금 더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 적극적이고, 예산 투입도 전보다 적극성을 많이 띠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공공적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 영역과 소통 발전

- 행정 영역 전문가들과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심리 전문가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모델이 표준화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행정을 맡으신 전문가분들과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심리 전문가들 간의 소통이 조금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 방법론을 중심으로 하는 연극 단체
 -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는 1997년 결성된 이래 ‘연극’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과 변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작업을 지속하였다.
 - 보알(A. Boal)의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 방법론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연극(forum Theatre), 즉흥 재연극인 플레이백 시어터(playback theatre)를 주된 작업 방식으로 활용, 교육연극 및 치유연극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방법론 및 참가자들
 - 메소드 방법을 통해 이주노동자, 교정시설 재소자, 소년원 청소년, 새터민, 미혼모, 다문화가족, 기지촌 여성, 교사, 예술가, 청(소)년 등 다양한 공동체와의 연극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관객들과 만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소외계층 분들과 작업을 많이 했고요. 공연으로, 이슈로서 관객과 만나 이 방법을 좀 더 확산시키고 싶다는 공감감이 많아져, 요즘에는 공연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③ 발전 과정

- 극단으로 시작하여 비영리 단체로 등록
 - 극단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는 1997년 창단되어 2008년에 비영리 단체에 등록하였다. 소년원에서 재소자들과 연극을 함께 공연하는 시도로 <인간극장>에 출현하는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다.
 - 김현정 공동대표는 박사논문 주제로 관찰자로서 참여하게 되면서 이 단체와 함께하게 되었다.
- 입법연극의 시도
 - 외국의 방법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입법연극을 시도하기도 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연극은 메소드를 쓰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상했던 것처럼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상상했던 것보다 잘 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시행착오 과정에 있습니다.”

○ 개인과 공공을 엮는 작업

- 개인의 이야기가 공공과 엮이는 고리와 과제가 중요한 당면 문제라고 인식,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방향으로 작업을 풀어 나가려 한다.
“모든 것이 개인의 문제로 좁혀질 때는 개인 책임으로 전가가 되지요. 그게 아니라 공공으로 넓혀질 때 같이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하려 해요.”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단체가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희망
 - 모든 것이 다른 각각의 참여자들이 연기를 통해 하나가 되고,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 참여자들이 연극을 통해 행복해하고 고마워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그 희망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활동의 한계

- 참가자들의 현실적 한계
 - 참가자들이 성취감을 얻고 인정받는 경험을 하지만 그 이후, 예를 들어 재소자들이 출소 이후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들을 느낄 때가 있다.
“저희는 1998년부터 참여자들과 함께 공연하고 있는데 아까 장기 단계 말씀하셨지만,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성취감, 인정, 감동을 최고치로 느끼는데 그다음 이후는 일상에서 오는 문제죠. 출소하고 난 뒤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부정적 시선

- 활동 내용이나 단체 이름에서 오는 이미지 때문에 부정적인 판단을 받을 때가 있다.
“결국 억압을 좀 풀어 보자는 것에서 저희가 연극하고 있는데 이름을 가지고 너무 촌스럽다, 좌빨 냄새가 난다. 너네 이러면 지원금 없을 수도 있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고집하고 싶어요.”

○ 예술치유 분야 확장에 따른 부작용

— 예술치유 부분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면서 엄청난 시장경쟁이 시작되고, 공연에서 진지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생겼다.

— 양적 팽창과 대중화가 질적 향상과 동반되지 않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게 너무 많고 유연해지다 보니 양이 늘어났는데 질을 담보하지는 않잖아요. 돈 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이 경쟁사업으로 확 퍼지면서 엄청난 시장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기도 하면서 과연 양적 팽창이, 이런 대중화가 순작용을 할 것인가.”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가치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 필요

— 예술교육·치유로서 예술에 대한 효과나 가치에 대한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전문가들까지 함께 가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억압을 없앨 수는 없는데, 내가 받은 억압을 내가 풀고 가는 문제. 예술로서 치유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과연 어떤 가치로 적용될 것인지가 숙제거든요. 가치라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가야 논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문화예술서비스를 창조하는 협동조합

— 예술에 기대다, 린 협동조합은 예술인·기업·NGO의 상생을 목표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문화예술서비스를 창조하는 협동조합이며, 예술가, 예술강사, 예술치료사, 심리상담사, 교육 연구원, 문화예술 기획자, 언론 홍보인 등이 주요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현재 서울예술치유허브에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생애주기별, 세대별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

—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린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생애주기라는 것에 맞추어져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예술치유허브에서 성인 여성들을 만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주로 저희는 생애주기별로, 찾아보니 귀납적으로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으로 진행하게 되어 특정 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때마다 시급하게, 혹은 중·장기적으로 예술이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니 카테고리도 세대와 생애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③ 발전 과정

○ 학교폭력에 대한 공동작업 과정을 통해 조직이 모이게 됨

— 2011년 학교폭력 문제가 가시화되던 시기에 예술가, 치료사들과 진행한 공동작업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뜻을 모았다. 다들 사회적 역할을 함에 있어서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2011년 학교폭력 문제가 가시화되었을 때였어요. 문화예술인들이 뜻을 갖고 사회역할을 함에 있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협동조합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 예술과 사회학의 만남

— 오지민 책임프로듀서는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빅터 터너’라는 인류학자의 개념을 가져와 예술이 통과의례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교정으로서 예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던 사람이다 보니 사회학 관점에서 예술가들과 무슨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 순간 들어갈 수 있는 접점이 예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 개념을 썼고요.”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 활동 기반 구축 및 동기 부여

-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공동체를 실현하는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 활동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희는 조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술가, 예술치료사, 아티스트들이 모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쉽게 지칠 수 있는 일거든요, 그 힘든 것에 동기부여가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조직이 그들에게 기댈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기업의 사회적 기여

- <CSR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기업인들에게 <CSR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기업이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메시지를 감히 전달하려 하지요,”

② 활동의 한계

○ 참여자들의 현실적 한계와 예술활동 이후에 대한 허무감

- 예술활동이 끝나고, 특히 아이들이 돌아가야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한계들에 부딪힌다.

“순수하게 아이에게 집중했던 시간들이었고. 그러나 결국에는 이 아이가 돌아가야 될 곳, 그런 한계들에 계속 부딪혔던 것 같아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펀드레이징과 기획 능력 필요

- 예술가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충족하면서, 이 작업이 갖고 있는 의미까지 노출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기 위한 펀드레이징과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다.
- 기획서 쓰는 것, 페이퍼 작업을 힘들어하는 예술가들이 많다.

“그런 지속가능한 예술, 사실 먹고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 하시는 선생님들과 작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획서 쓰는

것이 너무 힘들다, 페이퍼 작업이 너무 힘들다.”

○ 공적 차원의 지원 미비

- 예술과 치유를 주제로 국가적 차원, 정부적 차원에서 집중적 관리 등의 관심이 적어 치료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든다.
- 행정가, 정부, 활동가들의 언어가 각각 달라 생기는 문제가 있다.

“행정가의 언어, 정부의 언어, 액션을 취하는 현장 사람들 언어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국 결재와 예산에서 오는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통합예술치유에 대한 어려움

- 통합예술치유에 대해 각각의 예술 영역(미술, 음악, 무용 등)이 분리되어 있고, 경쟁하는 느낌이 여전히 있다.

“예술치유의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시도가 한편으로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전 세대를 위한 공유공간 마련

-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 유희공간일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세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용산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교육예술 비영리단체
 - 달꽃창작소는 용산 지역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예술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는 비영리단체다.
 - 청소년이 취향이 있는 지성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그들을 통한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② 주요 활동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목표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슬기로운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 지자체, 학교 등과 협력 및 지원관계를 맺고 있다.
 - 5년 핵심 목표는 교육사업, 플랫폼사업(온/오프라인), 확산사업(캠페인), 이해관계자 관리다.

③ 발전 과정

- 2013년 청소년 문화예술 모임 시작
 - 처음에는 지역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문화예술 놀이터이자 공동체로 시작, 공간을 마련하는 과도기를 거쳐 현재 마을과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청소년교육예술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 문화예술 모임으로 시작하여 2014년까지 공간을 빌려 수업을 진행했고, 공간의 필요성을 느껴 2015년에 마련했으며, 현재는 정규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 동네 건축사무소를 토요일마다 빌려 매주 한 번씩 애들을 만난 거예요. 밥 해먹다가, 동네 예술가들 불러서 수업을 하게 되고, 공모사업 같은 것을 넣게 되고, 공간이 없으면 안 될 만큼 건축사무소에 너무 폐가 되어서 공간을 얻게 되고.”
- 2008년 광우병 촛불문화제 경험이 하나의 시작
 - 최규성 대표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경험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으로서 교육, 경험으로서 예술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건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촛불집회 얘기를 하다 보니,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왜 대화가 안 될까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 시간들을 겪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이게 서로 똘을 수 없는 지점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에서 선입견이 생겼구나.”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청소년을 위한 교육예술 프로그램 실행 연구
- 교육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캠페인 실천
- 청소년 교육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베이스캠프
 - 청소년 공동체뿐 아니라 청년, 일반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한 청년 공동체’의 등장을 목표로 용산이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 교육을 경험한 아이들이 돌아온다는 기대
 - 단체의 중요한 국면으로,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다시 단체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재미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중에 돌아와 여기를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면 나는 무엇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우리들이 보여 주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기억에 남고 자극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② 활동의 한계

- 쉽게 변하지 않는 아이들
 - 정기적인 만남과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지만, 아이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에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 아이들이 참여는 하지만 자기주도적인 활동으로 발전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갖추고 콘텐츠를 마련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다.

“아이들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1년이 넘어도. 왜 그럴까. 동네 예술가들과 만나서 노는 건 좋죠. 우리의 역할은 뭘까, 어떻게 하면 달꽃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이거를, (당시엔 다른 일도 했지만)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시스템을 갖추고,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들을 조금씩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매해 반복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쌓아야겠다.”
- 단체의 한계
 - 작은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단체의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작은 비영리단체다 보니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완전히 안정화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안정화되고 있어서 다행이지요.”
 -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모델이 없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장르 중심의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들. 저희가 특별한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좌충우돌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들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과 소통 문제

- 지역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나, 교육 공동체나 비영리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현장에서 협력적 소통을 이끌어 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 학교연계 시스템 간의 소통 문제, 언어가 달라 생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지원 필요

- 한국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비영리단체들의 큰 문제는 작은 규모와 한정된 인력이다. 그러한 여건에서 활동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스스로 해야 한다.
- 공간, 운영비, 인건비, 홍보, 책자, 아카이빙 등 기업이 해야 할 정도의 고민과 작업으로 쉽게 지치게 되고, 수명이 짧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문화예술 교육하는 단체, 비영리단체,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작은 규모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는데, A부터 Z까지 다 해요. 하나의 기업이 해야 될 정도로 고민하고, 다 해내야 되니 굉장히 많이 지치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짧아요. 하다가 지쳐서요.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계속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 사실 예술이든 교육이든 사회 변화든 결론은 없잖아요.”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예술을 매개로 다른 시각으로 삶을 움직이는 예술단체

- 예술창작 및 문화예술 교육 활동, 스터디와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관성적 삶에서 이탈하기를 시도하는 예술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 클리나멘이란 ‘중력으로부터 이탈’을 뜻하는 말로, 예술을 매개로 다른 시각으로 삶을 움직이자는 의미다.
-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김현주를 중심으로 영상, 퍼포먼스, 사진, 조각 등을 매체로 오랜 시간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 창작활동을 꾸준히 해온 4명의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② 주요 활동

○ 공동체 예술과 지역사회와 교류

- 영상, 퍼포먼스, 사진, 조각 등을 매체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공동체 예술과 특정 지역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지역 예술활동 및 예술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 교사 연수 진행

- 학교 현장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 캠프와 교사 연수 등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단체를 만든 이후 세월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하는 지역 공동체 캠프 진행이라든지, 그런 걸로 시작해 이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 선생님들이 자문을 구하세요. 그러면서 교사 연수를 계속 맡게 되더라고요.”

③ 발전 과정

○ 개인 작가에서 예술가 단체를 만들기까지

- 김현주 대표는 작가로서 지역 안에서 개인의 미시사에 대해 작업하다 지역의 학교나 단체들을 만나면서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 2015년 예술가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작가로서 그 지역 안에서 여러 지역 공동체라든지, 관련한 개인의 미시사에 대해 꾸준히 작업하다 보니 지역 예술교육, 지역이라는 어떤 특정 장소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면서 2015년에 예술가 단체를 만들었고요.”

○ 서울예술치유허브 입주

- ‘치유’라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해 오던 예술활동이 치유적인 가능성을 많이 포괄하고 있음을 느껴 왔고, 서울예술치유허브에 입주하게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은 치유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계속 공동체 예술작업, 커뮤니티 작업을 하면서 느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서울예술치유허브에 입주하게 되면서, 그 두 가지 사업 안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죠.”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

- 타 분야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 실험적인 예술창작을 시도하여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 한다.

○ 프로젝트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 사회 소외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로 소외된 노인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을 통해 소통 채널을 만들고 확장하는 성과를 냈다.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한 프로젝트에서는 실제로 서로 모르는 관계로 오셨던 독거노인 분들이 삼삼오오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기간 동안 예술작업 외에도 서로서로 번호를 교환하고……. 혼자 계시고 모르던 분들이 커뮤니티를 만드신 거예요.”

○ 개인적 작업에서 사회적 작업으로 확장

- 지역 예술활동이 지역인들뿐 아니라 예술가 개인에게도 작업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예술가들의 활동을 개인적 작업에 제한하지 않고 사회적 작업으로 확장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음

“오히려 작업을 하면서 예술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작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작업이 확장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즉 개인적 작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회적 작업으로 확장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② 활동의 한계

○ 단기 프로젝트의 한계는 지속성 문제

- 단기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 기간이 끝나면 대상자들을 공동체로 묶어 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프로젝트 이후 후속적인 관계 작업을 다른 작가들에게 요구하기에는 경제적 이유, 시간적 이유 등 한계가 존재한다.

“단기로 매주 두 시간씩 만나고 있는 6주 차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 성북구에서는 8주차 안에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만나게끔 엄청나게 공을 쏟았지만, 이 시간을 너무나 즐거워하시지만, 8주 이후 이분들을 공동체로 묶어 내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 학교 현장 적용에도 한계

-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활동들을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으로 가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학교 시스템의 한계를 느꼈다.

“연수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연수 프로그램으로 작동할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놀라워하세요. 예술이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그런 장점들을 봐 오다, 실제로 학교에 가면 풀어내기 어렵다는 것.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그것이 기존 학교 프로그램에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예술이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

- 예술가들의 예술에 대해 사회적 인정이 부족하며, 개인의 작업도 사회적 작업을 위한 활동의 근간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예술 그 자체를 사회가 인정해 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예술을 한다고 하면 온전히 개인의 목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다양한 예술들이 존재하는데. 개인의 창작과 사회적 창작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계속 넘나드는, 둘 다 필요하거든요.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술적 작업과 밖에서 보이는, 다수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예술적 작업이 모두 예술가 한 명에게 동화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예술가 지원사업 문제

- 파견예술지원사업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경우, 기업의 뚜렷한 요구사항에 맞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예술창작활동으로서 정체성을 잃는 경우가 있다.

“파견예술지원사업 같은 경우 제가 겪은 부분은,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는 거예요. 너무 뚜렷해서, 기업의 니즈에 맞춰 ‘자유롭게 상상해라,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구현하라.’ 하지만, 사실은 그 요구사항에 맞추어 노동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3) 결과 정리 및 시사점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 소프트웨어가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공적 기관 등과 연계하여 부분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나눌 수 있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작은 소소한 모임들, 이런 모임들을 예술가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계속 생성시킬 때, 사회적으로 좋은 순환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 예술가 지원정책

- 서울예술치유허브 입주 공간료 문제, 예술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업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술가들에게 공간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비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비현실적이다. 작가들의 노력에 비해 임금 수준이 매우 낮으며, 작업이나 워크숍에 대한 결과물을 꼼꼼히 기록하고 출판하고 싶으나 현재 진행비로는 불가능하다. 아카이브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예술치유허브만 현재 입주 공간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것은 예술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업하는 공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에게 공간 사용료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술교육·치유 분야의 현황과 특징

○ 예술활동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변화 추구

- 지금까지 살펴본 예술활동 단체들은 연극, 시각예술, 통합예술 등의 장르에서 예술교육과 예술치료를 수행하는 단체들이다. 이들은 개인적 영역에 한정된 예술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적 차원의 예술을 강조한다. 관객과 예술가가 함께 여러 가치를 경험하는 가운데 개인적,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들의 예술활동이 사회 문제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촉매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예술활동

- 기존 예술이 작품 활동 중심이라면, 예술교육·치유 분야 예술활동은 관객(참가자) 스스로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더욱 중요시한다. 예술가는 관객(참가자)의 성장을 위한 경로를 안내하는 가이드이자 해설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 활동 내용에 적합한 장르 또는 협업을 선택

- 각 단체는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전통예술, 연극, 미술, 무용, 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협업하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기도 한다. 장르에 기반하느냐 통합 장르이냐의 선택 문제라기보다 활동 내용에 적합한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응용연극단체 문’은 관객을 수동적 대상으로 보던 기존 연극 시스템을 넘어,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할 수 있는 어플라이드 시어터 방식을 도입한 연극 단체다. 예술치유를 하는 ‘그림마음연구소’의 사례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 한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장르의 치료사들과 협업을 통해 더 탄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과정을 보여 준다.

○ 활동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경향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예술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선 단체를 구성한다. 예술교육이나 치유가 개인이 혼자 하기보다 협업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모색하는 가운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전환하는 경향도 보인다.

○ 교육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

- 또한 교육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사나 매개자,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 확산도 모색하고 있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는 입법연극을 도입하여 사회 시스템 변화를 직접 이끌어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활동의 계기는 예술적 탐구가 지역을 만나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경향

— 이와 같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사례를 통해 보면, 예술가의 민감성이 사회 문제와 마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화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예술은 인간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우연한 계기로 장애아동, 노인, 여성, 미혼모, 학교폭력 가해자 등 다양한 계층들과 직접 만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증폭되는 것 같다.

— 소외계층을 마주한 예술가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대상에 주목하게 되며, 소외계층이 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사회적 이슈를 제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예술적 고민이 심화되었을 것이다. 소외계층과의 만남, 장애인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예술이 발화하고, 그 과정에서 예술가는 예술활동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예술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된다.

○ 활동 과정과 결과는 예술가와 참여자 모두에게 긍정적 작용

— 이와 같은 과정과 그 결과는 예술가와 참여자(관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관객)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존중받는 경험을 하며, 예술가들 역시 작업과 존재에 대해 공감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된다.

— 예술가들은 예술적 방식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자신과 사회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의 정서를 탐색하고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며, 내면의 긍정적인 자원을 탐색하고, 자기 정체성과 존중감을 찾게 된다. 이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침구사로서 일하지만, 맹학교 미술 수업은 나에게 인간으로서 품위 있게 사는 자존감을 심어 주었다.” (—‘우리들의 눈’ 사례 중)

○ 활동이 궁극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어 내지 못한다는 한계에 허무감을 느껴

—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 스스로 활동의 한계에 대한 의구심으로 힘이 빠지기도 한다. 프로그램이 진행 중일 때는 참여자들이 감동도 느끼고 성취감을 얻지만, 이는 결국 일시적 효과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사회 시스템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참여자들을 괴롭혔던 현실은 변화가 없다. 꾸준히 만나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걸 보며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이 지점을 인식하는 예술가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노력을 요구하기란 어려우며, 설사 개인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허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 생계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상존

— 게다가 이들 활동이 개인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작업을 전제하다 보니,

현재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에게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막연함을 클 수밖에 없다.

2) 발전 방향 및 주요 의제

예술교육·치유 분야에서 새로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새로운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상존한다. 공통적으로 드러난 어려움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을 위한 고민 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활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 부재

—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활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공공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에 대한 사례들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수준과 평가는 매우 낮은 상태다. 심지어 무료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마저 발생한다. 공공을 위한 예술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으로 보지 않고 치료적 관점, 교육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경향도 있다.

○ 새로운 예술활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논의 필요

— 새로운 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서는 이들 활동이 무엇이고,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원론적, 이론적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예술로서 문화예술 교육의 새로운 개념, 원론적인 용어, 새로운 예술에 대한 이론적 연구 등을 통해 예술활동과 사회가 만나는 접점과 의의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술교육·치유로서 예술의 효과나 가치에 대한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예술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예술활동 연구는 관련 주체 간 소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 이처럼 새로운 예술활동에 대한 연구는 이 활동과 관계된 모든 주체들 간 소통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새로운 현상이 출현했으나 그 실체를 분명히 하지 못한 결과, 예술가, 행정, 관객, 지역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단체 내 사람들끼리도 예술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 언어가 모두 달라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각 단체들이 하는 활동과 철학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 영역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예술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예술교육과 치유 프로젝트를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 새로운 예술활동에 맞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예술교육과 치유 프로그램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예산 지원의 틀 속에서 1년 단위 단기 과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그러나 예술교육이나 치유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당장 무엇이 변화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을 수 있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1년 단위로 성과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예술교육과 치유의 효과를 저해할 수도 있다.

○ 새로운 예술활동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 기준 모색

- 새로운 예술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정립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활동 시간이나 공연 횟수 등과 같은 기존 물리적 성과지표는 새로운 예술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 자존감 고양이나 내적 성장, 정서적 안정과 같은 질적 가치를 인정하는 평가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 기획 및 매개자의 역할 인정

- 기존 지원체계에서는 기획이나 매개자의 역할 등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기획과 펀드레이징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 및 기업의 지원과 투자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을 예술적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서류 작업과 같은 행정 역량도 필요한데 많은 예술가들은 이러한 부분에 취약하며, 이를 도울 수 있는 기획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르떼와 같은 중간 조직이 정책과 단체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

○ 학교와의 협업 구조 형성

- 지역의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 예술활동을 하는 민간 예술단체들이 학교나 공공기관과 지역 내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대부분 지역 내에서 활동을 확장하려 하며, 특히 예술교육의 경우 학교와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규모 민간단체가 공공영역에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아카이빙 지원

- 활동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단체의 성장 및 활동의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열악한 단체 사정, 지원 문제 등으로 활동 내용에 대한 아카이빙은 사실상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간, 운영비, 인건비, 홍보, 책자, 아카이빙 등 기업 수준의 고민과 작업을 개개 단체들이 다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별 단체들의 역량과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공공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 지원사업의 질적 성숙 모색 필요

- 예술교육이나 치유를 사회적으로 강조하고 예산이 쏟아다 보니 질적 성숙보다는 양적 팽창과 경쟁의 결과를 낳는다. 예술단체들은 협업하기보다는 시장경제에 내몰려 서로 경쟁하는 처지가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여처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양적 확산이 아니라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한다.

○ 예술가 간 네트워크와 협업 구조 형성

- 예술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예술가 간 네트워크와 협업일 것이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새로운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가들에게는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의무적, 형식적 네트워킹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특히 같은 장르의 예술가끼리 '일로서' 의무적으로 만나게 하는 행사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처럼,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공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교류와 협업이 파생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만남이 예술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 활동 과정에서 소진된 예술가의 정서적 치유

- 소외계층 문제를 다루다 보니, 그들과 강하게 공감하고 집중하면서 오히려 예술가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치유 분야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예술교육과 활동을 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다. 예술교육 현장에서 예술교육 및 치유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상담 서비스 같은 대응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5. 사회행동 분야

(1) 라운드테이블 개요

1) 사회행동 분야 새로운 예술의 동향

- 사회행동 분야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예술행동'이라 할 수 있음
 - '예술행동'은 미술계 내에서 '사회예술'로 개념화해서 해석하거나, '행동주의예술'로 쉽게 치환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사회적 실천으로서 예술이 '행동주의'와 결합해서 드러나는 양상일 터이지만, '예술행동주의'와 '행동주의예술'을 같은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술'이 접두사로 붙은 예술행동주의는 예술가의 예술적 행동/행위가 핵심이다. 때때로 그 행동/행위는 그 자체로 예술이 될 수 있다. 즉 예술과 행동은 동일한 개념이며, 그것은 장르 개념으로서 물성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행동주의예술은 결과론적인 측면이 있다. 시나 소설, 회화, 조각 등의 '작품'으로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행동주의예술의 예술은 행동이 아니라 작품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 '예술행동'이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추리, 도두리 마을에서 '농사를 짓게 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로부터 촉발되었다. 수년간 지속된 대추리 예술행동에는 수많은 예술가 및 활동가들이 동참했고, 이후 용산참사 현장에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4대강에서, 콜트콜텍에서, 진도 팽목항과 4.16기억저장소에서, 신촌 두리반에서, 밀양에서, 지난해 촛불 광장에 이르기까지 그 행동은 지속되었다.
 - 사회행동 분야로서 예술행동은 그런 맥락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다. 시낭송, 현장시위, 스캇, 현장전시, 구호, 격문/대자보, 낙서/그래피티, 플래카드, 전단지, 걷기, 공연, 연대, 문화잔치 등등. 그렇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류의 작품이 탄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그런 작품들은 현장에서 탄생해 현장에서 소비될 뿐이다. 그러므로 예술의 사회행동은 '현장'이 없이는 결코 말할 수 없다.

2) 라운드테이블 구성과 운영

- 라운드테이블은 예술행동의 현장에 참여해 활동한 예술가 및 활동가 9명으로 구성
 - 대추리, 용산참사, 콜트콜텍, 제주강정 현장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은 '파견미술팀'으로 불리는 예술가들이었으나, 그 사례의 지폭을 넓히기 위해 4.16기억 저장소에서 전시된 <아이들의 빈 방> 프로젝트, 6.9작가선언, 콜트콜텍+문화행동, 용산참사 파견미술 등으로 구분해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했다. 그 외 '평화발자국' 시리즈를 기획한 보리출판사, 옥바라지골목 보존운동, 내성천의

친구들의 리슨투더시티, 한일협상무효 수요 예술행동의 청년예술가네트워크, 두리반 51+의 운영자 등 총 9명의 예술가 및 활동가가 테이블에 참여했다.

- 두 번에 걸친 라운드테이블 개최 개요는 다음 <표17>, <표18>과 같다.
- 라운드테이블에 초대된 작가 또는 활동가 등이 각각의 예술행동에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이 기획자로 참여했거나 작가로서 현장과 밀접했고, 혹은 현장의 당사자로서 최소한 '증언'이 가능한 이들을 연구자는 물색했다. 그들 중에는 여러 현장을 공유한 이들도 있다.

<표17. 사회행동#1 라운드테이블>

일시	2017. 10. 20.(금) 15:00-18:30
장소	스페이스노아 위키룸
참여단체/참석자	콜트콜텍+문화행동: 성효숙 작가 용산참사 파견미술: 전미영 작가/신유아 활동가 보리출판사(평화발자국): 이경희 편집과장

<표18. 사회행동#2 라운드테이블>

일시	2017. 10. 26.(목) 15:00-18:45
장소	스페이스노아 위키룸
참여단체/참석자	세월호 사진 아카이브/아이들의 빈 방: 노순택 작가 6.9작가선언: 김근 작가 리슨투더시티(내성천의 친구들, 옥바라지 골목 보존운동): 박은선 디렉터 청년예술가네트워크(한일협상무효 수요 예술행동): 송상훈 대표 두리반 51+: 유채림 작가

(2)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

콜트콜텍+문화행동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콜트콜텍+문화행동은 통기타와 전자기타를 만드는 콜트-콜텍사(Cort Cortek 社)의 2007년 공장 폐쇄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문화 예술활동
 -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를 위한 일주일간의 콘서트 홍보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너무도 오랜 시간 이렇게 콜트 콜텍의 기타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기타를 만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콜트 콜텍의 기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했으면 합니다.” (<http://cortaction.tistory.com> 참고)

② 주요 활동

- 사회행동이자 동시에 예술 = 노동미술

-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성효숙 미술작가의 소개말에서 예술가들이 노동 쟁의 현장에 합류하기까지의 지역적이며 문화사적인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성효숙은 두렁이나 마당극 등의 문화적 유산과 한 도시에서 사회적인 문제(현실)의 결합을 ‘노동미술’의 원형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문화적 계열 속에 콜트콜텍+문화행동을 위치시킨다.

“1984년에 미술동인 두렁 활동을 하다가 지금까지 인천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개입 문제를 고민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84년도에 두렁 활동의 일환으로 인천에 85년도에 가서 노동문화 예술지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인천으로 이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 동기로 넘어가면 역사 속에서 마당극 문화나 운동이라는 것들이 지금 융합이라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탈춤운동부터 장르 넘나드는 이런 부분들, 그것 또한 사회적 행동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1960~1970년대 시작된 것이 84년 두렁에서 발두렁의 일환으로 인천으로 이전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노조 운동, 노동 운동, 노동 미술로 발전한 것이고, 거기에서 콜트콜텍도 80년대에 만난 거예요.”

- 여러 예술가들과 활동가들이 공장 점거(스콧), 불매 선언, 지지 서명, 천막 농성, 거리 홍보, 베품시장, 전시, 문화제, 집회 등 여러 방식으로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며 일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다.

“직장폐쇄를 하며 너무러져 있는 공장에서, 2층 관리실에서 작업하기로 하고 제일 먼저 한 작업은 콜트조합원 심자섭님과 함께 한 청소 퍼포먼스, 그리고 단전, 단수된 곳에서 전기를 켜는 점화 퍼포먼스였어요. 늘 집회신고하기 바쁜 방중운 지회장님은 작업실에 와서 연대의 등을 같이 만들고 자료를 찾아주셨고, 찾아온 작가들에게 강정에서 지원 온 매실을 타주기도 하셨어요. (……) 우리는 이렇게 자본과 다른 우리 방식의 연대를 해요.”

③ 발전 과정

○ 이들의 활동은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 주민들이라는 다양한 주체들의 결합을 추동

“<약손을 가진 사람들>은 약손을 가진 간병여성, 돌봄여성들과 콜트 입주작가인 성효숙(미술), 황승미(음악)를 비롯하여 홍명진(소설), 김해진(연극)이 ‘이야기+음악+미술+치유’의 통합으로 문화예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콜트 전시에는 2012년 현재 진행 중인 가면 음악극의 일부와 2011년 진행한 통합 인형극의 일부를 전시합니다. 자본의 경쟁적 시스템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대인에게는 치유가 필요하여, 간병과 돌봄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 콜트콜텍+문화행동 외에 노동미술 혹은 사회행동을 꾀하는 예술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작업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퍼포먼스, 걸개그림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장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상적인 매개체를 활용함

— GM대우 비정규직회 공공농성: 전통 탈(인형) 조형물, 구호가 쓰인 걸개그림 야외 설치.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항거, 슬픔, 애도를 표하는 곳. 공공 농성자를 위한 도시락 가방 꾸미기를 작업한다.

“GM대우 비정규직의 원직 복직을 위해 사회 각 단체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여 문화예술인들도 퍼포먼스를 준비하였다. 그날은 이 시대 모든 슬픔처럼 흰 눈이 내렸다. 기자회견에는 노동미술곳 이진우, 김영옥, 유광식, 성효숙, 민예총 김창길 사무처장, 스페이스빔의 민운기, 시민문화예술센터의 임승관이 대우 비정규직회의 노동자들과 함께하였다. 노동미술곳과 비정규직회가 함께 그린 걸개그림을 앞에 두고 하얀 소창천으로 엮을 하듯이 비정규직뿐 아니라 자본이 가지는 모든 불평등과 억압, 슬픔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였다. 노동과 미술과 곳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다.”

○ 개별 작가에게 이와 같은 사회적 개입은 개인적 인연이나 인생사로부터 비롯됨

“콜트콜텍 지회장님이 저랑 동갑이고 당시 88년, 87년도에 노동자 대투쟁 때 만난 분이니, 그때 조합원으로 만났죠. 저도 그때 노조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친구로서 교류를 했던 것이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 야학을

소개받았는데, 그때 노동자들을 봤을 때,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노동미술이자 노동교육미술이라는 것은 허병석 목사님이……. ‘그림을 그려 달라!’며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그 안에 그때 당시는 이런 유인물이었죠. 해태, 롯데, 노동조합 여공들의 이야기, 이런 것에서 엄청 충격을 받고. ‘내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는 동상으로 언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내가 너무 모르던 세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뭔가 좀 알아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노동현장에 스스로 혼자 가게 되었고, 발길이 닿게 되었죠.”

○ 개인과 사회의 교차는 사회와 결합한 예술활동을 지속하는 문제에서도 동시에 발생함

“지역에서 80년대 마지막 남은, 지금 딱 두 개 남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콜트콜텍의 콜타악기 노조죠. 명백하게 말하자면 콜텍은 대전이니까. 10년 이상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못 된 게 굉장히 미안해서. 지역에서 많이 부딪히거든요. 일상적으로. 저도 분기점이었어요. 당시가.”

○ 이러한 개인적 계기는 사회적 모순과 교차하며, 이와 같이 굴절된 갈등은 회피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예술가의 사회 현장 활동의 종합적인 근거로 작동함

“콜트콜텍에 개입되었던 분기점이 뭐냐면 노동 쪽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냐, 아니면 생태환경이냐로, 철학이나 이런 가치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할 것인가가 당시 고민이었죠. 동기와 계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 모순이라는 80년대의 모순. 이런 부분에서 만난 콜트콜텍, 그런 것들이 면면히 이어져 오다가 현재까지 싸우고. 자본주의 역사가 250년. 길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사회 갈등의 꼭짓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갈등의 꼭짓점에서 문화예술이 개입해야 한다고, 저도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만나 왔다고 생각해요.”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콜트콜텍+문화행동에서는 여러 노동자와 예술가들이 폐쇄된 공장에 침투해, 스캇 형식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모색은 사업주와 마찰을 일으키며, 작품/전시 파괴(반달리즘)를 당하기도 함

— ‘빈 콜트·콜텍 공장서 벌어진 예술파괴’(경향신문, 2013. 2. 20): “인천 부평의 콜트·콜텍 기타악기 공장에서 야만적인 예술파괴가 벌어졌다.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 이후 사업주에 의해 버려진 공장에서의 일이다. 이곳에서 생존권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꾸려온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이 야만적인 폭력에 의해 처참히 짓밟혔다. 지난 2월 1일 아침, 법원 집달관과 용역업체 직원

160여 명이 공장에 들이닥쳐 대체집행을 강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현장에 온 경찰은 파괴의 현장을 방관했다고 한다. 다음 날 다시 공장에 진입한 노동자들과 예술가들은 처참한 파괴 현장을 보고 깊은 좌절 속에서도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2월 5일 새벽에 다시 경찰에게 모두 연행되었다가 풀려났다. 공장에 입주해서 작품활동을 해온 리슨투더시티, 상덕, 성효숙, 전진경, 정윤희 등의 예술가들은 예고 없이 들이닥친 용역들에게 쫓겨났고, 이들의 작품은 짐짝처럼 내동댕이쳐져 파손과 훼손 상태가 심각하다.”

○ 예술계에서는 이러한 작품 훼손에 맞서 항의 의견을 내놓아 사회적 현장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을 지지함. 한편 작품 파괴 의견서에 언급된 콜트콜텍+문화행동에 참여했던 성효숙의 작품 중에는 현대 설치미술의 어법과 사회적 의미를 절묘하게 결합한 「진혼」이 있음. 일종의 ‘현장 설치작업’으로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의미를 강력하게 환기시키기도 함.

— 김종길, ‘성효숙 콜트 작품 파괴에 대한 의견서’(2013): “전시 개막식이 거행되었던 콜트 제2공장 1층에는 성효숙의 「진혼」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노동자들의 낡은 작업화 30여 켤레를 동글게 모아 놓았다. 작업화는 콜트콜텍 인근 4공단 대우자동차와 현대 조합원들이 모아 준 것이다. 노동의 상실이 부르는 가장 극단적인 폐해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육체를 ‘부재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있어 노동의 상실은 곧 노동자의 죽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의 항변이다. 쌍용에서 실제화된 스물두 명의 죽음이 바로 그것의 상징적 사건이다. 작가는 상실과 부재의 사건을 주인 없는 작업화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콜트콜텍의 가장 심장부에 설치함으로써 메타포를 극대화하고 있다. 첫째는 노동 상실의 슬픈 폭력적 트라우마가 어떤 상황을 예고할 것인가에 관한 경고이고, 둘째는 생목숨을 끊고 떠나간 노동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요 추모다. 성효숙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종이꽃을 접어 작업화에 꽂아 두도록 참여를 유도했다. 우리 모두를 바로 그곳에서 그 부재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떠난 그들이 낯선 타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동료이자 삼촌이고, 이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

○ 이러한 작업은 사회 갈등의 현장에서 동시대 미술의 현장으로 옮겨져 힘을 발휘하기도 함. 성효숙은 2012년 부산비엔날레에서 노동자의 작업화 200여 켤레를 바닥에 원형으로 늘어놓은 해당 작품 「진혼」을 발표했으며, 이 작품은 부산비엔날레 종료 후에도 이어져 부산민주공원 상설전시장에 설치됨. 성효숙은 「진혼」에 작업화를 기증한 노동자들의 이름을 작품 명제에 하나하나 호명하여 현대미술의 장에서 보이는 일상적 사물에 내포한 사회적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함.

— 정달식, ‘민주의 넋에게 바치는 ‘진혼」(부산일보, 2012. 11. 19): “성 작가는 “어느 노동자가 이 작업을 위해 새 작업화를 가져왔다. 나는 이 작품에는 현 작업화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 작업화를 바꾸려고 새 작업화를 구입지만 정리해고로 새 작업화를 신을 기회가 없었다. 만약 다시 공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새 작업화를 신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 작품 속에는 새 작업화도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새 작업화 속에도 노동자의 아픔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 등 노동자 100여 명과 함께 작업한 것으로 공공예술을 잘 구현한 작품으로 호평받았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아픔은 성효숙의 작품으로 선연하게 부활하였다……. 무엇보다 로비에 설치된 성효숙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울림은 이 모든 것을 대변하기에 너무도 충분했다.”

② 활동의 한계

○ 작가 자신의 삶 붕괴와 이를 극복하는 예술적 행동과 연구 활동

— 예술가의 사회적 개입은 여러 현장과 주제 사이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하며, 예술가의 학술적 연구로 확장되기도 한다. 특히 사회행동 분야는 현장에서 겪고 파생되는 트라우마 성격으로 인해 예술치유와 연결 지점이 강하게 나타난다. 성효숙은 용산참사 현장에서 한 활동을 토대로 「용산 참사로 인한 부상자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예술치료 사례 연구: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중심으로」(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예술치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를 발표했다.

“참여단체 콜트콜텍 문화행동 성효숙 작가, 용산참사 파견미술 전미영 작가, 신유아 선생님. 이렇게 작가와 선생님을 구별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신유아 선생님은 용산참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작가고, 전미영 작가도 콜트에서 전시 같이했었고, 그리고 또 저도 용산참사 같은 경우는 논문을 썼어요. (……) 용산참사에서는 부상자를 만나러 1년 내내 장례식장, 녹색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가끔 가다 참사현장에 가는 식이어서 부딪히는 분(만나는 분)은 많이 없었지만, 예술치유라는 부분을 그 당시에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초점을 두어 연구했고요. (……) 용산참사도 당시 정권하에서 어떤 갈등의 꼭짓점으로 참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80년대가 불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의 30여 년이 흐른 상황에서 상처가 서로 간에 많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상처가 많아서 처음에는 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예술치유 공부를 시작했던 거고요. (……) 이후 치유그룹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된 계기는 나 스스로의 상처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 또한 예술가가 사회 현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는 역사와 철학적 문제에 기인함. 구체적으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 1970년대, 1980년대 노동운동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인물이나 시각물이 예술가의 사회 참여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음.

“여러 변곡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관통하는 것은 진실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 내가 내 안에 갇혔을 때, ‘사회의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한 발짝 나간 시각과 활동을 하고 있구나.’에 대한 충격이 있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세상을 보는 눈이 뜨였다던지. (……) 이런 변곡점이 있었고 그 내부에는 사회적 이행기의 문제 같은 것도 있었죠. 어떠한 사건과 사건만이 아니라 사회가 이행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6월 항쟁, 노동자 대투쟁, 페레스트로이카, 신자본주의,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동기와 거기에 반응하는 나, 이런 것들이 그런 변곡점들의 동기가 되었고, 나 자신의 활동이나 작품 활동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예술가에게 노동자와 함께하는 연대는 현장과의 입장차와 예술가로서의 내향성 등으로 인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

“문제와 한계는 참 많은데요, 몇 가지 골라 내면 현장의 목표와 저 자신의 목표가 따로 또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노동자는 그 투쟁에서 이겨야 하잖아요. 예전에는 한 몸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같이했다면, 현재는 비평적 개입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 자주 못 가는 편이에요. 그런 면이 개입을 만들어 정서적 차이도 만들고.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비평적 개입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장과 밀실의 시간분배. 에너지가 총량이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혼자만의 시간과 밀실이 필요한데 못 했을 때 고통스럽더라고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스콧 형태의 연대가 가지는 불안정성

- 현장 활동에 대한 (같은 사회행동 계열 내에서) 상부 예술계의 몰이해

“저는 어느 글에서도 썼듯이 민미협이 만들어진 계기가 노동운동에서 출발하면서 사회적 억압, 탄압에서 단체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술이라 하는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 직관, 상상에서 사회적 예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사회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사회운동에 합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전 80년대의 격동기를 지나서는 민미협이라고 하는 상부 예술생태계에서 문화행동이나 현장, 미술현장을 폄하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 현장, 미술, 개인의 불일치, 그리고 중첩된 생계 유지(경제적)의 어려움과 세대차이

“예전에 폭발적으로 사회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불의 시대를 건너왔는데, 지금 내면에서 비평적 개입이나 성찰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개인의 시간이 필요해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울러 현장과 습합된 현상적 고민들, 저도 기획하고 작업도 하거든요. 기획도 전체적인 작업이잖아요. 기획의 형상, 작품의 형상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출판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쥐꼬리만 한 걸로 생활하는 부분. 그런 것들과 같이 가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소통미술을 개념화해 활동하자 생각할 정도였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다음 세대와 공감대 형성이 노동미술을 할 때만 해도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0년, 20년 갭이 있으면서 저랑 거의 띠 동갑 이후 분들과 활동했을 때 너무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런 고민들을 당시에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적절하게 너무 같이하는 것보다 내 역할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현장과 예술의 경계 넘나들기, 문화행정으로 확장

“무슨 예술가들이나 문화인들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사회적 사건들과 이슈들이 같이 습합해 만들어진 것들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령도 84년도에 인사동 미술관과 현장미술을 주로 했지만, 이후 용산 참사나 프리 티벳의 경우는 그전까지만 해도 미술행동 따로, 현장 미술 따로, 전시장 미술 따로였는데 그 사건에서는 넘나드는 것을 보면서, ‘아 지금 그런 부분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구나.’ 했어요. 문화예술계에서도 현장미술이나 문화행정이 보편화되어 가는 상황을 보면서 확장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현장 미술(예술행동)에 대한 예술적, 공공적 가치 인식과 지원

“제가 늘 약역을 맡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80년도에 기독교회관에서 선배가 만화를 그려 달라 했는데, 정작 노동하는 대가는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작품비를 달라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이야기해서 그건 아니라고, 제가 학생 때였는데요.(웃음) 그러다가 90년도에 노동현장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할 때 제가 노동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연극이나 가수나 이런 분들에게 얼마를 주느냐, 미술은 돈이 더 많이 든다. 재료비며 운송도 그렇고,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해 줘야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후배들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상징적으로라도 받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올해 노동자대투쟁 30년, 민주노총하고 노동역사관에서 작업을 했는데 저작료를 받았어요. 상징적으로 줘야 한다. 모니터에 한 컷 들어가는 데 얼마를 줘야 하느냐 해서 어린이책을 기준 삼아 받기도 하고요. 우리 권리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보니

노동자보다 우리가 못하더라고요. (.....) 현장에서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 현장에 참여하는 예술활동 아카이빙 및 정치적 편향 없는 미술계 지원 확대

“아카이빙 같은 경우에는 아키비스트라는 전문 영역이 있더라고요. (.....) 저도 인천이 노동미술의 보고라 생각해서 노동자문화예술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비교해 보니, 미술 쪽은 그런 지원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없더라고요. 어디선가 먼저 할 수 있으면,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바람을 타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산참사 파견미술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 3구역 내 남일당 건물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과 기존 거주민(철거민)의 대치 와중에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 참사 이후 여러 영화가, 예술가, 개인 활동가, 그리고 문화연대와 같은 단체들이 현장에 참여해 철거민의 거주권 운동과 실질적 생존을 조력

○ 문화연대는 용산참사 현장에서 활동한 주요 시민단체

“2009년 1월 21일 문화연대는 용산참사 문화예술계대책모임을 구성했어요.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에게 사발통문을 보내고, 대책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문화행동을 준비했습니다. 용산참사 현장은 전국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상황실을 만들었고 저는 상황실에 결합했어요.”

○ 2005년부터 문화연대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유아는 미술과 관련한 공부를 하는 한편, 사회적 행동을 모색하다 문화연대 활동가로 취직함. 신유아는 용산참사 현장 외에도 <희망버스 프로젝트>, <대한문 뜨개농성>의 핵심 기획자 중 한 명으로 활동한 바 있음

“원래 미대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림 그리고 만드는 거 좋아하는 과를 나왔는데, 뭔가 사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행동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시민단체 중에 찾다가 후배가 마침 문화연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 전미영은 파견미술팀으로 활동하는 파견미술가이며, 용산참사를 계기로 문화연대 활동가 신유아를 알게 됨. 전미영은 현장에서 기획과 진행을 주로 도맡는 활동가와 작품 제작이나 행위를 펼치는 예술가를 각각 뇌와 몸에 비유하며 역할을 구분함

“개인적으로 알게 된 건 용산참사가 맞고,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2005년, 2006년부터 늘 같이 옆에 있었는데 파견팀 이름으로 해서 거의 몸이죠, 몸. 몸처럼 같이 움직이고. 저는 몸이고 여기는 뇌.”

② 주요 활동

○ 파견미술가들은 현장에서 퍼포먼스 또는 해프닝, 참여형 거리 페인팅 또는 걸개그림, 일시적 점거 형태의 전시나 기금마련전 등의 활동을 함. 예술가들이 파견미술로서 사회적 쟁점 현장에 개입하기 이전 현장에서도 파견미술의 세부 방법론과 유사한 문화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함

“파견미술팀은 노동현장이나 철거현장 등등 찾아다니면서 문화행동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같이하고 있어요. (.....) 이전에 같이 갔던 활동가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일종의 프로젝트인데 소외지역이나 외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 주민과 워크숍,

만들기, 서울에서 공연팀, 인디 뮤지션도 초대해서 공연하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 문화연대는 정책사업도 하고, 미디어 사업도 하는데 저는 특히 그 활동(문화적 활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 파견미술팀은 파견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특히 파견미술팀 하면 생각나는 몇몇의 인물이 있는 건데, 그 인물들이 주로 모든 현장에서 거의 다 같이 연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호명되는 것이지 파견미술팀은 너는 맞고 틀리고, 이렇게 구분 짓지 않아요. 오늘 이런 작업할 거예요, 했을 때 모인 모든 사람들이 파견미술팀이에요.”

- 용산참사는 이러한 파견미술 혹은 현장 참여형 예술가들의 결합이 강화된 계기이기도 함. 문화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 현장에서 당사자, 그리고 이에 지지를 표하고 동참하는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자처함

“예술가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을 현장과 네트워크하고 싶은데 소통 창구가 없다 하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작가 선생님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간 역할을 문화연대라는 단체의 활동가로서 하게 되었죠. 그 역할이 아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현장, 작가 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 때가 용산참사였다고요.”

③ 발전 과정

- 파견미술의 원형 혹은 시작: 전미영은 미술대학 선배들과 공동생활과 집합적 창작 활동을 통해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를 처음 경험함. 이때 한 명의 예술가로서 전미영이 사람들이나 사회적 필요에 직접적으로 응답해 충족시키는 예술활동을 당연하게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전미영은 노조 기념품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며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고민하기도 했다고 술회함

“예를 들어 기념상을 제작하거나 노조의 기념품 등을 하루에 200개, 400개 만들어 내야 하는 경우 이런 일들로 돈이 들어오고 자주 하다 보면 큰돈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이곳엔 왜 오게 됐는지, 이것들을 왜 하고 있는지, 노조의 것이니까,라는 당위성에 묻혀 작업과 작가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 대추리 참여 미술가들의 용산 현장 참여와 이동

- 용산참사 현장 이전에 예술가들이 결집된 계기는 2008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불거졌던 대추리였다. 대추리에서 투쟁은 2008년 하반기 다양한 사회문제로 연쇄했다.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현장성은 예술가들의 이동과 연대를 추동했다. 현장에서 연대를 통한 결집은 참여 예술가 및 활동가에게 활동의 동력과 근거가 되었다.

“대추리 투쟁이 있었고. 문화연대는 주로 예술홍보, 문화기획, 행사기획을 했었어요. 직접적인 문화행동을 선생님(작가분)들이 했다면, 문화연대는 공연기획이나 현장기획 위주로 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추리에서 큰 대동제를 한다거나 문화제를 한다 했을 때 행사 계획을 세웠거든요. 뮤지션 섭외하고 발언하는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마을 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같이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한다거나. 그 외에 대추리에는 빈집이 많고 작가들이 그림도 많이 그리잖아요. 저도 몰래 들어가서 그림 그리고 나오고. (……) 대추리 투쟁을 계속하는 와중에 FTA 투쟁이나 2008년 촛불로 이어졌잖아요. 광우병 사태로. 그때 인권단체 쪽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 번 해보자. 진짜 광화문 담벼락에 올라가서 현수막 내리는 걸 하자. 누가 할 거냐?’ 결정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단체에서 한 명씩 내라. 그런데 이제 문화연대에서 가장 신선한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하나도 걸린 게 없는 사람. 그때부터 전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운동에 대한 용기가 생긴 거예요.”

“볼특정 다수들이 자기 일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슈를 파이팅 하는 모습이 멋지다. 나도 되고 싶다.’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대추리라는 곳에. 아는 친구가 가기도 했고. 가면서 대추리, 기룡전자, 친구들이 가는 쪽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용산까지 갔는데.”

- 문화연대 활동가에서 파견미술팀 적극 참여, 예술가로

“제가 농성장 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노동운동 분들과 연대할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는 비정규 노동자 투쟁이 가장 먼저 있었던 곳이 코스콤이었거든요. (……) 농성장 꾸미는 걸 같이 해보자. 그쪽에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농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문화연대가 받은 거예요. 그때 현장 활동가로 투입된 게 저였죠. (……) 대부분 그때 농성은 대자보 형식으로 써 놓는 식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빨강파랑노랑의 띠를 걸어서 약간 서당당 분위기가 나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문화연대가 알고 있는 작가 선생님들에게 다 전화를 했죠. 대학 교수님부터 해서 다 오시라 해서 현장을 보고, 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자보를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래서 그 농성장을 새롭게 만드는 게 제가 처음 농성장을 연대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뒤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현장에 공간 구성을 하게 되면 다른 노조가 연대한 모습을 보고 제안을 해 와요.”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저항의 공간 '레아갤러리' 오픈

- 참가 희생자 중 한 명인 고 이상림 씨가 운영하던 레아호프 자리에서 '레아갤러리' 등 문화 활동 기획 및 일시적 공간을 운영

○ 용산참사 추모 파견미술 헌정집 『끝나지 않는 이름의 전시』 발간

“이전의 것들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들에 투입되었다면 용산은, 현장이라는 곳은 저한테는 어떤 작품 같은..... 용산이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이, 스케일 앞에 서야만 알 수 있는, 시작과 끝을 고스란히 다 담고 있는 일 같아요. 그것들을 끝까지, 그곳에 오게 해야겠다. 이 느낌을 다 받은 작가들이라면 뭔가 다음 작품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리고 끝났을 때에도 이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진다면..... 그래서 『끝나지 않는 이름의 전시』 책을 제안해서 4-5일 정도 PC방에 앉아 글 쓰고 편집해서 엮어 냈어요.”

○ 활동가의 정체성과 예술행동의 정체성을 동일시하거나 통합적으로 인식

“작가들이 전시장이나 갤러리 작업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행동으로서 자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현장에서 당사자분들을 대면하면 저희 문화예술인들 또는 현장 연대하는 활동가들이 노조투쟁 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 일반인 예술가라 구분 짓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도 만들어져요. 미대를 나와 쌍용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시를 잘 쓰다 보니 지금은 콜밴의 가사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면을 찾아가는 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작가들과 연대하면서. (.....) 예술가도 노동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수준에서 투쟁하는 당사자로서 동등한 위치의 연대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 건강하고 대중적인 예술가 조직의 힘

- 파견미술가들은 과거 조직 논리에 충실한 예술가 집단의 실패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문제의 현장에서 예술이 발휘하는 힘을 목격한다.

“제가 물론 작가라는 이름을 계속 붙이면서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조직이 할 수 있는 힘에 대한 확장성, 팡! 터지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나는 것처럼 조직이 되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민미협이라는 조직이 그랬고, 민예총이라는 조직이 그랬고, 민예총 조직 내에서 작가들 그룹이거든요. 그 안에서 더 건강하게 한 명, 한 명 더 대중적으로 가려고 협동조합도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삼성반도체 앞에 반도체 소녀상을 세우려 갔어요. 그전까지 천막을 3년간 지키던 친구들이 아무리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매번 떠들어 대도 바라보지 않던 적들이, 소녀상을 세우려 했을 때 안에 있던 경호원들이 다 나와 소리치는 걸 보면서 되게 통쾌했다고 해요. 그런 조직이 되었을 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행동했을 때 갖는 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② 활동의 한계

○ 현장 결합 예술가들 부재. 참여가 저조하거나 점점 결핍되어 가는 현장

“투쟁 현장 외에 협치, 지역 활동과 문화, 이런 쪽에서 보면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동성이 많이 죽었다. 조직운동이 죽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과거 어떤 조직운동의 성향들이 점점 지역운동화되면서 운동성이 지역 쪽으로 많이 분산되었어요. 그래서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많이 수그러들었고. (.....) 문화연대도 과거 현장운동에서 협치나 프로젝트 쪽으로 많이 바뀌는 과도기라 생각해서.”

○ 활동가의 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노동운동 내부의 한계

“인건비는 차마 이야기도 못 해요.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성향은 여전히 있어요. 재능기부라는 말이 너무 유행하다 보니 작가들이 현장에서 뭔가를 했을 때 당연히 재능기부라고 생각해요. (.....) 이 마인드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급 노조단위랑 굉장히 많이 싸워요. 인건비는 고사하고 재료비는 쥐야 할 거 아니냐. 물감 집에 있는 거 가져오면 되는 거 아냐? 라고 하면 그 물감 어디서 나느냐는 거죠. 엄청 비싸요 물감.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엄청 많이 싸웠고, 용산 이후에는 문화제를 기획한다거나 문화행동을 할 때 인건비는 빼고 일단 재료비는 받아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점차 인건비라는 것이 문화예술인들의 최저 생계비에 대한 공명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공유하려 하거든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예술행동을 위한 예산 부족과 예술가의 생계

- 사회적 문제의 현장에서 투쟁을 위한 비용 중 문화예술에 할애되는 양은 극히 적거나 없고, 예술가의 사비가 지출되기도 한다. 외견상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예술가의 형편이 사회적 문제의 당사자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 활동가는 현장에서 예술가 입장에 서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곤 한다.

“저는 재정적인 부분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매개하다 보면 작가님은 재료를 사야 하고, 현장은 돈이 없다 보니 요청을 할 때 작가 선생님들이 대부분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현장과 작가 선생님들과 작업할 때

현장하고 많이 싸우는 편이에요. (……) 작가 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죠. 노조투쟁이나 현장투쟁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라거나 노조 상급 단위에서 지원이 나와요. 그분들은 처음 예술가들을 볼 때 잘 살고 멋있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공유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용산 때 사실은 전미영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엄청 쓰셨어요. 저도 그때만 해도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고 그냥 작가들이 와서 자기 작업을 하나 보다 ‘저렇게 연대를 하는구나.’라 생각했지 그 재정을 고스란히 누군가가 떠맡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 콜트콜텍이라든가 쌍용자동차라든가 재정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재정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인들한테 오는 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투쟁기금 자체가 시민 대상이든 누구든 간에 후원이나 모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어우,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해 하지만, 막상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현장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지원하는 수준은 된다는 거죠.”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공공적 지원제도를 향한 부정적 반응

“현장에서 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이 프로젝트 지원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정부나 현 정권에 대한 투쟁이 많고 굉장히 센 자본과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전 정권에서는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을 것이고, 넣었다 한들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서울문화재단이나 서울시나 어디든 프로젝트화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파견미술팀이나 현장 활동가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액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서, 누가 할 것인가? 정해서 재단에 권고라도 해보자라는 것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능한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화활동이나 액션이 진행된 이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 재단은 어쨌든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요. (……) 재단에 기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사후적인 것이 아닌가. 기록, 아카이브, 책을 만든다는 식으로 후속사업을 할 때 유용한 제도로서 가능하지, 투쟁하는 시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프락치 이게 진짜 강하고, 일단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에서 투쟁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와도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호의적으로 다가와도 일단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게 일정 정도의

생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이런 걸 만들 거야.’ 했을 때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 공공적 지원제도가 발생시키는 부정적 영향력

“시민운동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를 하고. 그 원인 중 하나는 재정 문제도 있고요. 운동을 하고 있는 단위들이 재정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프로젝트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의존성을 높이다 보니, 그 의존성이 재정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운동하는 단체의 정치적 지향점과 맞물릴 수 있는 것들을 재단이나 다른 곳에 제안해서, 재단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동성을 가진 단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 것,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 예술행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기본이 없이 벽지만 바르는 식의 제도는 지양해야 해요. 자기가 살려는 현장에 대해. 그곳에 가려 하는 예술가와 같이 가는 것에 대한 존경심? 정말 이게 멋진 일이구나. 이런 곳을 향하는 것이 멋진 것이구나.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되도록 수면 위로 올려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제도 위로 끌어내서. 이 상황 자체도 모르던 사람들도 출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더 다양하게 알게 되고 만드는 힘이 재단에 있는 게 아닐까.”

○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를 기록으로 보존하는 일의 필요성

— 이미지나 텍스트 기록은 아카이빙이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실물 작품의 보존 및 기록,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해 공개해야 한다.

“한계를 느끼는 것 중 하나는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작업들에 대한 보관과 기록이에요. 이런 것들이 항상 소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나 국가가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서 저희가 캠핑촌을 했잖아요. 이후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광장에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보관하고 싶은데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서울시에서 놓친 것이 그냥 줄 수 있느냐였어요.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나중에 역사적인 시기에 전시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때 만들어진 작품을 서울시에서 보관했을 경우, 작가 개인전을 할 때 자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빌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나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현장 작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 대추리 때도 그 많은 좋은 벽화와 모든 것들이 마을이 없어지면서 같이 없어졌죠. 용산 때도 서울시에서 뭘 만든다고 요청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리스트 뽑고 작가 분들한테 연락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분실되었거나 없어진

경우가 많은 거예요. (……) 일정 정도 어떤 투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성된 예술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텍스트로 만들지 않았지만 이미지로 보여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보리출판사(평화발자국)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사회운동가이자 철학자인 윤구병이 대표로 있는 보리출판사는 1988년에 어린이 그림책 전문 기획 집단을 표방한 ‘보리 기획’으로 출발함. 이후 1991년 주식회사로서 보리출판사를 등록했으며, 주요 발간물이 된 ‘평화발자국’ 시리즈의 편집자인 이경희에 따르면, “당시 노동운동이나 전교조 운동의 기금을 모으기 위해 기획하고 책을 만들었다.” 함
- 보리출판사는 처음의 기초를 지켜가며 주로 평화, 어린이/교육, 생태 등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는 출판물을 발간

“저희가 출판하는 정신이라는 것이 상업출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들, 어린이에게, 선생님에게 좋은 책, 교육을 살리는 책, 이런 정신을 가지고 출판을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 기초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② 주요 활동

- ‘평화발자국’ 시리즈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9권을 출간해 왔으며, 주로 인권, 자유, 폭력 등 사회적, 역사적 문제를 거론한다.
- 전쟁과 폭력, 일상에 뿌리박힌 차별,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와 인권 이야기를 그림, 동화, 만화 등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기획함. 6.25 전쟁, 노근리 학살, 1980년대 정치 고문, 5.18광주민주화 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역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랫동안 기획해서 출간한 작품과, 용산참사,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문제, 제주 강정, 탈핵 문제 등 현재 사회 이슈를 다룬 르포 작품도 함께 기획 출간해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거리감과 난점을 극복하고 독자에게 다가서기 위한 방편으로 만화책 또는 그림책과 같이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해 기획한다.

“평화와 발자국이 겹쳐져 있는 게 처음에는 회사 내부에서도 이게 무슨 시리즈 이름이나, 반발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책은 6.25 전쟁을 기록한 권정생 선생님의 글을 그림책으로 만든, 다시는 이런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만들었고, 사실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그림책 시리즈를 기획했는데…….”
 - 주제의 무게감이나 사실성 때문인지 한 권 출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1년 이상으로 긴 편이다.

“저희가 책을 1년에 30권, 40권씩 만드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시리즈는 만들었는데

책이 그다음에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 저희도 기획을 하긴 하지만, 작가님들이 기획을 해 오시고, 그리고 싶어 하는 주제로 하기 때문에 한 번 하면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책이 나오고. (.....) 2007년부터 만들어 냈는데 2017년인 지금 평화발자국이 19번 나왔어요. 1년에 한두 권씩 천천히 내고 있는 중.....”

③ 발전 과정

- 2007년, 6.25전쟁을 다룬 권정생의 『곰이와 오편돌이 아저씨』가 첫 기획
- 6·25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정생 선생님이 쓴 글에 그림을 그린 ‘평화발자국’ 시리즈의 출발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린이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그림책, 동화책 형식으로 기획했으나, 청소년이나 성인 독자층도 함께 고려하는 기획으로 변화, 무거운 주제를 시각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만화의 장점을 살려 계속해서 시리즈를 꾸려 나감
 - ‘평화발자국’ 시리즈는 용산참사를 다룬 『내가 살던 용산』(만화책, 2010)과 『파란집』(그림책, 2010)을 출판하며 본격화한다. 물론 당시 극도로 민감하고 긴급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출판 기획이다 보니 실제 출판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용산참사가 있고 나서 현장에서 그것을 본 예술가들이 이것을 꼭 기록해야겠다. 하면서 이 책을, 기록물을 내줄 출판사를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이니까 이 책을 내줄 만한 출판사가 보이면 내주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윤구병 선생님께서 모든 건 다 내가 책임질 테니 책을 내라 하셔서 잡혀가면 잡혀가겠다, 하시면서 책을 내게 되었어요.”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용산참사를 다룬 ‘평화발자국’ 시리즈를 계기로 보리출판사는 사회적, 역사적 문제를 무게감 있게 다루면서도 문화예술적 측면을 성취한 출판사로 각인. 최근에는 김금숙 작가의 신작 만화 『풀』이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리며, 평화발자국 시리즈 19권째로 발행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책 『풀』로 8월에 작업한 것이 최근이에요. (.....) (용산참사 시리즈를) 계기로 어린이책을 주로 내는 보리출판사에서 만화책을 내는구나.’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얻게 되었죠. 계속해서 강정이라든지, (양민)학살사건, 비전향장기수, 5.18 광주민주항쟁, 탈핵문제, 이런 것들로 역사문제와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사문제들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시리즈로 자리 잡아 가게 된 것 같아요.”
- 이처럼 장기적으로 ‘평화발자국’ 시리즈가 발간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사회적 문제를 대중적으로 호소력 있고 친근하게 전달하기에 적합한 매체가 만화 또는 그림책이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적이며 주제적 협업자인 작가를 들 수 있음

“최근에는 책을 기획하는 게 출판사에게 이 주제로 한번 작가들에게 그려 보시라 한다 해서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출판은 출판사가 중심이 아니라 예술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작가님들이 오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림을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그런 작품을 계속해서 출판하게 되는 거고, 출판을 한다는 것은 많은 대중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는 의미이고, 그런 쪽에서 사회적 개입이라 한다면, 저희가 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건의 기록과 기억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책으로 냈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재일 조선인이 있지만 그들이 왜 생겨났는지 역사적 근거라든지, 바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보책이 될 수 있는 만화책도 그랬었고. (.....) 출판은 기본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다 보니, 첫 번째로는 현장 사건을 기록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② 활동의 한계

- 출판기획은 현장의 시의성을 담보하지 못하거나 제도적 지원의 틀에 맞지 않는 더딘 작업

“지원사업을 찾아보고 있긴 한데, 지원사업이 6개월 안에, 1년 안에 결과물을 내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질 좋은 작업을 낼 수 없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고. 시기 문제의 경우에는 당장 어떤 문제들이 벌어졌으면 이야기를 독자들과 하고 싶은데, 출판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개월 만에 할 수 있지만 1년이 걸린다고 하면 어느 순간 이슈가 넘어가 버리죠. 그러다 보면 작업을 하다가 뒤늦게 나왔을 때 주목받지 못하는 점, 시기 문제가 있죠.”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

○ 원고료 편성의 어려움과 제작비 투자에 대한 출판사의 한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획출간을 하게 되면 몇 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 사실 돈이 제일 문제죠. 작가들도 생활하면서 작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판사에 원고료를 요구하면 출판사가 줄 수 있는 원고료는 초판 2000 부를 찍을 경우, 책값 1만 원짜리에 10% 인세율로 계산하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작품을 하기 위해 1, 2, 3년을 200만 원으로 그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출판사가 1만 부를 팔아 보겠다고 1만 부의 선인세를 주었는데, 1만 부가 안 팔리면 출판사의 손해로 고스란히 남게 돼요. 그래서 그런 원고료와 작가들의 생활 문제. 보리출판사가 사정이 좋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작업하라고 할 수 있는데, 출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출판기획의 사회적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행동 유도

“(용산참사에 이어 ‘평화발자국’ 시리즈의 영향력이) 더 증폭될 수 있었던 건 삼성반도체공장 노동자 책이었는데, 용산참사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이 저희 쪽에 기획안을 제시해 주셨고, 삼성반도체공장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작가님에게 제안했어요. (……) 사실 삼성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달라고 저희는 제안했는데 작가님들이 작품을 하려고 했던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였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다 보니 ‘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이것이구나.’를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작가님들이 엄청 고군분투하셨어요. (……) 그렇게 절실한 목소리를 작품 속에 녹여낸 것이 독자들에게도 이걸 정말 들려야 하는 목소리구나, 큰 문제구나, 하는 것이 전달된 것 같고 ‘평화발자국’이 확장된 계기가 되었어요. (……) 용산참사나 삼성반도체나 만화책이 나오기 이전에 기사나 책인 기록물이 많았어요.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만화라는 장르 덕분이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을 독자들이 한다고 하면, 책의 가장 큰 목표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노순택 작가는 세월호 사진 아카이브, 〈아이들의 빈 방〉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
 “제가 416저장소와 함께 일을 했던 건 맞지만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문건에 〈아이들의 빈 방〉 역시 동료들과 함께했던 프로젝트, 일원일 뿐이지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416기억저장소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발언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은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왔어요.”

② 주요 활동

- 〈아이들의 빈 방〉 프로젝트,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진
- 4.16 기억저장소

③ 발전 과정

○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작동하는지. 특히 한반도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분단이라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언뜻 보기에는 무관한 문제가 어떻게 분단 문제에 개입해 압축되는가? 세월호는 전혀 제 작업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만큼 워낙 뜻밖의 사건이었고,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는) 어른 이후에 겪은 가장 참혹한 사건이었고.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한국 사회에 관심 가진 작가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동료들도 그렇고, 사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발언권으로 기록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왜 발생했는지, 진상규명과 책임 밝히는 작업에 사진이 일종의 공적 자산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친구들이 모여 세월호 사진 아카이브가 구축됐습니다. 아이들의 빈 방도 먼저 다가가서 찍겠다 할 수 없었죠. 세월호 진상 규명 작업이 방해받으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빈 방을 기록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억저장소와 함께 그 일을 하게 되었죠.”

○ 사회적 기억과 책임

“저 역시도 성인이 되고 나서 학교를 갔는데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광주에 대한 부채감이 기이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타인에 대한 죽음에 대해, 어떻게 저릴까? 91년에 열사정국을 보면서 저 자신도 생각이 깊어졌던 거 같아요. (……) 저는 일종의 목격자예요. 목격담을 드러내는 형식이 사진적인 언어건 글의 언어건, 저는 목격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종의 진술서이지요. (……)”

사진이 불편부당한 것 같지만 시간과 공간을 폭력적으로 잘라 내면서 왜곡시키기 위한 매체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요. 말로도, 사진적인 방식으로,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뉴스의 현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 작업은) 전적으로 저널리즘과 다르다기보다는, 언뜻 보면 신문 사진 같은데 또 아닌 거 같기도 하고요. 지면을 가지고 있는 저널리즘은 어떤 사건의 정점을 바라본다면, 저는 어떤 사건의 전후를 바라보고 싶은 거거든요. 좀 더 입체적, 다른 방식으로, 이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해 왔죠. (……) 저는 제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전인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보여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왜곡해서 보여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제가 작가로서 할 수 있는 몫이 아닐까요?”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기록 아카이브

“한 가지 더 떠올려 보면 91년 한진중공업에 한 분이 안기부에 끌려가 죽음을 겪고, 시신을 탈취당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사진이 충격이었어요. 사실이 아니라 비현실적, 초현실적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부당한 권력에 항의하는 죽음을 추모하는 그 거리에 서면서, 내가 목격한 장면과 매스미디어를 통해 바라본 장면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다를까? 그때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이후 사회에 나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기자 생활을 한 것도 미디어, 사진이라는 것이 무척이나 객관적이고 담백하고 투명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저널리즘의 못된 속성에 관심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면서 리포트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야?’라고 묻게 된 거죠. 믿기 어려운 장면들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널리즘을 문장표로 치자면 마침표인데, 제가 잘하는 것은 물음표였죠. 그러면서 기자 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저 나름의 물음표를 찾아 작업을 하게 됐죠. 그것도 긴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② 활동의 한계

○ 모임 체계의 한계

○ 사진 제공에 대한 각론에서 합의점 어려움

○ 타인의 고통을 증거하는 사진의 딜레마

“그러나 상당수 장면들이 누군가의 고통이어서 대상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찍도록 허용해 주신 분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 얼마만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해야 하나? 무엇이 좀 더 풍부하고 지속적으로 저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나? 그런 생각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이상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

○ 최소한의 진행비 확보 어려움

○ 작가의 정신적 고통

“처음에는 내 관심사, 궁금한 것들 때문에 찾아갔다면, 지금은 관계 때문에, 친구가 되면서 친구 따라 3만 리 하면서 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 친구가 저기서 요청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 현장에) 안 갈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보람도 있죠. 지금은 그 거리감이 무너진 상태이다 보니 그것이 주는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호소형 언어를 쓰게 되고, 계속 아쉬운 소리, ‘이곳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관심,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형식의 말들이 작가로서 괜찮은 것인가?’ 질문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갈팡질팡하는 거 같아요.……. 때로는 여기에 적합한, SNS라든가 기고문에 적합한 언어 형식이 있고, 갤러리에 효과적이거나 그런 공간에서 제가 가진 물음표를 잘 던질 수 있는 언어는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중적 플레이가 주는 의문감 같은 것들은 제 안에 있죠.”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아카이브 프로젝트 중요성 인식 및 체계적 지원

○ 예술(가)의 통제 불가능성 인정하는 사회로

“저는 우리 사회가 예술가에 대해 관심이 1도 없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비용 고효율 떠올렸을 때 존재가 예술가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있겠죠. 땅값 올려 준다든지. 한편으로 권력자들은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던 거 같아요. 장식, 포장, 들러리로서의 역할 그런 것들이 치졸하게 드러났던 거 같고. (……) 통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만드는 걸 보면요. 예술가들을 통제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데, 이런 통제 불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게 확보되어야 하는 사회적 가치 아닌가 싶어요. (사회적 문제로 예술가들과) 연대하는 현장에서도 통제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활동이나 작품을 보고) ‘야, 그게 뭐냐 대체? 나는 이런 걸 원했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왔어?’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불평, 불만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는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예술의 사회적 개입에 관해서는 마땅한 대체 용어가 없기도 하고 쉽게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대안으로 드릴 말씀은 따로 없고요. 저 자신이 사회적 예술가, 실천적 예술가라는 꼬리표를 달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제 작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에 접근하는 것일 뿐이지요. 이런 타이틀의 부당함이라 해야 될까요? 일종의 운동으로서의 예술을 모색하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담은 용어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이죠.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작가일 뿐이야.’ 그것이 소박하고, 별로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솔직한 이야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6.9작가선언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김근 작가는 6.9작가선언의 초기 멤버로 참여

“(제가) 대표가 아니거든요. 6.9작가선언의 초기 멤버로 참여해서 변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

② 주요 활동

○ 6.9작가선언

“‘69작가선언’은 2009년 6월 9일 진행된 작가들의 ‘한 줄 선언’의 이름이자, 이후 활동 단체의 이름이 됩니다. 이 단체는 이전의 작가들이 사회에 개입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었고 활동 역시 그러했습니다. 기존의 조직의 폐쇄성이나 개인이 느끼는 거부감 등의 한계를 넘어, ‘69작가선언’은 작가들의 목소리가 좀 더 참신한 전파력을 지니고자 하는 모색이었습니다. 또한 리얼리즘, 모더니즘 등 이분법적 구분을 극복하고 사회에 개입하는 문학(예술)은 이래야 한다는 규정이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자기 몸짓 들도 곳곳에 존재했는데, 그런 다양한 계기들이 ‘69작가선언’으로 모아졌습니다. 이후 ‘69작가선언’은 작가들로 일꾼들을 꾸려 용산참사 현장, 4대강, 쌍용차 현장 등에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③ 발전 과정

○ 한 줄 선언

○ 참신한 전파력으로서 작가의 ‘목소리’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30~180여 명의 시인, 소설가, 평론가 등이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참여
- 보름간의 토론과 활동 후 선언문 낭독
- 두레문학모임 카페 개설 후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

② 활동의 한계

- 체계적 조직의 거부
- 느슨한 연대, 수평적 관계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획일적 참여에 대한 거부감, 작가적 고민

- 사회 현장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은 문학이 사회 참여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현대적 요구가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여전히 예술로서의 주체성을 고민한다.

“창작자로서 고민이 있어요. 문학이 사회적 현실과 늘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 제가 문학을 한 이유일 거예요. 하지만, 6.9작가선언 이후 여러 현장의 활동을 보거나 체험하면서, 예술가들 혹은 작가들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사회 문제에 개입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8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방식처럼 획일화되거나 도식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참신한 방식은 없을까.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보통) 내적 갈등이나 좌절, 절망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언어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몸을 바꾼다는 이야기와 같거든요. (……) 제가 91학번입니다. 당연히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것들이 저를 문학의 길로 접어들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문학이 사회와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시 장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80년대 (현실주의/리얼리즘) 문학이 급격히 폐기되고, 90년대 포스트모던이 자리 잡고, 한편에서는 서정이라는 시의 흐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 혼란을 딛고 각자의 문학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등단을 하고 보니 ‘서정만이 최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정이 내가 알던 리얼리즘의 서정이 아닌 제가 보기엔 과도한 자아와 세계의 동일시에 입각한 서정이었다고, 시적 세계는 과도한 화해적 가상으로 채워져 있었죠. 91년 5월을 겪은 저희 세대가 불행한 게, 새로운 문학을 할 만한 기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언어를 들고 대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없었죠. 문단의 일련의 흐름들과 무관하지 않고요. 서정의 독점 때문에 기괴한 알레고리 등의 다양한 언어들을 들고 일군 시인들은 설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회와 무관한 시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오해 등으로 스스로 위축되었고, 저희 세대는 80년대에 대한 부채의식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내 문학은 이들(사회에 참여하는 예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서 문단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현장에 대한 산문들을 쓴다면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언어로 현실에 개입하고 싶었죠. 현실과 창작이라는 이러한 이중의 억압이 있다는 거죠. (……) 80년대 노동시를 보면 그 이전까지 노동시와 다른 점이 노동자가 직접 시를 써서 유통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전위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80년대 시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문학이 현실의 담론을 이끄는 첨병 역할을 꼭 했어야 할까? 그 너머를 상상하면 안 되었던 걸까?”

○ 정책과 현장 작가에 대한 몰이해

“정책은 창작자와 향유자 지원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창작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는 창작, 창작자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다고 봐요. (……) 6.9작가선언 이후 강정, 쌍용차, 두리반 등 여러 현장에 작가들이 활동가로 들어가거나 모임을 꾸렸는데, 제가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으로서 낭독회에 시인들을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한국작가회의가 시민운동단체에 시인을 제공하는 역할이었죠. ‘누구 좀 보내주세요. 그 사람 유명합니까?’ 이런 말을 들곤 했는데, 이는 문학, 예술을 현실을 초과/확대하는 상상력이 아닌 현실 변화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시민사회가 예술에 대해 지닌 생각도 앞의 정책담당자들과 비슷했던 거죠.”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자신만의 언어로 정치적 현실을 다루는 시, 소설에 대한 이해

“같은 현장에서 작가회의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어요. 4대강 현장에도 시인을 많이 보내드렸는데, 가기로 했던 시인이 고민하기에 ‘그냥 강에 대한 너의 이 시를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어떤 욕을 먹든지 네 것이 좋아.’라고 했지요. 왜냐면 강에 대한 어떤 시에도 4대강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거거든요. (……) 6.9작가선언 이후 작가들이 현실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80년대식 참여문학이 아닌 정말 자기가 쓰는 언어로 된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들이 현장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지점으로 가는 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회 현실에 (작가들이) 반응하고 문학과 참여를 해서 실제로 좋은 작업들이 나오니까요. 반면 정치적 현실이 작가들에게 하나의 억압이 됐어요. ‘나는 어떻게든 현실에 대해 발언을 해야 해.’라고. 사실 문학이 즉물적인 현실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억압들이 있고. 그건 아까 말씀하신 도구화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 후배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들을 해요. 저희 세대처럼 반성하고 부담감 가지고 이렇게 현실에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연스럽게 문학하는 것처럼, 생활하면서, ‘아, 나 이거 해야 돼.’ 하면서 달려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6.9작가선언 이후 문학이 현실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의 토대가 마련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믿고 싶어요. (……) 중요한 것은, 자기 문학을 통해서, 단지 현실이 어떤 재현의 소재나 이런 걸로 자기 문학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실로부터 비롯된 언어가 어떻게 현실을 새롭게 드러내는가 하는 거지요.”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리슨투더시티는 2009년 결성된 콜렉티브 그룹으로 주로 도시의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 존재들을 가시화해 오고 있으며, 박은선 디렉터 외 멤버들이 활동하고 있음
 “시 문제, 도시 바깥 문제, 여러 가지와 결부되는, 땅과 관련된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연구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팀”

② 주요 활동

- 내성천의 친구들
- 옥바라지 골목 보존운동

③ 발전 과정

○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함

“두리반,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지금까지 만나는 많은 친구들의 삶을 일반화할 수 없지만, 자본주의 삶의 대안을 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비전(완고한 채식주의)을 실천한다던가. (.....) 롤모델하면 안 되지만 지울 스님에게서도 많이 배우고, 최근에도 문재인 정부를 우려하시고, 그런 걸 보는 눈을 제가 배울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떤 하나의 활동을 우리는 단발적으로 매듭짓고 싶어 하는데, 문정현 신부님도 그렇고, 지울 스님도 긴 호흡으로 바라보려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감동해요. 고맙고요. 어디 용역 강패 온다고 하면 달려가는 것이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보고 있으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로 장사하는 사람도 요즘 생겨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 엉망진창인 소사이어티에서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저는 소중하네요.”

○ 미술관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아닌, 매일매일 고민하는 언어에 관심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랑시에르와 가장 비슷하는데, 결국은 배제된 것들이 목소리를 얻어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학적인 거라 생각하고. 그것들을 계속하는 행위의 일련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시로 나올 수도 있고, 통계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저희 작업은 통계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작가 분들은 형식을 정해 놓고 작업들을 하지만, 저희는 형식이 없는 것이 가장 특징인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예술가라 부르지 않는 분도 있는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 제가 순수미술 하고 나서 도시공학으로 다시 박사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 가면 인건 취급도 못 받는 예술가의 현실 때문이에요. 재개발 현장에서 싸우면 느끼는데,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주류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쪽, 운동이 접근하지 못한 쪽에 다가서려 함

“스스로의 목소리를 문서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유통화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언어화할 수 없어요. 유채림 선생님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예요. 옥바라지나 마리 현장을 통해 깨달았어요. 유채림 선생님은 서발턴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류와 더 잘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 이 사람들의 증오는 뭐고, 리슨투더시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중간자, 보편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요. (.....) 저희 같은 경우는 주류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쪽에 다가서려 했어요. 밀양, 쌍용차 (현장을) 연결해서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끼지도 못한 영세한 업체도 있고요. 저희는 그런 목소리들을 들으려 합니다. (.....) 평소 통념적 예술에 맞지 않아도 저희는 예술을 했고요. 앞으로도 미술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는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난점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② 활동의 한계

○ 예술, 비예술을 보는 사람들의 관념적 인식

“사람들이 예술이라 하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학은 조금 다른데요. 예술, 비예술에 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는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일부러 그렇게(비예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온전한 시민성을 배양하고 그쪽으로 장려하는 것 같아요. (.....) 고프리치 미술사에 나온 미술을 상정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예술의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미술사나 미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게 미술의 특징이고, 또 미술이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큰 분야 중 하나잖아요. 독립을 할 수 없는 게 예술의 특징인데, 특히 미술은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미술을 하는 시인은 없지만, 시를 쓰는 미술가는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진가는 없지만, 미술가는 사진도 많이 찍어요. 소설가 중에 미술하는 분은 거의 없지만, 미술하는 분 중 소설 쓰는 분들은 꽤 있던 말이에요. 잘 못 써서 그렇지. 이렇게 상호 이접이나 여러 장르를 흡수하는 사람들이 미술에 특히 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에 더 열려 있고 유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2014년에 저희가 행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킹 더 시티, 전환 도시 예술>인데,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의 어원이 테크네인데, 예술과 기술의 접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8세기, 19세기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리고 지금 현대 미술사를 지나면서 굉장히 전 인류사상, 예술이 현실, 현실이라는 거. 제가 싫어하는 말인데, 일상이나 정치라는 문제나 민주주의, 광장, 봉건제도 등 여러 가지 사회체제와 예술이 가장 멀리 독립되고 분리되었다고 생각해요.”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참여와 연대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외부 사회와 예술계 내부의 무관심

○ 예술과 사회의 필연적 연관성을 부정하는 태도

“지자체별로 도시재생 관련 연구를 위해 인터뷰하고 다니다 보면 예술이 저비용 고효율 도구가 된 거예요. 예술가들은 돈 1천만 원만 주면 이만큼 해오니까. 간편한 도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만큼 예술가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에 관해 확인하는 중간 단계가 없어졌어요. (예술가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가 없고 산값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회에서 예술에 대한 인식은 변한 게 없고,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관심은 1도 없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예술이 돈 된다는 인식만 퍼지는 거죠. 연예인들 기사에 (예술가가 얽힌) 젠트리피케이션 사건이 회자가 되면서 예술가들이 땅값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굳어지는 거예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고마워하거나, 재조명하거나, 깊게 사유하는 담론이 된다고는 거의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저는 ‘개입’이라는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요. 왜 내 일에 개입해? 싸우자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술과 사회를 분리시키려는 미국적 전형적인 매카시즘의 뒤틀린 예술사관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라는 말에 대한 포비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순수한 예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판타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지요. 그런 말 불편하죠. 부적절한 말인데. 그런데 포섭하려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리슨(투더시티)도 (전시에 참여하면 리슨투더시티가) ‘무슨 예술가냐?’라는 질문을 들어요. 무엇이 예술이고 사회이냐에 관해 많이 논의해야 해요.”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예술가에 대한 정당한 보수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먹고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월급 받고 살고 싶어요.(웃음) 월급 받는 일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 예술가도 만나면 너무 불행하고, 만나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할 시간이 하나도 없고. 너무 깜짝 놀란 것이 미술관 큐레이터가 전시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닦할 수 없는 게 잡무에 업무에, 비정규직 파견직이 너무 많고. 관계도 영성하게 맺어지고, 책임감도 없어지고. 너무 일은 많은데 파견직이니까 이분들 말을 미술관이 믿지 않아요. 관계도 너무 불안하고. 아티스트 피 운동도 하고 있지만, 여성 예술가 문제도 하고 있지만,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이고, 기본적인 국가의 복지 체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예술을 한다면 정상적 가족을 꾸리는 것 자체가 투쟁이잖아요. 다들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 결론은 노동 시간 단축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예술가들을 부르거나 일을 할 때 정당한 보수를 주는 걸 당연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북서울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데 적은 예산에 비엔날레급 작업을 원하고. (……) 예술가가 사회적으로 왜 개입해야 하는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술가들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많다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은 시간이 유연한 거예요. (시간이 많은데 현장에) 안 가면 (마음속으로) 찢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 전시도 보는 사람만 보고 이런 식으로 (예술계가) 계도가 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기획이라고 생각하죠.”

청년예술가네트워크(한일협상무효 수요 예술행동)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청년예술가네트워크

“기획, 정책과 관련한 청년예술가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작업 여건이 힘들니까 정책적 요구를 스스로 목소리로 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어요.”

② 주요 활동

○ 한일협상무효 수요 예술행동

“작업하는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 작업적으로 어떻게 풀지 고민들이 늘어나고. (.....) 사회적 의제에 대한 예술행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 위안부 활동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하러 오게 되었고. 최근은 의제 중심보다는 지역 기반 작업들을 더 많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젊은 예술가들

“저는 젊은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기획 작업하면서 동료 젊은 예술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을 봤어요. 방금 박은선 선생님께서 격하게 표현하셨지만, 예술가들 외에는 모르고 있다, 그 접점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그러면서 작업적으로 옮겨 간 부분은 청년 예술가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생각할 부분은 무엇인지였어요. (의외로) 당사자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사회에서 예술가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식화는 위험하지만, 대중들이 인식할 때는 굉장히 역할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③ 발전 과정

○ 한일 위안부 협상의 불합리성과 무효화의 필요성 인식

“저는 예술대학에 있었지만, 전공 자체를 들여다봤다기보다 운동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예술작업을 하면서는 특별히 그런 의제들로 작업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단체 사무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망해 가는 동네 한가운데 들어서면서 거기서 연결된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사회 의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관해 (작업이나 활동을) 풀어간 것 같고요. 저희 단체가 권리 문제에서 출발해서 사회 의제로 확장되었다고 했지만, 예술의 사회적 개입이라고 표현된 영역이 이상하다, 이질적이다,라고 느끼는 젊은 예술가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자기 예술의 결을 지키면서 좀 더 사회적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연결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강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위안부 수요집회 참여) 예술행동도 진행하면서, 좀 더 경험이 없었던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 변화에 작용하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 모색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문제에 대해 예술가들이 그 부분을 얼마나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특히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그것의 뿌리는 예술대학에 있는데요. 이것을(사회와 관련된 예술활동을)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굉장히 위험한 논란 수준 정도의 답론이 예술대학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젊은 예술가들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 이슈에 대한 인식이 적은 편이고요. 최근에는 유행처럼 사회 이슈를 담아 내는 작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얕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봅니다. 예술가로서라기보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자기 문제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까지 연결고리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 저희가 작업했던 (사회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특정한)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였지만, 저희는 추후 관심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예술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장을 넓게 만드는 데 관심을 두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총 6회의 예술행동 68팀 참여
- 청년문제, 표현의 자유, 국정농단 등의 예술행동 프로젝트로 연결

② 활동의 한계

- 어버이연합과의 충돌로 회원의 신상털이가 된 사건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퍼포먼스를 보는 우리 사회의 뼈뺀 시선들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사회적 변화를 위한 더 많은 예술행동

“요즘은 지역 예술 프로젝트를, 서울 서대문구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8개 정도 그룹이 같이 연계해서 움직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많이 비판하셨던 공공에서 하고 있는 지역 사업들을 (오히려) 어떻게든 활용해서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도 서대문구 일자리 창출로 나온 예산이 있었는데, 청년 예술가들이 공유원탁 회의를 모델로 삼아 해보자 하는데, 구청에서는 가시화되길 원하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중이고요. 그렇다고 저희 팀이 서대문구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 하죠. 예술행동인데 저희는 좀 다른..... 현장 예술계, 지금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예술가들은 이런 담론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예술가 사회에서 이런 담론을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장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합니다.”

두리반 51+

1) 단체 소개

① 단체 개요

- 유채림 작가는 아내가 운영해 온 두리반 식당 강제 철거에 맞서 두리반 51+에 동참

② 주요 활동

- 두리반 51+

“소설 쓰는 유채림입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두리반이라는 식당을 이야기해야지요. 제 아내가 주인이고 저는 거기서 메우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횡수로는 3년이고 날짜로는 1년 6개월 동안 GS건설이 그 일대를 개발하느라 강제철거를 단행했을 때 거기 맞서서 싸우는 과정이 일반적인 철거 농성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③ 발전 과정

- 동교동 167번지, 칼국수&보쌈 전문점 두리반 철거에 맞섬

“제 아내가 식당을 하고 저는 한국 기독교장로회 출판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GS건설이 매입을 하고 세입자들을 내쫓는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나왔죠. 본보기로 두리반을 가장 먼저 들어내고. 세입자들은 집을 먹고 이사 비용만 받고 줄줄이 나갔거든요. 두리반은 희생양 아닌 희생양이에요. 제 아내가 별종이라 ‘이렇게 못 산다.’ 하고 (두리반을 가로막았던) 펜스를 뚫고 들어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었죠. 고마운 것이지요. 농성하는 1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첫 번째 고마움이에요.”

- 2010년 노동자의 날, ‘51+’기획

“오마이뉴스에 두리반에 관한 기사가 났는데 ‘용산 같은 폐쟁이가 하나 나타났군.’ 식의 차마 볼 수 없는 악성 댓글을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용산 기억도 선명하고, 용역들이 끌어내던 상황도 선명하고, 오마이뉴스 기사 같은 걸로는 안 되고,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거나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게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써서 알려야 할까? 그 고민을 상당히 했어요. 고민 끝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게 사막의 우물 두리반, 「‘아내의 우물’ 두리반」(유채림, [왜냐면], ‘아내의 우물’ 두리반, 한겨레, 2010. 1. 13.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398686.html>. 접속일: 2017. 11. 7.)이었는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걸 계기로 후배 작가도 오고.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릴레이 기고하면서 알려지게 되고, 뮤지션들이 오고, 조금 지나니까 다큐 감독들이 영화 상영도 해주고.

2) 비전과 한계

① 비전과 보람

- 유채림, 안종려 부부, 537일간 농성
- 새로운 투쟁의 양식, ‘문화시위’ 확산 계기

“농성하면서 젊은 벗들, 그때 함께해 주었던 김근 작가나 박은선 선생이나 (이 자리에) 다 계시지만, 그렇게 어울리면서 바뀌었어요. 한편 당사자로서 면면히 흐르는 절박감이 소설도 바꾸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두리반에서 함께했던 수많은 예술가들은 또 나름대로 연대의 의미보다는 나중에는 자기 예술을 충실이 이행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 두리반에서 공연을 반복함으로써 나중에 꽤 성장한 뮤지션들도 있었고. 전혀 독자 없이 다큐멘터리 1년, 2년 짝어 봤자 장롱에 처박아 두는 처지인데, 상영회를 갖고 씨네 토크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자발적이고 즐거워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절실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저도 예술의 사회적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냥 예술은 사회의 일부이거나 전부이거나,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는 갖고 있죠.”

○ 소설가로서 문화적 정체성 재인식

“(시인이자 소설가로서) 등단 이후에 제 문장은 만연체였고, 미문 위주로 소설을 써 왔어요. 마루야마 겐지처럼 시처럼 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희주의식이었죠. 나름대로 그쪽 독자들을 형성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아니죠, 1년 반 농성하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문장이 단문으로,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바뀐 거죠. 문단 선배로 예를 들자면 이문열에서 황석영 스타일로 바뀌었던 말이지요. (……) 저 같은 경우 두리반에서 철거 농성할 때, 저한테 예술은 예술이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그냥 절실했어요. 두리반 사태를 알려야 하는 절박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문장은 길면 안 되고 단문으로 요점을 적시해서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관념어로 두루뭉술 넘어가서는 누가 읽겠는가?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어휘가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게끔 했고. 그런 것들이 읽는 사람들이 읽고 나서 ‘즉자적으로 두리반이 이리이러했구나, 이리이러하니 나도 이리이러해 볼까?’ 하는 생각. 저는 연대를 요청하기 위해서도 그런 의미로 썼는데 많은 선배 예술가들이 ‘나는 광주가 있었기 때문에 내 시의 모태는 그것이었다.’ 하는데 솔직히 그건 낯간지럽고. (저는) 나의 바운더리가 그것에 있으니까, 내 세계관이나 공부를 그렇게 해왔을 뿐이고. 즐거워서 해왔고. (……) 식당에서 12시간 일하고 나서 짬짬이

② 활동의 한계

- ‘투쟁으로서의 유효성과 한계’를 요구당하는 것이 한계

3)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 지자체와 투기자본의 무관심과 강제력

“신뢰를 못했어요. 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게 들어앉았어요. 농성하면서 느꼈습니다. 마포구, 한국전력의 부정적 행태가 깊게 자리 잡았어요. 은평구 녹번동 다니던 교회가 쫓겨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이를테면 이명박, 오세훈 시장할 때와는 다르게 박원순 시장이 되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 변한 게 없어요. 표피만 바뀌고 있지. 내면, 속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행태이죠. 말로는 마을만들기 사업, 옥상텃밭 하는데……. 재개발이 시작되니 한순간에 다 털려요. 그런 걸 보면서 박원순 시장 직권으로 취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꾼 눈치를 보고, 5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만 취소, 그런 식의 관이라면 밀바닥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 주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가 있었던 것이죠.”

② 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언

- 홍대앞이란 공간의 정체성 논의 촉발
- 강제철거방지법 관련법 개정

(3) 결과 정리 및 시사점

1) 사회행동 분야의 현황과 특징

○ 사회행동으로서 예술행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음

- 첫째, 예술의 사회행동에 참여해 온 예술가들은 ‘예술가’와 ‘예술’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술가’라는 예술 주체가 곧 예술이라는 것. 쉽게 말해 ‘예술가’와 ‘예술’은 동일체인 셈이다. 예술가가 그 자체로 예술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질 때 ‘파견미술(가)’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파견미술은 “왜곡된 권력에 의해 소외되어 있는 현장 속으로 작가 스스로가 파견되는 게릴라적인 미술행동”이라고 정의된다. 예술이 아니라 예술가가 스스로 파견됨으로써 ‘참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둘째, 첫째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참여’가 없이는 예술의 사회행동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는 예술가 스스로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개별적 동참을 시작한 예술가들의 발언이고, 연대이고, 저항이다. 예술행동에서 ‘참여’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 참여 없이는 어떠한 행동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 셋째, 예술행동을 하는 모든 예술가들의 입장은 아니나, 일부 예술가들이 1980년대 민중미술(예술행동주의로서)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활동이 어떤 ‘새로운 예술’로서의 경향이 아니라 역사 속에 꾸준히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미학적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스스로를 ‘민중미술가’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해석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그것은 ‘저항의 연속성’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일 테다.
- 넷째, 정부 당국이나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주의로서 제도(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예술행동의 사건이 시작되는 곳은 어김없이 정부(국가)의 공권력이나 자본권력이 작동하는 곳이었다. 예술가들은 그런 막강한 권력이 밀어붙이는 현장과 맞섰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권력을 결코 신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 다섯째, 현장의 중요성이다. 현장이 저항하고 연대하고 개입하고 창조되는 최전선이다. 과거에는 거리로 나가 민주화를 외치며 투쟁하는 것이었으나, 21세기의 현장은 그 양상이 아주 많고 다양해 단지 구호만을 외치거나 물리적 힘을 동원해 싸우는 것으로는 공감과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예술행동의 현장은 물리적인 싸움보다는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과정을 만들어 냄으로써 ‘저항의 축제’가 된다.
- 여섯째, 대추리, 용산, 강정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은 아나키즘적이라는 것이다.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권력 및 모든 사회적 권력을 부정하는 것이며, 절대적 자유의 사회를 실현시키려는 작은 코뮌적 운동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일시적으로 결합하기도 하고 왕래하며 지속적으로 결합하기도 하지만, 어떤 예술가들이나 활동가들은 아예 그곳으로 이주해 와 거주하면서 예술행동을 일상화한다는 점이다.

2) 발전 방향 및 주요 의제

- 예술행동의 발전 방향: 이 사회를 직접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로 만들어 가야 함
 - 민의를 수렴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이든, 자본권력이든 한 사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의제를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술행동이 그동안 결합해 온 곳들은 사회적 의제가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뒤틀린 곳들이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숙의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한 사회가 어떻게 문화적, 예술적으로 숙의할 수 있는가다.
- 예술행동에서 주요 의제는 예술행동을 기록하는 것
 - 21세기,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터졌고 그때마다 많은 예술가들의 예술행동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예술행동들은 날마다 수행하는 수행성의 현장미학이어서 기록이 거의 남지 않는다. 기록이 필요하다. 기록은 남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성찰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또한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이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부(국가)/자본이라는 권력기제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예술의 사회적

○○○ ○○○

활동에 대한

* * * * *

라운드테이블

○○○○○○

결과 분석

* * * * *

1. 흐름과 특징

1) 주요 단체 대상 설문조사

① 조사 개요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흐름과 특징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단체 및 개인의 일반사항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 진행
 - 라운드테이블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한 답변들이 있었지만, 각 단체와 개인별로 균일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설문조사는 각 단체 및 개인의 일반사항과 주요 활동 및 지원 수혜 내역을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오전 8시까지 진행
- 설문응답은 총 50개 단체 및 개인 중 34개 단체 및 개인이 응답
 - 전미영 작가(문화연대, 용산참사 파견미술),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6.9작가선언, 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노순택 작가(세월호사진 아카이브./아이들의 빈 방), 리슨투더시티, 릴리쿰, 그림마음연구소, 성효숙 작가(골트콜택+문화행동),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멘, 응용연극단체 문, 오늘공작소, 동대문 옥상낙원 DRP, 우리들의 눈, 리마크프레스(이문238), 수리수리협동조합,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장, 000간, 달꽃창작소, 더페이퍼(골목잡지 사이다), 동네형들, ‘ ’ (작은따옴표), 어반플레이, 문화프로덕션 도모,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극단 날으는 자동차, 예술에 기대다, 린 협동조합, 창작그룹 비기자, 캠페인데이션, 무소속연구소, 문화예술 협동조합 결애,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보리출판사(평화발자국)

(가칭) 예술의 사회적 개입 심층 연구 설문조사

본 설문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칭) 예술의 사회적 개입 심층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해 주셨던 개인/단체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라운드테이블 당시 주요 의견을 참고로 '예술의 사회적 개입'이라는 용어를 변경할 예정이나, 대체할 용어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까지는 '예술의 사회적 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지난 라운드테이블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나, 흐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단체별로 보다 균일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체/개인 관련 일반 사항에 대해 추가로 설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은의 주요 내용은 1) 단체 일반 정보, 2) 대표자 일반 정보, 3) 주요 활동과 도움을 얻었던 주요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가 여러분들의 활동과 동기, 과정에 대해 보다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응답 시 불편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과 단체의 활력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서울문화재단

0. 응답자 관련 사항

1) 응답자 성명 및 직함

2) 응답자 이메일 주소

1. 단체 일반사항

단체 일반사항에 관한 설문을 통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조직의 성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만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문항에는 응답하지 않고 '2. 대표자 일반사항'부터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귀 단체명은 무엇입니까?

단체명 :

2) 귀 단체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설립연도 :

3) 귀 단체의 법적 형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가) 미등록 단체
- 나) 미등록 단체이나, 개인이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사업 진행
- 다)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보유)
- 라) 사단법인#1 (고유번호증 보유)
- 마) 사단법인#2 (사업자등록증 보유)
- 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보유 - 간이과세, 일반과세, 면세 모두)
- 사) 상법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아) 재단법인
- 자) 공익법인
- 차) 특수법인
- 카) 협동조합
- 타) 사회적 협동조합

4) 귀 단체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셨습니까?

- 가) 아니오
- 나) 일자리제공형 사회적 기업
- 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 기업
- 라)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 기업
- 마) 혼합형 사회적 기업
- 바) 기타형 사회적 기업

5)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셨다면, 언제 받으셨습니까?

인증 연도 : _____

6)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광역시/도) _____, (시/군/자치구) _____

7) 실제 주요 활동 지역은 어디입니까?

(주요 활동 지역에 대해서만 작성, 고정된 활동 지역 없이 활동할 경우 '전국 대상' 선택)

- 가) 전국 대상 (활동의 지역적 구분 없음)
- 나) 광역 단위 대상 (광역시/도)

다) 기초 자치구 단위 대상 (광역시/도) _____, (시/군/자치구) _____
라) 동/마을/생활권역 단위 대상 (광역시/도) _____, (시/군/자치구) _____
(동/마을 등) _____

8) 단체의 고정 활동가/종사자/직원은 몇 명입니까?

___ 명

9) 단체의 활동에 상시적으로 직간접 관여/참여하는 회원/참가자/지지자는 몇 명입니까?

약 ___ 명

2. 대표자 일반사항

대표자 일반사항에 관한 설문은 활동의 주축이 되는 대표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대표가 아닌 단체를 설립하였던 대표자의 정보를 작성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개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대표자 성함

성함 :

2) 대표자 성별

- 가) 여성
- 나) 남성
- 다) 기타

3) 대표자 연령 (만 나이)

- 가) 10~20대 (1988년생~)
- 나) 30대 (1978년~1987년생)
- 다) 40대 (1968년~1977년생)
- 라) 50대 (1958년~1967년생)
- 마) 60대 이상 (-1957년생)

4) 대표자의 정규교육 학력 및 전공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 기입)

- 가) 예술 관련 중 고등학교 / 전공 :
- 나) 학사 / 전공 :
- 다) 석사 / 전공 :
- 라) 박사 / 전공 :
- 마) 기타 :

5) 대표자의 '예술의 사회적 개입' 활동에 영향을 미친 예술 관련 학습 이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가) 정규교육 / 전공 :
- 나) 정규교육 외 교육기관 (사설 아카데미 포함) /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
- 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 학습 공동체 / 공동체 또는 활동 :
- 라) 개인적인 공부
- 마) 기타 :

6) 대표자의 '예술의 사회적 개입' 관련 활동을 시작하신 연도와 총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가) 활동 시작 연도 : _____
- 나) 총 활동기간 : ___ 년

7) 대표자께서 현재 단체에서 언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 가) 활동 시작 연도 : _____
- 나) 단체 내 활동기간 : ___ 년

3. 주요 활동 및 지원 수혜 내역

귀 단체/개인의 주요 활동과 활동에 주로 도움이 되었던 주요 지원 수혜 내역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귀 단체/개인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단체/개인의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젝트명을 3개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까지 진행한 프로젝트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단체의 활동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개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횟수가 아닌 프로젝트의 개수)

- 가) 연간 : ___ 개 내외 (매년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년에 몇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 나) 활동 기간 통합 총 : ___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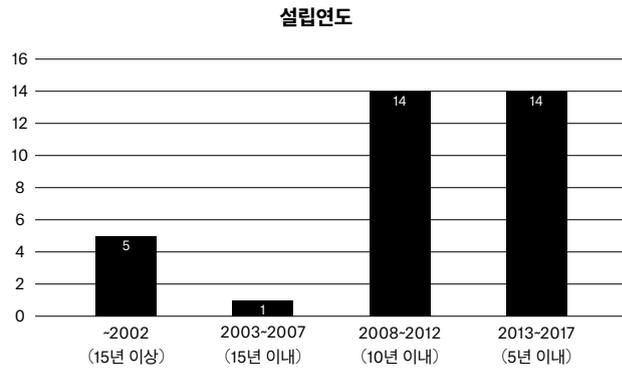
3) 귀 단체/개인이 활동을 지속/확장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되었던 지원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규모/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단체의 설립/운영/확장/지속/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지원받은 지원사업이 있다면, 지원사업명과 지원 규모 (또는 공간/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 내역)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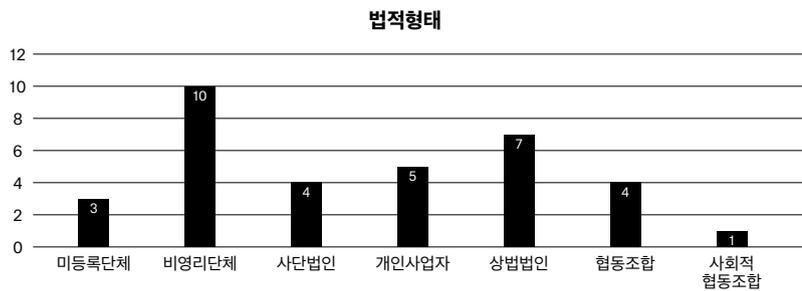
예시)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 3회 지원 선정, 총 4,0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레지던시 파견 사업, 1회 지원 선정, 독일 000스튜디오 레지던시 파견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경영컨설팅 및 5,000만 원 투자 유치

③ 조사 결과

- 설립연도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설립된 단체가 가장 많은 수준
 - 설립된 지 10년 이내 단체와 5년 이내 단체가 각 14개로 높은 수준이다. 15년 이상 된 단체는 5개이고, 15년 이내 단체는 1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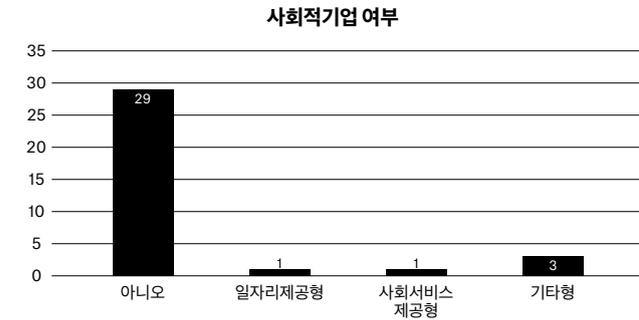


- 법적 형태는 비영리단체(고유번호)가 가장 많아
 - 비영리단체(고유번호)가 11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법법인이 7개로 많았다. 개인사업자 5개, 사단법인 4개, 미등록단체 3개, 협동조합 4개, 사회적 협동조합 1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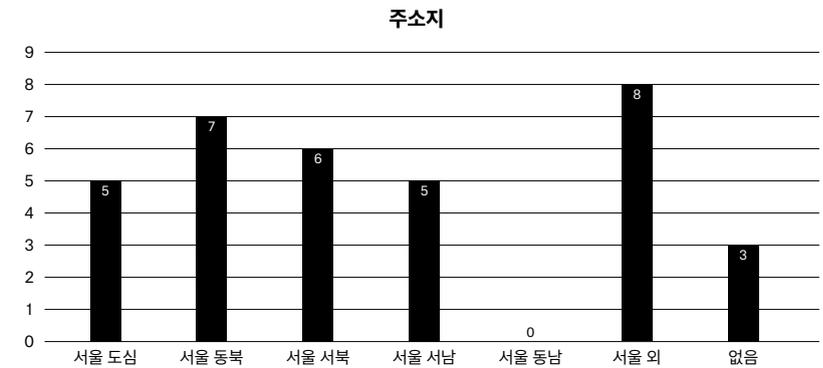
○ 사회적 기업 인증 단체는 거의 없는 상황

- 사회적 기업이 아닌 경우가 30개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나머지 5개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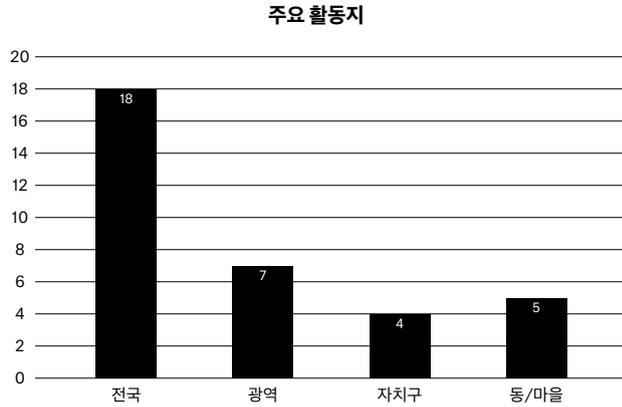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는 대부분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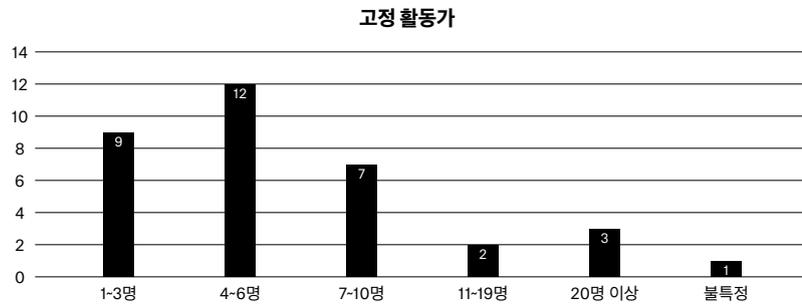
- 23개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서울 동남(강남)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우는 없었다. 서울 외 지역은 8개이고 주소지가 없는 3개의 응답은 미등록단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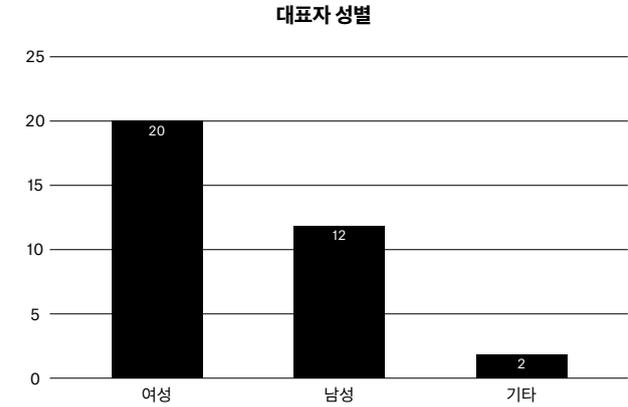
- 주요 활동지는 전국적으로 펼쳐지지만 광역 수준도 꽤 있어
 - 주요 활동지는 전국이 18개이고, 다음으로는 광역 7개, 동/마을 6개, 자치구가 4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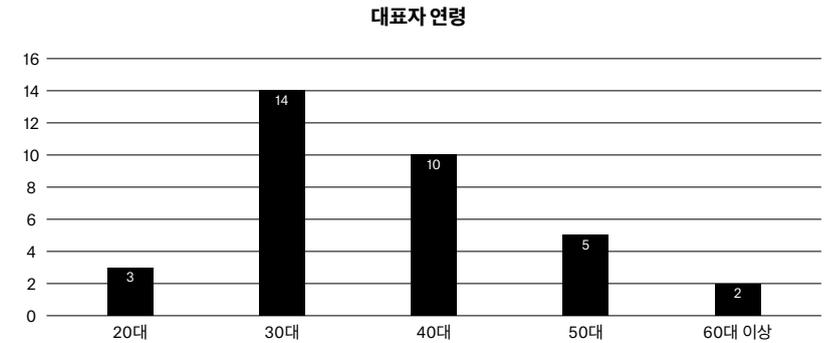
- 고정 활동가는 대부분 1~10명 사이
 - 4~6명의 고정 활동가로 활동하는 단체가 12개로 제일 높다. 다음은 1~3명의 고정 활동가로 활동하는 단체가 9명이다.



- 대표자 성별은 여성이 많아
 - 여성이 대표인 단체는 20개이고 남성이 대표인 단체는 12개이다. 기타는 공동대표인 단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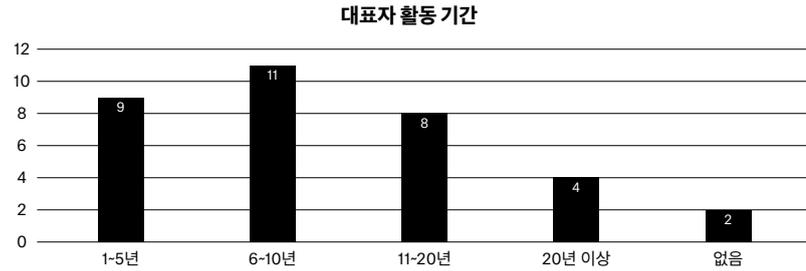


- 대표자 연령은 다양하나 30대가 가장 높은 수준
 - 대표자 연령은 3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10명, 50대가 5명이다. 20대 이상은 3명, 60대 이상은 2명으로 적은 편이다.



- 대표자의 정규교육 학력 및 전공은 대부분 예술 전공자이고, 인문사회과학, 공학 등의 전공자는 소수
 - 미술·회화·조소·연극 등의 순수예술과 산업디자인·인테리어·미술치료 등의 응용예술, 건축 등의 복합예술 전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경영학, 경제학, 언론학, 문화콘텐츠, 사회학, 신학, 철학 등의 기타 인문사회과학 전공자와 기계공학, 문화기술 등의 공학 전공자는 소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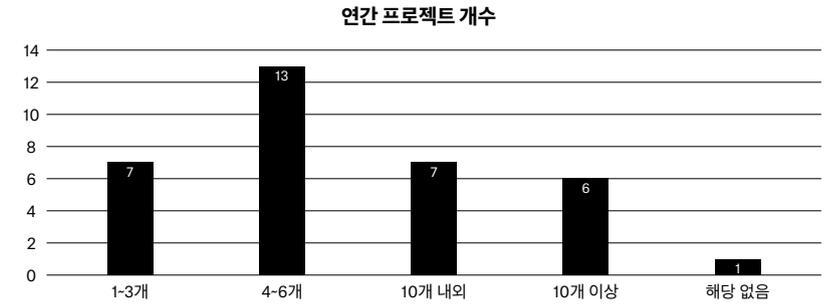
- '예술의 사회적 개입' 활동에 영향을 미친 예술 관련 학습 이력은 현장 경험을 통한 학습, 동아리 활동, 사설 기관에서의 예술 관련 교육 수강, 사회적 기업가 교육 등
- 대표자의 '예술의 사회적 개입' 활동 기간은 6~10년이 가장 많아
 - 11명이 6~10년 동안, 9명이 1~5년 동안, 8명이 11~20년 동안 활동했다. 없는 경우는 2명으로 모르는 경우와 대표가 없는 경우다.



- 대표자가 현 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은 대부분이 10년 미만
 - 14명이 5년 이내 그리고 10년 이내로 활동했다. 활동 기간이 없는 경우는 대표가 없기 때문이다.



- 각 단체의 연간 프로젝트 개수는 평균적으로 4~6개 정도
 - 연간 프로젝트 개수가 4~6개인 단체가 13개, 1~3개나 10개 내외 단체는 각 7개이다. 10개 이상이 되는 단체는 6개이다. 해당 없는 경우는 특정 프로젝트 없이 활동하는 경우다.



- 활동을 지속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 지원사업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문화재단 지원사업이나 예술 관련 기관 지원사업에 참여
 - 예술기관의 지원은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서울문화재단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Y-메이커스,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창작공간 입주작가 공모, 서울예술치유허브, 경기문화재단 꿈다락문화학교, 경기문화재단 예술프로젝트 창생공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테마콘텐츠 작업, 인천문화재단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원문화재단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강원문화재단, 예술인복지재단 파견예술가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서울디자인재단, 콘텐츠진흥원 창의체험스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이다.
 - 창업 관련 지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개발비,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및 법률지원, 콘텐츠코리아랩 창업발전소에서 지원받았다.
 - 기업의 지원은 네이버엔젤스x소셜벤처 지원사업, 아산나눔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물산에서 지원받았다.
 - 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청년허브,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지원받았다.

④ 시사점

- 대부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대부분 서울에 주소지를 두지만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대략 1~10명 사이의 고정적인 활동가로 구성된 조직
 - 2008년 이후 만들어진 조직이 많고, 대부분 전국적으로 활동한다.
 - 사회적 미션 해결을 활동의 목적으로 삼는 사회적 기업은 거의 없다. 하지만 법적 형태상 비영리와 영리 비율이 비슷하다.
- 대표자는 여성, 30대, 예술 전공자가 많고, 다양한 현장 및 교육 경험을 갖고 10년 이내로 활동
 - 예술 전공자가 대다수이고 그 외는 인문사회과학 전공에 넓게 퍼져 있다.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학습은 대부분 활동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와 사설 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예술 관련 교육을 거친 경우가 많다.
 - 대표자의 활동과 단체 활동이 대부분 2008년도 이후에 시작된 사례가 많다.
- 각 단체의 연간 프로젝트 개수는 평균적으로 4~6개 정도이고 대부분 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참여
 - 활동 측면에서 광역지자체 혹은 기초지자체 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가 많고, 소수의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기업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창업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2) 예술의 사회적 활동 흐름과 특징 분석

① 대표자의 특성

- 대표자는 여성, 30대로 다양한 현장 및 교육 경험을 갖고 10년 이내로 활동
 - 대표자의 성별은 주로 여성인 경우가 많고,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다.
 - 대표자의 활동이 2008년 이후부터 활동한 경우가 가장 많다. 1년부터 10년까지 활동 경력을 가진 대표자들이 많다.
- 예술을 전공한 경우가 많으나 기존 예술계에 대한 반감으로 다른 방식의 활동 모색
 - 예술 전공자가 대다수이고 그 외는 인문사회과학 전공에 넓게 퍼져 있다.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학습은 대부분 활동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와 사설 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예술 관련 교육을 거친 경우가 많다.
 - 기존 예술활동이 대중이나 사회적 차원과는 괴리된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감이 있거나, 주류 예술계가 엘리트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회 구조가 좁은 탓에 자신의 예술적 커리어를 쌓고 생존하기 어려워 다른 방식의 예술활동을 모색하기도 했다.
- 이러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음
 -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사람들을 돕거나 이 사람들과 같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한다. 처음에는 자기 주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사회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 사회행동 분야도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행동 분야의 특성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많은 분야들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사회적 변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미션을 발견하기도 하고,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기도 한다.

② 동기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개인적 계기, 사회적 변화, 미래지향적 가치 실현 등으로 다양
 -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전과는 달리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서 다양한 동기가 출현하고 있으며, 이는 몇 가지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활동이 의도치 않게 사회적 영향력을 발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처음부터 사회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시간적인 고려를 염두에 둔다면, 단기적인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긍정적 동기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를 몇 가지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적 동기에서 출발

- 자기 활동과 함께 즐거운 예술. 그냥 뭔가를 만드는 일에 집중
- 즐겁게 사는 것이 비전. 사회공헌은 그다음으로 “참여자 모두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으로 시작하였다.
- 타인의 권유, 삶의 각박함 등으로 ‘떠밀려 시작하다.’
- 새로운 것을 찾고 즐거운 방식을 고민하였다.
- 놀이는 하나의 꿈 성취를 위한 일환이며, 스스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즉,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문화 만들기”⁸다.
- 예술가 및 대상자 모두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정체성을 찾으며,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한다.
- 개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대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열망

-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 사회적 매개자이자 촉매로서 예술.
- 자본에 의한 예술 잠식에 대한 반응.
- 지배 권력에 대항한 예술의 탈주-협력의 예술 꿈꾸기.
- 공동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만들기.
- 예술가, 장인(노동자 포함)들의 가치 확산 및 사회화(예: 협동조합)
- 예술가 및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 풀기.
- 예술에 대한 사회적 시선 바꾸기.
- 실천을 통한 사회적 기여.(교육, 치유, CSR 등)
- 문화 향유자, 주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 높이기.

○ 미래적 가치의 실현

- 대안적이고 다원적인 예술에 대한 고민, 새로운 실험과 창작의 갈등을 풀어 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대중이 미처 접하지 못한 99%의 예술과 99%의 대중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더욱 다양하고, 창조적인 세상 만들기”를 꿈꾼다.
- 예술의 소비와 자생적 생태계 구축.
-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사회 만들기, 나아가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의 행복창조”를 실현한다.
- 조금만 천천히 가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일상의 반응을 통한 예술 작업의 확장. “동시대의 가치를

⁸ “가장 좋은 문화와 예술은 나 자신을 성찰하고, 좋은 물음표를 나와 타인,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것”이다. (라운드테이블 #사회혁신, 2017.10.18)

담은 창작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사람과 예술, 삶과 꿈을 이어 세상을 따뜻하고 윤택하게” 만들고자 한다.

- 만드는 것의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③ 단체 형태

○ 대부분 2008년 이후 만들어진 영리·비영리단체.

- 대부분 2008년 이후 만들어져 1~10년 정도의 활동을 한 단체다.
 - 단체의 법적 형태는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가 각각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사회적 문제를 예술을 매개로 풀어 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많지 않다.
- 10명 미만의 활동가들이 상근하는 조직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아
- 대부분이 10명 미만 고정 활동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10명 이상 규모의 단체는 거의 없지만, 상시적으로 결합하는 활동 인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활동 형태

○ 개인적인 고민으로 시작했지만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예술을 매개로 활동

- 예술의 사회적 활동으로 유입된 경로는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개인의 고민을 지역 커뮤니티나 NGO 및 NPO 단체, 공공기관 등과 접촉하며 활동 방향과 범위를 넓혀 가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00은대학, 하자센터, 프리마켓,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서교예술실험센터, 지역문화재단, 예술인지원사업 등이다.
- 하지만 예술행동 단체들은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예술활동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활동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 문화, 예술, 청년, 지역과 관련된 공공적 지원을 통해 단체 활동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은

-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단체의 정체성 또한 변형되었다.
- 도시재생 관련 예술활동의 경우, 지역 문제와 맞물린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단체 활동이 확장되며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공간 사일삼, 어반플레이,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동네형들, 무소속연구소 등은 활동 과정에서 잦은 주소 이동을 보였다.

○ 대중적이고 접근 가능한 예술활동 지향

- 개인의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예술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공공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작품을 감상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을 향해, 대중과 함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 행위·퍼포먼스 예술 같은 대중적이지 않은 영역에서도 사회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거나, 교육과 치유의 목적과 접목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지속적인 단체 활동이 가능한 조건들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⑤ 고민

○ 안정적이지 않은 재정 구조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 직면

- 공익적 성격을 가진 곳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 및 수익 활동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수익성을 낸 사례가 많지 않다.
- 주식회사 형태의 단체는 주식회사라는 법적 형태 때문에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 단체의 불투명한 지속가능성은 조직 운영, 구성원 급여, 활동의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조직 내부의 갈등을 만들며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불안정하게 한다.

○ 공공기관과 맺는 파트너십의 취약성

- 공공기관의 관료적 절차 문제와 보여 주기식 행정적 성과물로 활동이 축소되거나 제약을 받기도 하며, 이후 파트너십이 잘 유지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 공공지원금을 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사업과 프로젝트를 실행할 경우, 공공기관과 맺게 되는 파트너십은 조직의 정체성뿐 아니라 향후 활동의 방향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공적인 지원 구조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지원이라기보다 행정 절차에 중심을 두고 있다.
- 또한 사회적 변화가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정성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행정 절차는 정량적으로 성과를 평가받고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 상호 간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 결과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의문과 회의감

-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금을 받아 시작한 사업일 경우, 단발성 또는 단기성 위주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예술 단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에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 단체 사업과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로 인해 활동의 회의감이 나타나기도 한다.

○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고민

- 이들의 예술활동은 개인적 삶의 변화에서부터 소외계층에 대한 예술활동, 공동체에 매개가 되는 예술활동,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술활동, 사회에 저항하는 예술활동 등 다양한 범주로 구분되나 공통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란 예술활동이 일회성, 단발성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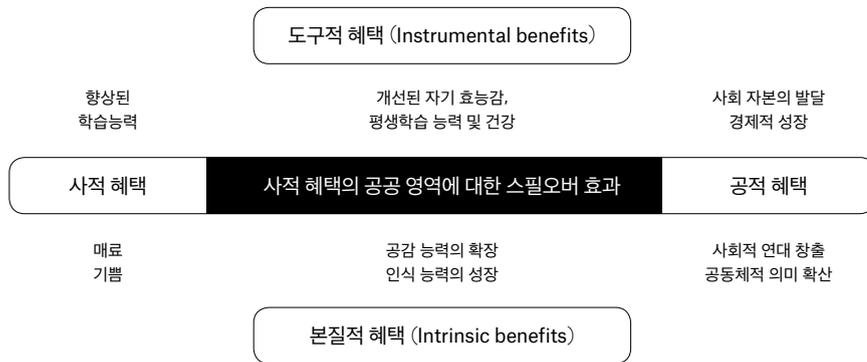
2. 개념 및 유형화

1) 예술의 사회적 활동으로 개념화

○ 도구적 혜택을 주고 있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포용적 연구

- 본 연구는 ‘예술의 사회적 개입’이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예술활동에 대해 주목하고 예술에 대한 새로운 가치들을 밝혀 내려 했다.
- 「랜드 보고서(Rand report)」에 따르면, 예술의 “본질적 혜택”과 “도구적 혜택”을 구분하는데,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예술의 “도구적 혜택”을 굉장히 정확하고 목표지향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예술의 도구적 혜택은 기존 예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차별점을 둔다.

〈그림 3〉 예술의 혜택에 대한 이해와 효과



출처 : McCarthy, K. Ondaatje, E., Zakaras, L. Brokkes, A.(2004),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Santa Monica: RAND Institute, 박신의 (20130), p. 69 재인용.

- 따라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콘셉트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따라 인터뷰 정보와 내용을 걸러 내는 제한적인(exclusive) 방법보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포용적인(inclusive) 방법을 선택하여 연구를 설계했다.

○ 연구 설계 단계에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잠정적 정의

- 연구 설계 단계에서 ‘예술의 사회적 개입’에서 주목하려 했던 예술활동에 대해 잠정적 정의를 내렸다.

작가 개인의 산출물로 관객이 관람하는 예술이 아니라, 집단과 지역, 사회, 개인 속에 작용하여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변화 유발자로서 예술.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작가와 대상이 참여하는 공동의 협력 과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관람이 아닌 체험과 실천을 통해 공진화하는 예술.

2017. 9. 15. (금). 2차 연구회의

- 이러한 임의적인 정의를 연구 진행 과정에서 실제 예술활동 양상을 통해 재정의하려 했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정의의 곤란함

-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정리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적 동기,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열망, 미래적 가치 실현 등 다양한 동기로 시작되었지만, 대부분 예술을 매개로 하여 조직적으로 예술활동을 한다. 사회적인 문제에 민감하고 대중친화적인 방식으로 공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관과 형식적 지원 절차에 대해 불만이 많고 단체와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한다.
- 연구진 내에서는 토론을 통해 ‘쉬운 예술’, ‘응용예술’, ‘적용예술’, ‘포용예술’, ‘사회활동형 예술’, ‘확장형 예술’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지 토론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개념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정의를 유보했다.

한지연 응용미술과 같은 맥락에서 ‘응용예술’은 어떠한가? 예술을 사회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적용 예술’과 같은 개념이다.

이병민 서울시에서 쓰는 ‘포용 예술’이라는 개념도 있다.

라도삼 용어 면에서는 ‘사회활동형 예술’ 정도의 개념을 생각했다. ‘개입’보다는 ‘활동’이라는 표현이 와닿았다.

장대철 ‘확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영역이 넓어진다는 의미에서 ‘확장’이 떠올랐다.

장대철 대상에 최적화되었다는 의미에서 ‘적정 예술’도 괜찮은 것 같다.

2017. 11. 08. (수). 5차 연구회의

○ ‘예술의 사회적 활동’으로 포괄

- 이 연구는 예술이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활동을 보여

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예술 자체의 새로움을 탐구하고 있기보다 예술활동의 다면화된 행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따라서 예술활동들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고 폭넓게 지칭한다.

○ 예술은 사회 발전의 동인이자 조력자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개념과도 맥이 닿는다.

— 사회 발전의 동인(driver)으로서 예술은 직접 이익과 간접 이익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창작, 교육치유, 도시재생(지역), 사회혁신, 사회행동 등의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이익과 함께, 예술을 통해 사회적 포용과 착근(rootedness), 회복, 혁신, 창조성 및 삶의 문화향유 등을 간접적으로 가져온다.

— 반면 조력자(enabler)로서 예술은 문화에 대한 광의의 개념 안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수단을 제공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능력과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는 시민들의 참여, 공동체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 문화 간 대화와 갈등해소 및 동등한 권리보장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IFACCA, Culture21, IFCCD & Culture Action Europe, 2013)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예술활동은 다양한 갈등을 막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결국 사회 발전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다.

2) 예술활동의 사회적 영향에 따른 유형화

○ 예술활동의 목적에 따른 잠정적 유형화

— 연구 설계 단계에서 조작적 연구 범위 설정을 위해 예술활동의 목적에 따라 사회혁신, 지역재생, 일상창작, 교육/치유, 사회행동으로 유형화했다.

사회혁신으로서 예술	• 지역 외의 사회(조직, 기관 포함)에 개입하여, 그것의 혁신을 목적으로 행하는 예술(활동)
지역활동으로서 예술	• 지역에 개입하여 지역을 재생하거나 혁신할 목적으로 행하는 예술(활동)
일상창작으로서 예술	• 기존 생활예술로 분류한 것으로, 생활예술로 분류할 경우 일반동호회 활동을 다수 포괄할 수 있어 일상창작 활동을 분류 • 메이커 문화 등 일상생활에 개입하여 생활혁신이나 창작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
교육/치유로서 예술	• 개인의 삶 및 개인의 집합으로서 공동체 차원에서 예술기반 교육이나 심리치유를 목적으로 한 예술
사회행동으로서 예술	• 사회참여나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한 예술

— 잠정적 유형화를 통해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고,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분류 방식을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유형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 예술활동의 다양한 사회적 영향

— 사회적 예술활동의 유형화는 예술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사회는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와 관련이 깊다.

— 따라서 「랜드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도구적 혜택만이 아니라 본질적 혜택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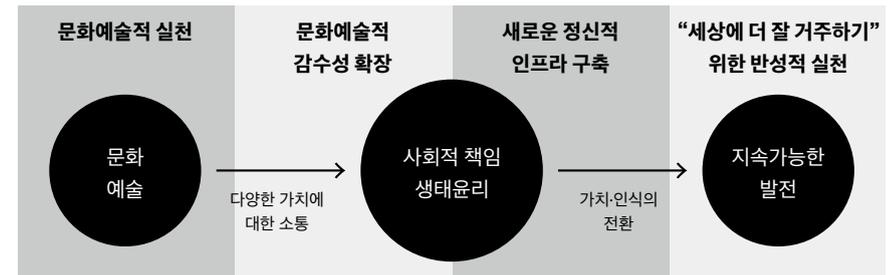
— 본질적 혜택(Intrinsic benefits)은 매료와 기쁨 같은 사적 혜택, 사적 혜택이 공공 영역에 미치는 스피로버 효과로서 공감 능력 확장과 인식 능력 성장, 사회적 연대 창출과 공동체적 의미 확산과 같은 공적 혜택이 있다.

— 도구적 혜택(Instrumental benefits)으로는 향상된 학습능력이라는 사적 혜택, 개선된 자기 효능감, 평생학습 능력 및 건강이라는 스피로버 효과, 사회자본 발달과 경제적 성장이라는 공적 혜택이 있다.

○ 예술의 공공성 논의와 사회적 실천

— 이는 <그림4>에서 도식화한 것처럼 예술의 공공성 논의가 결합되어 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깊다.

<그림4>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예술의 공공성 논의와 사회적 실천



출처 : 민경선,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 2017, p. 228.

— 문화예술적 실천들을 통해 참여자들은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대해 소통하고, 생태윤리라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술은 인간의 인식체계에 지속적인 자극과 교란을 가하여 삶의 방식과 가치에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인식과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 및 강도가 사회와 동행하고, 행위와 혁신을 일으키고, 개입 및 변혁을 위한 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으며, 사안별, 인식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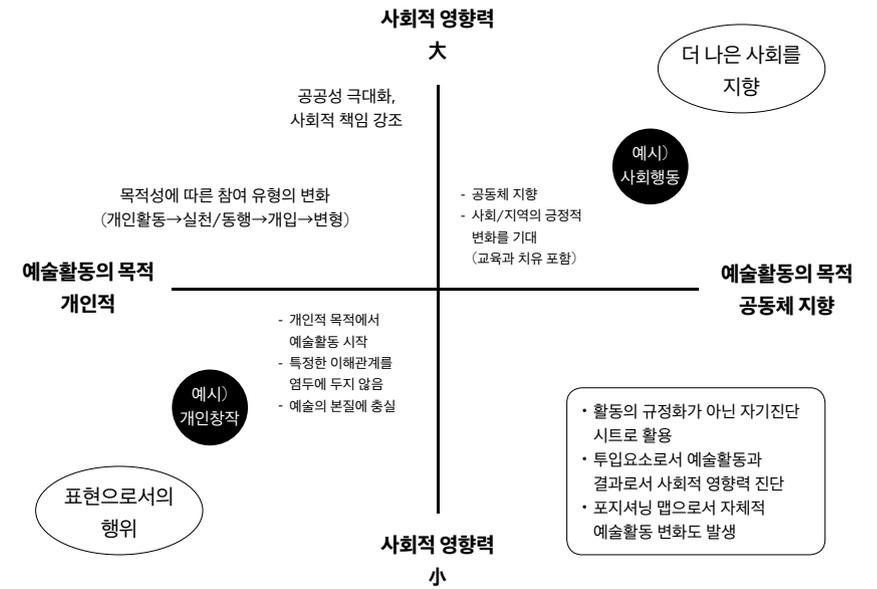
○ 예술활동의 목적과 혜택에 따른 재유형화

- 개인적 발전: 특정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는 예술가, 기획자들의 놀이로서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다.
- 사회적 결속력 강화: 사회의 공감대 및 연대의식을 제고할 목적인 예술활동이다.
- 공동체 의식 강화: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조직화 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경우 공동체 의식은 강화된다.
- 지역 발전: 도시재생과 같은 특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지역의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활동이다.
- 도전과 혁신: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도전과 혁신을 꾀하는 혁신적인 예술활동이다.
- 건강과 웰빙: 예술을 통한 교육적 효과와 치유를 기대한다.
- 이는 예술을 매개로 한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예술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효용가치, 도구로서 활용할 때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관계, 공적혜택을 통한 사회의 변화가능성, 예술의 본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지속가능성이라는 이슈와 연결된다.

○ 예술활동의 목적과 사회적 이해관계의 틀에 따른 포지셔닝

- 다만 이러한 구분의 참여 강도와 목적성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단순한 참여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사회적 실천에서 사회에 대한 개입과 변혁 등으로 이행해 가며 그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
-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작품 활동 및 놀이의 성격을 갖는 예술인 경우는 표현으로서 그리고 행위로서 예술에 보다 더 집중하게 된다. 이때 자기 확신을 기반으로 개인적 발전과 단순한 참여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 사회적 결속력이 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공감대와 소속감,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일상창작 및 사회적 실천 및 확산으로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으며, 사회적 인식이 확대될 수도 있다. 나아가 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질 경우, 사회적 개입과 변혁을 목적으로 사회행동과 실천을 강조할 때 민주주의의 완성 등을 희망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면 사회변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예술활동의 목적,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사회적 결과가 조합을 이루면서 사회적 활동 참여의 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림5〉 목적과 사회적 이해관계로 본 ‘사회적 예술활동’의 포지셔닝 맵 (안)



- 이러한 포지셔닝 시도는 다양한 예술활동에 대한 규정화가 아니라 사회적 예술활동의 지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는 자기진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예술활동 자체의 변화에 따라 해당 위치도 변화해 가는 양상이 발생할 것이다.

3)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개념화와 유형화를 위한 추가 고려 사항

○ 개념 규정을 위한 추가적 연구 필요

-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① 예술과 관련된 담론 형성의 한계, ② 편익의 불확실성 ③ 이해 관계자들 간 상이한 이해관계 등이 있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트렌드와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예술에 대한 규정과 개념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 라운드테이블의 대상 예술가 및 단체의 경우도 예술인지, 문화인지, 예술가가 대상인지, 활동인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저희도 처음에는 저희의 활동이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아직도 예술을 잘 모르겠습니다.”
 - (라운드테이블 #일상창작, 2017. 10. 24.)
- 또한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는 예술가와 기획자들의 행동 등에 따라, 편익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념화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예술활동을 통해 확실한 편익을 획득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나, 편익 자체를 원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난다.

- 특정한 목적과 성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행정과 지자체, 자유로운 활동에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 예술가 및 기획자, 문화향유 등 혜택을 바라는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목적과 비전의 상이함도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규정하는 데 하나의 한계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들은 사회적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시민들도 이러한 활동을 원할까.”

(전문가 연구회의, 2017. 12. 4.)

3. 정책적 시사점

1)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방식 재구조화

①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

- 예술의 사회적 활동 목표는 단기간에 달성되지 않아
 - 1년 단위로 진행되는 단기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새로운 예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 참여하는 예술가들에게 비전 제시 필요
 -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는 점은 생계 유지와 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예술가들에게 불안함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② 예술가를 존중하는 파트너십 형성

- 공공사업에서 활동 주체로서 인정과 협력
 - 실제 활동 기록과 업적에 대한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원래 추구했던 가치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 예술가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공과 정당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원한다. 문화예술 콘텐츠 단체의 경우, 실행 주체로 활동한 실적이 향후 활동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은 예술가들이 공공사업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술활동의 성격에 맞춘 공공기관과 예술가들 사이의 협의 구조 필요
 - 공공기관이 지역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단체들과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공모사업 진행 과정 중에도 지원금액 삭감, 지원 시기, 지원 스케줄 등 전 과정을 작가와 공유하고 작가의 작품 성격에 맞추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편이나 행정 절차보다 예술가 입장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에게 기획과 예산 집행에서 최대한의 자율성 부여
 - 공공의 지원은 예산 지원과 같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한정하고, 기획과 방향성은 예술가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

⁹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는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지원금 사용에 있어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③ 직접 사업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간접 지원방식 모색

- 예술가의 자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중요하데, 이를 위해 직접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지만, 세제 혜택이나 월세 지원, 또는 공동체 자산화 등 간접적 지원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그 외에 기업과 예술가의 연계를 통해 상호 윈윈전략을 펼치는 방법, 지자체가 직접 지역 내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 홍보하는 방식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대중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이미 존재하는 홍보 플랫폼이나 매체를 지원, 활성화하여 활용하면 좋겠다.
- 예술활동을 지역에 연계하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과 같은 거버넌스 체계 필요
 - 지역사회나 특정 대상과 관계 맺으며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사례를 통해 적절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멘토링이 필요하다.
 - 지역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서 지역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다. 문화재단 등 중간 지원 조직이 지역사회, 특히 학교와 거버넌스 관계를 구축하고 예술가들과 연계하는 중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미션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예술가 맞춤형 교육 또는 매칭 서비스 지원
 - 예술가들에게 생존을 위한 툴 및 다양하게 확장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예술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¹⁰
- 예술가를 정서적으로 치유하거나 예술가가 재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교육·치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와중에 정서적으로 힘들어질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등이 시스템적으로 구축되기를 바란다.
 -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가들의 경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④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현 기반으로서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
- 활용 방향을 염두에 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간 설계 필요
 - 공간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춘 공간이 필요하다.
- 공간 지원 시 활동 규모 고려도 필요

¹⁰ 런던의 <아트 에듀케이터 양성 프로그램>처럼 예술가에게 관리와 기획력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의 경우 인원 규모에 맞는 적절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 성장한 단체가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다.

⑤ 활동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유관 활동을 하는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작가들과 맺는 네트워크는 단체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계기 필요
 - 예술가 간 네트워크는 자기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라는 것은 오히려 '일'이 되어 버리고,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 예술가들 간에 자신들의 단체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협업 또는 혁신의 기회가 될 것이다.

2)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연구 사업

① 이론화를 통해 가치 공유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장기적 관점의 논의 필요
 -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관심도 높고 양적으로도 확대되었지만 이론적인 정의나 논의 없이 주먹구구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성과 발전에 한계로 작용한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해석을 내리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 창작 생태계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활동 설계가 불가능하다.
 - 이론화의 부재는 공통의 언어 부재와 연결되고, 이는 결국 지역과 예술가 간, 행정과 예술가 간, 그리고 같은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 내에서도 소통이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 예술가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예술가들이 연구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활동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 마련

-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 필요
 - 기존 성과지표로 평가하기 힘들지만, 여전히 노동시간 같은 기존 평가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질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기준이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새로운 평가체계는 공공지원과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가치를 공론화하는 데 준거가 될 수도 있다.
- 단체의 활동 가치를 인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대한 평가 기준 필요
 - 활동의 특성상 정량적 성과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느 정도는 정량적 측면에서 매출액이나 관객수 등으로 집계할 수 있으나, 정성적 측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측정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③ 아카이빙

- 예술의 사회적 활동들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사례화 작업 필요
 - 현장 중심 활동들에 대한 기록(아카이빙)이 필요하다. 이 역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예술가들이 개별적으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중간 조직이 이를 기록하고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이미지나 텍스트 기록뿐만 아니라 실물 작품의 보존 및 기록,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정보를 온오프라인 연계로 공개하는 것까지 확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3) 행정 프로세스의 조정과 간소화

- 프로젝트 기간의 유연성 필요
 -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에 따라 사업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공모지원의 타임라인 자체가 집중적 활동을 방해한다.
- 지원사업에서 행정 절차나 증빙의 간소화
 - 많은 예술가들이 행정의 과도한 절차와 증빙은 예술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느끼고 있다. 실제 활동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행정 절차 문제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도한 절차는 개선이 필요하다.
 - 스타트업 및 예술문화단체가 공공으로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 및 과정의 간략화가 필요하다.
- 공공 인증과 시스템적 지원 필요
 - 예술가들이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확장하거나 지속하기 위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동안 진행해 온 활동을 통해 그들의 역할과 성과를 공공에서 인증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
- 기획자나 대표자 인건비 지급 문제
 -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나 대표자들에 대한 기본 인건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도 큰 어려움이다.

V

결론
○○

1. 연구의 요약과 결론

-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연구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나 집단, 소외계층이나 특정한 개인 등에 작용하여 해당 지역이나 집단, 개인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유형의 예술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그러한 예술의 동기와 목적, 예술 행위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사항을 살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연구하려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그 개념화 및 유형화,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려 했다.
-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으나 개념화 및 유형화에는 한계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 사례를 표집하고, 이 중 50개 사례를 대상으로 세부적 조사를 하는 한편,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각 사업 시행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조사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첫째, 대부분 활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회혁신이나 지역활동, 일상창작, 교육/치유, 사회행동 모두 사회적 활동이다. 이들은 각기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활동하며, 예술 그 자체보다 사회적 활동 속에서 그 가치를 달성하는 데 주목한다.
 - 둘째, 그럼에도 이들 대부분은 사회라는 개념을 싫어하거나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사회’라는 개념이 주는 무거움이 요인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활동이 어떤 특정한 목적 아래 조작되거나 조직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우연적이고 우발적으로 시작했으며, 그 동기 또한 사회적 의미보다 일상적인 즐거움, 새로운 관계망 확보, 개인적 트라우마의 탈출 등에서 연유한다고 말했다. 사회성보다는 개인성, 목적성보다는 우연성, 의미성보다는 재미와 유희에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
 - 셋째, 따라서 이들의 행동을 어떤 개념으로 특정화하거나 어떤 유형의 분류체계로 재배치하거나 분배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냈다. 분명 행동으로 보면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이라 규정하는 데에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 결과 우리 연구진은 예술의 사회활동이라 규정하지 못한 채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이라는 명칭으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회적 활동 외에 마땅한 개념을 찾지 못한 것이다.

2.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의미와 정책 방향

- 개념의 규정에는 한계, 생태 연구에는 일정한 성과 창출
 - 사회가 갖는 용어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예술을 개념화, 유형화, 범주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새로운 예술활동에 대한 새로운 조사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각각의 활동과 생태 여건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 우선 이들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알게 되었다. 이들의 선택은 대부분 개인적이다. 개인적 아픔과 경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고, 그 작업 속에서 의미를 찾아 자신의 삶을 기호화하려 노력했다. 예술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과 활동의 형성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타인을 위해 노력하거나 활동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며, 활동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 힘들어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때문이다. 전통적인 예술로도, 최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생활예술활동이나 아마추어 활동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종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그 결과 이들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법인으로 진화하거나, 예술지원 사업 외 여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여러 시도와 노력을 기울인다. 어느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여 나가는 것이다.
 - 더불어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부분이다. 분명 자신이 하는 일은 '예술활동'인데, 예술가로서보다 사업가 또는 복지사, 치유사 등 해당 분야의 직업인 또는 활동가로 취급받는 현실에 답답해한다. 특히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예술활동이 아닌 사회활동으로 취급받아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자신이 사회혁신가나 활동가가 아니라 예술가로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술은 그 자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동을 통해 인정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만일 작자의 정신상태에 감동되어 그 정서와 감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결합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술품"이라 말하며, "만일 그러한 감동이 없고, 다른 독자와 결합조차 없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한다.¹¹ 그런 점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감동과 변화를 유발하려는 새로운 유형의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예술의 본질과 관련한 활동이다. 예술이 가져야 할 본원적 요소인 '타인과의 관계'와 '감동'과 연관되었다는 점이다.

¹¹ 톨스토이, 동완 옮김, 『예술이란 무엇인가』, 신원문화사, 2007, p. 199)

- 예술의 사회적 실천 활동은 최근 들어 급격한 확산 추세
 - 설문조사에서 나왔듯, 새로운 예술은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한 50개 단체 중 34개 단체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설립된 단체가 28개로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낸다. 그만큼 비교적 최근 나타난 활동이라 볼 수 있다.
- 국제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쇠퇴와 공동체주의 확산 흐름과 같아
 -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세계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몇몇 선진 국가에서는 극단적 우경화가 일어났으나,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은 '공동체주의'였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것. 그간 성장 일변도 사회에서 오로지 잘 살자는 목표로 달려왔던 우리에게 국제금융위기는 지금까지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성장보다는 여가, 직장보다는 가족, 돈보다는 삶의 가치가 중시되었다. 그것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성장 일변도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함께 사는 것'의 필요성과 즐거움을 일깨웠다.
 - 연이은 '고령화'나 '지방 붕괴', '청년실업', '고립사', '다문화사회화', '계층격차', '지역격차', '재벌붕괴와 고용위기' 등은 이러한 공동체적 가치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 문제들은 지금까지의 해법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이며, 같이 풀고 함께 가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 사회적 실천은 이에 대한 답이었다. 생활이 붕괴되고, 개인이 고립되며, 누구도 돌보지 않게 된 삶과 지역, 가치들을 돌보며 의미화하고자 한 것이 예술의 사회적 실천이자 행동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술을 통한 사회혁신이나 공동체적 삶, 일상창작과 재미의 발견, 교육을 통한 치유, 예술을 통한 사회행동을 꿈꾸었다.
 -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Arts in City>, <문전성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생활문화공동체 조성사업>, <마을미술프로젝트>, <인문학마을> 등 여러 사회활동 및 프로젝트들의 경험은 이러한 사회적 예술이 형성되는 데 밑바탕을 형성했다. '화관'이나 '공연장'이 아닌 '거리'나 '지역'에 나가 그들을 만나고 관계하며 새로운 예술을 창출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의해 새로운 일상과 활동 공간이 만들어졌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갖는 의미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새로운 삶의 전략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사회의 '치유'다. 경제적 고통, 사회적 좌절 속에서 어두워지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아무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게 재미를 '만들어' 준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술이 우리 사회와 지역, 이웃과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다.
 - 이러한 예술의 행위가 말하려는 것은 삶의 의미와 전략에 대한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 가고,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의미와 삶이 있음을 말하려 한다. 이들은 삶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잠깐 쉬고, 여유를 찾아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삶을 치유하고, 그 치유를 통해 새로운 삶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거창한 사회혁신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작은 심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자체를 '치유'하려는 것이다.
- 사회적 예술활동 발전을 위해 지켜보고 의미화하기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는 성급한 전략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직접 지원하여 촉발하기보다 그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의미화하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이들은 직접적인 지원보다 자신의 일이 '의미화'되고 사회적으로 '저장'되기를 원한다. 예술가로서 자신이 정당하게 '호명'되기를 원하며, 일시적이고 계기적인 활동이므로 언제 사라질지 모를 자신의 작품이 아카이빙되어 사회적으로 전달되기를 원한다. 직접적인 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 정책적인 지원보다 사회적인 의미화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라는 것이다.
 - 다만 이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자립)공간'에 대한 문제다. 활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나 현재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이나 다양한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과 예술인 활동공간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및 활동공간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이들 공간과 예술활동을 연결하여 공간을 활성화시키며,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한 전략일 것이다.
 - 또한 지원에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이들의 작업 주기와 일치시킨 형태의 지원이다. 이들 예술은 기존 예술과 다른 수명 주기와 생태를 갖는다. 그런 만큼 새로운 예술 행태에 맞는 지원 전략과 내용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통해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자세
 -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변화를 관찰하고 그 변화에 맞게 우리 사회가 새로운 예술을 끌어안을 방안을 찾는 것이다.
 - 이 예술은 기존 장르 예술과 달리, 사회의 문제가 어떤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우리가 분석한 예술은 고령화 문제, 청년실업, 지역문제 등이 압도하는

현실에서 나타났을 뿐이다. 미래 우리 삶의 의제가 달라지면 예술의 형태 또한 달라질 것이다.

- 이 변화를 잘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다. 직접적인 지원사업보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이들과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이들은 행정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들이 예술활동을 전개하는 '현장'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그런 만큼 우리가 문제를 풀어 주겠다는 태도보다 다 같이 '사회의' 문제를 풀어 보자는 태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대상으로서 지원해 주기보다 함께 문제를 풀어 가는 주체로서 관계하여 의미화하고, 사회적으로 기호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가로서의 자세보다 예술활동을 함께해 가는 '동료'이자 '후견인'으로서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 그런 점에서 각 활동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관찰과 연구는 존중의 첫 번째 표현이고 관심의 표출이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작업에 의미를 담고, 미래의 새로운 예술을 품으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예술의 사회적 개입 심층 연구 기초 목록 60선

김진주

본 목록은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이 2017년 기획한 사회적 예술 또는 예술의 사회적 참여와 개입 활동에 관한 진단과 지원 정책 개발의 기초 연구 자료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연구 대상인 문화·예술활동의 내용과 그 주체의 성격을 참여 연구진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예술가명·단체명, 주요 활동 지역,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 인적 구성, 인적·물적 규모 또는 연혁, 주요 활동 분야 등의 개요 내용, 그리고 간략한 소개글을 기존에 온라인 또는 지면에서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추가로 해당 문화·예술활동에 속하는 프로젝트, 또는 연관된 사회적 동향이나 사건을 ‘주요 사회·문화적 순간’ 항목을 만들어 명시하고, 이에 관한 근거로서 온라인 언론 보도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 당시 접속 된(2017. 8. 31.) 웹주소를 함께 각주로 공유하였다. 위의 개요 항목 중 구체적인 주소가 웹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도 각주에 그 정보를 덧붙였다. 지역문화팀이 제공한 기초 목록에, 김종길 연구위원의 추천과 본 연구자의 기존 지식을 보완하여 서술 대상이 된 문화·예술활동과 주체를 60선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큰 구분으로 활용한 5개 주제(A. 사회혁신, B. 문화재생, C. 생활예술, D. 예술교육, E. 예술행동)는 지역문화팀의 기초 목록에서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 목록을 작성하면서 개별 활동·주체의 해당 분야를 본 연구자가 조정하기도 하였으나, 몇몇 대상은 주제 사이의 교집합에 놓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지면과 독자를 고려하여, 연구자들에게 먼저 제공되었던 한글 문서 60여 쪽의 내용 중 개요 항목명, 이메일과 인적 구성 항목, 각주 내용을 삭제하고, 본문 위주와 주요어 나열(#태그)로 정리하였다. 각 활동·주체 앞에 붙은 번호는 개수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소개글의 출처는 해당 활동·주체가 직접 또는 그들과 관련한 기사, 인터뷰 등의 형식으로 지면과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약간 다듬은 정도로 옮겨 왔으며, 원출처는 각 활동·주체의 웹사이트 또는 지역문화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용 한글 문서에서 밝혔다.

A. 사회혁신

A-1 취미가 <http://www.taste-house.com>

취미가(趣味家 Tastehouse)는 '미술'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취미가는 '미술'에 대해 고민하고 수집하고 정리하고 유통하며 (……) 작은 시작점이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름다움, '미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작은 세계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동의 감각이 되는 것이지요. (……) 미술에 시간과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창작자와 관객의 대화일 수도, 전시나 공연의 형태일 때도, 판매와 구매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미술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가 이어지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서울, #소름, #갤러리, #미술품, #상품, #굿즈, #콜렉터, #판매, #매니지먼트, #중개, #공간 아이덴티티 기획, #굿-즈, #세종문화회관, #2015, #2016, #서울 바벨, #서울시립미술관, #신생공간

A-2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http://barrierfreefilms.or.kr>

배리어프리 영화란, 기존의 영화에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화면 해설과 화자 및 대사, 음악, 소리정보를 알려 주는 한글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입니다. 사회적기업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KBFFC, Korean Barrier Free Films Committee)는 2012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배리어프리영화'의 제작, 상영, 배급을 통해 시/청각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의 영화 문화 향유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서울, #2011, #영화제 개최,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주최,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공동체상영, #배급, #영화인, #청소년, #교육, #사기배리어프리영화제, #규슈, #일본, #2010, #시설장애인의 역습, #박종필, #2010, #한국장애인영화제, #2000, #UN 장애인권리협약, #2006, #200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농성, #2017

A-3 지식순환협동조합 <http://cafe.naver.com/freeuniv>

우리는 경쟁교육에서 협력과 공감의 교육으로, 경쟁사회에서 협력사회로 나아가는 대안적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경험적 지식과 심원한 전문적 지식이 서로 만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폐쇄적인 분과학문의 장벽을 넘어 과학과 예술, 인문학과 자연과학, 철학과 공학을 가로지르는 전인적 교육을 실천할 것입니다. '지순협 대안대학'에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맺음으로 가꾸며 주체와 사회 모두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지순협 대안대학'은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2014, #시범강좌, #, #등록금, #99만 원, #자유전공, #학생, #담임교수제, #비인가, #대안교육, #철학, #예술학,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여성학, #과학사, #생태학, #연기, #영상, #서사, #창작, #미술, #수공, #자유예술캠프, #2009, #2012,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 #U-AT, #통섭교육사업, #2007, #통섭 지식의 대통합, #에드워드 윌슨, #장대익, #최재천, #사이언스북스, #2005

A-4 빅워크 <http://www.bigwalk.co.kr>

소셜벤처 빅워크는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을 기부로 연결시키자는 미션을 가지고 안드로이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이 켜고 걷기만 하면 거리에 따라 기부가 되는 시스템으로 소모된 시간, 거리, 칼로리 등을 계산해 주어 건강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모인 기부금은 걷지 못하는 이들에게 의족, 생계지원 등 걸을 수 있게 만드는 희망으로 선물 됩니다.

#서울, #창업, #2012, #서울시 혁신형 사회적기업, #지정, #2012, #어플리케이션, #가입자, #신주발행, #소셜벤처, #참여형, #사회공헌, #플랫폼, #기부, #모집, #중개, #모바일, #페스티벌, #크라우드 펀딩, #2017, #코즈, #cause, #마케팅, #2015, #사회적 이익 공유, #CSV, #Creating Shared Value,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13, #경제민주화, #여론, #한진중공업 사태, #고공농성, #초과이익공유제, #2012

A-5 빠띠 <https://parti.xyz>

민주주의 벤처 빠띠는 온라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듭니다. 조직, 이슈, 정당, 정부 등 여러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와 툴킷을 만듭니다. 이슈 커뮤니티와 직접 민주주의 정당을 운영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정치와 민주주의 모델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실험들을 합니다. 빠띠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발화하게 하는 Voice, 모인 의견으로 숙의할 수 있는 Deliberation, 여론을 모으고 제도 개선을 이루는 Action, 새로운 정치 실험 Lab, 이 4가지 성격의 캠페인을 제안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정치, #온라인, #플랫폼, #컨텐츠, #제작, #커뮤니티, #사회적, #사건, #아카이브, #입법, #청원, #개발자, #협동조합, #아르헨티나, #시민참여, #데모크라시 OS, #피아 만치니, #2014, #테드, #TED, #연설, #4.16, #세월호, #참사, #2014,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

A-6 마리몬드 <http://marymond.kr>

마리몬드는 디자인 제품, 콘텐츠, 커뮤니티를 통해 존귀함을 이야기합니다. 마리몬드의 동반자는 재조명을 통해 존귀함을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 동반자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아동 등 존귀함을 이야기할 더 많은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플라워 패턴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삶에서 꽃이라는 모티브를 떠올렸고, 그 존재의 귀함을 고루 전하기 위한 디자인 작업입니다.

#서울, #2014, #창업, #디자인, #제품, #제작, #판매, 소셜벤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수요집회, #김복동, #이순덕, #한-일 합의, #2015

A-7 **세븐픽처스** <https://7pictures.co.kr>

세븐픽처스는 예술과 디자인을 후원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예술, 디자인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들을 일일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 가는 예술, 디자인 프로젝트들을 온라인을 통해 매주 새롭게 소개하려 합니다. 당신의 주변이 예술적 영감으로 반짝이길 바랍니다.
#서울, #예술, #후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작품, #판매, #전시, #공연, #기획, #콘텐츠, #구독, #서비스

A-8 **달려라 피아노** <http://www.runpiano.net>

달려라 피아노는 자주 연주되지 않아 거실이나 공공시설에 방치된 중고 피아노를 기증 받아 아티스트의 손으로 새로 디자인한 뒤, 지역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의 훌륭한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서울, #문화예술, #기부, #음악, #공연, #기획, #설치미술가, #루크 제럼, #Luke Jerram, #Play Me! I'm Yours, #영국, #2008, #재능기부, #공공미술

A-9. **닷페이스** <https://dotface.kr>

닷페이스는 미디어 스타트업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다.'를 모토로 비디오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미디어입니다. 이십 대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주류 시대정신으로 만들기 위해 페미니즘 등 다양한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영상 뉴스'를 표방하며 이삼십 대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짧게는 1분, 길게는 5분 남짓 되는 짧은 영상을 유통합니다. 젠더, 페미니즘, 정치사회, 성소수자, 기술 등 기성 언론에서는 배제되었거나 '소수'로 치부되던 이슈들을 다룹니다.
#서울, #2016, #등록, #미디어, #스타트업, #미래기술, #사회정의, #페미니즘, #성소수자, #생태, #환경, #강남역, #사건, #여성, #살해, #폭행, #2016, #페미니즘, #리부트

A-10 **미디어티** <http://mediati.kr>

클레이 셔키는 2009년 "낯은 모델이 붕괴한다면 무엇이 그 자리를 채울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통 저널리즘과는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방식으로 호호하는 미디어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디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미디어티'(미디어와 사람들 혹은 그룹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ti'의 합성어)가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티'의 친구가 되면 4개월 동안 최고의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 영상 제작, 콘텐츠 마케팅, 플랫폼 기획,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멘토로 만날 수 있습니다. 최고 6000만 원까지 초기 펀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8명까지 사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멋진 모바일 영상 스튜디오와 편집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모데이를 통해 투자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 #2006, #미디어, #스타트업, #전문, #엑셀러레이터, #저널리즘, #패션, #뷰티, #콘텐츠, #로봇, #데이터, #분석, #기업, #제작, #오피스 웨어, #교육, #데모데이, #투자, #전통 저널리즘의 붕괴, #2009, #미스핏츠, #구글 뉴스랩 펠로우십

A-11 **40000km(사만키로미터)** <https://www.facebook.com/40000km>

사만키로미터는 독립출판물을 만들고, 글·디자인·사진을 하는 청년 창작 그룹입니다. '40000km'는 지구 한 바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경기, #디자인, #1인 출판사, #독립출판, #청년, #창작, #지구, #경기상상캠퍼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원, #캠퍼스, #가지가지도감,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세종예술시장 소소, #생태, #식물

A-12 **예술과마을네트워크** <http://yemanesv.tistory.com>

늦기는 했지만 아직도 '마을만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예술과마을네트워크)는 문화와 예술로 마을을 사유하고 연대하고 소통하려 합니다. 우리는 기존 마을 살리기의 모든 활동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단체들과 연대하려 합니다. 또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과 그들이 이루려는 자발적인 발전 계획들을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같이 고민하고 연대하려 합니다.

#서울, #경기, #북부, #충북, #2008, #개업, #2016, #페업, #마을, #공동체, #폐교 활동, #사회적기업, #폐교 재생 문화운동, #마을잡지, #마을영화제, #협동조합기본법, #2012, #고양원흥, #택지개발, #보금자리, #아파트, #그린벨트

B. 문화재생

B-1 **Plusminus 1°C(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http://blog.naver.com/plusminus1c>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는 지구의 온도는 1°C 낮추고, 사람의 온도는 1°C 올리는 실천을, 예술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문화공간, #프로그램, #기획, #마을학교, #마을축제, #카페, #주택, #협동조합, #숙영원, #2010, #모기동, #마을공동체, #모기동 공여지책, #2011, #목동, #아파트, #동네, #뒷산, #용왕산

B-2 **민달팽이유니온** <http://minsnailunion.tistory.com>

민달팽이 유니온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 주거모형을 실현하고, 제도 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 보장', '주거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단체입니다.

#서울, #정규회원, #후원회원제, #2011, #창립, #20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세입자, #네트워크, #주거상담, #제도, #개선, #연구, #교육, #사회주택, #회원모임, #서울청년정책, #청년 주거 운동, #대학생 기숙사, #응답하라 착한 기숙사, #2012,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주거실태, #조사, #발표, #2013, #주거복지컨퍼런스, #행복주택, #정책

B-3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http://www.dongnebrothers.org>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 지속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함께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서울, #2011, #설립, #20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획, #워크숍, #강연, #전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정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평생학습, #청소년, #인권, #주민제안사업, #프로젝트 세입자들, #2017,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 편, #Y-프로젝트

B-4 **성북신나** <http://sinna.us/about/history/>

본격생계형협동조합을 자처하는 청년들의 협동조합 성북신나는 1. 청년들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및 삶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2. 적극적인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해 혼자만의 고민이 공유와 확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지역자원이 선순환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4.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계획되어진 환경보다 기획해 나가는 선택권을 위해 협동이라는 어려운 방식을 택한 청년들의 앞길이 이제 구만리다. 구만리라니. 차라리 신난다.

#서울, #2014, #협동조합, #창립, #사업자, #등록, #지역, #돈암시장, #마을여행, #코스 개발, #교육, #프로그램, #2015, #정릉예술마을만들기, #동네, #아카이브, #미디어, #신나지

B-5 **성미산마을극장** <http://cafe.naver.com/sungmisantheater>

성미산마을극장은 도시 한복판에서 재생되고 있는 ‘오래된 미래’, 스스로 만들고 함께 꾸러 가는 공동체 커뮤니티 성미산마을에 있는 커뮤니티 시어터(Community Theatre)입니다.

#서울, #2009, #개관, #공연장, #카페, #대관, #영화, #상영, #프로그램, #워크숍, #기획, #성미산마을, #마을축제, #2001, #동네 연극

B-6 **비밀기지** <http://bibil.org>

비밀기지는 생태문화, 제작문화,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활동과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생산 공간의 이름이다. 비밀기지가 위치한 이 공간은 석유시대가 남긴 거대한 석유탱크가 위치하던 곳으로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비축기지공원화가 진행된 곳이다.

문화비축기지공원에서는 기존의 행정 주도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문가,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25명의 시민탐험단이 서울시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시민참여형 공원 만들기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2010년 방치되어 있던 마포석유비축기지 내 관리사무소를 ‘문화로놀이짱’이 공공제작소로 재생하고자 관리 및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1년 ‘명랑에너지발전소’를 통해 시민문화공간으로 확장하였다. 이후 2014년 10월에 이행기 공간의 시민공원을 상상하며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과 활동을 시작하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생활기술융합제작소’라는 물리적 공간을 함께 조성하며 시민문화공원을 만들기 위한 실험을 지속하였다.

#서울, #문화로놀이짱, #2014, #생활문화, #문화재생, #스캇, #사회적기업, #마을작업장, #폐자재, #재활용, #목공, #마포석유비축기지, #공원화사업, #정책, #2016, #마찰

B-7 **무소속연구소** <https://www.facebook.com/musosoklab>

무소속연구소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블로그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어떻게 무엇부터 써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도시와 예술의 바람직한 공존’을 주제로 만든 모임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기에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모였고, 무엇을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해보려 합니다. 대학로 주변에서 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 관련 사람들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대학로의 많은 음식점에 식재료를 배달해 주던 회사였던 곳을 무소속연구소의 아지트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소속연구소는 집주인의 횡포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있는 곳마다 행복하게 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있는 곳마다 가까워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와 예술이 조화롭고 바람직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서울, #2009, #기획, #공간, #카페, #보스토크, #Vostok, #대학로, #연회동, #젠트리피케이션, #프로릭아트 페스티벌, #제주, #2014, #플리마켓, #리모델링

B-8 **마포FM** <http://www.mapofm.net>

마포와 지역주민의 성장과 변화! 지역공동체 자치방송. 마포 FM은 마포와 서대문 일부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FM라디오 100.7Mhz 공동체라디오 방송입니다. 친근한 우리네 이웃들이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미디어입니다. 주민들의 방송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긍정적이고 유쾌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지향합니다.

#서울, #야성의 꽃다방, #프로그램, #지역, #공동체라디오, #비영리, #공익방송, #비긴 어게인 공동체라디오, #2017

B-9 **민들레 연극마을** <http://www.mdl.or.kr>

(주)극단민들레는 1996년 창단하여 '전통'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창작물을 공연함으로써 동시대와 소통하는 작품을 만들어 왔다. 근래 들어 주식회사로 발전하면서 전통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병행하려 한다. 극장 공연에 머물지 않고 직접 관객이 있는 곳으로, 학교나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공연에 중심을 두면서 아이들 누구나 쉽게 공연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실용극 등 새로운 조류의 연극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찾아가는 공연', '지역문화공동체' 등 문화 복지를 이루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

#서울, #경기, #극단, #연극마을, #농촌, #공예, #전통, #놀이문화, #산책, #체험, #프로그램, #기획, #놀이극연구소, #실용연극과, #교육콘텐츠, #사회적기업 육성법

B-10 **재미**

재미는 성남 신흥3동, 노후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내에 있는 40년 된 옛 핫도그 공장을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이다. 수년간 공실로 방치된 건물을 그림마을이 벽화작업을 위해 발견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제작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창의공작소 재미는 그동안 벽화작업과 인테리어 시공 노하우를 토대로 운영자 '그림마을'이 직접 디자인, 공사 시공을 맡아 리모델링 전 과정을 진행하였다.

#경기, #마당, #복합문화공간, #갤러리, #작업장, #카페, #마을영화관, #목공, #도예, #리사이클링, #제작, #생활기술, #교육, #프로그램, #창생공간 조성사업, #경기문화재단, #2016, #공가, #재생, #마을벽화

B-11 **골바로책,방(골목잡지 사이다)** <http://the-paper.kr>

수원 팔달산 자락의 사람 자연 문화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 골목잡지 『사이다』는 '더 페이퍼'에서 2012년부터 만들어 온, 1년에 네 번 나오는 지역 잡지다.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지키고 지역문화의 저장소 역할을 하며, 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자료와 출판물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양한 지역서점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을 책방에 한데 모아 지역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책 판매도 진행한다.

#경기, #수원, #서점, #아트상품, #출판물, #유통, #디자인, #출판, #마을잡지, #사이다, #여행가이드, #매거진, #Time Travelers, #단행본, #교육, #프로그램, #전시, #공연, #기획, #독립출판, #경영남, #사회적기업, #북스튜디오

B-12 **논아트발아트** <http://cafe.naver.com/nonartbutartya>

예술가 박찬국이 기획한 논과 발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Non Art, but Art 라는 이중 의미를 지닌 프로젝트.

#경기, #경기문화재단, #남양주시, #지원사업, #새로운 주문자 사업, #2010, #2012, #커뮤니티, #아트, #농사, #카페, #DIY, #건축, #마을, #화합, #갈등, #뉴장르 공공미술, #삼지농부 슬로우아트전

C. 생활예술

C-1 **동대문 옥상낙원 DRP** <https://www.facebook.com/dongdaemunyouth>

동대문 옥상낙원 DRP는 동대문 지역 일대의 획일적인 오더메이드 형식을 지양하고 메이커와 봉제 기술 자체를 중심으로 디자인 유통 체계를 재정립하는 실험적 지역 기반 프로젝트다. 새로 옷을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옷을 해체하여 다른 옷의 부분을 덧대거나 재구성하여 제작한다. 업사이클링을 넘어서 근대적 대량 유통 방식에서 잃어버렸던 노동과 소비 주체의 귀환을 통해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시도다.

#서울, #노 리미트 서울 자치구, #No Limit Seoul Autonomous zone, #2017, #옥상낙원, #텃밭, #서울문화재단, #서울을 바꾸는 예술, #문화기획자의 지역생존 포럼, #201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C-2 **000간** <http://www.000gan.com/mall/>

친환경 패션 브랜드, 제로웨이스트, 오가닉, 제로디자인, 사회적 기업, 000간, 공공공간은 그 변화가 내가 밟을 디디고 있는 한 평의 땅에서부터, 매일 얼굴을 마주보는 이웃과 함께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는 공감과 공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며, 결국은 '공생의 관계를 만드는 디자인'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감하는 디자이너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감, 공유, 공생을 위한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듭니다.

#서울, #소품, #카페, #온라인, #쇼핑몰, #사회적기업, #의류, #패션, #제품, #디자인, #제작,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공공미술, #유통, #제로 캠프, #창신동, #봉제 #공장, #마을,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젝트, #네트워크 공장

C-3 **릴리쿰** <http://reliquum.co.kr>

릴리쿰은 제작, 놀이, 실험의 아지트입니다. '만들기'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취하여 환경과 일상을 복원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실험하고 교류하는 공간이자 활동입니다. 릴리쿰은 만들기를 삶의 방식으로 취하여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경험의 오픈소스를 만듭니다. (실험)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디자인하고 만듭니다. (공작) 놀이와 기술, 제작문화를 탐험하고, 놀이터와 워크숍을 기획, 실행합니다. (출동) 전시, 출판, 발표 등의 형식으로 신호를 발신합니다. (발사)

#서울, #제작, #공간,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전자요리, #연구회, #오픈 키친, #이태원, #젠티리피케이션

C-4 **수리수리협동조합** <http://surisuricoop.com>

수리수리협동조합은 소비지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관한 고민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운상가 군 일대 수리업 및 제조업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수리장인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해 보기로 합니다. 수리수리협동조합은 추억이 담긴 물건을 고쳐 쓰고 싶은 사람과 근거리 수리장인을 연결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웹 서비스를 통해 1) 수리장인의 일거리를 만들고 2)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하며 3) 참여자의 행복감을 높입니다.

#서울, #장인, #김광웅, #김정규, #나호선, #박희진, #변용규, #변원규, #유제순, #이승근, #차광수, #최중우, #전자제품, #수리, #기술자, #발굴, #보존, #세운상가, #도시재생, #거버넌스 사업, #2015

C-5 **언메이크랩** <http://www.unmakelab.org>

언메이크 랩(Unmake Lab)은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익히기보다는 그러한 대상을 보고, 다루고,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을 비평적으로 익히기 위한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에는 활동가, 기술자, 예술가, 디자이너 등 다층적 맥락의 사람이 모여 일시적 집단을 이루며 동시대 사건과 설득자, 개입자, 촉진자들의 프로젝트들과 연결합니다. 건설적인 목표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즐거움을 탐색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생산하기' 뿐 아니라 '생산하지 않기' 혹은 '망치기'의 방식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시민 연구실과 일시적 학교의 한 가능성을 실험합니다.

#서울, #작업장, #커뮤니티 스페이스, #디스코-텍, #Disco-tech, #뉴마트, #제작, #대안적, #도구, #전시, #기획, #워크숍, #강연, #프로그램, #문래동, #예술가, #작업실, #젠트리피케이션, #2014, #2016, #포스트 휴먼, #세미나, #일반자연을 위한 매뉴얼, #2015, #키트의 사회문화사, #2017, #안산 순례길, #2015

C-6 **OO은대학연구소** <http://oouniv.org>

OO은대학은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지역에 이미 배울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동네가 캠퍼스이고 주민이 교수가 되는 곳이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청(소)년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 배울 것을 찾는 평생학교, 마을학교를 만들어 갑니다. OO은대학의 OO은 땀땀, 공공, 빵빵, 영영 등 읽는 이들에 따라 다양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OO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열어 가게 될 배움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OO은대학은 2009년 마포의 몇몇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위에서 배울거리를 찾아 나서며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청년기획자들은 '술래'라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 #사회적기업, #청년그룹, #희망청, #마포는대학, #OO은대학연구소, #워크숍, #손끝기술학교, #세운상가, #세운공공, #창신승인 한다리중개소, #구로시장 영프라자, #성북신나

C-7 **천문공작실** <http://cafe.naver.com/woiwo>

천문공작실은 천체 관련 제작 교육 및 체험 교육, 교육용 제작 키트를 개발하는 단체로서, 천체망원경의 제작 이론 교육, 도면, 디자인, 가공 조립 등을 직접 할 수

있고, 천체 관측 및 천체 촬영을 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자체적으로 천체망원경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삼봉리 구봉마을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1층 휴식 및 부대 공간, 2층 제작 및 체험,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아이디어를 통해 제작된 다양한 원리의 망원경은 항상 보아왔던 망원경이 아닌 새롭고 독특한 응용제작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론, 제작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경기, #천문인, #커뮤니티, #카페, #공간, #워크숍, #관측, #제작, #프로그램, #기획, #천체망원경, #체험, #워크숍

C-8 **이모저모 도모소** <https://www.facebook.com/domoso2016>

2016년 경기문화재단 창생공간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안양8동에 등지를 뜬 소셜 아티스트 그룹 이모저모 도모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환경이 반영된 하나의 사물(事物, 일/물건)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며 지역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치 중심의 소셜 아트 및 소셜 프로덕트 디자인(Social Product Design) 활동을 도모하는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경기, #이웃사회, #작업장, #쇼룸, #워크숍, #프로그램, #전시, #기획, #수공예, #핸드메이드, #제품, #제품, #제작, #소셜 아트, #소셜 프로덕트, #디자인, #컨설팅, #소울 키친 파일럿 프로그램, #2016, #나의 마무리 옷, #상영회, #내 영혼의 부엌, #2017

C-9 **공도창공 수동** <http://cafe.naver.com/convivialmake>

공도창공 수동의 '공도창공'은 공생도구창작공간의 줄임말이며, '수동'은 공간이 위치한 지역의 명칭이자 자동화 시스템에 대립하는 핸드메이드 혹은 자작(自作)의 개념을 포괄하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적정기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에너지 경제 자립형 공간 운영은 공도창공 수동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이자 지향점으로서, 그 실천 과제는 크게 공공성의 실현과 자립적 생존 기반의 확보로 대별된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산촌, #마을, #우드 가스, #로켓 스토브, #제작, #워크숍, #적정기술, #난로, #페스티벌, #시제품

C-10 **적정기술공방** <http://atworkshop.or.kr/>

적정기술공방은 전환적 사고를 통한 합리적 생활양식의 구축과 소중한 경험과 지식이 공유와 나눔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자산으로 남게 하며,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기술의 교류를 통한 인간 관계와 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한다.

#서울, #업사이클링, #작업장, #수리, #제작, #축열식, #벽난로, #워크숍, #휴부대집, #도시재생건축, #건축학교

C-11 **시적연산학교** <http://sfpc.io>

시적연산학교(SFPC)는 2013년 11월 예술과 프로그래밍을 가르쳤던 예술가 최태윤을 포함한 교수 5명이 함께 만든 학교다. 이 학교에서 처음 진행하는 수업은 ‘프로그래밍 언어 만들기’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프로그래밍 시를 만들어 낸다. 대부분의 수업은 학생 참여 위주로 이루어진다.

#서울, #뉴욕, #가을, #여름, #학기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안 학교, #불확실한 학교,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시티서울, #2016, #Code Narratives, #2017

C-12 **서울자유지도** <https://medium.com/seoul-libre-maps>

서울자유지도는 오픈 데이터와 오픈소스 맵핑 도구를 활용한 지도 제작을 통해 지도가 공공재로서 갖는 의미를 새롭게 확인하고, 온라인 지도 제작에 관한 사회적, 기술적, 정책적 제약을 넘어서는 방법을 제안한다.

#서울, #한국지도 데이터 반출 찬-반, #논란, #청계천, #동대문, #젠트리피케이션, #비정보 맵핑, #디지털 지도, #오픈소스 데이터, #서울건축비엔날레, #2017

D. 예술교육

D-1 **그림마음연구소** <http://blog.naver.com/artmind3>

그림마음연구소는 2014년 심리치료 전문가의 첫 모임을 시작으로, 치료사 모임, 상담센터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2016년 1월 28일 정식으로 사업등록을 내며 상담심리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예술치유허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림마음연구소는 치료사 간의 연계(지역별 모임, 피어비전), 치료사와 센터와의 연결 및 소통, 치료사의 소양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진행한다.

#서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심리치료, #전문가, #네트워크, #조력, #세미나, #워크숍, #기획, #서울예술치유허브, #성북예술창작센터

D-2 **지구를 위한 디자인** <https://www.facebook.com/design4earth>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요람에서 요람까지 생각하는, 환경·생태교육과 그린 디자인(Green Desing)의 개념을 접목한 활동입니다. 모든 지구인들이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지구를 위한 디자인은 가치 있고 자연(自然)스러운 활동으로 힘쓰겠습니다.

#서울, #전시, #워크숍, #기획, #환경, #자연, #생태예술, #교육, #프로그램, #교구, #개발, #지구를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북동 예술 프로젝트, #2017, #에너지의 날

D-3. **자바르떼** <http://arteplay.net>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는 문화소외계층의 창조적인 자기 문화활동과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율적인 노동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 조합원들과 창작활동과 교육활동을 하면서 고정한 일거리를 원하는 생산자 조합원, 그리고 자바르떼의 철학과 가치에 동의하는 후원자 조합원과 자원봉사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조합의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하나씩 실현해 가려고 합니다.

#서울, #200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07, #사회적기업, #인증, #2013,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예술교육, #공연, #지역문화, #마을만들기, #동아리, #컨설팅, #서울마을이야기, #2014, #서울사회적경제한마당, #2013, #서울마을박람회, #문전성시, #남문시장, #신나는 문화학교

D-4 **로사이드** <http://rawside.kr>

로사이드는 먼지 쌓인 노트다. 로사이드는 먼지 쌓인 노트 속 강물처럼 흘러가는 암호들이다. 로사이드는 먼지 쌓인 노트 속 강물처럼 흘러가는 암호들을 건져다가 저 우주에 별자리를 새로이 이어 보는 사람들, 혹은 시선, 목소리들의 공동체다. (로사이드 선언 ver.2, 2013) 로사이드는 2008년, 자폐를 가진 한 청년의 노트에 주목한 소수의 아티스트들이 설립한 비영리예술단체로, 의미 없는 낙서 또는 장애에서 비롯된 증상으로 여겨져 버려지고 금지되던 예술작업, 제도권 교육과 관계없이 지속되어 온 독창적인 창작세계를 재조명하고 사회에 소개합니다.

#서울, #창작, #아트 링크, #예술 프로젝트, #아트 상품, #지속가능한, #공동체, #실형, #장애인, #비장애인, #잇-장, #동그란 작업실, #1:1

D-5 **김인규 교사의 미술수업** <http://blog.naver.com/kig8142>

전(前) 서천고등학교 미술교사. 저서로는 『안면도가 우리 학교야』(디딤돌, 2005), 공역서로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지형그리기』(문화과학사, 2010), 『장소 특정적 미술』(현실문화, 2013)이 있다.

#교사, #예술가, #학교, #시각문화교육 관점에서 쓴 미술교과서, #2009, #새로운 공공미술: 지형그리기, #2010, #새 미술교과서, #2017, #블로그

D-6 **역압받는 사람들의 연극 공간 — 극단 해(解)** www.happitory.org

역압받는 사람들의 연극 공간 — 해(解)는 1997년부터 20년 가까이 소년원, 탈북자, 이주노동자, 기지촌 할머니 등 수천 명의 소외계층을 만나, 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기 삶의 이야기를 꺼내 놓는 토론 연극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왔다.

#서울, #명상공간, #연극, #치유, #토론, #참여, #아우구스트 보알, #August Boal, #입법, #프로그램, #내 안의 감옥, #상현동의 엄마들, #2011, #가정폭력, #이주민, #여성

D-7 **응용연극단체 문** <http://cafe.naver.com/sbartspace/4581>

응용연극단체 문은 연극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으며, 그 믿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연극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연극단체입니다.

#서울, #2015, #등록, #2016, #서울예술치유허브, #인생 여행 가이드북 만들기,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연극

D-8 **순천 기적의 놀이터**

어린이와 놀이터 전문가, 행정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순천 '기적의 놀이터'는 주변에서 흔히 보는 놀이터가 아니다. 기적의 놀이터에는 놀이 기구와 우레탄 충격 흡수제 대신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언덕, 가파른 비탈, 계단이 있다. 기적의 놀이터의 모토는 '스스로 몸을 돌보며 마음껏 뛰어놀자.'다. 놀이운동가인 편해문 기억의 놀이터 총괄 디자이너는 "세월호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안전 신화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건강한 위험(healthy risk)'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안전만을 강조하면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4.16, #세월호, #사건, #2014, #순천, #기적의 놀이터, #놀이터, #위험, #안전

D-9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http://www.playsadari.com>

은유적으로 역할을 살아 보는 연극 속에서 삶을 연습하고 자유롭게 놀이하며 통찰의 힘을 기른다.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의 설립 목표는 (1) 연극놀이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2) 참여 대상에 적합한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 교육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기여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주제별, 대상별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으며, 교사 워크숍, 사다리연극놀이아카데미, 출판 등을 통해 연구를 공유한다.

#서울, #연극놀이, #사다리, #아카데미, #학교, #2003, #2014, #프로그램, #출판, #비영리 민간단체, #숏, #청소년, #자유, #통찰

D-10 **비기자** <http://bigija.tistory.com/>

예술가 창작그룹 비기자. 무한경쟁시대에 각기 다른 생각들이 꾸준히 비길 수 있는 현장을 예술 프로젝트, 전시, 공연, 영화, 교육의 방식으로 만든다. 어차피 한쪽이 이길 거라는 경쟁논리에 익숙해져 있음에도 어떻게 타인, 다른 가치, 다른 시선과 비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본다. 승패보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예술은 훌륭한 실천 장치가 될 것이다.

#경기, #전시, #공연, #교육, #경쟁, #비기자, #다양성, #실천, #질문을 펼치면 우리가 보이는 공연,

#우주보따리, #2017, #장애문화예술교육, #다름의 가치로 만나기 프로젝트, #2016, #성북문화재단, #문화다양성사업, #놀이, #프로그램, #기획

D-11 **비닐하우스 AA** <https://www.facebook.com/palbokart/>

예술가 전수천이 기획한 생태적 사유와 자발적 참여를 교육철학으로 하는 전인적 예술교육을 실험한 대안 미술학교.

#경기, #전북, #고양시 비닐하우스 AA, #2005, #전북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창작예술학교, #2017

D-12 **장님코끼리만지기**

〈장님 코끼리 만지기 프로젝트〉는 예술가 엄정순이 기획한 시각장애아동들과 함께하는 미술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코끼리에 대한 사전교육, 코끼리 만지기, 코끼리 만들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지 손끝의 기억만으로 보이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작업이다.

#서울, #예술가, #시각, #장애, #아이들, #교육, #2010

E. 예술행동

E-1 **4.16기억전시관/기억저장소** <http://416memory.org>

416기억저장소는 2014년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활동한 안산시 시민기록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서울시 추모기록 자원봉사단이 활동을 모아 시작한 4.16가족협의회 소속의 조직이다. 416기억저장소는 학생 35명의 빈방 기록사진을 전시하는 《아이들의 방》 순회 전시도 열었다. 416기억저장소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가건물 2층에는 44평 규모. 연혁의 416기억전시관이 있다. 기억저장소가 운영하는 이곳에는 임시보관 중인 기록물과 방문객들에게 세월호의 참상과 진실규명 과정을 소개하는 기억함, 사진 등이 있다.

#경기, #안산, #단원고, #4.16, #참사, #기억교실, #보존, #전시, #교육, #프로그램, #단원고 희생자 261인의 기억시 전시, #416 세월호 참사 기록전시, #아이들의 방

E-2 **수요예술행동(일본군 위안부 수요문화제)** <http://www.womenandwar.net>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지난해 말 한일 양국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문 같은 박제화한 역사 속에 갇혀 있지 않다. 24일 위안부 영화「귀향」 개봉과 때를 맞춘 듯, 한일 위안부 협상의 무효와 일본의 책임 있는 사죄를 요구하는 공연, 만화전, 웹툰 등 위안부 관련 문화행사와 작품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진행형 역사로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게 한다. '수요예술행동'의 예술인,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다수 참여한다. 잘못된 한일협상과 청산되지 못한 일제 잔재, 외면당하는 위안부의 진실을 드러낸 뒤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무엇인지 제시한다. (『예술이 '위안부' 할머니를 기억하는 방식』, 한겨레신문, 2016. 2. 24.)

#서울, #전국,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수요집회, #한-일 합의, #2015, #재검토, #재협상, #요구

E-3 **두리반 51+(자립음악생산조합)** <https://jaripmusic.org>

자립음악생산조합(이하 조합)은 음악생활협동조합이다. 2010년 홍대앞의 철거농성장 두리반을 돕기 위해 모인 음악가들 중 일부가 준비 모임을 결성했으며, 2011년 4월 발기인대회와 8월 첫 총회 이후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준비 모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다수의 공연을 기획하고 음반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2011, #예술가, #생산자, #협동조합, #공연, #이벤트, #기획, #홍대, #두리반, #철거, #식당, #젠트리피케이션, #투쟁, #전국자립음악가대회, #51+

E-4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https://www.facebook.com/publicspaceforcitizen/>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공유지의 공공가치를 사유화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유지의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찾기 위해 모인 시민 연대모임입니다. 용산부터 가좌까지 이어지는 6.3킬로미터의 폐선 구간은 이미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의선 권역에서 광범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생활환경 악화, 지역상권 붕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의선, #공유지, #폐선, #지역, #상권, #붕괴, #시민연대, #기획, #젠트리피케이션, #농장, #서울시민시장협의회, #2017, #노 리미트 서울 자치구

E-5 **옥바라지 골목 보존대책위원회** <https://www.facebook.com/okbaraji2016/>

2016년 5월 17일 옥바라지골목 구분장여관 강제철거 이후 재개발 주거 철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던 서울시는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의 땅과 집을 빼앗아 재벌 건설사 배만 불리는 약탈의 부동산 경제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전면 철거는 골목과 작은 가게들과 도시의 문화를 파괴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로 집과 일터를 잃은 자들에게 대책을 세우고, 폭력과 야만의 뉴타운 사업을 끝내야 합니다. (옥바라지골목역사보존단 성명서, 2017. 5. 24.)

#서울, #옥바라지, #골목, #2016, #구분장, #철거, #젠트리피케이션, #성명서, #상영회, #토론회, #세미나, #박김형준 사진전, #옥바라지 골목을 아십니까?, #리슨투더시티, #옥바라지 투어, #음반, #자립음악생산조합, #강제음악회

E-6 **콜트콜텍+문화행동** <http://cortaction.tistory.com>

콜트콜텍+문화행동은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노동 투쟁 활동이다. 2007년과 2008년 사이 기타 제조 업체 콜트악기와 자회사 콜텍은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공장을 이주하며 노동자를 대량 해고한다. 콜트콜텍의 전 노동자들은 시위 등 투쟁 활동 외에도 밴드 조직, 공연 등의 문화예술 방식의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 #2007, #2008, #기타, #악기, #공연, #노동, #투쟁, #행동, #걸개그림, #2009, #해고무효확인 행정소송, #미국원정투쟁, #2010, #공장, #지지선언, #불매운동, #콜밴

E-7 **내성천의 친구들** <http://www.naeseong.org>

지천정비라는 이름으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내성천을 바라보며 함께하신 분들은 크게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논의 끝에 우리는 내성천가의 우감마을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감사단을 꾸리고 내성천 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조계사 경내 전시 공간인 '스페이스 모래'를 통해 4대강 문제와 내성천을 알리는 전시를 1년이 넘게 진행했습니다.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을 통해 보존지를 위한 기금마련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모래길 걷기와 자전거 답사 등을 통해 많은 분들과 함께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성천변에 강을 위한 작은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트러스트 매입 부지는 이제까지 재방으로 차단되어 있던 강 유역을 강으로 돌려보내 홍수와 가뭄에 대처하고 강 유역을 비옥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스님, 2012. 1. 9.)

#서울, #경상북도, #스페이스 모래, #영주댐, #수몰, #식물, #세밀화, #워크숍, #전시, #내성천 한 평 사기 프로젝트, #보존, #생태,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

E-8 **여성인권영화제(한국여성의전화)** <http://fiwom.org>

여성인권영화제(Film Festival for Women's rights):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2006년에 시작된 영화제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Korea Women's HotLine):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전국 25개 지부, 1만여 명의 회원과 함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서울, #여성, #핫라인, #영화제, #2006, #이동상영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운동, #페미니즘, #폭력, #저항, #고발, #여성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E-9 **재(美)난학교(테이크아웃드로잉)** <http://takeoutdrawing.com>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현대미술이 대기업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그들 스스로 대안예술공간을 만들어 권위주의적인 예술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시작되었다. 직접 경험이 계기가 되어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함께 꾸려 나가고 있다.

#서울, #예술가, #젠트리피케이션, #재미난 학교, #포럼, #한남동, #분쟁, #자영업자, #제도, #개선, #경제, #독점, #대안, #연대

강정마을 공동체와 해군 기지 건설에 맞선 투쟁 등을 다루었다.

#경기, #한국전쟁, #노근리, #사건, #비전향 장기수, #일본군위안부, #강정, #해군기지, #구럼비, #폭파, #용산참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탈원전, #만화, #출판, #인권, #피해자, #평화

E-10 **광장극장 블랙텐트** <https://blog.naver.com/blacktent>

이곳은 임시 공공극장입니다. 지금 여기 광화문 광장은 그 자체로 사회적 삶의 극장입니다. 시민들은 고통과 분노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뚫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을 쏟아내며 이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사회적 삶의 극장 한복판에 연극인들이 예술가 동료들, 시민들과 함께 ‘광장극장 블랙텐트’를 세웁니다. 우리는 이 극장에서 연극의 공공성, 예술의 공공성, 극장의 공공성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자 합니다. (광장극장 블랙텐트 선언문, 2017. 1. 25.)

#서울, #스캇, #연극,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2017, #광화문, #광장, #검열, #저항, #극장, #임시

E-11 **용산참사**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19일 용산 4구역 철거에 맞선 투쟁 공간이었던 건물 망루에 경찰의 진입이 이루어지며 화재와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다. 1월 20일 경찰 진입에서 사망한 고 이상림(71) 씨가 운영하던 레아호프가 있던 자리, 건물 1층에 레아갤러리가, 2층에는 촛불미디어센터가 들어섰다. 갤러리에는 진입을 주도한 경찰과 이를 묵인한 정부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만화와 판화, 걸개그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촛불미디어센터는 촛불연석회의가 1인 미디어 활동가들을 불러모아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곳이다. 촛불연석회의는 지난해 여름 촛불집회부터 꾸준히 촛불을 지켜온 시민들의 모임이다. (『잊혀진 용산'을 못 잊는 사람들』, 주간경향, 2009. 4. 21. 참고.)

#서울, #남일당, #용산참사, #젠트리피케이션, #레아갤러리, #6.9 작가선언, #연대, #투쟁, #철거민, #생존권, #파견미술, #용산참사 현장문집, #용산 참사 100가지 예술행동, #행동주의 예술,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 #촛불

E-12 **평화발자국(보리출판사)** <https://www.boribook.com>

평화발자국은 보리출판사의 인권 관련 만화 단행본 출판 시리즈다. 비전향 장기수, 일본군 위안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반도체 공장 산재 피해 노동자, 제주

예술의 사회적 활동 추세와 동향

안영노

(문화기획자,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1. 예술의 사회적 활동 주요 양상과 동향

조사된 사례들, 특히 10회의 원탁에서 제출된 집단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예술의 양상 및 동향을 제시해 본다

1) 주요 양상들

① 개요

- 상황: 예술의 다양화와 예술의 사회적 실천 증가
 - 2000년대 이후 예술의 다양화 양상은 다원예술, 문화예술교육, 공공예술, 공동체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 문화복지 등 지원제도에도 다각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동시에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의 다각화가 예술의 다양화를 촉진하였다.
- 전제: 예술의 다양화는 예술활동의 다각화, 다변화를 불러옴
 - 예술의 다양화는 예술가 활동의 다변화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다변화는 예술가들이 암묵적,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예술 개념의 다각화를 불러왔을 가능성이 크다.
 - 예술가 활동의 다변화와 더불어 예술가의 사회적 실천도 일정 수준 증가했을 것으로 전제된다.
- 용어와 개념
 - 증가해 온 예술가의 사회적 실천 양상 역시 다변화하였으며, 이질적인 양상을 포괄하기 위해 '예술과 사회의 연계' 양상으로 접근하였다.
 - 10회의 원탁에서 예술가들이 실천에 집중하고 있는 예술과 사회의 연계는 사회서비스 제공 및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정치적 참여, 문화복지와 문화봉사, 시민들을 위한 문화여가 서비스, 시민참여 예술작업, 공공예술, 문화예술교육, 예술치유, 예술놀이, 교육예술, 공동체예술, 생활예술 및 예술동아리 지원, 아마추어 예술활동, 메이커와 적정기술, 일상창작, 지역활성화, 상권활성화, 도시재생 등 다양한 주제와 대상으로 분산적이었다.
 - 예술의 사회적 '개입', 예술의 사회적 '매개', 예술의 사회적 '관여', 예술과 사회의

‘연계’, 사회 ‘참여’ 예술 같은 용어들은 원탁에 참여했던 예술가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끌어냈는데, 거부감, 오해 소지, 용어 사용에 따른 개념의 혼돈 등으로 표출되었다.

— 예술의 사회적 관여를 일단 예술가의 ‘사회적 실천’으로 통칭하였다.

② 전반적 양상

원탁의 집단면접에서 만난 50인 개인에게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예술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진술

- 사회적 역할을 하는 예술가로서 존중받기를 요청한다.
- 예술가로서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하는 예술가로서 지속가능한 생계와 조직운명을 고민하였다.
- 공공 지원제도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드러내었다.
-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사명감보다 미시적이고 대상이 구체적인 실천을 지향하였다.
- 거창한 예술의 담론보다 자신이 관심 갖고 연구하게 된 계기와 사회문제를 보는 개인적 동기에서 서서히 사회적 예술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들이 말하는 예술의 개념이나 예술과 사회적 실천에 대한 관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예술에 대한 관념의 진술

- 예술의 정의가 무용하다고 보거나, 하나의 정의에 집착하지 않는다.
- 예술에 대해 비교적 실용적인 입장을 취한다.
- 지역이나 구체적인 대상, 일상생활 등 각자의 문제의식 속에서 보는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관점에서 실천 혹은 실험으로 설정한다.
- 예술창작을 대체로 공동작업 혹은 조직의 형태로, 작게,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실천하는 프로젝트와 동일시한다.
- 결과물과 작품이 아니라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 가는 것으로 예술을 규정하는 관념이 증가한다.
- 작은 시도들이 지니는 사회적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예술의 기능에 주목한다.
- 예술의 사회적 효용에 대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예술의 효과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작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요청한다.

③ 영역별로 나타나는 예술가의 자기규정

사전에 원탁 토의 개최를 위해 모집한 다섯 영역인 교육/치유, 일상창작, 지역문화, 사회혁신, 사회행동 영역에 따라 예술가들이 스스로 위치를 규정하고, 처한 환경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 교육/치유

- 예술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변화, 정신적 성장을 돕는 사람으로서 교육과 치유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 예술가와 교육가, 혹은 예술가와 치유 전문가 사이에서 주변부가 되는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는 예술가로서 사회로부터 인정받거나 존중받기를 원한다.
- 예술을 단순히 교육과 치유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인정받으면서 교육과 치유의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 문화예술교육이 돕는 이들, 수혜 대상에 대한 집중을 통해 소외계층 혹은 소수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 보편적 시민들의 성찰 등을 통해 사회문제를 제기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설정한다.
- 문화예술교육사, 마을공동체, 공동체예술, 예술인복지, 예술인파견사업 등을 시도하며, 지원사업의 지속성, 제도적 인정, 연구와 학습지원 등 공공의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생존 등을 고민한다.

○ 일상창작

- 일상창작은 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적정기술 등 현대인들의 생활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술을 모색하려 한다.
- 취미로 시작하거나 특기로 발전시키는 등 자신의 성장,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가 강하며, 예술보다 개인 삶의 여건 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
- 일상창작을 생계 해결 및 직업 전환에 연결시키려 고민하고 있으며, 메이커, 핸드메이드, 아트크래프트 등을 시도할 때 대중 상품성보다는 지속가능한 창작과 수입 여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전환한 취향 예술가로 시작한 예도 있지만, 대체로 전업 예술가로서 생활 속 예술 기능, 일상창작 문제를 다루는 등 창작과 기술, 취미와 전업, 예술과 제품 등 자신의 위치 설정이 개방적인 편이다.
- 예술 개념의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예술의 기능 전환을 받아들이는 편이며, 예술의 개념 규정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또한 자신을 전문적인 예술가로 규정하는지 여부에는 서로 차이가 크다.

○ 지역활동

- 예술이 지역 문제를 풀어 나가는 매개체 혹은 효과적인 소통 수단이라 보고 있으며, 동시에 예술가들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적절하게 공공지원을 받아 발전해야 할 존재로 규정한다.
-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공공예술가, 혹은 예술기획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 지역사회 혹은 마을에서 다각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술가와 지역문화를 키우는 기획자 사이의 혼재되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드러낸다.
- 공공지원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며, 행정 메커니즘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
- 지역활동에서 자신의 복합적 경험을 토대로, 관과 맺는 파트너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민간자생의 독립적 생존을 위한 답을 찾는 데 관심이 많다.

○ 사회혁신

- 예술가로서 기업체를 조직해 운영하거나, 예술가와 파트너 혹은 자원 공급자로 함께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며, 조직의 유지 및 관리가 가장 큰 고민이다.
- 예술이 지역, 마을을 비롯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을 통해 함께 일하는 예술가들의 처우와 생존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민한다.
- 대상과 분야 면에서 다양하고 분산된 과제를 갖고 있으며, 예술의 정체성보다 마을, 소외계층, 생태환경 등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 예술의 정의나 예술과 비예술 구분 등을 중요시하지 않는 실용적 입장을 취하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예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서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 예술이 대중성, 상품성을 갖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파급력을 갖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 사회행동

- 정치문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정초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권리와 인권 등의 실현을 위해 예술행동에 나서는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 또한 예술 행정지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우려 등을 보인다.
- 예술은 획일화된 현대사회의 일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고,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실천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반면 예술의 사회행동이 사회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비주류일 뿐 아니라 예술 개념 안에서 비주류인 것으로 자기를 설정하기도 한다.
- 정치사회적 행동을 하는 파견예술 역시 거시적 담론의 사회문제 해결보다 주제나 대상 등에서 지역적, 미시적 실천을 강조하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비판적 연구와 창작을 동일시하거나, 작은 실천 프로젝트를 예술적 퍼포먼스와 동일시한다.

2. 영역별 세부 양상들

1) 교육/치유

○ 사회적 참여 양상

- 개인과 사회의 정서적 측면에 집중하는 예술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 예술교육과 예술치유 활동가들은 현대 개인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공론화하는 지적 관점에 해당한다.
- 이들 중 많은 수가 소외계층, 장애인 등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예술적 관점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선영(비기자) “비영리단체에서 아르바이트로 특수학교 수업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찰했다. 왜 프로그램을 짜 놓고 기획된 것을 들고 들어가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소통 위주의 수업으로 기획보다는 이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2년 후 직접 진행했다. 이후 공공예술과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결과 없는 과정 중심의 작업을 해 나갔다. 소외자와 작업하면서 소외시키는 생각들이 있음을 발견했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김효진(응용연극단체 문)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갖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엄정순(우리들의 눈) “예술은 깨어 있게 하고 관점을 변화시킨다. 이를 통해 성장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 보면, 예술 체험이 품위와 자존감을 갖게 해 주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할 때 시각예술은 이들의 결핍을 잘 드러낸다. 미술이야말로 시각을 통해 보는 것이 사실 못 보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가장 창의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다.”

김현정(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문학과 연극을 전공했는데, 극단 해의 연구자로 논문을 쓴 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연극의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어 극단에 들어와 작업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문화, 기지촌, 미혼모, 난민 등 소외계층과 함께 작업했다. 연극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체험한 후 사람의 눈빛이 바뀌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배우와 이해 당사자가 함께 구성하는 입법연극을 만들어 그들의 목소리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나누게 할 것이다.”

오지민(예술에 기대다, 린 협동조합) “학교폭력에 관한 공동작업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졌다. 가해 학생으로 낙인 찍힌 친구들이 의무교육으로 참여했는데 그저 연극, 미술, 음악 속에서 신나게 놀게 했다.

또래 집단 문제, 가정환경 문제가 아이들 입에서 나왔다. 학교폭력의 언어를 제거한 아이들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으나 결국 이들이 돌아갈 곳은 똑같은 환경이라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한계를 느낀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조건을 고민해야 한다.”

○ 동기과 목표

- 예술가로서 문화예술교육, 예술놀이, 공동체예술 등 체험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를 만나게 된 경우가 많다.
- 정서적 측면이 이들 예술가들의 목표로서, 기존 예술가와 관객 간 관계와 달리 예술가들이 참여자 내면을 탐구하면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현주(클리나멘) “시각예술 작가로서 지역에 있는 특정 장소들에 관심을 갖다 지역 공동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술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사회적 작업으로 확장하려 하게 되었다.”

김효진(응용연극단체 문) “학부 때 공연을 하면서 이를 어디에 활용할까 고민했고,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다. 예술강사 제도가 생겨 큰 꿈을 꾸고 갔으며, 장애아동과 함께한 학교교육에 감동을 받았다. 예술보다 장애인에 대한 공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 사회적 이슈를 다루면서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는 적용을 해 나갔다.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욕을 마음껏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낙인 찍힌 이야기, 가정폭력 사연 등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듣게 되었다. 2016년 본격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성북예술치유허브에 들어갔다.”

강미애(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연극에서 시작해 극작을 했고 배우가 아니라 인형극을 고민해 입문했다. 배우고 난 후 연구원으로 전환하고, 연극놀이를 평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던 중 전문가과정 등 아카데미를 열면서 변화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최규성(달꽃창작소) “남산 아래 동네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왔다. 엄마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드리고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 달라 요청했다. 동네 건축사무소에서 함께 밥해 먹고 동네 예술가들 만나게 해 수업도 했다. 광우병 촛불집회 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 사회에서 대화가 서로 안 되도록 하는 편견 문제는 어린 시절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데에서 잘못이 시작된 것임을 느꼈다. 용산 지역의 마을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수학자, 과학자, 예술가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고 있다.”

○ 예술가의 정체성

- 정신, 사고, 정서 등 거시적인 사회 문제보다 미시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 생활 문제가 아닌 정서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예술을 설정한다.
- 예술가와 수용자 혹은 참여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편으로, 어떤 예술가들은 촉진자, 해설사, 가이드로 자신의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김희연(그림마음연구소) “미술 공부 후 표현예술치료를 따로 공부했다. 예술교육을 내 작업에 접목하려 고민하던 와중에, 내 작업 중에 발현되는 심리적 변화들을 보았다. 위축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을 치료적 관점에서 보게 된 것이다. 치료사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 혼자보다 뜻을 함께하는 치료사들과 함께 작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김현주(클리나멘) “중력에서 이탈한다. 일상이 아니라 틈새에서 다른 시각으로 의미를 발굴하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예술가들을 데려가는 작가 공동체가 필요하다. 동료 중 그림,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작가가 있는데, 지역에 대한 공동 관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다. (……) 이것을 예술치유라고 스스로 말한 적은 없다. 치유를 목적으로 안 해도 예술가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치유하는 효과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안다.”

이동근(자바르페) “예술은 자존감과 자기정체성을 형성해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도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역에서 음악밴드 교육을 하다 이들이 동아리로 성장하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까지 진행하는 것을 보아 왔다.”

강미애(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이걸 하면 무엇이 좋아지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연극놀이가 어떤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야 할까. 그럴 때 상상과 자유로운 표현 속에서 간접 경험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일을 돕는다.”

최선영(비기자) “참여자들에게 무엇이 남을까. 존재를 존중받았던 기억만이 남는다. 예술가는 참여자에게 완전한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무력감에 빠지더라도 말이다. 공감을 얻었던 몸의 기억을 갖게 하는 것은 예술만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가치다.”

○ 실태와 애로사항

- 일종의 감정 노동자로서, 타인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 봉사하는 예술가들 자신의 정서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교육자로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예술가로서도 변방에 위치하는 자신, 치료 전문가로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예술가로서도 주변부에서 기존 예술지원 제도에서 스스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어려워하고 있다.

— 자신들의 예술활동을 새로운 예술활동으로 인정받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오지민(예술에 기대다, 린 협동조합) “예술이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들어 작업을 한다. 그런데 직원마다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사회나 예술이나, 복지사회나 예술교육이나. 꼭 예술이어야 하느냐를 묻는다. (……) 예술가로 먹고사는 문제와 지역 안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 역시 고민해야 한다. 펀드레이징, 페이퍼 작성을 포함해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는 작가들을 관찰하고 작가들의 의견도 조율해 이끌어야 하고, 작가들과 대상들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자의 언어를 학습해야 한다.”

김효진(응용연극단체 문) “이야기를 끌어내는 일을 한다. 가해자이거나 상처받은 이들이 많다. 나는 액발이다. 나도 치료가 필요하다. 예술치유 과정에서 나도 상처받고 있었던 것이다. (……) 나의 억눌림도 있다. 이런 활동가들은 누가 보살펴 주나. 영국에서는 요청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 시스템이 있었다. 우리 문제를 고민해 주는 전문가들과 처음부터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선영(비기자) “소외된 아이를 만나 과정을 진행할 때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는다. 감정입입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타자화하지 않아야 한다. 너무 힘들다.”

엄정순(우리들의 눈) “전국의 맹아학교를 접촉하다 보면 우리를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또 맹아학교 아이들 중에는 미술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미대 입시를 돌파하는 큰 실험을 하는 중이다. 쉽지 않다. 10년 전부터 이런 문을 계속 두드려 왔다. 이런 일은 돈이 안 되는데 계속 움직였다. 한편 앞으로도 어떻게 맹아학교와 대학교수들과 후원 기업들을 이해서시키고 설득해 나갈지 모르겠다. 작업과 설득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를 하는 게 우리 일이다.”

김희연(그림마음연구소) “치료사 타이틀로 아이들을 만난다.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내담자로서 만났다. 예술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개인이 한 사람의 치료사로서 만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구조화된 단단한 만남이 되려면 전문가들 간에 공동체를 만들고 여럿이 협업해야 한다. (……) 내담자를 돕는 그릇인 치료사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슈퍼비전, 피어비전 등 치료사를 상담해 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하는 일을 사회가 이해해 주어야 한다.”

○ 제도 개선 및 제언 사항

— 새로운 예술활동을 하는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스스로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예술가들 활동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론 연구, 제도화 등을 지원해 사회적 위치를 세워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사람들의 정서적 문제를 치유하고 예술교육을 통해 개인을 성장시키는 활동은 단년도 지원으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정부 지원사업을 보면 행정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예술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신들의 활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예술창작 개념 속에 틀 짓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예술활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담을 수 있는 개념화,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공공사업을 지원할 때 면접에 참여하면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응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강미혜 “내년에 대한 기약이 없고 미래가 불분명하다. 민간단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지원사업이 향유자만을 위한 것일까 되묻게 된다.”

이동근(자바르떼) “지금 침체 시기다. 사장이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법도 알아야 한다. 조직을 꾸리는 일과 공공사업을 처리하는 행정일이 겹쳐서 힘들다. 공공지원을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서비스는 무료라는 인식이 강해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받을 수 없어 힘들다. 사회적 필요에 따라 우리가 일한 것인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 왜 1년 단위로 지역에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가. 왜 3년 안에 요술방망이처럼 지속가능한 자립을 해야 하는가. 공공기금의 지원제도가 변해야 한다.”

김효진(응용연극단체 문) “우리는 예술가로 일하는데, 교육사업이라 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멘토들조차 작가보다는 교육자로서만 인지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예술가로서 구현해 나가는 일인데, 마음이 붕괴되는 느낌이다.”

강미혜(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학교와 교장들부터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공교육을 바꾸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는 일의 개념과 합의된 정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는 이론을 세우고 우리들의 현장에 대한 연구에 개입해야 한다.”

최규성(달꽃창작소)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 마을에서 제3의 교육을 한다. 일종의 대리보충이다. 지역이 가능성이다. 이런 기록이 중요하며 매뉴얼을 만들어 나간다. 비슷한 연구와 시도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작업을 보는 사회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한두 해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은 규모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내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김현정(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제소자들과의 작업에서는, 일례로 심리적 치유를 얻은 후 출소하여 원래 환경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한다. 행정에서 지속적인 치유 과정을 안 보고 하나의 아이템인 공연 작품으로 보니 치유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회 문제 해결로서 예술도 있지만, 과정으로서 예술도 있고 매개 수단으로서 예술도 있다. 하지만 인생이 예술보다 중요하다. 공공지원이 현재 지원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바꾸어야 한다.”

○ 기타 건의

- 정부와 공공기관은 발표 공유회, 세미나, 포럼 등을 할 때 네트워크라는 이유를 들어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데, 이러한 방식은 동원에 머무를 수 있다.
- 예술가들이 원할 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이질적인 사람들 간의 시너지를 내고 공동작업할 수 있도록 교류 프로그램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
- 다양한 전문성의 결합을 통해 복합적인 현대인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강미혜(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예술가인가 교육가인가. 입장들이 다 달랐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 서울문화재단과 아르떼 같은 공공기관과 중간 지원 조직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실행 역량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자주 마련해야 한다.”

이동근(자바르떼) “한정된 예산의 기금을 따기 위해 모두 경쟁자가 되어 버린다. 오히려 네트워킹이 안 되고 있다. 교류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2) 일상창작

○ 사회적 참여 양상

- 놀이와 사회실험이 결합된 정서를 지니고 있다.
- 상업적 자본주의에 묶여 있는 예술에 대한 탈주를 시도하거나, 규정을 넘어서는 예술 개념을 갖고 있다.
- 특히 대안적 삶의 방식을 지향하며,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등과 연결하여 기존의 물질 추구, 과잉소비, 자본의존적 삶의 방식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제도 안에서 드러내기도 한다.
- 이에 따라 개인 삶의 풍요와 행복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실험하거나, 실용적인 삶의 방식을 시도하려는 사회인식을 갖고 있다.
 - 신윤예(000간) “창신동은 봉제밀집지역으로 버려진 원단이 많다. 이런 잉여물을 가지고 제로웨이스트 디자인을 개발하여, 낭비를 없애고 일거리도 창출하려 실험한다.”
 - 선윤아(릴리쿰) “노동이 아닌 놀이로 접근하고 DIY와 기술을 접목한다. 실패해도

되는 일을 한다. 우리는 놀며 일하고, 쓸모없는 것에 힘을 다한다. 사회적 문제보다는 노동, 취직 등 개인 각자의 문제를 고민한다.”

한광연(오늘공작소) “청년세대도 중장년층처럼 취향이 없다. 불안하게 살고 바쁘다. 그 풍경을 바꾸고 싶다.”

함승호(적정기술공방) “기술과 예술의 차이가 많지 않다. 자본주의 소비사회가 되면서 개인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만들어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들을 살려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의 자산이 되도록 한다. 귀농귀촌인의 에너지 문제를 도우며 계기를 얻었고, 차츰 많은 기술자들과 협업해 나갔다.”

이재준(리마크프레스) “건축설계를 하며 집에 관심이 많았다. 단일 작품인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건축물이 사회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것들이 그런 예다. <새동네>라는 주택장기임대 프로젝트를 만들어 투자회사와 협업으로 운영 중이다. 커뮤니티에서 자존감이 우선이 되어 주민의 삶이 좋아지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 동기와 목표

- 자신의 인생 혹은 일상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던 중 취향과 자기개발 관점에서 새로운 예술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그 후 직업과 생활에 변화가 나타남.
- 메이커, 적정기술 등에 탐닉하게 된 것은 지적개발, 취미 때문이었으며, 새로운 발견을 통해 점차 직업으로 발전시켜 왔거나 사회 문제를 푸는 과제를 부여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남윤호(수리수리협동조합) “마을은 학교다. 누구든지 가르치고 또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다. 세운상가는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곳이다. 상인들 인터뷰를 진행하고 난 후 추억의 물건 고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혜영(큰언니네부엌) “평범한 엄마다. 시집가고 살림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이 나이 들어 나의 자본이 되고 있다. 엄마는 부엌에서 살림을 꾸려 나간다. 함께 수다 떨고, 뜨개질 하고, 밥도 짓는다. 나의 꿈을 펼쳐 본 적이 없는데 마을예술창작소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희열을 알게 되고 마을기획자가 되었다. 수렁에 빠진 듯 벗어날 수 없이 지금까지 왔다.”

신지예(오늘공작소) “청소년기 두발자유운동을 하다 대안학교를 다녔다. 무대예술, 연극, 아프리카 타악기 등 대안학교 덕분에 청년이 되어 예술자본을 확보했다. 예술이 사회 변화의 활동으로 전환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대학 대신 사회적 기업 창업을 택했다. 당사자로서 청년 문제로 시작하여, 작은 돈을 벌더라도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돕는다. 본업이 있고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불행해지는 삶이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느꼈다.”

정길수(공도창공 수동) “공도창공은 공생 도구 창작 공간의 약자다. 공공미술 활동을 하고 협업으로 일한다. 남양주시 수동, 축령산기술, 산속에서 산다.

생존능력을 갖기 위해서다. 적정기술이 필요했고, 그래서 난방기구를 만들게 되었다.”

함승호(적정기술공방) “평범한 삶을 살았다. 제조업체, 무역업체 등 직장인으로 건강을 잃어버린 후 3년간 재할을 하고 경쟁없이 사는 행복한 삶을 위해 이 길을 택했다.”

김성수(무규칙이종결합공작터 용도변경) “기계공학과 출신이다, 제조업 하는 기업가가 되고 싶었다. 자동차 회사에 3년 근무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기 위해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고, 인터넷 사업으로 돈을 벌어 보았다.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시간이 남아 만들기 시작했다. 바퀴 달린 로봇 보고 친구들이 호응해 주어서 일이 들어왔다. 해외 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처럼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고 싶은 것을 집중적으로 했더니 먹고살 돈이 생긴다. 내 일을 무규칙이종결합이라고 본다. 틀을 깨고 재미를 추구하는 동호회로 여럿이 모이는 공작소와 장터를 만들자는 모토를 갖게 되었다.”

○ 예술가의 정체성

-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등 생활 속 예술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에 주목한다.
-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구분이 적은 편이며, 자신을 예술가라는 정체성 안에 가두지 않거나, 예술가로부터 소외된 주변부로 보는 경향이 있다.
-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예술표현이라기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들이 취향과 특기를 발굴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 예술가 혹은 메이커들이 실용적인 기술과 생활에 필요한 제작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규모화, 이후 자립 가능성 등 모호해 보이는 창작 생태계에 대한 고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와 같은 지속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예술활동 및 기술 관련 일상창작 분야가 실용적인 듯하지만 지속 자체가 가능한 분야인지 확신하지 못하며, 의문시하기도 한다.
- 따라서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지원과 독립적으로 실용성에 대한 인식이 공존한다.

신윤예(000간) “순수예술을 전공했으나, 신진작가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전시를 하면서 예술이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데 한계를 느꼈다. 예술적 언어를 따르지 않고 리얼한 커뮤니티를 만나야 하고, 작품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의

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지예(오늘공작소) “인문학 없는 기술은 초라하고, 기술 없는 인문학은 허무하다. 청년인문학은 청년 스스로 일감을 찾아내도록 도우며, 기술과 생산물의 제작이 구체적인 일감을 찾는 매개다.”

선윤아(릴리쿰)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으나 상업디자이너가 되거나 조직을 위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디자인적인 예술을 하고 싶었고 사회적 기업을 접하면서 사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워 사회적 디자인을 하기로 했다.”

한광연(오늘공작소) “부유하고 있는 이십 대가 다시 삼십 대가 되어서도 부유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럴 것이다. 청년정책을 분리해서 다루면 안 된다. 나만의 서울을 보는 관점의 힘이 없다. 자립구도는 경제만이 아니다. 시각의 자립이 필요하다.

그것이 자존으로 이어진다. 보통 사람으로 잘 살다 죽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경제 자립만 이야기하니 걱정이다. 예술의 경험은 사람을 구원하는 큰 힘이 있다.”

최현정(일상예술창작센터) “수익을 향해 달려왔다. 문화예술교육, 공공미술 등 공공사업 일을 많이 했었다. 공공 지원사업에 의존하게 되는 것에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프리마켓 외에 생활창작공방 새끼를 독자적으로 운영해 생존하는 자산으로 만들어 가는 시도를 했다.”

정길수(공도창공 수동) “독일에서 미술을 공부하면서 근대 이후 진행되어온 예술에 대해 원론적 질문을 던졌다. 자본화의 도구가 된 예술이 주관적인 심미성에 몰입하면서 틀에 박힌 범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배적인 예술에서 이탈하여 비판적으로 자본주의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예술이라고 본다.”

○ 실태와 애로사항

- 자신들이 취향을 개발하고 일상 속에서 지적인 자기계발 과정을 통해 창출해 나간 자발적 예술활동으로 규정하는 경우, 정부가 적정기술 등을 모색하는 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바라며, 메이커 등의 유행에 따라 성급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 메이커 공방, 적정기술 연구소, 아트마켓을 운영하는 등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유지와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자신들이 꾸려 나가는 단체, 회사, 공동체 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 예술가의 정체성 안에 가두지 않는 자신들의 독특한 활동에 대한 인정과 사회적 이해를 요청하며 자존감을 확보하고 싶어 한다.

신윤예(000간) “예술 프로그램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단계를 넘어 삶 속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로 공감, 공유, 공생하는 일을 해 나간다.”

남윤호(수리수리협동조합) “세운상가에서 인터뷰도 하고 공공사업을 진행하다가

조직을 만들었다. 책임감 때문에 내가 상인분들에게 협동조합을 하자고 했다.

이분들의 가치를 확장하고 싶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을 하는 분들인데, 가치 있는 노동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각오하고 조합을 만들었다.”

김혜경(큰언니네부엌) “지원금 받으면서 제대로 놀아 보자 했는데, 지금은 지원금 받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마켓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조부모가정 나눔과 같은 일에 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누군가를 돕는 것이 뿌듯하다. (……) 지원사업도 하고 협치도 벌이겠지만 우리끼리 마을에서 안정감 있게 활동하는 게 비전이다.”

신지예(오늘공작소) “폭주기관차처럼 달리지만 멈추어야 할 때는 멈추어야 한다. 작년에는 영리 구조를 모색했다. 청년들이 1년을 버티고 자립하는 실험을 한다.”

함승호(적정기술공방) “견디게 하는 것은 자금과 확신하는 나 자신의 철학뿐 아니라 주위의 이해와 함께하는 분들의 격려다.”

정길수(공도창공 수동) “덜 벌어도 적게 쓰고 안 쓰고, 이런 생존의 방식을 써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의 문제다. 생존능력과 생존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 개인의 창작에 집중하기보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문제를 고민하는 예술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 제도개선 제안사항

- 정부가 소액의 실험적인 투자를 해 주어야 한다거나, 장기간 실패할 수도 있는 새로운 것을 개발할 경우 인건비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 메이커, 적정기술 등을 추구하는 경우 안정적인 작업실을 필요로 하거나 여러 예술가, 메이커들이 교류하고 융합하는 플랫폼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는 등 전반적으로 공유할 만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 한편으로 정부 공공기관이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정작 이런 공간의 문턱이 높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공간과 하드웨어를 만들어 가시적 실적을 만들어 내는 데 예산을 씌으로써 정작 메이커와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제작 활동 지원 비율이 적은 것 등 정부와 행정 지원기관의 예산 분배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고 그 지원 효과를 의문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광연(오늘공작소) “공공영역에서는 소비가 떨어지므로, 민간영역에 소개하려 한다. 생산은 많으나 유통을 하는 기능이 없는 것이 문제다.”

선윤아(릴리쿰) “아지트를 갖는 꿈이 있으나 이를 여는 게 쉽지 않다. 땅값이 비싸 쉽지 않다. 다른 집단들과 힘을 모아 교류하고 장기적으로 공동체에 의존하고 싶다.”

신윤예(000간) “아직 마을에서 하는 것을 수익에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회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치고 갈려 나가는 느낌이다.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기본적인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큰 투자가 아니라 작은 투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난관이 너무 많다. 또 부동산이 있어야 사업들을 유지하고 클 수 있으므로 힘을 합쳐 자기들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시민자산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윤호(수리수리협동조합) “판은 어떻게 마을과 주민들과 협업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연구해야 한다. 판이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들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최현정(일상예술창작센터) “공공정책과 공공사업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뻐다. 지지도 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하는 일은 언젠가 끝나고 놓아야 할 일이고, 지역 주민들과 일하다 그들을 떠나야 한다. 우리들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 역시 자금이 부족해 공공지원금이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만들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독자적으로 해야지, 하면서 견디고 있다. 정부의 지원사업이 아쉬운 점이 많아 바뀌어야 한다. (……) 정부가 프리마켓을 본떠 공공시장을 만들어 버리면 민간시장이 죽는다.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

함승호(적정기술공방) “난로 같은 적정기술을 개발하면 시장에 영향을 준다. 전문가들의 제작, 시민들의 참여가 결국 소비자들을 체험하게 만들고 교육시킨다. 그러면 대기업도 이런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적정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과 제대로 된 지원이 중요하다.”

김성수(무규칙이중결합공작터 용도변경) “정부 지원금이 엄한 데로 간다. 실제 메이커들과 기술자, 개발자들이 창의적인 일을 하는 데 지원하지 않고 산하기관 운영에 돈 쓰고,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만들어 관리만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다.”

○ 기타 건의

- 예술가와 메이커들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비 외에 적절한 인건비, 특히 지원단체를 이끄는 대표 등이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주식회사는 지원받지 못하는 등 실용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기존 개인 예술가 혹은 비영리단체만을 지원하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선윤아(릴리쿰) “장기간 투자해야 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 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소액 인건비가 불합리하다.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발비 같은 것을 정부가 더 제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신지예(오늘공작소) “재단 지원을 받아 본 적 없다.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힘든 일인데 평가기준이 결과를 강요한다. 이전 방식으로 구분되지 않는 실험적인

것을 지원하는 제도도 없다.”

신윤예(000간) “공공영역에서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매니저들은 창업자들을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하기 전에 행정 일에 치여 서류 요청하고 서류 채우는 데 시간을 보낸다. 정부가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이재준(리마크프레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공사업에 신청하면 영리법인이라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생활 속 이런 실험들의 진행과 초기 안정화를 위해 민간보다 정부가 먼저 지원을 늘여야 한다.”

3) 지역활동

○ 사회적 참여 양상

- 지역문화를 만들어 내는 예술가와 문화기획자 등의 활동이 많으며 전통시장,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사업, 지역활성화 등 다양한 공공사업과 연계되어 지원을 받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공급자로서 콘텐츠를 고민하는 관점의 예술가들이라 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 공동체 주민의 한 사람으로 예술가들 자신을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김지영(플러스마이너스1도씨) “한시적 프로젝트로 공공미술 사업을 하다 회의를 느꼈다. 내 삶의 변화 못 이끌어 냈다. 나는 행복한가, 세상이 바뀌는가. 2010년에 목이동에 우연히 들어가 경제자립을 위해 주민의 일원으로 카페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지역에 들어가 서비스하면서 당사자로 문제를 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 출퇴근 시간이 아깝다. 동네에서 일하고 먹고살면 안 될까 하는 데에서 다시 출발했다. 2년마다 이사하는 청년들의 불안감과 서러움을 보면서 이 방식을 택했다. 내 삶의 변화에서 시작하고 사회를 바꾸기보다 개인의 문제 해결하려는 데 더 집중하였다.”

홍주석(어반플레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다. 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한다. 동네 거점으로 커뮤니티를 만든다. 예술가, 기획자가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가. 소상공인 주민들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하루하루 먹고사는 소상공인, 그리고 주민들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 이들과 성과를 나누어 가져가야 자생이 가능하다.”

최서영(더페이퍼) “일을 하는데 진짜 삶은 없었다. 그만두고 이 일을 하게 되었다. (……) 정작 우리는 자신들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골목에서 사이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예전의 나처럼 병든다. 지금은 지역에서 동네의 기억을 기록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한다. 내 이야기가 살아가면 내 존재도 살아난다.”

나기석(구로문화재단) “중간 조직에서 행정일을 한다. 나는 예술가가 아니다. 온전한 자치를 돕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행정이 관료적인 면모를 벗어 사는 문제에 관심이 크다. 예술가, 주민과 공공기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해야 한다.”
임성연(무소속연구소) “공공예술, 공공디자인이 마케팅 방법론과 다르지 않았다. 비즈니스 틀로 만들고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성공하는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다. 늘 실시간으로 소비자 반응을 피드백 했다.”

○ 동기와 목표

-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마을과 동네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은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돕는 예술활동인 동시에, 자신들이 ‘예술가로서 지역적 삶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개해 나간다.
-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활동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지 않는 사업으로서 고충이 있으며, 정부와 주민들의 이해와 인정 여부를 떠나 예술가들 스스로 장기적 시각을 갖고 자신의 작업으로 해 나가는 프로젝트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 공공지원의 경우 표준화된 잣대로 실적을 평가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관계, 지속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과정 등을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부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지역활동에서 시간이 지나 성과를 내거나 규모가 커지면서 프로젝트마다 상이한 비전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예술가들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 축출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는 문제부터, 주민이 예술가가 되거나 주민들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도록 돕는 문제까지 다양하다.

김지영(플러스마이너스1도씨) “예술가인 동시에 문화기획자의 책임과 역할에서 출발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나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릴 때부터 ‘잘못된 교육 시스템에 내 몸을 맡기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는 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지역에 들어가 카페를 열었다. 삶에서 비롯된 관계들의 변화를 본다. 함께 축제, 교육, 모임, 스터디 등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한다. 우리는 생활자립력을 목적으로 하고, 자기만의 삶의 기획력 등 지역민의 역량 키우기를 미션으로 삼고 있다.”

정문식(홍우주) “1990년대 후반부터 홍대앞을 드나들었다. 2000년대 홍대앞은 망했다. 2010년 이후 싫어졌으니 애증의 대상이었다. 서교실험예술센터의 공동운영단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젊은 예술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버리고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서울시와 마포구의 일방적인 계약 만료로 이곳이 문 닫을 뻔한 것을 막아 내면서 홍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자본이 아니라 행정에 의해

쫓겨나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도빈(동네형들) “이전에 프리랜서로 살면서 국제교류 NGO 활동가로 살았다. 대학 졸업 후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일 못 찾는다라는 고민, 즉 일과 삶의 괴리가 있었다. 인권 평화 등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으로 돌아가 집에 오면 내 인생은 없었다. (……) 각자 해보고 싶은 일 하나씩 만들어 개인적인 삶의 방향을 잡고 기획자로 독립하는 일을 만든다.”

조하연(결애) “지역 청소년들은 상처가 많다. 예술가가 결합하여 마을에서 시 테라피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림책을 만들고 연극도 만든다. 예술이 치유의 에너지가 되고 실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예술로 진로를 정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나도 변해 갔다. 지역에서 함께하게 되었다.”

김꽃(공간413) “문래동에서 레지던시와 전시를 한다. 입장료 수익을 다음 작가 작업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 힘든 작업이다. 사회적 개입은 현대 미술가들이 늘 했던 일이다. 예술이 과연 어떤 역할로 기능해야 하는가 궁금하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나는 좋은 미술 전시를 제공하고 싶다. 그것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의 인터페이스를 늘여 왔다. 문제점을 느껴 문래동 지역 커뮤니티와 단절하고 전시에 집중했다. 예술대생들이 고객으로 오고 이들이 대학 마치고 이곳에서 전시하게 되었다.”

신윤선(유쾌한아이디어성수동공장) “잘 놀아 보자고 회사를 만들었다. 예술이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데 관심이 컸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이슈를 제시하면 찍힌다. 예술기획을 하다가 성수동 지역에 들어왔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원탁마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개인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론화 전에 이런 것을 면밀하게 들어 주길 원했다. 이런 이야기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지역에 문화를 꽃피우는 예술가들이 집값을 높이는 젠트리피케이션 주범인가. 피해자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한다.”

이지연(동대문 옥상낙원 DRP) “나는 예술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다. 2개월 단기 알바인 줄 알고 왔다. 남미 배낭여행 준비 중 참여했다가 계속하게 되었다. 전문성도 사회 변화의 의지도 없었는데 왜 남았을까. 당시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생업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청년들의 처지가 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산업사회의 표상이었던 봉제사들과도 이런 점에서 말이 통했다.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싶어졌다. 도시에서 소모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익히려고 남았다.”

○ 예술가의 정체성

- 지역 현장에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 3년의 행정지원 기간을 떠나 지속가능하고, 지자체 정부의 지원 여부를 넘어 자생가능한지를 고민하므로, 예술가들 스스로

기획자가 되어 프로젝트로 이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 따라서 행정제도와 결합하고 공공지원을 받고 있으나, 독립군 정서를 가지고 있다.
- 지역사회에서 공공지원 없이도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음에도 이를 추구해 나가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 지속가능하려 노력하는 실천 등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주민들로부터 예술가들의 수고와 가치를 존중받거나 정부로부터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는 문제를 고민한다.
- 지역활동 현장의 고충에서 오는 예술가의 정체성 문제가 크며, 이는 지역 내 주민 한 사람으로 설정하는 경우, 주민들과 함께 작업하는 예술가로 설정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진다.
- 지역에서 진정성 있게 꾸준히 실천하려는 시도나, 책임감 있게 공공예술 같은 프로젝트를 꾸려 나가는 경우, 스스로 예술가인 동시에 문화기획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융합한다.

김현승(동대문 옥상낙원 DRP) “건물 옥상을 공유공간으로 쓴다. 제도적 시스템의 빈틈을 창의적으로 활용했는데, 소유 없이 공간을 사용하므로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한다. 임대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인데, 임의수익 내는 참고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공간이 갖는 매력. 예술가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대신 제도적 보호를 포기한 것이다. 몸 쓰고 옥상에 쌓였던 쓰레기들 치우면서 건물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을 바꾸었다. (……) 예술가는 지역의 공공 서비스맨이 아니다. 우리는 주민으로 들어간 것이다. 거주주 주소도 이곳으로 옮겨 관계의 불평등을 피하고자 했다.”

임성연(무소속연구소) “공공예술,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우리가 하는 활동이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시농업, 프리마켓 등을 열고, 지역에서 예술로 힐링하고 교육체험도 만든다. 나아가 주민들이 재미 있는 소비를 원한다는 것도 알았다. (……) 예술공간과 달리 카페를 열었다. 카페나 하자는 말은 너무 힘든 일인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비즈니스를 붙여 살아남는 힘든 도전을 했다.”

박도빈(동네형들) “활동가는 모두 청년들이다. 사회문제를 청년의 감수성으로 해결하려는 고민을 한다. 주거 문제는 살아가는 관점을 바꾸면 되는 것 같다. 협동주택만이 답은 아니다. 집수리 기술을 배우고 인테리어를 예술가들과 함께하고, 집 보고 사는 솔루션을 익히는 작업도 한다.”

정문식(홍우주) “홍대앞 예술가들이 지역문제에 대응하는 무겁고 어려운 미션을 가진 모임이나 조직은 취약했다. (……) 지역운동과 사업 사이에 놓여 있고,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반대하지만 지원사업도 해야 하는 위치에서 고민한다.”

홍주석(어반플레이) “대학에서 지역 프로젝트를 하다 페이퍼 작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졌다. 사업체를 만들고 연남동 반지하를 구해 전시 공간으로 꾸몄다. 사람들 생각보다 안 온다. 땅값이 세 배 올랐다.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취지로 한 것도 아니다. 이 작은 공간이 아무리 의미 있어도 돈을 벌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아카이빙을 하는데 그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고민한다. 공공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후원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더 많은 후원을 하기를 바란다.”

김지영(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거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주택협동조합에 대해 고민하고, 교육 문제는 일반 공교육을 넘어 주민이 교사가 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풀어 내는 등 일상의 작은 일로 서로 지지하며 살아가는 네트워크를 만든다. 주민들이 해 나가는 자영업은 고립감이 있다.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해결한다. 지역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보다 함께할 수 있는 일거리 만들어 낸다.”

신윤선(유쾌한아이디어성수동공장) “만아트만액트’는 1만 개의 예술이 1만 개의 행동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 성수에서 시작했다. 주목받는 예술이 생활 속에 들어갈 때 좋아들 한다. 그런데 이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술은 사회를 좋게 바꾸는 임팩트와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들 한다. 주민과 골목 어디까지 우리 작업이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한다.”

○ 실태와 애로사항

-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으나 그런 언어를 강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공공성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공공간섭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드러낸다.
- 지자체가 추진하는 행정 서비스와 달리 예술가와 문화기획자들의 공공작업은 지역 안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고충을 드러내면서, 주민들의 이해증진, 설득과 공감을 얻을 만한 소통 기술을 고민하고 있다.
- 예술가 및 기획자들 스스로 생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하므로 지역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공지원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김현승(동대문 옥상낙원 DRP) “작품을 팔아 먹고사는 것은 도구화, 대상화되는 느낌이 든다. 예술가는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가. 솔직한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 친구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대문옥상낙원까지 오게 되었다. 한편으로 삶의 공간에서 하는 이런 작업들에 대해 결과물을 요구하면서 작가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 안에서 고민을 풀어 나가는 움직임을 기다려 주면서 그대로 봐 주었으면 한다.”

나기석(구로문화재단) “재단에 들어와 지역 안에서의 역할을 찾아내면서 예술가들을 돕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술가들이 주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이런 관점이 자리 잡는다.”

박도빈(동네형들) “누가 누구를 변화시킨다는 말에 고민이 생겼다. 오래 한다고 변화가 생기는가.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기 힘든데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한다. 우리 스스로나 잘 변화하자. 사회를 혁신하지 말고 우리를 혁신시키자고 중국집에 모여 자장면 먹으면서 포럼을 했다.”

최서영(더페이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 지역출판이다. 출판 자체가 자활이 힘든데 독립출판만 지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버티다가 힘들어 공공기관 자료집과 백서 만드는 작업으로 돈을 벌었다. 아무도 안 읽는 백서 대신 일반인 누구나 읽고 싶은 책으로 거듭나게 시민백서 만들어 주는 일을 했다. 이것으로 돈을 벌어 유지하고 우리 잡지를 만든다.”

조하연(결애) “서울시와 구로구가 탁상공론하는 행정을 보면서 행사할 때 연락을 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놀았다. 구청과 시청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소외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받지 못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동네 일 하고 나왔다.”

임성연(무소속연구소) “잘 되고 있음을 증명해 내려면 우리가 하는 카페가 잘 되어야 한다. 그런데 힘들다. 공공사업으로 공공디자인의 대표 사례가 된다 해도 그 또한 지속가능한 일이 아니다. 주민이 소비자가 되어 우리 것을 소비해야 한다. (……) 우리가 먼저 재미 있고 함께해 주는 예술가들이 행복해져야 한다.”

김꽃(공간413) “문래동에서는 과거 철공소에 예술가들이 개입했다. 공공사업이었다. 하지만 철공소 사장님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예술이 작가들의 인터페이스도 못 만들고, 지역을 소비시키고 문래동 이미지를 알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 좋은 작가와 작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소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지역 프로젝트에 젊은 작가들 소비시키고 정작 자기 작품 만드는 시간은 없어진다. 성수동도 같다. 원탁에서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결국은 예술가들이 마을에 서비스해 달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세금으로 책정된 사업비로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태도로만 나간다. 문제다.”

○ 제도개선 제안사항

- 정부와 행정의 자율성 파괴에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지원 원칙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 민간의 다양한 활동과 빠른 실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요청이 크며, 이에 세제, 인건비와 계약 조건, 평가 방식 등 섬세하고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임성연(무소속연구소) “공공 프로젝트를 하는 대표는 인건비를 받을 수 없다. 시간

투자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조하연(결애) “문화예술의 예산뿐 아니라 성과지표가 바뀌어야 한다.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 일인데 실적을 증명하라 하면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가치가 훼손된다.

예술가들이 페이퍼를 잘 내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가.”

정문식(홍우주)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잉여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문화를 즐긴다. 문화에 무엇이 중요한지 정책이 알아야 한다.”

신윤선(유쾌한아이디어성수동공장) “세가 올라간다. 내 공간을 아직 못 가지고 있다.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 때문임을 인식했다. 작가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제도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본다.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과 같은 안정적인 방법 말이다.”

김꽃(공간413) “지역에서 공간을 확보해야 마음이 안정되고 뭔가 잡히기 시작한다. 제도적으로 집세 문제를 해결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는 완충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건물주가 월세를 안 올리는 대신 세금 혜택을 받게 하면 예술가들이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 기타 건의

- 공공지원 사업에서 단기적인 실적을 제출하면서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데 대한 고충을 드러낸다.
- 생존하기 힘든 여건에서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예술가와 문화기획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사업을 요구하고, 이를 증명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개선을 요청한다.

최서영(더페이퍼)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심사 기준은 수익성과 매출에 대한 기대다.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역시 정량평가로 잴다. 기본적으로 불신의 대상으로 놓고 실적을 감시하는 심사방법이다. 심사는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존재해야 옳다.”

박도빈(동네형들) “지원사업을 할 때 파트너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없다. 컨설팅 역시 도움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사업을 서포트할 때 저마다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사업들이 하향평준화되고 획일화되지 않겠는가.”

4) 사회혁신

○ 사회적 참여 양상

- 자신들이 만든 것이 타인들에게 제공될 때 비로소 예술이 된다는 시각을 드러내며, 아틀리에를 벗어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적극적인 시도를 한다.
- 예술가는 자신의 작업이 제작한 작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소통 그 자체라는 관점을 갖고 있으며, 기업이 역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자신의 사업을 바라본다. 따라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넘어 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것까지 하나의 작업이라는 암묵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 특히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를 위해 예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 내는 식으로 전환된 사고를 하는 예술가 경향이 등장하였다.
-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예술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때문에 예술을 체험교육의 형식이나 나누어 주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중점이 되었다.

우승주(극단 날은 자동차) “시민 아마추어들이 무대에 서도록 돕는다. 성북 지역 내에서 역할을 찾는다. 발달장애아들과 함께 무대에 선다. 매 과정마다 아이들이 직접 뮤지컬을 만들어 간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성을 갖추게 된다.”

장서영(' (작은따옴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이해한 '나 다운 삶'이다. 이것은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삶이자, 이런 삶 자체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영향이 모여 언젠가 '선한 혁명'을 이룰 것이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지닐 것이다.”

신현길(아트브릿지) “예술의 효과를 현란하게 말할 수는 없다. 연극이 가난을 구제하지는 못 한다. 다만 가난을 위로해 준다.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는데 잠시 위안을 주는 고마움이 예술이다.”

심규환(캔파운데이션) “미대 출신 세 사람이 예술가들의 어려움을 목격하고 설립했다. 다산츠789를 먼저 렌트하고, 국내에도 예술가들을 위한 민간 창작공간을 만들어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이 작가들이 소외지역 미술 수업을 해서 봉사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 냈다. (.....) 서울의 빈집, 한옥보전지구 등을 활용하려 여러 가지를 모색 중이다.”

황운기(문화예술협동조합 도모) “춘천에서 연극 기반으로 운영하는 회사다. 극단은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하는 것을 도모했다. 배우보다 기획자, 연출가가 많았으므로, 프로덕션을 만들어 수입을 얻고 일을 순환시키려 했다.”

허미호(위누) “아르코에서 예술이 수단이 된다고 혼난 적 있다. 폐섬유, 폐장난감 등을 재활용하여 환경문제를 돕는 예술가를 길렀다. 원하지 않게 제품디자이너가 되고 사회문제를 풀면서 상품성, 대중성 있는 작가들을 키워 예술계에서 다른 리그를 만들고 싶었다. (.....) 고민하는 자기 주제가 사회주제인 작가들을 찾아내고 대중 가까이에서 마케팅 비즈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작가들을 확보해 나갔다. 대기업이 우리를 찾아와 발굴해 간다.”

○ 동기와 목표

- 이들은 사회혁신,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드러내지만 이는 사회와 거창한 결합이 아니라 개인적 창조 과정으로 도전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 처음부터 사회를 바꾸려는 동기로 출발하거나 거대담론을 드러내기보다,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돕는 문제에서 발단이 되는 경향이 있다.
- 대체로 예술가 혹은 창업가로서 도전하는 과정에서 예술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 예술제작의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발견하며,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결핍의 문제를 푸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게 된다.
- 비교적 구체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면에서 다른 새로운 예술가들과 차이가 난다.
- 기업적, 조직적 노력을 결합시키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커 가는 과정을 전제하고 시간을 둔 도전을 하게 되었다.

장서영(' (작은따옴표)) “세월호가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 지인의 친동생이 세월호 희생자였다. (……) 스물두 살까지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의 삶이 억울했다. 그래서 대학을 때려치우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기 위해 캐리어와 기타 하나만 들고 서울에 올라왔다.”

조재호(베네핏) “지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분노하게 되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어느 곳에는 있는데 그것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 사람들이 망한다고 말했지만 잡지로 시작했고 점차 이런 사실들을 알려 주고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직접 느끼게 되었다.”

윤홍조(마리몬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귀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존귀함은 사람들 누구나 갖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보면서 피해자로만 보는 것 외에 존귀한 존재로 보여 주려 플라워 패턴의 디자인을 만들어 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누리게 해주고자 한다.”

홍성재(000간) “미대를 다니면서 예술가들이 생존력이 없다는 논평을 봤다. 스스로를 취업시키도록 애썼다. 동시에 예술가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여하여 일을 계속할까 고민했다.”

조하연(결애) “애초 사회 변화를 의도하면서 시작하지 않았다. (……) 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해마다 작게 천천히 펼쳐 나가기를 원한다. 주민이 아마추어 예술가로 변화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그림책을 만들고 공정여행 체험과 골목연극을 하는 배우가 되는 작은 성장을 하게 만들고 싶다.”

○ 예술가의 정체성

- 예술가보다는 사회적 기업가, 사회혁신가 혹은 기업가의 동기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인다.
- 예술가로서 사회문제를 풀어낼 고민을 발전시키고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가로 자신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 예술가인 동시에 기업가로 자신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예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정의의 유연성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예술 자체가 변화가 많고 유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순수예술에 대한 관념이 적으며, 예술 자체에 대한 규정에 관심이 없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한다.
- 자신들이 만들어 내는 작품이 사회와 접목되어 확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런 양상은 사회를 개선하는 비즈니스에 결합한 일종의 서비스 혹은 디자인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다.

조재호(베네핏) “리더가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나는 효율적, 즉물적 사고를 하지만 관점과 철학을 견지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가 하는 일의 지평이 커지자 매출이 두 배로 뛰었다. 솔루션이 아니라 철학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을 언어화하는 것이 대표의 역할이다.”

신현길(아트브릿지)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 고궁 뮤지컬 등으로 큰 빛을 쬐다. 창신동으로 들어갔는데 위로가 되었다. 지역 안에서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내가 왜 문화예술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 역사를 콘텐츠로 삼아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 자원을 만들었다. 지역 안에서 전 세대, 전 계층이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대하게 되었다.”

허미호(위누) “대학 동안 스타트업, 벤처동아리 등에 있었고 내 삶에서 사업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예술가가 좋고 그들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예술사업을 택했다. (……) 예술은 환경문제처럼 시장 진입이 어려워 공공의 결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의 기준은 따로 없다. 기존과 다른 작업을 했으면서도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작가를 찾는다.”

황운기(문화예술협동조합 도모) “예술계에 있으면서 생존의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택했다. 연극으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이 불쾌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었다.”

○ 실태와 애로사항

-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크며, 사업으로서 성장과 한계 등 바쁘고 고된 생존의 노력 속에서 일과 삶의 균형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 사회적 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술을 위해 조직화 및 창업을 고민했듯이,

이러한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 조직의 개선과 혁신적인 운영이 늘 이슈로 등장한다.

- 나의 활동의 지속성과 더불어 조직의 지속성, 나아가 지역 안에서 과연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 조직화,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등에서 직원들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 정부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스스로 생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적 모델을 만들어 내는 데 더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도우려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술가들 자신이 자존감을 갖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이야기한다.

조하연(결애) “동시와 동화 쓰는 작가다. 지금 단체와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 버거운 사람이다. 강원도에 가서 푹 쉬고 예술가로서 내 정체성을 찾고 싶다.”
허미호(위누) “막연히 예술을 좋아했고, 회사 시작한 초반에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민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자부담을 들여 주체가 되는 노력을 해왔다. 4대 보험 가입 등 많은 애를 써 왔다. 10년 된 지금 회사가 성장한 만큼 직원들의 삶, 작가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한다.”

우승주(극단 날으는 자동차) “단원들이 회비를 낸다. 유료단원 제도는 회사가 살아남는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 1000개의 극단날자가 생기는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장서영(') (작은따옴표)) “임시적인 자금이 아닌 근본적인 자본이 문제다. 단체를 해 나가는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트레쉬 사업에서 자체 수익을 만들려 애쓰는데, (……) 공공지원에는 인건비 지원이 아예 없다. (……) 결국 연대에 답이 있다.”

신현길(아트브릿지) “지역 안에서도 내가 다 못 한다. 협업과 연대, 통합 등이 필요하다.”

○ 제도 개선 제안사항

- 정부에 대한 건의를 직접적으로 제기하기보다 기업활동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장애와 제약사항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이를 풀어 나가는 전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암시를 제공하였다.
- 현재 예술가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더 많이 예술을 이용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예술계가 지속가능해지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예술가들에 대한 공공지원뿐 아니라 예술적 자원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창업 육성방식이 중요하다는 암시를 제공하였다.

- 기존 순수예술의 지원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예술들을 구분하고, 특히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예술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할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장서영(') (작은따옴표)) “공공지원은 인건비 예산이 없고, 좋은 일을 하는 데도 왜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시키는 데 지친다. 결국은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연대에 답이 있으며, 선두에 선 사람들이 뚜렷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생태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다.”
신현길(아트브릿지) “우리 회사는 대규모 사업으로 외부에서 벌여 지역에서 쓴다. 그런데 비수기에는 버티기 힘들다, 겨울 비수기를 버티기 위해서 정부가 12월이 아닌 2월까지 사업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우승주(극단 날으는 자동차) “종로구, 성북구 등 각 지역에서 마을공동체사업, 복지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중간 지원 조직이 비슷한 사업을 따로 하는데 지역 안에서 이것을 통합 운영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황운기(문화프로덕션 도모) “문화생산자 협동조합에 이어 문화소비자 협동조합도 해 보았다. 공동구매를 쿠팡 등으로 한다. 소비자를 정부에서 키워야 한다. 결국은 문화운동이라 인정하고, 시민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데에 지원하고 길게 봐주어야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

윤홍조(마리몬드) “사회적 기업 중에 잘 버티는 기업들이 나오면 관심이 높아진다. 캐피탈도 펀드 조성하는 정부도, 당기순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팩트가 있다면 사회에 기여 많이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 기타 건의

- 예술대학의 교육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에 나가 적응하고 사업을 하면서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을 교육하는 커리큘럼으로 바뀌어야 한다.
- 이와 더불어, 예술가들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홍성재(000간) “100명 중 99명을 낙오자로 만드는 예술대학은 다시 교육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전시회에 나오는 관행만으로는 나의 성장이 없다. 예술가들끼리는 성장이 없으므로 사회와 만나야 한다. 전시 외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서 협동작업이나 조직화를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다.”

심재환(캔파운데이션) “경영처럼 먹고사는 틀을 가르쳐야 한다. 발표하는 법, 매너 강좌, 자기 프로모션 하는 법 등을 교육으로 도와야 한다.”

5) 사회행동

○ 사회적 참여 양상

- 예술가와 예술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예술과 달리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예술작품은 예술가들이 사회문제, 정치문제에 뛰어드는 행동이라고 간주한다.
- 예술가는 예술작품보다는 사회를 위한 파견, 사회를 위한 행동에서 비판과 실천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본다.
- 예술의 사회행동, 사회적 예술행동은 현장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므로, 스콧(점거예술), 전시공연을 통한 현장발언, 파견예술 등 현장예술이라고 본다.

김근(작가선언6.9. 시인) “30여 명 정도 한국작가회의 소속으로 모더니즘 계열 사람들이 모였다. 열심히 발언하던 사람들도 아니다. 2015년 시단에서 미래파로 규정되는 일군이 등장했고 문단의 이슈가 되었다. 사람들이 때에 따라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거나 한다. 사조와 이념을 넘어서었다. 사람들 만나 보니 나와 다르지 않구나 생각했다.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이나 하는 80년대식 구분 짓기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새 형식의 예술행동이 형성된 것이다.”

박은선(리슨투더시티, 작가) “순수미술을 전공했다. 지금은 도시공학을 공부 중이다. 도시재생과 예술에 대한 글을 계속 썼다. 기존 도시 연구자들에게는 예술이 주류가 아니었는데 점차 저비용 고효율 도구가 되었다. 예술가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했다.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 고마운 일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산 값으로 쓰는 것이 문제다. 사회에서 예술의 기능은 변하지 않았고 예술의 사회적 개입에 대해 모른다. 고마워하지 않고 젠트리 땅값 올리는 주범으로만 인식한다.”

노순택(416기억저장소, 사진작가) “사회가 예술에 관심이 없지는 않다. 다만 저비용 고효과를 내는 관심으로 예술가를 수단, 효용으로 생각하니 문제다. 예술은 상품성 만큼이나 권력을 포장하고 장식하는 면에서 이용가치가 있었다. 문화예술이 품고 있는 문제의식은 중요하다. 통제불가능성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예술이 가치를 갖는다. 불가능을 넘어 무엇인가를 밝혀 내려는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블랙리스트가 나왔다.”

유채림(두리반51+, 소설가) “두리반의 강제철거 농성 과정이 일반농성과 달랐다. 흥대 뮤지션들이 찾아왔고, 프레시안과 오마이뉴스 릴레이 기고를 하면서 알려지고, 다큐감독들이 영화상영을 해주면서 문화운동처럼 되었다. 수많은 예술가들은 연대보다 자기예술에 충실히 이행했다. 두리반 공연을 반복하여 성장한 뮤지션들이 나왔고, 다큐 상영회 후 용기를 갖게 된 감독들도 나왔다. 자발적이고 즐거워서, 그리고 절박하고 절실해서 했던 것이다. 두리반은 내 가족이 겪은

문제였다. 예술이 사회적 실천을 하는 게 아니다.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다.” 송상훈(청년예술가네트워크) “대학 시절부터 예술 전공보다 사회운동에 입각해서 활동해 왔다. 학생회와 일반 학생 사이에 정서 괴리가 있다. 사회문제와 함께 지금 우리 세대가 힘을 모으는 문제를 고민했다. 사회의제로서 예술행동을 하고 최근 서대문구에서 지역기반 청년활동을 통해 청년예술가들과 연대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다. 청년 예술가들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므로, 당사자로서 생각해야 할 것을 고민했다. 네트워킹 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예술가로서, 시민으로서 권리 문제로 모였다. 소수의 관심층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관여하는 장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 동기와 목표

- 과거 창작 과정에서 온 경험에 의하면, 구체적인 의식화 과정을 겪었던, 예술의 가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라는 가치관이 행동의 동기가 되었다.
- 일반 사회와 현장을 나누는 이분법 구도를 지양하고, 제도, 정권, 정부를 비롯한 사회는 곧 예술가들의 현장이라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다.
- 파견예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1980년대 노동운동 때와 같은 현장조직과 만나는 현실참여적 예술로 자신들을 설정한다.
- 1980년대 문예운동이나 민중예술에 대한 존중이 내면에 있으나, 도그마로서 문예운동의 계보에 속한다거나, 그러한 민중예술의 범주 안에서 자신들이 조명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가지고 있다.
- 획일적인 연대와 공동체 안에서 순응으로 이끌어졌던 1980년대 문예운동과 민중예술의 방식을 받아들이기보다 현장예술, 파견예술을 실천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유대와 연대를 통한 활동을 지지하고, 느슨한 연대 안에서 공감대를 갖기를 바란다.

송상훈(청년예술가네트워크) “내 창작에서 특별히 사회 의제가 중심은 아니다. 우리 단체의 건물이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겪으면서 도시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의식이 확장되고 사회 의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어떻게 하면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촛불집회를 낫설어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작품과 연결시키고, 그런 풍토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업에 사회적 이슈 담아 내는 것뿐 아니라 여러 작가들이 함께하는 작업이 가능할까. 또한 좀 더 경험 없는 작가들을 연결하여 이런 경험을 익히게 할까 고민했다.”

성효숙(콜트콜텍 문화행동, 작가) “인천노조운동의 충격으로 내가 그리고 있었던 세상이 다 허울이라 여겼다. 모던 세상을 한꺼번에 알았다. 내가 친구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을 때 더 나아가 사람들의 활동이 있었구나 생각했다. 조금씩 현실을 보는 눈이 뜨이면서 야학에

들어가고, 노동자들 실태를 보며 노동미술을 했다. 그림을 잘 그리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을 알고 싶어서 들어갔고, 발을 못 뺐다.”

신유아(문화연대, 작가) “새로운 예술행동의 계기가 촉발되었다. 대추리와 용산참사, 강정마을 등 예술가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자기 작업 외에도 사람들이 현장으로 나오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매개자 역할을 했다. 일반인, 예술가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힘을 받는 여건을 만들어 냈다.”

전미영(용산참사 파견미술, 작가) “의미는 예술가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 내가 예술가라 느끼면서 삶이 바뀌듯, 현장에서 행동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의미가 바뀐다. 그게 중요하다.”

박은선(리슨투더시티, 작가) “주민 공동체 문제, 땅의 권력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철거가 일어나는 등 분쟁 현장이 창작의 계기가 되지 그 반대가 아니다. 예술과 사회를 분리시키려는 뒤돌린 인식에서 온 말이다. 순수예술이 있을 것 같은 판타지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사회적 개입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예술을 규정하면 놓치는 것이 있다. 예술과 비예술을 나누면 놓친다. 우리는 비예술의 그 마지막선에 있다. 예술이 온전한 시민교양의 함양인 양 장려하는 것이 문제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고민이 현실에 있다.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예술 형식에서 벗어나기를 고민하는 것이 예술이다.”

김근(작가선언6.9. 시인) “80년대 운동에 대한 부채의식도 가졌다. 내 문학도 현실과 거리가 멀지 않다. 즉물적 현실에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곧바로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도 말이다.”

○ 예술가의 정체성

- 예술에 대한 개념에서, 올바른 예술은 상상력과 직관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비판을 하고, 현실에 참여하여 사회를 바꾸도록 실천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 다극화된 사회 문제에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지적인 존재로, 사회비평에 대한 인식이 큰 비판적 지식인으로 자신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 사회와 투쟁이 벌어지는 현장은 예술가들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전제한다.
- 파견예술가들은 어느 정도 사회의 고정된 가치들에 회의를 보이고 아나키즘 경향을 드러내며, 강정마을에 파견 대신 거주 방식을 택하는 등 예술가들의 공동체적 실험 경향을 보여 주기도 한다.
- 예술가들 자신은 현장에서 소외된 존재들을 위해 싸우지만, 정작 예술가들 자신은 이들 노동자, 주민 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을 도와주고 문화행사를 해 주는 잉여의 존재로 여겨지는 소외감을 호소한다.

신유아(문화연대, 작가) “이전에는 소외지역 찾아다니는 사업, 인디뮤지션

공연 등을 좇아다녔다. 문화연대는 관심 있는 쪽을 따라다니고 스스로 할 일을 찾도록 한다. 문화제 기획을 하다 마을 주민들과 문화행동을 기획하고. (……) 광우병춌볼집회 이후 농성장 연대에 관심을 갖고 현장 활동을 하게 되었다. (……) 마치 SNS처럼 연결되어 다른 곳 소식이 들려오면 가게 된다.”

이경희(보리출판사, 평화발자국) “노동운동, 전교조 기금을 모으기 위해 책을 만들었다. 상업출판만이 아니라 어린이와 교사들에게 좋은 책을 만든다. 교육을 살리는 책이다. 2007년 이후 시리즈로 나오는 ‘평화발자국’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사회 문제를 쉽게 전달한다. 기록물 내어 줄 출판사를 찾는데, 윤구병 선생님이 책임진다고 하면서 내게 되었다.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 출판사 중심이 아니라 이야기하려는 예술가, 작가들 중심으로 그림과 말을 만들어 간다.”

전미영(용산참사 파견미술, 작가)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다. 현장 있을 때 뛰어나가는 사람. 작가는 창조자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작가다. 그걸 해낼 수 있는 작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매번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전위부대. (……)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작가다. 작가는 새, 화분의 꽃 같은 존재다. 쓸데없지만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은 이미 작가였던 것이다. 이런 말걸기를 하고 그것을 작업으로 끌어낸다.”

박은선(리슨투더시티, 작가) “예술가는 사회에서 무시받는다. 철거현장에서도 꺼지라 한다. 전문성이라는 것도 환상이다. 그래서 공부하러 갔다. 연구 논문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미지를 만드는 일보다는 풀지 않고 소통하는 법을 알아야 했다. 더 싸울 수 있을까. 공무원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는 문서화하고 기록해야 한다. 예술가의 매개적 역할이 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보편적 경험이 되게끔 하는 일이다.”

유채림(두리반51+, 소설가) “89년 등단 후 만연체 미문 위주의 유미주의적 소설을 썼으나 1년반 두리반 농성하면서 단문에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당사자로서 면면히 흐르는 절박감이 모든 것을 바꾸게 했다. 오마이뉴스에서 우리에게 대한 악성 댓글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꼈다. 어떻게 써야 긍정적 댓글만 달리거나 댓글을 못 달게 할까 고민했다. 사막의 우물 두리반, 아내의 우물 두리반이라는 글을 썼다. 그러자 댓글이 안 달렸다. 용산철거처럼 선명했다. 나의 예술이 즐거워야 하고 절박해야 자연스레 삶에 끌어들일 수 있다. 의도적으로 하면 무너지고 힘들게 된다. 그런 점에서 두리반 투쟁은 나에게 예술이 아니었다. 아주 절실했다. 내 문체를 바꿔 즉자적으로 느끼도록 해야 했다. 연대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 실태와 애로사항

- 사회 변화에 문제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선구자로서 현장 파견을 통한 문제제기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스스로는 세상 속에서 삶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 빠르게 다변화하는 예술의 기능 변화를 따라가는 데 대한 불안감이나 다양한 예술을 수용하는 데 있어 난점을 갖고 있다고 암시한다.
- 예술가들 자신을 소외된 계층, 집단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예를 들어 일용직노동자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예술가 문제를 제기하였다.

성효숙(골트콜텍 문화행동, 작가) “노동운동은 노동자들 스스로 하는 시대가 되어 다시 현장보다 그림 작업을 하게 되었다. 치유에 대해 관심을 가져 공부하면서 어린 시절 상처를 발견했다. 1980년대 대외적 투쟁할 때는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절대 부족했다. 공부하면서 내 관심은 심리적 부분을 다룬다는 것을 알았다. 사회적인 문제들이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용산참사에서 개인의 치유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심리적 지지, 사회적 지지로서 예술적 치유를 택하게 되었다.”

신유아(문화연대, 작가) “그전과 달리 용산참사 현장은 그들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작가들이 스스로 가서 일했다. 이때 현장 활동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조직의 힘보다는 작가들 개개인이 현장에 대해 어떤 계기를 갖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한편으로 예술가는 현장소통 네트워크가 없고 현장은 작가를 알 수가 없다. 알아주지 않는다.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철거민보다 현장에 나온 예술가들이 더 열악하다는 것을 깨달아 갔다.”

이경희(보리출판사, 평화발자국) “돈이 가장 힘들었다. 책의 인세를 주어도 작가들의 생활문제가 어려워진다.”

노순택(416기억저장소, 사진작가) “예술의 사회적 개입이라는 말 대신 다른 표현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예술가라는 꼬리표를 사람들이 단다. 사회운동을 모색한 것으로 오해받아 개입이라는 표현으로 꼬리표를 다는 것이다. (……) 파견예술가들이 만나는 현장에서는 좋게 되면 교감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상한 것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있다.”

김근(작가선언6.9. 시인)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으로 일할 때 4대강 낭독회의 시인을 보내는 등의 일을 했다. 사회 이슈에 예술이 참여할 때 정치현실이 작가들에게 억압이 되기도 한다. 시민운동단체도 우리를 동원 수단으로 본다. 시민단체도 자행하는 예술의 도구화를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되도록 시민운동 연대활동보다는 작가회의 고유의 일을 찾으려 고민해 왔다. 4대강에 대한 시를 직접 만들지 말고 시를 가져가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라고 시인들에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문학언어가 현장언어와 결합하도록 해야 한다. 좋은 문학은 시인이 자기 언어를 쓸 때 나온다. 시인의 현실 참여와 시민의 현실 참여가 화해되어 나오는 것이다. 좋은 작품은 그 현장을 돕는 언어가 아니라 그 현장을 넘어서는 언어다.”

○ 제도개선 제안사항

- 정부의 개입, 정부의 지원이 현장예술, 파견예술가들에게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NGO로서 비정부민간단체의 행동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 공공지원을 통해 그동안 파견예술, 현장예술, 예술행동이 보여 준 실천들을 아카이빙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 대체로 이런 활동들은 현장에서 산화되거나, 발화되어 버리므로 이를 기록하고 보고할 필요성을 스스로 발견해 공공영역에 제안하기도 한다.

유채림(두리반51+, 소설가) “관에 대한 불신이 크다. 행정 시스템이 문제다.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공공기관인 서울문화재단 역시 이런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는 있지만, 과연 실행에 옮겨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까는 미지수다.”

성효숙(골트콜텍 문화행동, 작가) “경제적인 것이 가장 힘들다. 절실하다.”
송상훈(청년예술가네트워크) “지역문화 프로젝트를 주로 한다. 서대문구 중심이다. 지역청년 생태계 만드는 쪽으로 일한다. 공공에서 나온 지역사업을 어떻게든 활용하여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 한다. 서대문 일자리 창출을 공유원탁 모델로 삼아 서대문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 청년의 현실을 바꾸는 투쟁이다. 하지만 대화가 안 되는 행정과는 일하지 않는 것이 맞다.”

신유아(문화연대, 작가) “농성장 현장에서 노조는 최저생계비 지원이 나오지만 파견 나온 예술가는 재료 살 돈도 없다. 작가가 노조보다 더 힘들다. 예술가에게 비용처리를 안 해주고 재능기부를 요청하는 것이 힘들다. 예술가도 노동자다. 이러한 현장의 예술작업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느낀다. (……) 하지만 현장의 문화행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와 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므로 현장의 작업은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 하지만 기록과 보관은 공공이 알아야 할 가치를 갖고 있으며, 지원해 남겨야 한다.”

○ 기타 건의

- 예술가 개인과 사회적 개인을 동일시하지만, 투신하다 보면 연대의식을 갖고 실천해 온 삶 외에 개인의 생존, 사회 내 지속가능한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 사회에 대한 봉사에도 불구하고 예술가 자신의 치유는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소통과 대화의 장을 갖기 원한다.

성효숙(콜트콜텍 문화행동, 작가)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는 서로 겹치는 면이 있고 연결된다. 서로 공감할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풀이 있어야 한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제안한다.”

성효숙(콜트콜텍 문화행동, 작가) “투쟁하는 현장의 목표와 나 자신의 목표가 따로 놀 때 힘들다. 광장에 나가는 것과 밀실에서 내면 작업하는 것 사이의 안배가 힘들다. (……) 예술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장이 필요하다.”

3. 특징들

1) 공통점들

이러한 양상들 이면에 작용하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다

○ 예술가들의 인식 변화

- 예술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대해 언급할 때, 순수예술과 참여예술의 구분이 무너지고, 예술과 비예술의 구분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다.
- 예술의 사회적 실천, 사회적 예술 등과 같은 어휘를 쓰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거부감을 드러내지만, 예술가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상정하면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명료하게 드러낸다.

○ 제도 변화의 영향들

- 전반적으로 지원제도와 정책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메커니즘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공공지원에 연계되어 있어 지원행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으며, 공무원과 정부의 지원 수행 절차에 대해 비판적이다.
- 전체적으로 원탁 토론 참여자들은 다년지원제도, 회계연도의 한계, 겨울철 사업부재, 지속불가능한 인건비, 평가기준의 원시성 등 자신이 지원사업을 통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었다.

○ 사회적 환경 변화

-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의 다변화로 인해 예술가들의 활동 현상이 다양화되고, 예술이 사회와 만나는 양상들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 예술가들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지원 없이는 지속가능한 활동이 힘들다는 우려의 언급과 함께, 공공성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지원과 지원 폭 확대에 대한 언급이 공존한다.
- 공공영역 지원 외에는 창작으로 판매를 통해 1퍼센트만 살아남는 현실에서,

공공영역의 예술가 활동이 다각화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시범적인 사례가 되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지원이 예술의 사회적 실천 양상을 견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예술가 삶의 변화

- 공공성에 기여하기를 요청하는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예술의 사회적 실천이 다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원탁에서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실천 자체에 대한 언급보다 정부와의 파트너십 안에서 공공성 있는 활동을 하는 존재로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상황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며, 이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확대되고 다양화된 공공 지원제도의 견인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 사회적 실천을 하는 예술가들로서 원탁 참여자들은 공공성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학습해 왔으며, 동시에 공공지원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공지원을 벗어난 생존유지 문제에 고민하며 도전하고 있다.

2) 예술가의 사회적 문제의식

○ 예술에 대한 시대적 인식

- 수년 동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예술 개념이나 기능의 변화를 인정하고, 언어의 사용을 달리하더라도 사회 내 예술보급, 예술의 사회적 봉사 등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다양한 장르 간 통합뿐 아니라 이질적인 영역 간의 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를 오히려 가능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 그 가운데 지역민의 생활에 실용적인 예술,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는 예술 등의 실천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예술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

- 시대적 문제 틀 안에서 인식할 때 대체로 예술은 공공성을 담고 있거나 예술가들이 요구받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공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그러한 공공성은 예술가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의식을 갖고 하는 작업에서 드러나며, 예술가 특유의 다른 시선으로 현실을 보는 비판적인 작업 안에서 사람들이 새롭게 느끼고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 이처럼 예술은 사회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식시키는 가치 있는 행동과 작업으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 예술가 존재에 대한 자리매김

- 예술의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한편, 예술가 존재의 특별함에 대한 인식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 이는 기업가, 메이커를 겸하는 참여자보다 문화기획자와 공공예술가 역할을 동시에

- 수행하거나 예술가와 교육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자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 사회적 문제를 풀거나 공익성을 담은 예술을 이야기할 때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작업하는 특별한 존재로서 예술가의 작업이라는 인식을 유지하지만, 행정이 이러한 점을 수용하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특별한 작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 정부뿐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힘들게 봉사하면서 생존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 사회적 예술 일반에 대한 인상

- 다변화되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예술가들의 사회적 참여 역시 당연시하지만, 사회적 참여 활동을 가리키는 어휘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 현재 벌이고 있는 예술활동이 사회적 존재가치가 있으나 지속가능하도록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

○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용어들 선택

- 예술의 규정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양성에 대해 관대하고, ‘사회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수용적이지만, 개입, 매개, 촉매, 관여, 실천 등 행동을 수반하는 단어를 제시할 때 민감하게 어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 원탁 참여자들이 예술의 사회적 실천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 기존 현실 참여적 예술개념을 넘어서고 예술의 사회행동, 예술행동, 행동주의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인 범위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 예술적 사회참여, 예술가들의 사회참여가 확산되었음을 기정사실화하는 인식이 있다.
- 사회적 ‘개입’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어감을 주는 것으로 여겨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현실참여라든지 사회적 예술은 지나치게 비판적인 어감으로 보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일부 사회행동 원탁 참여자들을 제외하고는, 참여예술은 양가주망을 뜻하는 전통적인 리얼리즘, 현실참여예술, 민중미학의 맥락으로 이해하여 현재 자신들의 예술활동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많다.
- 예술과 사회의 연계, 예술의 사회적 관여 등 모호한 표현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지만, 예술과 사회의 만남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드러내는 표현을 지지하거나, 예술과 사회의 동행 등 저항적인 어감을 없앤 완화되고 풍요로운 단어를 선택한다.

○ 예술의 개념 규정과 속성

- 기존 참여예술과 다른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의 사회적 참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등장하였으나, 이를 특별히 하나로 개념으로 범주화하지 않으며 하나로 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 예술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사회 내적 기능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원탁의 발언들을 볼 때 비판미학에서 제시하는 예술의 외재적 사회개입 활동과 작품 내재적 사회비판과 같은 이원적 구분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예술가의 사회적 실천행동과 작품을 통한 사회적 성찰의 제공을 미학적 관점에서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예술이 일상화되고 생활문화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예술가들의 작업이 사회적으로 접목되는 현상이 많아졌으며, 이러한 예술가 활동이 사회적으로 파급하여 대중화되었다.
- 특히 공공영역에서 공동체예술, 문화예술 교육, 주민문화, 시민예술가, 생활문화동호회, 지역문화 등 정책지원 영역을 확장하면서 제도적 파급의 영향을 받았다.
- 사회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 지역사회 안에서 소통, 시민의 삶 등에 연관된 사업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이는 문화예술이 관련된 공공정책과 지원사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예술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인식

- 원탁 참여자들은 순수예술과 사회참여 예술이라는 구분법을 쓰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구분을 전제로 한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구분, 진지한 예술과 상업예술의 구분, 기초예술과 응용예술 같은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경향이 있다.
- 예술의 본성이 존재한다는 데 대해 허상이라 보거나 예술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대해 부정적이며, 예술이 일종의 사회적 규약으로서 제도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활동과 현장에 따라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 대체로 예술은 이론적으로 단일하게 정의되기보다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정의가 있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사회적 기능이 다양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 예술과 비예술의 구분에 대해 관대하며, 이는 장르를 넘어서는 탈경계 융합 작업, 통합예술의 시도들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 원탁 참여자들은 대체로 예술과 사회적 예술의 의식적인 구분 없이도 예술이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바람직하게 보고 있으며, 오히려 연구자들이 예술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논의할 때 비사회적 예술이 가능한지 반문하기도 하였다.

3) 예술가의 행동 변화

○ 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예술가 활동의 변화들

- 예술가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예술이 사회 안으로 가시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예술가들은 사회와 만나는 행동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 예술의 사회적 참여와 시민사회 개입 양상들이 마스크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술가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시민들과 지역 안에서 직접 만나는 작고 다양한 실험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 이처럼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증가로 인해 예술의 사회적 영향 증대 가능성이 커졌다.
- 이와 같이 부상하는 새로운 예술은 2000년대 초반의 새로운 예술과 다르므로, 기존의 다원예술, 멀티미디어와 융합하는 실험예술, 장르 간 융합과 탈장르 복합예술 같은 시도들을 넘어서서 지역, 시민의 생활, 사회문제와 조금 더 분명히 관계 맺고 있다.
- 예술 분야와 장르 간 통합예술이 아니라 지역, 사회, 복지, 교육, 사회봉사, 생태환경 등 다른 영역에서 이종간 융합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사회문제를 다루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예술가 개인의 위치에 따른 행동 변화

- 예술지원이 다양화되고 사회와 만나는 활동들은 많아졌으나, 공공영역에서 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간주한다.
- 사회 내에서 예술적 활동의 개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러한 진입에 대한 인정이 안 일어나는 간극이 발생하고 있으며, 예술의 가치와 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 기존의 순수창작 활동을 벗어나 사회적 활동을 시도하는 것을 예술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존재하며, 사회적 인정을 위해 지원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 예술가들이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 외에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술가들 사이에 동질감과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갖고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 정서적 안정과 함께 힘든 노동으로 인한 '일-생활' 사이의 균형(워크-라이프 밸런스) 문제를 호소하거나 지침(번아웃) 등을 겪기도 한다.
- 예술가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지배적이며, 이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유지에 대한 고민이다. 따라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한계에 사회적 인정에 대한 결핍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공공사업의 경우, 자신의 순수창작물이 될 수 없어 더욱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특히 공공예술사업, 지역문화 활동, 사회적 기업 등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 경영의 지속가능성 및 조직화에 대한 고민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사업체 혹은 민간단체, 공동체, 마을사업 주관조직 등 지원사업들이 조직을 갖추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를 요청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사회 내 예술가 역할 변화에 따른 활동 변화

- 예술가들은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며, 사회적으로 커지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는 요구를 드러내는 것은 생존과 생계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원탁 참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표명하는 바,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다는 발언은 사회 전반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보다 상대적으로 정부와 행정지원 차원의 문제제기가 많다.
- 예술지원을 하는 행정지원이 비효율적이며,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보다는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공급자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 중에서는, 예술가 활동의 노고와 노동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공영역에서 재능기부를 강요하거나 지원받은 예술가들의 착취를 발생시킨다는 관점이 우세하다. 이처럼 공공행정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처를 개인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무시, 거부, 직접적 문제제기를 하는 등 순응적이지 않은 면을 드러냈음을 피력하고 있다.
- 공공지원을 통한 예술활동과 공공지원 없는 독립적인 창작활동 사이에 갈등이 있으며, 원탁 참여자들이 지속가능성과 민간 자생력을 이야기할 때는 공공영역을 벗어나 철저한 시장 상황에서 생존하는 문제보다는 공공영역에서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가운데 자생력을 갖고 유지되는 상황을 요청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 일반적으로 원탁 참여자들은 공공지원을 받아 예술활동을 전개할 때 공공성을 갖는 것으로 전제하는 듯 발언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지원받아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예술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곧바로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에 회의를 드러냈다.
- 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한 반성 중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 공공사업을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공익적 사명감을 갖거나, 공익적인 효과를 잘 드러내지 못하므로 독자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암시가 있었다.
- 행정지원에 대한 비판 중에는 공공사업은 공익적이지도 못하고 지원받는 예술가들 역시 비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인해 특별히 지속가능한 상황에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 대체로 공공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의 이야기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는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일부 원탁 참여자들은 행정과 예술가들이 구체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시도보다 공익성을 표방하는 공공사업으로 전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공공지원 사업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었다.
 - 예술가로서 사회적 참여활동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적으나,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공공행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은 일치하며, 이는 관료제적 비효율성과 사업의 공익적 효과 부족 두 가지로 정리된다.
- 사회적 기대에 따른 예술가들의 행동 변화
- 사회를 개선하는 예술의 실천에 대한 기대 역시 포괄적으로 넓어졌으며, 현실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참여예술 외에도 예술이 사회적 임팩트를 내고 시민들을 위한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 이처럼 예술의 사회행동 같은 정치사회적 실천의 접근 외에도 예술이 사회적 개선을 하는 효용을 드러낸다고 보는 실용적 접근이 늘면서, 예술의 사회공헌 기능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예술가의 생존에 피해를 주는 행정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요구를 제외한다면 예술의 사회공헌 노력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생존이나 순수한 창작지원에 병행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술활동이 가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술지원이 증가하기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시민대상의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소외자에 대한 문화복지,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공동체 지원,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상권 활성화 등 영역에서 사회를 개선하는 예술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서비스로서 실천하는 문제 해결 기능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대체로 이런 예술가 활동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 총 10회의 원탁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나온 용어 중에는 협치, 주민 주도, 예술가 및 기획자 간 협력, 사회적 기여와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서비스 등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언어가 다수 등장하므로, 예술가의 활동이 지역문화를 넘어 사회적 경제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주요 추세와 동향 정리

1)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황

○ 정서

- 예술가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존중으로, 이들 간에 뚜렷하게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이들에게 시장경쟁 및 이를 통한 생존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이지는 않은 한편 공공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관심도 높다.
- 하지만 사회적 차원의 사명이나 공적 역할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자의식을 갖고 있거나 이를 드러내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개념

- 순수예술과 사회적 참여를 하는 예술 사이의 이분법 구도 안에서 행동하지 않지만 기존에 아카데미에서 배운 순수예술을 넘어서는 사회참여를 분별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순수예술이라는 기성 관념의 문제점을 계기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이분법적 기성 인식의 지도를 이용하여 이들과 대화를 나누려 시도하는 연구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 활동에 대해 통일적인 정의를 내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이런 일원화된 규정에 대해 큰 거부감을 드러낸다.
- 유일하게 공통적인 예술에 대한 관념이라면, 스튜디오와 아틀리에, 공연장과 미술관을 넘어 실천의 장(현장)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창조행위라는 점뿐이었다.

○ 현장

- 이들의 현장은 대체로 기존 예술창작 공간을 넘어서고 제도적인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넘어서, 지역문화, 생활 공동체, 교육, 시민들의 연대, 사회문제 등을 다루면서 문화기획자의 역할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 사회참여라든지 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실천에 대한 자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회적 개입 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현장 프로젝트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고민을 발전시킨 산물이며, 그 일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대상이 있을뿐더러, 대부분의 경우 바로 그 구체적인 대상과 관계 맺으며 그들을 위한, 그들과 함께하는 창조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과정을 설정해 나가는 패턴을 취한다.

○ 제도

- 예술가들은 순수예술을 넘어 사회적 참여를 한다는 데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나

오히려 예술의 개념을 규정하려는 데 대한 회의를 드러내며, 특히 예술의 사회적 개념이라는 개념으로 자신들을 규정화하는 데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활동이라든지 예술의 사회적 실천 등으로 용어 선택(워딩)을 바꾼다 하더라도, 자신의 활동이 규정되어 틀 지어질 때 오는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 밑에는 규격화에 대한 불편함이라기보다 관이 개입하여 이러한 이론을 창출하고 지원제도를 창출하려는 데 대한 불편함이 깔려 있다.
-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등 제도적 언어를 쓰면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지원 구조의 맹점을 짚는 역량이 있으며, 관이 하는 일이나 현장을 모르는 전문가가 하는 일에 대해 냉소적인 경향이 있다. 또한 암묵적으로 예술가인 자신들과 관(정부 행정기관)의 대치항 관계를 전제하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건의

- 이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려 할 때 지원제도의 불합리성을 이야기하기보다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스스로를 당연히 생존할 가치가 있는 주체로 의식하고 있으며, 이를테면 초소형 기업가처럼 프리랜서, 불안한 위치의 프로젝트 예술가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들의 현장에 대한 자존감을 얻기 원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를 위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장을 필요로 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반영하기를 원한다.
- 공적으로 생존을 지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자신을 설정하는 경우,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인건비를 정할 수 있기를 원하였으며, 그 이면에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아니라 몰이해에서 오는 모멸감, 명예와 자존감 유지, 존중과 배려 등의 정서가 놓여 있는 듯 보인다.

2) 유형들

예술의 사회적 활동 동향 중 예술의 사회적 실천, 사회적 참여 경향들을 유형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존 다섯 가지 영역 구분은 새로운 예술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와 영향, 즉 임팩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사회적 모순 등 현안에 따라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행동을 촉구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술(사회행동으로서 예술).
- 사회적 결핍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서비스로서 기능하는 예술(사회혁신으로서 예술).
- 사회 안에서 개인의 정신적 성장과 정서적 변화를 돕는 예술(교육과 치유로서 예술).

- 일상 속 제작을 통해 개인의 발전과 실용적 기술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속의 풍요를 촉진하는 예술(일상창작으로서 예술).

-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함께 연대를 만들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예술(지역활동으로서 예술).

- 이를 바탕으로, 예술가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혜택을 주는 방식, 즉 베네핏을 창출하려 하는 양식들은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 예술이 사회의 특정 영역에 주는 혜택: 특정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사회적 결핍을 해소하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서비스로서 예술(예술이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촉구하도록 돕는 사회운동 기능을 갖는 예술이 여기 포함됨)
- 예술이 개인의 정서에 주는 혜택: 개인의 정서적인 문제를 풀어주고, 정신적인 풍요를 비롯하여 생애 전체에서 삶의 질 문제를 개선해 주는 자원으로서 예술.
- 예술이 현대인의 생활에 주는 혜택: 생활문화 속 동아리와 동호회를 통해 취미와 특기를 발전시킨다든지,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실용적인 창작을 통해 개인 스스로 일상의 변화와 성장을 만들도록 돕는 예술.
- 예술이 구체적인 지역사회에 주는 혜택: 주민연대, 공동체, 지역주민의 삶의 질 등 실질적인 지역 문제를 풀어내고, 공동체를 통해 예술을 누리면서 주민 연대를 통해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예술.

- 한편 예술의 사회적 참여와 예술가들의 실천 형태들은 10회의 원탁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양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예술적 표현을 통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는 캠페인으로서 기능하는 예술활동, 시민들의 비판적 성찰과 더불어 실천에 참여하기를 알리고 촉구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예술 작업.
- 한 사회의 특정한 과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결핍을 혁신하며 소외된 집단을 돕는,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적인 사업에 자원 및 솔루션으로 활용되는 예술.
- 공공의 사회보장 제도와 연계되거나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사회적 경제의 해법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예술.
- 개인의 정서적 문제를 치유하고 정신적 발달을 도와 내적 성장을 일어나게 만들고, 생활 공동체나 주민 공동체 속에서 놀이, 교육, 체험학습, 공동창작, 동아리 활동, 치유 등의 방식으로 개인의 안정과 치유를 돕는 예술 서비스.
- 생활 속 창작, 주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작업 및 취미 동아리 활동 등 정서적 발달을 넘어 취향을 발전시키고 교감과 유대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시민 예술가가 되거나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등 일상 속 풍요를

만들도록 돕는 예술활동.

- 일상생활 속 창조 체험, 기술 개발을 통한 창작 등 지적 호기심을 풀고 기술과 제조를 포함하여 개인의 성장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직업 모색 등을 체험하게 하고, 취미를 특기로 발전시키는 실용적인 예술활동과 제작 판매 등을 통해 생활에 활로를 마련하는 실생활 응용예술.
- 주민생활 안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결속을 도모한다든지 지역사회에서 예술향유를 통해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공동의 문화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으로서 삶의 풍요를 누리게 하는 예술 서비스.
- 주민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공동창작을 경험하고 동호회 활동을 전개하는 공동체 예술을 비롯하여, 시민들 옆에서 함께 작업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예술 등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체험을 통해 다 함께 예술 향유 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적 풍토를 만들어 가는 제반이 되는 시민예술.
- 시민들 혹은 수용자들과 연관된 예술가들의 행동 패턴 면에서, 사회적 예술의 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시민을 위한 서비스로서 예술: 사회에 진입하여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참여를 통해 예술 향수, 지역문화 향유 등을 증진하는 서비스로서 예술.
 - 시민을 촉진자 및 매개자로 기르는 예술: 마을만들기, 지역 활성화, 도시재생 등 시민들을 홍보, 교육 등에서 주체적인 봉사자, 활동가로 길러 내고 예술가와 공동작업을 통해 공동기획자로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들.
 - 시민들을 주도적인 참여자로 체험하게 하는 예술: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내도록 이끄는 공동체 창작체험의 예술, 예술가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작업으로서 이루어지는 예술, 그런 방식을 지향하는 문화복지와 예술교육 프로그램들.
 - 시민이 창조자가 되도록 돕는 예술: 문화예술 교육, 생활문화 동호회, 생활예술동아리, 공동체 예술, 공공예술 등 시민 개인이 창조자가 되도록 돕는 예술 프로그램들.
- 사회적 예술 실천에서 예술가들의 정체성이 융합되는 모델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나타난다.
 - 지역주민인 동시에 예술가, 기획자
 - 사회혁신가 혹은 사회적 기업가인 동시에 예술가, 기획자
 - 창업가 혹은 조직 및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인 동시에 예술가, 기획자
 - 공공 예술가인 동시에 지역 문화기획자
 - 예술가인 동시에 교육 전문가, 상담치유 전문가
 - 개발자, 기술자, 디자이너인 동시에 예술가

— 예술가인 동시에 사회운동가, 비판적 통찰력을 가진 지식인

3) 원탁을 통해 파악하는 주요한 추세

○ 부상하는 현상들

- 기존과 달라진 현상으로서 지역문화, 생활문화에서 초점을 이동하여 주민 공동체, 시민 네트워크 등을 배경으로 예술 프로젝트가 사회를 개선하는 영향력을 취하는 방향을 취하는 데 관심 및 주목을 드러내고 있다.
- 이는 예술의 창의성과 예술가의 독창성이 훼손되지 않는 자율적인 영역 안에서, 예술적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술의 효용을 찾는 데 원탁 참여자들이 우호적인 경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새로운 예술가들의 행동은 예술작품을 표현 양식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예술작품이 사회, 지역, 시민생활 등에 연결되고 기여하는 사회적 활용 양식으로 본다.
- 예술이 사회적 매개 기능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리할 때는, 창작자와 수용자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라기보다 수용자와 수용자 간의 소통을 매개하거나, 창작자와 수용자가 함께 사회 문제, 지역 문제에 매개되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예술가들의 행동에서 사회적 매개의 복층화, 다각화 양상이 나타난다.

○ 지배적인 의식들

- 원탁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사업들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으로서, 예술이 개인의 아틀리에와 스튜디오에 갇히지 않는 공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예술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이러한 발전된 인식으로 인해 예술은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강력한 견해를 묵시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과 행정지원의 효율성을 촉구하는 사유가 되고 있다.
- 원탁 참여자들 중에서는 예술정책과 문화정책에 대해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예술가 자신이 지원받는 예술진흥제도와 구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수용자를 위해 예술가가 봉사하는 교육체험 서비스를 한다거나,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서비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존재로 자신을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 예술 인식에 대한 전통적인 잔기

- 원탁 참여자들이 발언한 이야기 중 주목할 만한 특징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식인데, 이는 예술이나 순수예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아니라 예술이 고유한 가치가 있으며 사회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공통 인식이다.

- 이러한 상식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고정되어 있으나 이를 사회적으로 피력하는 방식 면에서 달라져, 사회적으로 예술이 확장되고 유연한 방식으로 예술가들의 독보적인 가치를 드러낸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4) 향후 동향과 잠재하는 방향성

○ 예술관념

- 순수예술에 대한 예술가들의 관심이 더욱 적어질 것으로 보이며, 예술의 개념을 규정하거나 비예술과 구분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예술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 무용하다는 인식이 확장되어 상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예술이 사회와 만나는 방식은 다변화와 분화하는 한편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고민과 기법이 발달하여 사회적 예술의 접근법과 방법론은 심화와 전문화 추세를 보일 것이다.
- 예술이 사회를 만나면서 융합적 방향을 취하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 새로운 예술, 다원예술에서 드러난 탈장르 실험예술, 복합장르 매체예술 이상의 것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에 예술적 방법을 결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예술가의 행동이 기존 장르를 넘어 여러 기법을 결합하는 창의성을 더욱 풍부하게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보편화되어 가는 방법론

- 거시적인 사회문제보다는 구체적인 고객과 실천적인 지역적 거점 현장에 집중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미시적 실천과 작은 창조들은 정책과 공공지원 제도가 취하는 방향에 따른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 지역거점 활동, 시민참여, 체험교육, 생활 공동체, 주민 봉사활동 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예술가들은 경험과 학습을 통한 발견을 강조하게 되며, 참여자들과 맺는 관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공동의 예술활동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 자신의 프로젝트 성과로 보는 추세다.
- 워킹그룹, 팀워크, 코워킹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룹워크 형태, 이질적인 사람들 간에 시너지를 내는 워크숍 방식 등을 당연한 예술창조 과정으로 생각한다.

○ 예술가의 성장과 접근법의 깊이

- 예술가의 사회적 활동, 예술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은 저마다 깊이가 생겨 예술의 사회참여가 아니라 예술가들의 문제의식에 기반한 사회실험 추세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술가들이 사회를 해석하는 창의성과 사회 문제를 정의하는 독창성을 갖고 공공성, 사회봉사, 문화복지 등의 공공영역에서 제도언어를 넘어서는 독립적 사회 실험, 다변화된 생활

실험으로 전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예술가들은 창작보다 매개 행위로 예술을 이해하고 있으며, 예술가가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들의 소통을 매개하는 존재, 예술가와 시민 간의 경험을 통해 소통하는 존재, 이를 통해 타인에게 경험과 성찰을 제공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예술가들이 지배적인 부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술가의 존재감과 인정 욕구

- 예술가들은 대부분 독립하고 싶지만 공공지원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생존가능성, 창조적인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투쟁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이는 한계를 넘어서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건강한 행동, 사회 속에서 예술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자부심 넘치는 행동이지만, 한편으로 자존감과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 특히 공공행정과 맺는 관계에서 불신, 무력감, 거부감이 증가해 왔으며, 예술의 자율성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사회적으로 예술가들의 공적 활동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예술의 공공성을 인정받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개인의 지적 노동과 사회적 노력에 대한 가치와 자존감에 대한 정서적 문제로 드러내는 추세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공공영역에서 자기성찰 능력

-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한 공공성과 예술가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임팩트 사이의 암묵적 구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지원을 받는다 해서 예술가들의 활동이 꼭 공익적인 것은 아니라는 비판적 인식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공공지원을 받은 예술 프로젝트에서 공공성, 공익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지원금에 의존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예술가들보다는 그들이 겪는 행정지원 제도의 비효율 속에서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차원의 문제로 볼 가능성이 크다.
- 잠재적으로 이와 관련된 무력감, 욕구불만 등이 드러나면서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자생의 사업체와 조직 운영을 통한 독립적인 예술 프로젝트 시도에 대한 선호, 가치부여 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합리한 지원제도에 대한 불신이 항존하므로, 개선을 위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며 인건비 책정, 장기지원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비판이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지원사업의 공공성보다는 행정의 공공간섭 문제에 초점을 둔 논의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5) 시사점들

집단면접에 해당하는 원탁대화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및 사회적 행동에 관한 시사점

- 현장 활동을 원활히 잘할 수 있는 학습 과정과 그간 현장 사례에서 도출한 적절한 활동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 활동가와 봉사자. 조직을 이끌어 가는 혁신가와 기업가로서, 지역사회 및 시민들과 소통하는 활동가와 봉사자로서, 그리고 개인 창작에 머물지 않는 사업을 만들어 가는 매개자와 기획자로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고 강화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예술의 사회적 매개, 실천, 참여 맥락에서 벌어지는 시도들을 발전시키고, 예술가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대화 자리가 필요하며, 공감과 공유를 통해 상호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 좌절하고 시행착오하고 성장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실천과 새로운 행동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존감과 사명감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 정책과 제도 면의 시사점

- 예술가들이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행정지원 절차의 개선인데, 이 중 특히 사회적 임팩트를 적절히 내도록 도울 수 있는 평가지표와 성과측정 방법을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
- 이러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예술의 사회적 참여에 대해 이해하는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 예술지원 제도는 선정과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 외에도 결과물이 아닌 과정과 관계의 지원방식을 강구하여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공공정책은 단년도 지원의 한계, 인건비 확보, 그리고 사회적 예술활동을 수행하는 예술가들이 지속가능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다른 지원방식에 대한 공론화 작업 등을 도모해야 한다.
- 이미 예술가들의 현장에서 전통적인 예술 개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나아가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가 무너졌다. 또 문화기획자 및 사업가, 교육자와 치료사, 기술인력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기존 예술가들의 역할을 넘어선 사회적 활약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지원 사업 중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개척하는 예술가들의 잠재력과 사명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현장지원 제도에 대한 시사점

- 지난 몇 년간 서울시에서는 예술정책과 문화정책을 구분해 나가는 움직임이 있었고,

문체부 역시 예술진흥과 문화지원을 나눈 지 오래다. 정부 및 지방문화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이런 구분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성이 크며, 현장 예술가들 역시 예술가 창작과 예술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영역, 그리고 예술가들의 사회적 봉사 영역을 구분하여 지원사업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 예술가들의 작업을 진흥하는 정책과 구분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 분화되었고, 다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의 영역이 발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 청년정책에 던지는 시사점

- 새로운 예술, 예술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가들의 임시고용이나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에 이용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봉사를 하면서 청년예술가들이 지속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대학 교육제도에 던지는 시사점

- 예술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개인의 아틀리에와 스튜디오를 벗어나 사회와 만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업을 증진하는 쪽으로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 특색은 무엇인가

장대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고민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일반적 인식, 대중적 인식, 기존 인식이 실제 예술 생태계와 사회적 현실 속에서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으며,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에서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 여겨진다.
 - 이러한 괴리와 부조화를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싶지만, 정확한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러한 변화의 정체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추구한 사람들이나 조직 및 단체들이 자신들의 기여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라 생각된다.
 - 인터뷰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인정 및 존중 욕구는 이러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들이 현재 소외받고 비주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부조화로부터 규정화에 대한 모순적 고민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인식의 부조화 현상은 삶과 예술활동의 통합이라는 변화와 만나 정체성 이슈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이것은 규정화 이슈로 연결되고 있다. 정체성 혼란을 해결하려 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틀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새로운 프레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측면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분법적인 접근보다 현재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예술활동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제야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 먹고사는 문제(경제적 활동)를 포함하는 일상적 활동과 예술활동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통합되고 있음
 - 기존 예술활동은 경제적인 삶이나 일상의 삶과 분리되었다는 인식이 강했고, 따라서

- 예술 분야의 분리성, 독특성, 수월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술활동이 일상적 활동과 통합되고, 이러한 일상적 활동에 경제적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삶의 모든 활동이 예술활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적 삶의 통합적 성격은 인간 삶 자체를 예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여겨진다.
- 또한 이러한 인간 삶은 기본적으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술이 사회와 맺는 결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의 대상으로서 사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함께하는 사회’, 또는 ‘사회와 함께하는 예술’이라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다. ‘삶과 예술의 통합’이라는 개념은 개인적 삶과 개인적 예술 관점을 넘어서서, 사회적 삶과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활동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 사회행동 분야는 다른 분야들과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예술가=예술’이라는 개념은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공통성을 드러내고 있다. 삶과 예술의 통합적 개념이라 해석되며, 이미 오래전부터 통합적 경향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는 이러한 흐름이 아주 작았기 때문에 주류로 편입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우리가 만든 행위를 남에게 제공했을 때 예술이 된다.” 또는 “사회 변화에 집중하는 예술” 등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주류 흐름에 영향을 줄 만큼 통합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 예술활동 다변화와 다양성 확대를 통한 예술 영역의 확장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통합은 기존 예술활동이 가지고 있는 수직적 차원의 수월성보다 삶이 가지고 있는 수평적 차원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삶의 다양성을 예술로 전이시킨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 형태로 발현되기도 한다. 즉 예술과 예술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예술의 영역이 사회 속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 예술의 현장성, 일상성, 실천성이 강화되고 있음
 - 삶과 통합하게 되면 작품의 고도화가 중요한 목적이 아니게 되고, 예술활동이 자신의 삶과 얼마나 잘 맞는지, 또는 자신의 삶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등이 중요하게 된다. 기존 예술은 일상이나 현장과 분리되어 있는 측면이 강했고 개인적 독특성과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현장성, 일상성, 실천성이 강조되어 실제 현실과 예술 간의 간격이 더욱 좁혀진 것이다.
- 지속성과 생존에 대한 고민이 매우 강하게 표출됨
 - 예술적 삶과 일상 및 경제적 삶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지속성과 생존 문제가 더욱 피부로 와닿게 되었다. 예술교육/치유 분야 인터뷰 중에서, ‘자신들을 치유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속성에 대한 고민은 예술적 영향력이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이고 본질적이면 좋겠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 예술활동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띠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예술활동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들의 성과에 대한 계량화를 필요로 함
 - 과거에는 예술가들이 특정 그룹과 소통하면 되었지만, 현재는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활동이나 모습들이 통합되고, 참여를 통해 예술이 사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경우, 당연히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언어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지속성과 생존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성과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된다.
 - 따라서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과 지표를 활용하기보다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성과 지표를 활용하고 싶어 한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곧 자신들이 예술활동을 하면서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들 중 하나가 바로 계량화된 지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량화를 통해 더욱 멀리, 그리고 더욱 넓게 자신들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확산시킬 수 있게 된다.
- 조직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연대와 협업 구조의 구축을 필요로 함
 - 지속성과 생존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조직화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연대와 협업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욕구다. 개인이 홀로 수행하는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나아가, 나와 타인이 같이하는 예술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사회와 함께하는 예술’적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 예술로 인한 작은 변화와 지속적인 조직적 구조가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됨
 - 과거에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큰 변화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예술활동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작은 투입이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큰 변화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로 예술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보인다.
 - 명작을 만드는 예술활동이 아니라 작은 예술을, 삶을 통하여 지속함으로써 큰 예술로 승화시키고 싶어 하는 특징을 보여 준다.
- 예술 과정의 사회화가 강화되고 있음
 - 위와 같은 흐름 속에서 예술 과정이 개인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예술 과정이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타인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행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과정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 또한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evolutionary)이고 누적적(cumulative)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예술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예술적 결과물뿐만 아니라 예술 과정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이러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음
 -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사람들을 돕거나 이들과 같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주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사회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 사회행동 분야도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행동 분야의 특성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많은 분야들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사회적 변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미션을 발견하기도 하고,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기도 한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규정 및 유형화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 개념화: 사회 발전을 이끄는 예술에 대한 시각

1) 예술은 사회 발전의 동인이자 조력자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다른 예술과 사회 발전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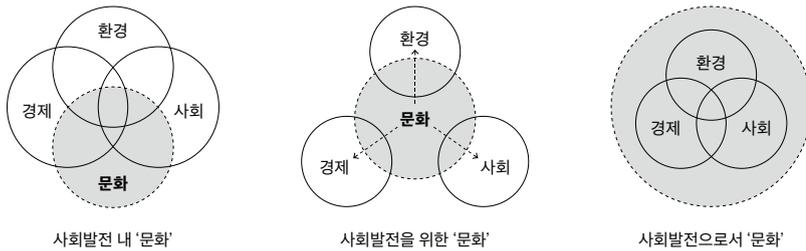
* 첫째, 동인 역할

-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개념에 따르면, 학문 분야는 물론 국제기구들은 ‘문화’와 ‘발전’의 관계를 깊이 인식했으며, 문화예술이 사회발전의 동인(driver)이자 조력자(enabler)인 것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의 개념화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 사회발전의 동인(driver)으로서 예술은 직접 이익과 간접 이익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삶과 관련한 일상창작, 교육치유, 도시재생(지역), 사회혁신, 사회행동 등 항목들과 관련해, 직접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예술을 통해 사회적 포용과 착근(rootedness), 회복, 혁신, 창조성 및 삶의 문화 향유 등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 둘째, 조력자 역할

- 조력자(enabler)로서의 ‘예술’은 관습, 생활양식(way of life) 등 보다 광의의 문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문화가 ‘발전’의 저수지이자 보편성을 부여하는 의미 장치로 규정될 수 있다.(이태주, 2014:13)
- 이에 예술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수단을 제공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에 능력과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문화는 시민들의 참여, 공동체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 문화 간 대화와 갈등 해소 및 동등한 권리보장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IFACCA, Culture21, IFCCD & Culture Action Europe, 2013)

〈그림 1〉 사회 발전에 미치는 문화의 역할 유형



출처 : Dessein, Soini, Fairclough and Horlings(2015), p. 29.

- 첫째, 사회발전의 한 기둥(pillar)으로서 '문화'는 문화가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환경, 사회, 경제 부문과 나란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예술과 창조적 활동의 특별한 기능에 관한 것으로, 독자적인 예술영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으로 유추가 가능하다.('공진화하는 예술')
- 둘째,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는 지속가능발전 전체 영역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때 문화는 환경, 경제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 세 요소 간 경쟁과 갈등을 조정한다.¹
- 나아가 인간과 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매개로서 예술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집단과 지역, 사회를 위한 변화 유도')
- 마지막으로, 사회발전 그 자체로서 '문화'는 일종의 사회적 가치이자 사회적 자본으로서 '문화'를 의미한다. 이를 통한 이해의 폭을 확장한다면, 예술은 사회를 포괄적으로 끌어안는 가치의 중심이 되면서, '지속가능성'을 창조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상적 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

2.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경향성

1) 원인 및 동기의 구분²

○ 다양한 동기의 모듬짓기가 가능

-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전과는 달리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다양한 동기가 출현하고 있으며, 이를 몇 가지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 개인 차원에서 수행한 예술활동이 의도치 않게 사회적 영향력을 발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처음부터

¹ 예술활동과 사회의 관계를 보자면, 사회적 문제제기라기보다 지역사회와 시민의 삶 등에 진입하는 양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전문가 연구회의, 2017. 12. 19.)

² 라운드테이블 녹취록에 근거하여 모듬별 정리.

사회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시간적 고려를 염두에 둔다면, 단기적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 비전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긍정적인 동기들이 바탕에 깔려 있기도 하다. 이를 몇 가지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동기의 모듬 짓기

* 개인적 동기로 출발

- 자기활동과 함께 즐거운 예술활동을 하며, 그냥 뭔가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 즐겁게 사는 것이 비전이고 사회공헌은 그다음 문제다. 즉 “참여자 모두가 함께 즐거운 하루.”
- 타인의 권유라든지 삶의 각박함 등의 이유로 ‘떠밀려 시작하다.’
- 새로운 것을 찾고 즐거운 방식을 고민하기
- 놀이는 하나의 꿈 성취를 위한 일환이자 스스로의 만족감, 즉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문화 만들기.”

“가장 좋은 문화와 예술은 나 자신을 성찰하고, 좋은 물음표를 나와 타인,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것”이다. (라운드테이블 #사회혁신, 2017. 10. 18.)

- 예술가나 대상자 모두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정체성을 찾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기
- 개인의 삶 문제 해결과 연대 가능성을 모색한다.

* 사회적 변화 꿈꾸기

-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 사회적 매개자 및 촉매로서 예술
- 자본에 의한 예술 잠식에 대한 반응
- ‘지배권력에 대항한 예술 탈주’로 서로 협력하는 예술을 꿈꾼다.
- 공동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만들기
- 예술가, 장인(노동자 포함)들의 가치 확산 및 사회화(예: 협동조합)
- 예술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 풀기
- 예술에 대한 사회적 시선 바꾸기
- 실천을 통한 사회적 기여(교육, 치유, CSR 등)
- 문화 향유자, 주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 높이기 등

* 미래적 가치 실현

- 대안적, 다원적 예술에 대한 고민, 새로운 실험과 창작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풀어 가는 방식을 찾아 나아가다. “대중이 미처 접하지 못한 99퍼센트의 예술과 99퍼센트의 대중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세상 만들기.”

- 예술의 소비와 자생적 생태계 구축
-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와 사회 만들기, 즉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의 행복 창조.”
- 조금 천천히 가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일상의 반응을 통한 예술작업 확장. “동시대 가치를 담은 창작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사람과 예술, 삶과 꿈을 이어 세상을 따뜻하고 윤택하게.”
- 만드는 것의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2) 사회 변화와 연동되는 예술활동의 목적성과 특징의 다양성

○ 현장성, 일상성 등이 강조되는 것은 사회와 예술의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

- 예술적 삶과 경제적, 사회적 삶이 통합되어 가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속성과 생존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예술의 일상화, 생활문화가 보편화되어 갔다.
- 기본적으로는 주체로서 자기규정과 성찰에 따라 자존감을 바탕으로 함. 이때 사회 변화에 따른 활동 유형이 변할 뿐, 기본적으로 예술활동에 대한 ‘인정’과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 공공성을 염두에 둘 경우는 사회적 자본의 소요와 합의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이슈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합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전문가 연구회의, 2017. 12. 4.)

- 사회적 변화와 개인 활동에 대한 부조화, 정체성 확립, 규정화에 대한 논의는 → 기존의 틀로 설명이 어려움 → 사회활동형 예술활동에 대한 개념화 필요 → 사회적 의미와 참여에 대한 강조 →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는 적극적 피드백 과정이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새로운 경향으로 인식되며, 이와 같은 형태로 경향성이 나타난다.
- 다만 이러한 경향성 변화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트렌드와 인식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 예술가들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은 수요 기반으로 확대됨

- 예술의 사회적 활동 경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대응되는 사회활동형 예술 양태도 다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와 연동하여, 예술가의 역할과 목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동기 제공자, 가이드, 해설자, 조력자 등의 변주로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등장하였다.
- 경향성은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따라, 예술가의 작품 자체가 강조되기보다 관객 스스로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목표가 되기도 한다.
- 앞에서 언급한 동기의 유형화 특성에 따라 스펙트럼이 변화하며, 개인적인 목적에서 사회 영향력이 확대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양상으로 발전한다.

- 메이커스와 사회혁신, 사회적 기업과 연동될 때는 소위 사회와 지역문제 해결형 예술이 등장하기도 한다.(예. 대안적 생산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 마련)

○ 예술의 사회적 활동 경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축적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남

- 라운드테이블 결과 예술계 활동영역 맥락, 사회문화적 분위기, 제도적 조건, 행위자들의 전략을 고려할 때, 다양성에 대한 단순한 개념화가 어렵다는 특성이 나타난다. 분류 체계에 따른 기계적 개념화는 어렵고 융합적 활동은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계의 미학이 나타나기도 한다.
- 중요한 것은 예술의 사회적 활동 경향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경로 의존적(path-dependence)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구태어 ‘새롭다’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있을지 고민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작업을 하면서 ‘정말 이게 새로운 예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체들이 새로운 예술에 참여하게 된 것은 스스로 예술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영역이 넓어진 것이다. 예술이란 본래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으며, 그것이 확장되면서 지역이나 사회의 약한 부분들과 만나며 (새로운 예술)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새로운 예술도 예술의 본래적 속성에서 확장된 건데, 이게 정말 새로운 예술인가?”(전문가 연구회의, 2017. 11. 8.)

- 다만 이전 활동들과 다른 점은 단순히 작품 중심의 예술활동이 아니라 복합적인 형태의 다양한 활동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며, 처음 의도와 달리 동기와 활동이 변화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활동에 따라 변곡점이 발생하고, 프로젝트나 역할에 대한 동기들이 조금씩 커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라운드테이블 #일상창작, 2017. 10. 24.)

- 예술의 사회적 ‘개입’ ‘매개’ ‘관여’ ‘연계’ ‘참여’ 같은 용어들은 라운드테이블 결과 거부감, 오해의 소지, 개념의 혼동 등을 유발한다 → **일단 예술가의 ‘사회적 활동’으로 통칭하도록 한다.**

○ 사회적 실천에 대한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정의와 속성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본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의로 정의

- 단지 예술가/기획자 개인의 산출물로 관객에게 관람되는 예술 및 작품에 국한하지 않는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의지와 목표보다는 파급 효과와 영향력에 보다 비중을 높일 수 있다.
- 집단과 지역, 사회, 개인 속에 작용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술 자체의 목적보다 변화 유발자로서 예술, 사회적 실천과 연계되는 예술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대중이 예술에 접근하는 접근성을 높여 주는 일종의 '쉬운 예술활동' 또는 '사회활동형 예술활동'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 이때 특정 영역을 배제하고 제외시키기보다 포용적 관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바라본다. 다만 공공예술(공공미술)과 같이 도시의 공공조형물에 우선 집중하는 경우, 사회적 실천보다 지나치게 정치적 활동이 우선되는 경우 등 목적성이 다른 경우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한다.
 - 예술가/기획자와 대상이 참여하는 공동의 소통/협력적 과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그 과정을 통해 관람이 아닌 체험 및 실천을 통해 사회, 지역뿐 아니라 예술가/기획자 자신도 공진화 하는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다.
- (전문가 연구회의, 2017. 8. 31./9. 15./11. 22. 와 라운드 테이블 결과 등 취합 정리)

3. 개입, 실천, 혹은 동행: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유형화

○ 예술과 사회는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 어느 시대나 예술은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한 적이 없으며, 그 둘의 관계는 20세기 들어 참여와 개입이라는 좀 더 적극적인 양태로 변모해 왔다. 최근에는 예술가들 작업이 사회적으로 접목되며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며 대중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사회적 참여 및 개입에 대한 통시적, 공시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개입이 갖는 특징 및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 프랑수아 마타라스(François Matarasso)의 1997년 연구는 참조할 만하다. 「효용인가 장식인가?-예술 참여의 사회적 효과(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Matarasso, 1997) 보고서에서는 특히 커뮤니티 관련 예술활동에 대한 참여와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다음 6개 주제로 접근한다.(Matarasso, 1997: pp. 12-13).
 1. 개인적 발전(personal development): 개인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변화를 다룬 것으로 자기확신, 교육, 기술,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포함.
 2. 사회적 결속력(social cohesion): 사람과 그룹 사이의 연결고리에 관한 것으로 범죄에 대한 거부 의식과 상호문화적이고 세대 간 이해를 통한 공감대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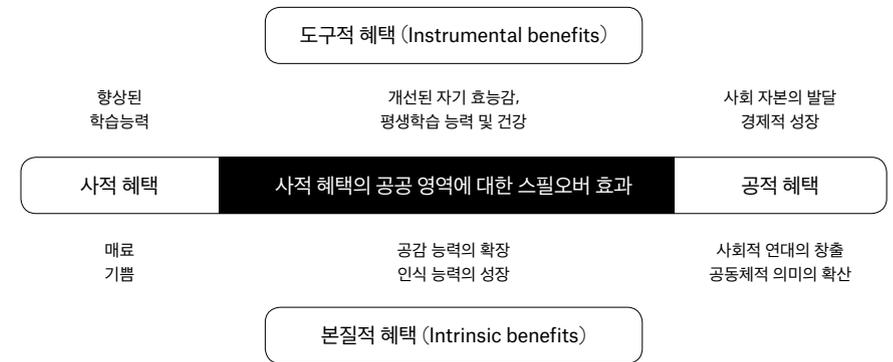
연대의식을 의미.

3. 공동체 의식 강화와 자기 결정력(community empowerment and self-determination): 조직화에 대한 역량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갈 동기 유발을 지지하고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의미.
4. 지역의 이미지와 정체성(local image and identity): 장소성에 대한 의식과 지역 소속감, 그리고 지역적 차이와 그룹 또는 공공기관의 이미지에 관한 것.
5. 상상력과 비전(imagination and vision): 창의성과 전문적 실천력, 긍정적 도전정신, 그리고 기대감과 상징성에 대한 공감 능력을 말할.
6. 건강과 웰빙(health and well-being): 예술을 통한 건강 회복과 교육적 효과, 그리고 삶에 대한 기쁨을 의미.

○ 예술의 사회적 혜택과 공동체적 의미

- 궁극적으로는 <그림2>와 같이 '예술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유형화는 예술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사회는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와 관련이 깊다.
- 「랜드 보고서(Rand report)」에 따르면, 예술의 "본질적 혜택"과 "도구적 혜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예술의 "도구적 혜택"을 굉장히 정확하고 목표지향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연구회의, 2017. 8. 31. 참조)

<그림 2> 예술의 혜택에 대한 이해와 효과



출처 : McCarthy, K. Ondaatje, E., Zakaras, L. Brokkes, A.(2004),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Santa Monica: RAND Institute, 박신의 (20130), p. 69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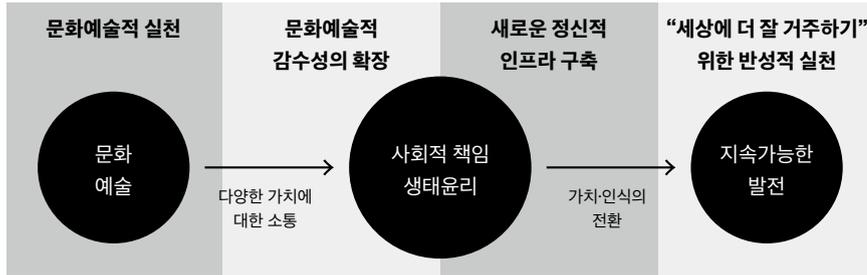
- 예술은 본질적 혜택과 함께 도구적 혜택뿐 아니라 사적 혜택과 공적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나아가 공동체적 의미 확산 및 사회자본 발달, 경제적

성장까지 염두에 둔다면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사회 발전에 따라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예술의 공공성 논의와 사회적 실천

- 이는 <그림3>에 도식화한 그림과 같이 예술의 공공성 논의가 결합되어 사회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깊다.

<그림 3>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예술의 공공성 논의와 사회적 실천



출처 : 민경선,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 2017, p. 228.

- 문화예술적 실천을 통해 참여자들은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공유하고, 생태윤리라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예술은 인간의 인식체계에 지속적인 자극과 교란을 가하여 삶의 방식과 가치에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이러한 인식과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 및 강도가 사회와 동행하고, 행위와 혁신을 일으키고, 개입 및 변혁을 위한 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으며, 사안별, 인식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라운드테이블 결과 논의와 기초적인 개념화

- 특정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는 예술가, 기획자들의 놀이로서 행위, 즉 ‘개인적 발전’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 사회 공감대 및 연대의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는 ‘사회적 결속력 강화’에 보다 많은 무게중심이 쏠리게 된다.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술이라는 틀을 활용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라운드테이블 #일상창작, 2017. 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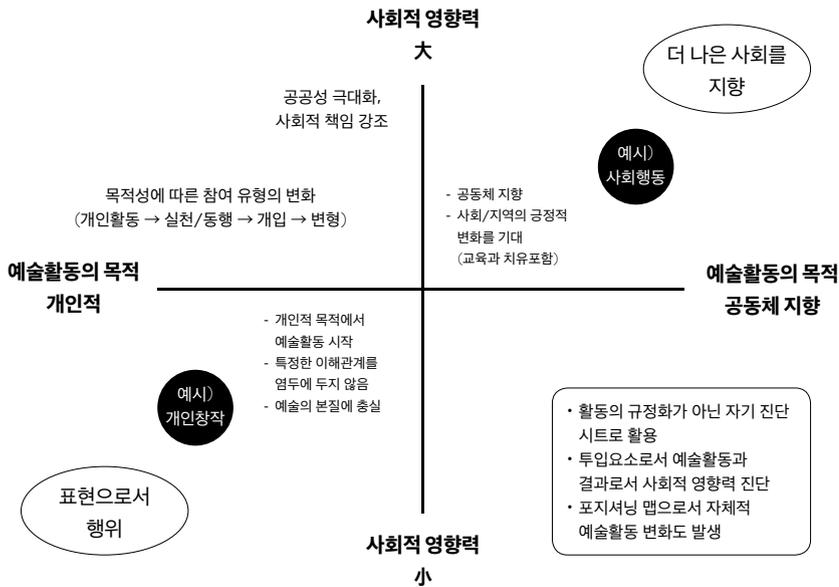
-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조직화 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경우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려는 경우이며,
- 도시재생 등 특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지역 소속감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지역의 정체성’이 중요해진다.
- 창의성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도전과 혁신을 꾀하는 경우는 ‘상상력과 비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 예술을 통한 교육적 효과와 치유를 기대하는 경우는 ‘건강과 웰빙’ 등이 해당된다.
- 이는 ‘예술을 통해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이해관계와 관련 있으며, 예술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효용가치와 도구로서 활용할 때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관계, 공적 혜택을 통한 사회의 변화가능성, 예술의 본질 등이 조화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상창작, 교육/치유, 도시재생, 사회혁신, 사회행동 등)

○ 예술활동의 목적과 사회적 이해관계의 틀로 정리해 보면, <그림4>와 같이 개인

- 창작으로부터 사회행동까지 다양한 포지셔닝이 가능함
- 다만 이러한 구분의 참여 강도와 목적성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단순한 참여나 동행 → 실천 → 개입 → 행동 및 변혁 등의 특징으로 전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개인적 목적에 따라 작품 활동 및 놀이의 성격을 갖는 예술인 경우에는 표현행위로서 예술에 보다 집중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 확신을 기반으로 개인적 발전과 단순 참여의 형태를 띠게 된다.
- 반면 사회적 결속력이 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공감대와 소속감,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창작 및 사회적 실천, 확산 등을 목적으로 메이커스운동 등과 연계하여 영향력이 커질 수 있으며, 신뢰와 예술을 통한 동반 성장으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될 수도 있다.
- 나아가 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져 사회적 개입과 변혁을 목적으로 사회행동과 실천을 강조할 경우, 민주주의의 완성 등을 희망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면 사회변혁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다. 이같이 예술활동의 목적성과 사회적 영향력의 결과와 조합을 이루면서 사회적 활동 참여의 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덜 성숙된 사회라면 예술가들이 나서야 한다. 어떠한 불편함에도 굴하지 말고 과감히 세상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것이 예술가들의 숙명이고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다.” (이광석, 「예술과 사회의 간극을 잇는 새로운 행동주의」, 2015)

〈그림 4〉 목적과 사회적 이해관계로 본 ‘사회적 예술활동’의 포지셔닝 맵 (안)



— 이러한 포지셔닝 맵의 구성은 활동의 규정화가 아닌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자기진단 시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예술활동 자체의 변화에 따라 해당 위치도 변화하는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

4.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개념 규정을 위해 추가 고려할 사항들

-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련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
 -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째, 예술과 관련된 담론 형성의 한계, 둘째, 편익의 불확실성. 셋째, 이해 관계자들 간 상이한 이해관계 등이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트렌드와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하게 나타나는 예술 규정과 개념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 라운드테이블의 대상 예술가 및 단체의 경우에도 예술인지, 문화인지, 예술가가 대상인지, 활동인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저희도 처음에는 저희 활동이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예술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실 아직도 예술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운드테이블 #일상창작, 2017. 10. 24.)

- 또한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는 예술가와 기획자들의 행동 등에 따라 편익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아 개념화 자체가 어렵다. 이에 예술활동을 통해 확실한 편익을 획득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나 편익 자체를 원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난다.
- 특정한 목적과 성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행정과 지자체, 자유로운 활동에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 예술가 및 기획자, 문화향유 등 혜택을 바라는 수혜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목적과 비전이 상이하다. 이 역시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규정에서 하나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술가들은 사회적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시민들도 이러한 활동을 원할까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 연구회의, 2017. 12. 4.)

예술의 사회적 활동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백선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 예술의 사회적 활동들이 성장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한 지원 방식을 재구조화

①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

○ 예술의 사회적 활동 목표는 단기간에 달성되지 않아

- 1년 단위로 진행되는 단기 프로젝트는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예술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단기로 매주 두 시간씩 만나고 있는 6주 차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 성북구에서는 8주 차 안에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만나게끔 엄청나게 공을 쏟았지만, 이 시간을 너무나 즐거워하시지만, 제가 가고 나서 8주 이후 이분들을 공동체로 묶어 내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아티스트커뮤니티 클리나멘)

○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에게 비전 제시 필요

-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는 점은 예술가들에게 불안함을 가중시킨다.

“저희가 10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내년에 뭐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너무 불안하죠. 생계와도 연관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큰 어려움이에요.”

(창작그룹 비기자)

- 예술의 사회적 활동 확대를 위해서는 예술가에게 지속가능한 일거리로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을 정책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후속 구조들이 탄탄하지 않으면 계속 나가는 실험 비용으로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러한 사업이 충분히 지속가능한 일거리로서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 주는 여러 가지 구조나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000간)

② 예술가를 존중하는 파트너십 형성

○ 공공사업에서 활동 주체로서 인정과 협력

- 예술가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공과 정당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원한다. 문화예술 콘텐츠 단체의 경우, 실행 주체로 활동한 실적이 향후 활동에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문화예술도 프로젝트할 때, 아예 행정법상에서 출처가 누구인지, 어떤 아티스트가 참여했는지, 주체가 누구인지를 공공에서 정확하게 명시만 해도 아티스트들이 훨씬 더 자생하기 좋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숨어 있고…… 사실 (행정은 후원으로 표시하고) 아티스트들이 전면으로 나가도 되잖아요.” (어반플레이)

- 실제 활동 기록과 업적에 대한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원래 추구했던 가치들은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정말 발로 뛰어서 확보해요. 그런데 세금으로 조성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상에서 모두에게 공유합니다…… 글 자체도 모두 작가들이 썼고, 사진도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놓은 건데, 그분들 사진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원래 가치는 중요하지 않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페이퍼_골목잡지 사이드)

○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예술가들 사이의 협의 구조 필요

- 공공기관이 지역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과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소위 상권이 무너진다고보다 재단에서 직접 하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일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면 모두 살아남고 양질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극단 날으는 자동차)

- 공모사업 진행 과정 중에도 지원 금액의 삭감, 지원 시기, 지원 스케줄 등 전 과정을 작가와 공유하고 작가의 작품 성격에 맞추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 지원금을 집행할 때 해당 기관에서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사업 집행에 대해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고, 삭감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작가들과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툭 공고가 나 버리니 당황스러운 거죠.” (공도창공 수동)

○ 예술가들에게 기획과 예산 집행의 자율성 부여

- 공공의 지원은 예산지원과 같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한정하고, 기획과 방향성은 예술가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지원이) 활동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로 접근하면 규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제약이 되고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는 기본 성장상

그냥 두면 잘 노는 것 같아요. 뭔가 최선의 기본적인 부분들, 사회보장의 어떤 부분 정도만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그냥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동대문 옥상낙원 DRP)

- 영국 사례에서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는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지원금 사용에서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저는 보조금, 기부금, 재원을 투자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어떤 가치를 위해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자원을 배분해 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매우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에 대해 배분하고 집행하는 자율성을 얼마나 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홍우주)

③ 사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간접지원 방식 모색

○ 예술가의 자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 공간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직접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지만, 세제 혜택이나 월세 지원, 또는 공동체 자산화 등 간접적 지원방식도 고민이 필요하다.

“저희가 오랫동안 예술가를 배출하고 활동한 것들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건물주들 에게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만들어진다면…… 현실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지원이 아닐까 생각해요.” (공간 사일삼)

- 그 외에 기업과 예술가의 연계를 통해 상호간 윈윈전략을 펼치는 방법, 지자체가 직접 지역 내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 홍보하는 방식 등도 제안되었다.

○ 홍보 지원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이미 존재하는 홍보 플랫폼이나 매체를 지원, 활성화하여 활용하면 좋겠다. (성과공유회 플로어)

○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서 지역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다. 문화재단 등 중간 지원 조직이 지역사회, 특히 학교와 거버넌스 관계를 구축하고 예술가들과 연계하는 중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의 경우 한국에서 처음 하는 일인데 1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학교와 연계해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술가의 일회적 이벤트였다면 1년도 못 갔을 텐데, 학교 정규수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속가능했던 거죠. 처음에는 물론 학교 문 열기가 힘들었지만, 일단 성과가 있으면 교장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그 성과가 계속 순환할 수 있거든요. (학교를 뚫는 것이 어려운)

개별 예술가들을 위해 국가나 기관에서 학교와 관계 맺도록 조율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들의 눈)

○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 예술가들에게 생존을 위한 툴 및 다양하게 확장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예술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술가들에게 비즈니스라는 것을 일깨우는 고급교육이 필요하다. 예전에 사회를 바꾼 예술가들은 발명가이기도 했고 철학자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지식이 너무 얕은 것이 문제다. 예술가들이 시대를 넘어가는 혜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한 결과물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다양하게 확장된 예술가의 롤모델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교육도 예술가끼리보다 경영하는 친구도 꺼서 진행해야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OOO간)

- 런던의 <아트 에듀케이터 양성 프로그램>처럼 예술가에게 관리와 기획력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예술가가 기획력이 부족하니, 집단에서 관리와 기획을 본격적으로 가르쳐 줘요. 관리 능력이 없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자괴감에 많이 빠졌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들의 눈)

○ 예술가를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시스템 구축

- 예술교육·치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와중에 정서적으로 힘들어질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등이 시스템적으로 구축되기를 바란다.

“사실은 제가 영국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제 말을 들어 주는 사람들이 시스템 상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니면 예술 프로그램 자체에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용연극단체 문)

④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 예술활동의 실현 기반으로서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

“진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원의 투입이나 지원이 있어야 해요…… 야전에서 활동하던 때와 서울혁신파크에서 활동하던 때가 비교되면서, 미리 이런 공간에 들어와 여기의 협업체계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관점들이 만나는 일을 미리부터 했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지금 혁신파크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환경적인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적정기술공방)

“서울의 유휴공간이 별로 없어 만나려 해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소소한 모임들을 예술가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 계속 생성시킬 때, 사회적으로 좋은 순환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티스트커뮤니티 클리나멘)

○ 활용 방향을 염두에 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간 설계 필요

- 공간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춘 공간이 필요하다.

“납땜을 해야 되는데 배기구가 없어요. 누수 문제 때문에 많은 메이커분들이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히터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다시세운프로젝트>의 메이커스 큐브들이 보기에는 예뻐요.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연구하시는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면, 지원사업에 따라 철새처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리수리협동조합)

○ 공간 지원 시 활동 규모 고려도 필요

-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에게는 그에 적합한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다.

“지금 있는 재활용센터나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3~4년 된 팀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공간에서 거기로 가게 되면 다시 정말 조그만 오피스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좀 더 판을 키우기 위해 이런 자산들이 필요했던 건데 그런 공간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작게 작게만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OOO간)

⑤ 사회적 예술활동가들 간 네트워크 형성

○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작가들과 맺는 네트워크는 단체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계기 필요

- 예술가 간 네트워크는 자기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일’이 되어 버리고,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요즘 재단 등에서 네트워크 파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해진 시간에 인사하고 소통의 움직임과 워크숍을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장르나 주제가 같다 해서 네트워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워낙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자리가 없다 보니까,

공식 사업 안에서 장치화가 되다 보니 더 반감까지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창작그룹 비기자)

- 예술가들 간에 각자 단체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협업 또는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공유회 플로어)

2.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연구 사업

①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이론화를 통한 가치 공유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장기적 관점의 논의 필요

- 예술의 사회적 활동들에 대한 관심도 늘고 양적으로도 확대되었지만 이론적 정의나 논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성과 발전에 한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예술활동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해석을 내리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정작 본인들도 문화예술 교육이 무엇이나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사실 많은 예술가들이 세컨잡으로 단순히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거든요. 원론적으로 용어나 예술에 관련된, 장르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응용연극단체 문)

- 창작 생태계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활동 설계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핸드메이드 시장이나 창작자들 실태가 어떤지 우리는 피부로만 느끼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젠 단지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생태계의 문제이고, 창작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우후죽순으로 여기 뛰어드는 사람들을 봤을 때 굉장히 난감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일상예술창작센터)

- 이론화의 부재는 공통의 언어 부재와 연결되고, 이는 결국 지역과 예술가 간, 행정과 예술가 간, 그리고 같은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 내에서도 소통이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 확산을 위한 사례화 작업 필요

- 예술활동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론화와 함께 사례를 언어화하고 확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초기에 미디어를 운영할 때 해외 업체들과 교류하면서) 국내 사례도 해외에 임할 수 있는 게 많고 그걸 언어화하고 모델로 만들어 퍼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우선 국내 사례부터 사례화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몇 개 사례를 묶어 ‘삼투압(BM)’이라 했는데, 이를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퍼 가면서 파장이 있었다.

이처럼 언어화하는 게 중요하고, 사회혁신 개념을 시민들에게 명확한 개념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베네프)

○ 예술가들 스스로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

- 예술가들이 연구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연구하도록 지원해 준다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활동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는 ‘불가사의한 자율학습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연구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소액 지원이었지만 프로그램이나 결과물에 대한 요구 없이 평소 연구하고 싶은 것을 연구할 수 있었죠. 하고 싶은 것을 존중받으면서 하는 느낌을 받았죠. 평소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가치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응원받는 지원들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창작그룹 비기자)

②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 마련

○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 필요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기존 성과지표로 평가하기 힘들지만, 여전히 노동 시간과 같은 기존 평가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예술활동의 질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기준이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평가체계는 공공지원과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공론화하는 데 준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활동을 수행할 때 증명 기준이 노동 개념으로 몇 시간 활동을 하느냐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예술이나 기획 활동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동 시간 말고 다른 것으로 측정할 수는 없는지, 가시적 성과 말고 그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존중하는 지표나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예술가나 현장 사람들이 스스로 증명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도 없고.” (창작그룹 비기자)

○ 단체의 활동 가치를 인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역 안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사업의 지원이나 평가 시 일률적인 틀 안에서 이를 접근하지 않고, 원래 단체들이 목적하는 가치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페이퍼_골목잡지 사이드)
- 정량적 측면에서 매출액이나 관객수 등으로 집계할 수 있으나, 정성적 측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측정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트브릿지)

③ 아카이빙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공공이 담당해 주길

- 현장 중심 활동들에 대한 기록(아카이빙)이 필요하다. 이 역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예술가들이 개별적으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중간 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장에 좋은 사례가 많은데, 예술가 개인이 그 가치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는 없어요. 사업마다 결과보고서 쓰기도 너무 바쁘거든요. 영수증 정리하고 시간 남을 때 한번 써 보는 것도 힘든 마당에, 사례집 내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정성을 쏟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이런 작업을 맡아서 해줄 장치들이 공공제도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근 많이 하고 있어요.” (창작그룹 비기자)

— 이미지나 텍스트 기록뿐만 아니라 실물 작품의 보존 및 기록,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정보를 온·오프라인 연계로 공개하는 것까지 확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어떤 한계를 느끼는 것 중 하나는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작업들에 대한 보관과 기록이에요. 이런 것들이 항상 소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나 국가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서 저희가 캠핑촌을 했잖아요. 이후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광장에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을 보관하고 싶은데 줄 수 있느냐?’였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나중에 역사적인 시기에 전시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그때 만들어진 작품을 서울시에서 보관했을 경우, 작가가 개인전을 할 때 자기 작품임에도 서울시에서 빌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나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현장 작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용산참사-파견미술_신유아)

3. 행정 프로세스의 조정과 간소화

○ 프로젝트 기간의 유연성 필요

—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에 따라 사업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공모지원 타임라인 자체가 집중적 활동을 방해한다.

“공모지원이 3월, 4월에 공고가 나와요. 그리고 보통 6월에 시작해요. 더워요.(웃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에 뭘 해보려 하면 정산 준비해야 되고, 보고서 준비해야 되고, 12월에 끝나니까.” (공도창공 수동)

“대부분 공공기관인 지원처에서 입찰 시기를 12월까지로 조정하고 2월까지 결산하게 되면 문화예술단체들의 사업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연간 상시적으로 다양하게 문화기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극단 날으는 자동차)

○ 지원사업에서 행정 절차나 증빙의 간소화

— 많은 예술가들이 행정의 과도한 절차와 증빙은 예술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느끼고 있다. 실제 활동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행정 절차 문제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도한 절차는 개선이 필요하다.

“신뢰를 가지고 행정 절차를 조금만 줄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심지어 먹은 음식까지 찍어서 올려야 돼요. 피자값이 1만 5,800원이면 피자 먹는 장면까지 찍어서 올려야 돼요.” (일상예술창작센터)

“저도 공공자금을 써 봤는데, 아까 김성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걸 나중에 증빙하는 게, 저는 진짜 논문 이후 그 정도 두께의 서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몇 번을 불러 다니면서.” (적정기술공방)

— 스타트업 및 문화예술단체가 공공으로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 및 과정의 간략화가 필요하다. (어반플레이)

○ 공공의 인증과 시스템적 지원 필요

— 예술가들이 사회적 예술활동을 확장하거나 지속하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동안 해 온 활동을 통해 그들의 역할과 성과를 공공에서 인증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희는 계속 활동하는데, 시의원들은 매번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서류 준비하라고 하고, 보고서 제출하라 하고, 저희를 계속 증명하라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 왜 신뢰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의심하고 감시받는 사회적 분위기들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 더 나은 분위기를 형성해 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 기획자나 대표자 인건비 지급 문제

—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나 대표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도 어려움이다.

“그 시대는 그런 상황이 맞았던 것 같기는 한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대표자는 월급이 없고, 인건비 체계를 그렇게 해야 하나 싶어요. 이런 부분이 만약 고쳐진다면 이 일에 더욱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죠.” (무소속연구소)

2017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2017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환(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책임연구/일상창작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데레이터 안영노(문화기획자,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공동연구/사회혁신 장대철(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공동연구/지역활동 이병민(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공동연구/교육 치유 백선혜(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사회행동 김종길(미술평론가)

보조연구 한윤선(사회혁신), 정수희(지역활동),
최혁규(일상창작), 김새미(교육/치유),
김진주(사회행동)

기초조사 김종길(미술평론가), 김진주(아키비스트)

코디네이터 류윤희

연구총괄 한지연(前 지역문화본부장)

기획·운영 이현아(前 지역문화팀장), 김진환(지역문화팀),
김효진(지역문화팀)

운영보조 이춘영(前 지역문화팀)

편집 김효진(지역문화팀)

교정·교열 이정화

디자인 낮인사

인쇄 퍼지컴인쇄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발행일 2018년 5월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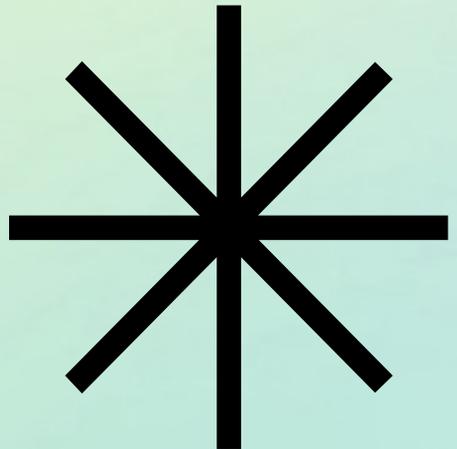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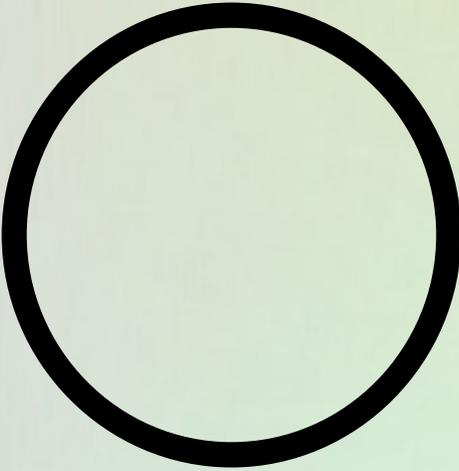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

ISBN 979-11-86489-18-5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3)



ISBN 979-11-8648918-5



9 791186 489185